

文鮮明先生말씀選集

306

文鮮明先生말씀編纂委員會

머 리 말

世界平和統一家庭聯合 會長 黃 善 祚

문선명 선생, 16세에 하늘로부터 인류 구원의 소명(召命)을 받으신 후 일생을 오직 일념으로 천도(天道)를 중심삼고 살아 오신 분! 선생은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버런 문에게 재산이 있다면 나를 위한 고생보다 공적으로 고생한 것, 그것밖에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했습니다. 섭리사적인 입장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하였습니다. …… 선생님은 지금까지 나라로부터, 세계로부터 술한 반대와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에서 반대를 받았고, 기독교와 유대교, 공산당까지 반대를 하였습니다. 역사 이래 세계가 이렇게 달라 붙어서 한 사람을 없애 버리겠다고 공격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도 세계적인 챔피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먹으면서도 옥살박살나지 않고 또 망해 버리지 않았습니 다. 추호의 미동도 없이 더욱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 레버런 문은 인류를 해방하고, 영계를 해방하고, 지옥을 해방하고, 또 하나님을 해방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제105집 101~103페이지 참조)

선생의 삶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고난 그 자체’입니다. 이 고난의 성격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선생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소망했던 그 재림주이며 구세주이고 인류의 참부모로 오셨습니다. 이미 세계 185개국에서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참자녀의 길을 가기 위해 참가정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자기정체성(自己正體性)은 말씀과 삶을 통해 검증이 되어집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에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 역사와 세계의 제 문제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해명이 됩니다. 성서에 예언된 새 말씀의 약속은 그분 속에서 성취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성’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의 말씀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자체가 곧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 곧 성육(成肉)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곧 진리이며 ‘말씀’이라는 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독자께서는 선생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위대성을 이해하리라 확신합니다. 선생의 말씀의 경지는 너무 높고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은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啓示)해 주셨습니다. 즉, 침묵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인간이 악의 혈통을 갖고 있기에 자녀이되 자녀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처절하게 소외되신 슬픈 하나님께서 선생은 ‘말씀하시게’ 하셨습니다. 교권과 교리, 그리고 현란하게 치장된 건물 속에 갇혀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게’ 하였고, 인류의 부모이되 부모로서 찾아오지 못하신 하나님을 ‘부모되게’ 하셨기에 선생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체(啓示體)’이십니다.

둘째로, 선생은 인간을 무지와 혼돈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고력이 있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존재 자체도 다 해명하지 못한 비극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

은 독자적 존재가 아니고, 타자(他者)와 떼어 수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성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선생은 궁극적 해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도(天道)를 지키시는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본보기 노정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넘치는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선생은 만물세계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은 모든 사물 하나하나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개성진리체(個性真理體)입니다. 창조본연(創造本然)의 인간의 주관을 받음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발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은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말씀을 통해 만물세계에 대한 창조본연의 가치를 밝혀 주셨고, 인간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케 하여 만물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로 오신 문 선생님 내외분은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며,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라’ ‘위하여 살라’는 가르침을 실체적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상속시키시기 위해 수고하십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생명의 말씀과 숭고한 삶 그리고 실적을 통해 마침내 새천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찾아 봉헌하시고, 이 땅에 축복가정왕으로 안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세계인 천일국, 제4이스라엘국 곧 평화의 왕국을 향해 평화유엔을 창설하시고 세계를 하나의 심장권으로 묶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독자제위께서도 천일국의 주인이 되어 평화왕국 건설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차 례

머리말	3
절대 공명, 절대 통일	9
섭리적 총정리	84
참사랑의 복귀역사	144
하나님의 인류구원을 위한 참부모의 생애	207
참부모와 영계	258
성약시대 축복가정이 가야 할 길	319

절대 공명, 절대 통일

지금부터는 뭘 해요? *벌써 수련회는 끝날 때가 되었다구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이곳을 떠나야 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예요. *뭘 해요? 말씀은 많이 들었고...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말을 많이 들었고, 혼독회도 많이 했지요? 「예.」

일체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명 과정을 거쳐야

앞으로 통일교회 지도자들은 설교니 무슨 강의 같은 것은 염려 안 해도 괜찮아요. 혼독회 하면 어디든지 교회 책임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얼마만큼 혼독회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가치, 중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상헌 선생의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을 전부 다 몇 번 혼독했어요? 세 번씩은 다 했지요? 「예.」 여섯 번 했어요? 그럼 6백 번, 6천 번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구요. 그럴 때 뜻을 생각하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중심삼고 보게 되면, 원리 말씀은 영

1998년 8월 27일(木) 오후 1시,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브라질 자르딘).

* 이 말씀은 '세계평화와 이상가정을 위한 제1차 40일 특별수련회'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계의 원칙인데, 원칙에 대해서 상대적 현상세계가 하나되게 될 때는 반드시 공명권이 생기는 거예요, 공명권.

남자 여자가 만나면 사랑이 공명하지요? 거기에서 진동이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의 실상이라는 이것이 말이에요, 그 원칙과 형상, 상대가 하나가 되면, 그 실상이 자기 마음에 공명이 되면 지금까지 듣지 못한 말을 들을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일생에 가야 할 길을 확실하고 틀림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출발지가 영계이기 때문에 지상에 관한 것은 근원지가 아니라 결과적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하나되려면, 일체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명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긴 아이들이 젖을 먹게 되면 말이에요, 그 눈을 바라보고 다 이럴 때는 말은 못 하지만 공명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6개월만 돼도 비교해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미인이냐, 아버지가 미남이냐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 자기 얼굴도 비추어 주면 6개월만 되면 자기 얼굴을 보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보고는 ‘나를 누가 닮았느냐?’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를 닮았느냐, 아버지를 닮았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누가 닮았느냐? 엄마가 나 닮았다, 아빠가 나 닮았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 닮았어?’ 할 때는 누구 닮았다고 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누구를 닮았어?’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나 닮았다.’ 그래야 된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았다면 얼마나 멀어요? 그건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 ‘아빠 엄마가 누구 닮았느냐.’ 하면 ‘나 닮았다.’ 하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는 ‘아들이 누구 닮았느냐, 딸이 누구 닮았느냐?’ 할 때 ‘나 닮았다.’ 그러지요? 내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라는 것은, 주체도 나를 확실히 좋아해야 되고 객체도

확실히 자기를 인정해야 됩니다. 전부 다 자기를 백 퍼센트 인정하면서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주체 대상이 종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 되어야 되고 횡적으로 하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천주의 중심 존재로서 둘이 하나되고 싶어해

여자로 생겨나서 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왕님이 한번 되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도 마찬가지로요.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하면 ‘왕이 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은... 왼손보고 ‘너는 뭐가 되고 싶어?’ 하고 물어 보면 ‘세상 왕 중의 왕의 왼손이 되고 싶고 바른손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를 바른손이라고 하고 여자를 왼손이라고 하면 여자의 소원이나 남자의 소원이나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여자는 자기를 중심삼고 개인적 중심, 가정적 중심, 국가적 중심, 세계적 중심, 천주적 중심, 하늘땅 중심, 하나님 대신 상대가 되려고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중심, 중심, 중심, 플러스 중심, 중심, 이렇게 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그래서 부모가 되고 싶다 하는 거예요. 부부가 됐으면 뭘 하고 싶으냐? 왕자 왕녀를 낳고 싶다 이거예요. 일본 색시들도 그래요? 한국 색시들도 그래요? 서양 여성들도 마찬가지로요. 서양 여자 어디 있던데, 없나?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보고 물어 보면 하나님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되고 싶소?’ 하면 천주의 중심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심 가운데 몸 마음이 주체 대상이 되었으면, 마음도 천주의 중심이 되고 싶다고 하고 몸도 천주의 중심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어서 뭘 하고 싶소? 따로따로 있고 싶소, 하나되고 싶소?’ 하면

하나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통일이 필요해요, 통일이.

눈이 하나만 있으면 이 한 눈으로 저기 물건을 볼 때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 신경의 초점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초점을 딱 맞추면 확실히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눈이 둘이 되어 있는 것은 통일, 하나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근본과 결과, 근원과 결과가 하나되기 위한 것이다, 상하가 하나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가 딱 되어 가지고 눈이 좌우로 들어와 가지고 상하를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왜 눈이 둘이 되었느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상하도 좋고 좌우도 좋기 위해서 둘이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왜 눈이 둘이라구요? 「상하 좌우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상하 좌우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코가 하나면 얼마나 편해요? 구멍이 하나면 얼마나 편해요? 이거 왜 둘이 갈라져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야단이에요? 여기에 오던 공기가 여기서 사위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다 그거예요. 초점은 반드시 사위기대 초점을 맞춰야 되겠기 때문에 공기도 들어가서 초점이 되어 가지고 천지의 도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존재는 주체 대상 관계로서 통일되기를 원해

그래, 사위기대가 필요한 거예요. 입이 왜 이렇게 둘이예요? 입도 그래요. 입이 이렇게 살이 여기서부터 두껍고 커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늘땅의 원형을 닮아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입술도 둘이 하나되기 위한 거예요. 사위기대예요, 이게.

요것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한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중? 「인중입니다.」 인중이라고 그래요, 인중. 인중이 여기 딱 내려와서

는 입술과 사위기대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딱 맞아떨어져서 땀이 흐르면 말이예요... 입술이 이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 사람은 고집이 세요. 천지(天地)가 지천(地天)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중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땀이 흐르면 입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르르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이라구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고집이 세 가지고 남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아니라고 하고 말이예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예요.

그거 다 사위기대라구요. 전부 다 닳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싸악 되어 있어야지 요것이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얼마나 간지러워요? 입술이 여기서 싸악 해 가지고 이렇게 짹 들어가야지요.

그래, 이 입술이 2밀리미터만 틀려도 발음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소리도 달라지고 말이예요. 그거 한번 해봐요. 2밀리미터만 틀어져도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연히 다 맞게 해 가지고 박자가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파의 그 파동수(주파수)에 다이얼로 맞추면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딱 그것이 일정하게 되면 전부 다 공명하는데, 남자 소리와 여자 소리의 화음이 듣기 좋다는 거예요.

남자는 ‘왕왕왕!’ 하고 여자는 ‘히익!’ 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여자는 소프라노로 높고 남자는 낮은 거예요. 성격은 말이예요, 여자는 전부 다 뭐라고 할까, 유(柔)하고 남자는 강(剛)해요. 이렇기 때문에 위로도 맞고 아래로도 맞게 되어 있다구요.

왜 그렇게 생겼느냐 하면, 상하전후좌우 관계, 주체 대상 관계의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화음은 뭐냐 하면, 공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공명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들여다보고 웃고 좋아하고 말이예요. 그 두 남자 여자의 눈이, 주체 대상인 남자의 눈과

여자의 눈이 좌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되는 거예요. 사위기대예요, 사위기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만 가지고는 반 조각입니다. (한 식구를 지적하시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여자는 반 조각이야. 1엔짜리를 반으로 찢어 놓은 것이 여자예요. 그것을 완전한 1엔짜리로 맞추는 것이 결혼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그래서 갈라졌던 것을 갖다 붙이면 이걸 하나님한테 가져가도 오케이, 부모한테 가져가도 오케이, 선조한테 가도 오케이, 억만년 오케이예요. 고이 사랑해서 갖다 붙여 가지고 가지 않으면 ‘푸푸푸!’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1.2, 1.2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조금만 틀리면, 0.8, 1.2 되게 되면 각도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상태로 오래 보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공명을 하지 않아요. 공명(共鳴)이 아니라 공파(共破), 공반(共反)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는 완전한 존재는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얼굴을 볼 때 말이예요, 눈이 마음대로 깜빡거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상하관계를 맞추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이렇게 딱 할 때는 이것은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깜빡거리는 것도 그래요. 측 눈을 벌렸을 때 물을 뿌려 주는 거예요. 그래, 물을 뿌리기 위해서 눈이 깜빡깜빡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동물들도 전부 다 눈이 깜빡깜빡한다고요. 물고기는 어때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고기는 물 가운데 들어갔으니 필요 없는 거예요. 고기가 눈을 깜빡이는 것 봤어요? 만져 보면 뻘뻘해요. 동물과 다른데도 잘 본다 이거예요. 물에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위기대를 이뤄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야!’ 할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야!’가 안 돼요. 숨을 크게 쉬고 손을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람이 될래?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래?’ 할 때 ‘요만큼.’ 이래요? ‘우우우...!’ 이러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보이

시면서 말씀하심. 웃음) 구형이 되겠다는 거예요. 최고로 높고, 최고로 넓은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통과 풍습은 그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공명하고 통일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이 형제예요, 동지예요?

가정이 천주의 중심

아줌마! 이 아줌마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줌마예요. *선생님이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줌마가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언제든 지 이런 집회에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뭘 하러 왔어?’ 하면,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다구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그거 정말이야? *정말? 「정말입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구요. (웃음) 저렇게 얼굴이 빨갱게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태연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해방받은 여자가 되었다구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이제는 안 와도 되지? (웃음) 요전에는 구국헌금을 만 달러씩 하라고 해서 헌금을 했는데, 이제는 10만 달러씩 하라면 어떻게 해야 할 테예요? 구국(救國)이 아니고 구세(救世)헌금을 10만 달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일본 여자들이 수련을 받으러 오려고 하니깐 아버지도 반대하고, 아들딸도 반대하지요? ‘엄마, 가지 마! 엄마가 고집을 부리니까 우리가 힘들잖아?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어?’ 하면서 투덜투덜 했을 거라구요. 구국헌금을 1만 달러로 하면 구세헌금은 얼마로 해야 되겠어요? 천 달러! 천 달러, 괜찮지요? ‘세계는 국가 안에 들어가라!’ 할 수 없지요? 국가가 세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느냐? 가정을 중심삼은 기준이 센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아들

딸이 있다구요. 세계도 그렇다구요. 거기에도 아들딸들, 형제들, 부부들, 부모들이 있어요. 천주의 모든 것들이 그러한 공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90각도라는 거예요. 그 90각도에 안 맞는 것들은 빼 버리는 거라구요. 그 모든 것의 중심점, 뿌리와 이삭을 연결하는 중심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지요? 일본 사람들은 큰일이라고요. ‘부모가 어디에 있어? 부자 관계, 부부 관계가 뭐야? 부모가 서로 좋아하다가 아들딸을 낳았지, 낳고 싶어서 낳았나? 부모가 득을 보려고 낳았다.’ 하지요?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부모를 착취의 원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존재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없는 사람, 뿌리가 썩은 것은 줄기와 가지의 모든 것이 썩는 거예요. 존재가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부모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의 씨예요, 씨.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절대적인 씨예요, 씨.

오야마다가 통역을 참 잘한다구요. 오야마다가 있기 때문에 한일 교육도 필요하다구요. 여기 미국 사람까지 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도 전부 다 내가 얘기하면 오야마다가 영어도 할 수 있고, 내가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도 할 수 있다구요. 편리한 통역을 잘도 데려다 놓았지요? 「예.」 통역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예.」 어디서 만나면 도시락 하나씩 사 줄래요, 잔칫상을 해줄래요? 「잔칫상을 차려 줄 겁니다.」 잔칫상?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돈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돈 될래, 사돈 안 될래?’ 그 말이에요. 「돼야지요.」 오야마다가 생기기를 잘생겼어요? 미남이에요, 추남이에요? 「잘생겼습니다.」 에이, 잘생기기는 뭐가 잘생겼어요? (웃음) 이마에 꼬리가 있다구요. 이게 번대머리가 되어야 할 텐데 쥐꼬리가 됐다구요.

왜 주체 대상이 생겨났느냐? 공명하기 위해서이고, 통일되기 위해서

입니다. 노래할 때, 조화, 공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가처럼 힘을 자랑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공명을 잘 하느냐, 사랑의 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노래를 하는 것이 공명을 잘 하느냐? 어떤 거예요? 「사랑의 화음을 일으키는…」

그래, 여자 노래는 남자가 듣기 싫어하고, 남자 노래는 여자가 듣기 싫어한다. 그래요? 남자가 노래하는 것은 남자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여자들이 별나게 듣기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자가 노래하는 것은 여자는 듣기 싫어하는 거라구요. 노래 잘 하는 사람을 둘씩 데리고 다니면 언제나 싸움이에요. ‘네가 잘 하나, 내가 잘 하나?’ 이래 가지고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내가 잘해 가지고 관중을 전부 녹였어! 요놈의 자식, 요놈의 간나.’ 하면서 싸움만 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노래하는데 남자들이 많이 있는 청중 앞에서 노래하는 게 신나요, 여자들이 많이 있는 청중 앞에서 노래하는 게 신나요? 어떤 거예요? 남자는 말하지 말라구요. 여자보고 물어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신나요? 여자가 많이 있는 데서 여자가 노래하는 것이 신나요? 여자가 노래하는데 남자가 많은 것이 신나요, 여자가 많은 것이 신나요? 남자가 많은 것? 「예.」 (웃음) 그래서 여자는 밤에도 여자, 낮에도 여자, 저녁에도 여자, 늙어서도 여자, 죽을 때까지 영원한 여자라는 거예요.

공명하는데, 남자만 있어 가지고는 공반이 벌어져요, 공반. 미인 여자가 하나 있으면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여기 미남이 있으면 여자가 미남한테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공명이 안 됩니다. 주체가, 플러스가 하나인데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들이면 주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야 되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맞출 수 없어요. 영원히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하나되는 데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야 합니다.

상대이상의 통일권을 이루기 위해 결합하는 것이 원리

*그렇게 생각하면, 한 미남자를 사이에 두고 두 자매가 싸우게 될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대답할 거야? 「누이동생입니까?」 누이동생이 아니라구. 두 자매가 한 미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좋겠느냐는 거야. 아줌마! 어떻게 해? 몰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없으면 언니가 부모 대신이라구요. 그럴 경우에는 언니가 동생을 위해서 전부 다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한 하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또 동생은 부모와 같은 언니를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양보한다.’ 하는 각오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를 중심삼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둘이 이렇게 해도 맞고 이렇게 해도 맞는 거예요. 공명되는 거라구요. 그러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서 하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의 눈깔을 하나씩 빼서 바꿔치면 어떻겠어요? 이 남자의 눈은 여자를 보고 싶어하고 이 여자의 눈은 남자를 보고 싶어하는데, 절대적인 남자와 절대적인 여자가 아니면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절대적 여자, 남자는 절대적 남자가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자 눈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공명하는 거예요. 완전한 통일입니다. 그것을 중심삼은 것이 도덕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자, 그러면 왜 둘이 생겼는지 알겠지요? 여자 앞에는 뭐가 필요해요? 「남자가 필요합니다.» 남자 앞에는 뭐가 필요해요?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 여자의 입에서는 남자, 남자, 남자, 남자, 밤에도 남자, 꿈에도 남자, 날아가도 남자, 죽어도 남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여자는 뭐예요? 또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여자, 여자, 여자, 여자!’ 그래야 돼요. 한국말은 ‘여자’를 거꾸로 하면 ‘자여’가 돼요. 자여 자여, 잡시다 잡시다, 이렇게 된다고요. 또 그 다음에 줍시다, 줍시다가 된다고요. 여자들은 자는 데 친구요, 주는 데 친구다 이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머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원리세계를 찾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를 딱 하게 되면 열까지 연상해 가지고 드르륵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원리세계가 공식적인 상대이상의 통일권을 이루려고 결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합하느냐?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거라고요. 최고의 통일이 무엇이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요. 왜 피가 영기느냐? 사랑이라는 것이 통일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가 그렇게 영긴다는 것입니다.

왜 피가 영기느냐 하는 시험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동대 입학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모두 다 낙제인데, 통일교회의 멤버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야, 일등이다! (웃음) 왜 웃어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그래, 나는 피의 결합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화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 피가 나를 통일시켜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상상대가 되려면 상대적이어야

*이런 미인은 어떤 남자와 결혼하면 좋겠어요? 미남자와 결혼하면 좋겠어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산이 어울리려면 말이에요, 큰 나무가 있으면서 작은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어울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가 아니라 일본어로 말하면 삼나무라든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완전히 자라기 이전에는 전부 다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못 쓰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무들은 큰 나무가 작은 나무들과 어울려 있으면 균형이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삼나무는 전부 다 가늘어서 그렇지 못합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미남자의 이상적 상대는 미녀예요, 추녀예요? 얼굴이 조그마한 사람에게 더 조그만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망하라는 것입니다.

임자 부인이야?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쇠로 말하면 강철이예요. 쇠는 소리가 ‘땡!’ 하고 나지만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부우우우!’ 이렇다구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아들딸을 낳을 거예요. 「예.» 딸도 똥똥하고, 장군 여편네가 되고 말이에요. 장군 한번 되고 싶지 않아?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군 같은 아들딸을 낳으라는 거예요. 어머니 같고, 처자 같고, 밤에 어디 한 대 때리고도 ‘나 젓 먹여 줘. 젓 좀 먹여 주고 사랑해 줘.’ 그럴 수 있는 여편네라구요.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똥똥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둥그렇게 똥똥하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여자 남자 둘밖에 없는데 똥똥하게 이렇게 퍼지고 말이에요, 또 이렇게 호박같이 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럴 때는 오십 난 똥똥한, 호박 같은 남자 앞에 참외 같은 20대하고 결혼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려가는 운세고, 하나는 올라가는 운세라구요. 둘 다 올라가면 야단이 나요. 야단 난다구요. 뭐냐 하면 환경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눈이 좁아요. 병나게 되면 큰 일나요. 병나게 되면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요. 이 여자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라구요. (웃음) 요것이 좁은 사람은 병나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막혀 가지고, 골수로 흘러가는 길은 괜찮지만, 이것이 골수도 틀리고 그러면

반드시 병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맞으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관상쟁이가 아니라구요. 천지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치를 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큰 눈이 있는데 말이에요, 둥그렇게 이렇게 보이는 여자들은 비밀이 없어요. 사흘도 안 가서 전부 털어놓는다고요. 눈이 요만큼 되고, 3분의 2는 덮이면 이걸 정략가고 모사예요, 모사. *지혜로운 남자는 위는 작고 아래가 길어요. 그런 사람은 지혜의 왕이 됩니다. 선생님의 눈이 좀 그렇지요? 왜 또 보노, 이 쌍것들? (웃음) 웃는 것도 남자들끼리 웃으면, 그 다음에는 싸움을 하더라도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돈 문제 가지고 ‘하하하!’ 좋다고 했다가도 그것이 맞지 않으면 이마가 터지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정치도 그렇고, 돈도 그렇습니다. 학자들도 전부 모여 앉아서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이래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요. ‘사전에 없는 말, 고전에 없는 말인데 네가 이렇게 때문에 맞아, 안 맞아?’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자만 하나 딱 세우면 싸움보다도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양쪽이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자를 보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반드시 술 먹고 나서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80퍼센트는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생 같은 여자가 있어 가지고 여우같이 꼬리를 흔들면 전부 다 정신이 그쪽으로 팔리는 것입니다. 여우가 꼬리를 이렇게 흔들지요? (웃음) 왜 그렇게 웃노? 그렇게 동물의 세계를 연구하지 않으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미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은 40일 동안 들으면 40년은 우려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절대 필요 없지 없지 없지 않느냐? 필요해? 「예.» 그래? 얼마나 필요해? 죽어도 필요해? 「예.» 영계에 가더라도 선생님이 필요하지요? 영원히 죽도록 가장 필요한 것이 참사

랑의 참부모지요?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많이 배웠지? 「예.」 무엇을 배웠어?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위하여 삶으로써...」 남자를 대해서 어떻게 해?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결론은 그거예요.

남자 여자가 주체 대상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면 지옥행

그래, 여자 남자가 어떻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편이 침을 흘렸으면, 침을 이렇게 하는 거라구요. (행동으로 해보이심. 웃음) 아니예요.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침을 흘렸으면 그것을 싹 해 가지고 말이에요, 전부 다... 여기에 하게 되면 옷이 나중에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나 뒤에다 하게 되면 아무리 하더라도 자리가 안 난다구요. 궁둥이를 싹 만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허리띠 아래를 쓰옥 만지면서 씻는 거예요.

제일 좋은 손수건이 뭐냐 하면 가죽 손수건인데, 그것이 손이에요. 무슨 손수건? 제일 좋은 손수건이 뭐라구요? 가죽 손수건이라구요. *가죽 손수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죽 손수건으로 싹 처리해 버리는 거라구요. 만년을 쓰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깨끗한 것입니다. 남편의 손수건이 입에 와서 닦아주면 그 이상으로 행복한 세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더러운 데를 싹 해서 말이에요, 가죽 손수건으로 닦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 손수건이 아니라 가죽 손수건이라는 거예요. 그 가죽 손수건이 닳아서 구멍이 나도록 사용한다면 여자로서는 열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입술에 제일 좋은 손수건은 뭐냐 하면, 남편의 입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의 손앞에 제일 넘버원 손수건은 남자의 손이라는 거예요. (웃음)

이거 왜 이래? 선생님이 손을 잡아 주었다고 해서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 곤란하다구요. 이런 똥보를 내가... 나는 똥똥이를 제

일 싫어해요. 이 여자는 생긴 것이 호박도 아니요, 참외도 아니요, 수박도 아니라구요. *단맛이 없으니까 남자가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생님이 손을 잡아 주었다고 해서... 왜 옆으로 쳐다보면서 웃어, 부인? (웃음) 힐끗힐끗 옆으로 쳐다보면서 웃으면 부정한 사랑의 여자, 동네의 여자가 되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아줌마도 마찬가지야. 자기의 아들딸의 얼굴과 비교하면 선생님의 얼굴은 낙제감이라고 생각하지?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지옥 중의 지옥으로 가야 된다!

*아주머니, 여성운동을 하고 싶지 않아? 남녀평등운동! 그래? 이거 마음에 안 들지? '왜 밤에 보아도 안 맞는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하면서 속으로 불만이 있었지? 이 여자가 정치가라도, 나쁜 정치가를 뭐라고 그래요? 독재자가 될 타입이라고. 미남자를 만나더라도 3개월만 살면 차 버려요. 그러니까 미남이 아닌 낙제생이라서 언제나 울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로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딸을 낳고 살 수 없는 타입이라고.

많이 천대를 받았지? 많이 무시를 당했지? 너는 그게 행복이라고. 엄마를 닮은 아들딸이 있어? 엄마를 닮은 아들딸이 있는가를 물어 보는 거라고. 「양자가 있습니다.」 아들딸이 없구만! 부부간에 서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 쌍거야! 실제로 아들딸을 낳았다면 훌륭한 아들딸을 낳았을 거라고.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들딸을 못 낳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

언제나 '아이구, 이 조그만 남자를 왜 얻어 주었느냐? 선생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남자를 묶어 준 걸 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된 선생님이 아니냐? 아이구!' 하고 원망했지? 저런 여자가 동네에 세 명만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마음대로 쓰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타입이

기에 저런 여자한테 선거운동을 시키면 낙선을 하게 됩니다. (웃음)

부부야? 어느 쪽이 문학을 좋아해? 글도 잘 쓰고 말이야, 그런 소질이 있다고. 너는 좀 둔하지? (웃음) 뛰어난 사람끼리 만나면 날아오르는 거라고요. 뛰어난 사람한테 둔한 데가 있어야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선생님이 재미있어요, 훌륭해요, 위대해요? 「훌륭하고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생님을 대해서 재미있다고 웃으면 안 되겠다고요. 정말이라고요.

남편이 있어? 「승화했습니다.」 과부 될 수 있는 얼굴이야. 과부가 안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뜻 가운데서 강연하고,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랬다면 남편이 모시는 사람같이 오래 살았을 텐데... 그랬으면 남편이 살았을 거야. 「예.」 이 여자의 입은 동그란 입이야. 언제나 벌려야 돼. 나팔 통처럼 말이야. 거기는 남편이야? 「아닙니다.」 누구야? 진돗개가 새끼 친 것처럼 생겼구만. 아들딸을 지금이라도 뜻 가운데서 열심히 해 가지고 훌륭한 강사로 만들면 집이 퍼 올 거라고.

그래, 선생님이 상대로 묶어 준 것이 나쁘다는 사람은 손 들라고요. 내가 평해 줄게요. 다 좋아요? 「예.」 나중에 영계에 가서 선생님이 큰 소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안 되겠다고요.

이 남자는 까닭 없이 웃기를 잘 해.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뭐가 감사해? 이 남자는 팔자가 사나워. 달리는 말과 같다고. ‘오오오!’ 하고 소리치고 여자를 유혹하겠다고 하고, 어디 가든지 한판 차려야 돼. 그래, 자기 상통이 다 자기를 증거하는 거야.

여자들은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

선생님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기셨습니다.」 여자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남자들은 제일 못생겼다고 할 거라고요. ‘저놈의 자식,

우리 여자들을 녹여 가지고….’ 이러면서 별의별 소문을 다 냈다구요.

그렇지만 선생님 같은 남자를 만나기 힘들어요. 만나기 힘들어요. 그건 돈 주고도 못 사고, 10대 여자들을 한꺼번에 조기 웨미와 같이 해서 바쳐도 선생님을 점령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여기에 전부 다 부부생활이 곤란해 가지고 앞으로 절간에 간 여자 모양으로 말이에요… 전부 다 절간에서 혼자 살잖아요? 부처님 앞에 프로포즈할 수 없는 거예요.

여자라는 동물은 선생님하고 손끝이라도 한번 대고 싶다는 거예요. 안 대고 싶은 것은 가짜 여자예요. 진짜 여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손대게 할 텐데 손 들어 봐요. (웃음) 뭐 없구만. 얼마 안 되누만.

공식이 3분의 2, 80퍼센트가 돼야 될 텐데 안 됐으니까 그건 인정할 수 있는 자격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말이에요. 「여자들이 많습니 다.」 여자들이 뭐라구요? 「여자들이 많습니 다.」 많아? 「예.」 글썄, 80 퍼센트가 되어야 될 텐데 80퍼센트가 안 되니까, 다 목적에 전부 다 맞지 않으니까 손 한번 대주지 않아도 된다 그말이에요. (웃음) 남편 이 운다, 쌍거야! (웃음)

내가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지방에 가면 별의별 것이 다 물어요. 만 지고 만지고 전부 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 금 늙어 죽게 되었는데도 그런다구요. 지금 내가 홀아비 되어 가지고 처녀하고 축복받겠다면 그놈의 영감 죽일 영감이에요, 살려 둘 영감이 에요? 「살려 줘야지요.」 살려 주기는? 손자며느리한테 부끄럽잖아? 「아니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40세에 18세의 어머니를 모 시고도 죄인같이 생각해 가지고 그 죄를 용서하라고 모시고 사는데 말 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행복하실 거예요.」 천만에, 천만에! 이렇게 빨이 나오면 욕심이 많 아요. (웃음) 이웃 동네, 고운 옷 세 벌을 틀림없이 훔쳐다가 입는다구

요. 왜 웃어요?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상통을 보고 다 축복해 주는 거라구요. 이제는 축복날이 되면 이것을 전부 다 맡겨야 할 텐데 할 수 없이 내가... 그 매치(match; 짝지어주다)해 놓은 걸 보면 틀렸어요.

중매하는 사람처럼 고달픈 사람이 없어요. 중매자가 얼마나 고달픈지 알아요? 여기 가서 옥먹고, 저기 가서 옥먹고 말이에요, 위에서 옥먹고 아래에서 옥먹고, 동서 사방에서 옥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살게 되면 자기들이 복이 있어서 잘살지, 중매자가 소개를 잘 해서 잘살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요.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통일교회라는 조화통

그래, 맛있는 것을 부처끼리 먹게 될 때, 선생님 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먹었어요, 안 해놓고 먹었어요? 도적놈의 새끼들이지요. 도적놈의 새끼, 도적놈의 간나들이라구요.

통일교회가 이상하지요? 선생님이 여자들 뺨을 때리고 발길로 차도 좋다고 한다 이거예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라고 하고, '소생했으니까 장성·완성, 그 다음에는 통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오관을 전부 다 커버해 주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것이 미국에서 수수께끼예요. 시 아이 에이(CIA; 미국중앙정보국)에서 화제라구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는 한 사람도 없는데, 통일교회 문선생은 미국 여자들이다 그러니 무슨 조화냐 이거예요. 그거 무슨 조화예요? 연구해도 모르는 거예요. 연구해도 모르는 거예요.

봄철이 될 때, 낙엽이 떨어진 그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올 줄 누가 알아요?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그 자체가 되어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 통일교회가 재미있지요? 「예.」 이걸 알고 난 다음에는 그만두고 싶어도, 백 번 그만두고 천 번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고 가

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돌아서서 찾아 들어간다고요.

선생님도 그래요. ‘아이구, 이거 사람으로 해먹을 짓이야? 아이고, 나는 간다.’ 하는데, 안방을 찾아 들어가는 거라고요. ‘야! 무슨 조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신비스럽고 묘사스럽고 별스럽고... 이거 다 갖다 붙여도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천치예요? 「똑똑한 분이십니다.» 그래, 누구 말을 듣게 안 돼 있어요, 누구 말도. 콧대를 보라고요. 눈을 보라고요. 콧대가 서 가지고 이게 넓이가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넓어요! 한 뼘이라고요. 마음이 넓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바보천치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도 나보고 ‘바보천치 영감, 죽어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갈 날을 알고 있어요. 갈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갈 날이 멀면 좋겠어요, 가까우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갈지도 모른다구요. 누가 알아요? 그래, 선생님을 만났을 때, 소원 성취하게 되려면 선생님이 해원성사를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하라 하는 것을 백 퍼센트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죽게 될 때, 찾아갈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벌써 대번에 알아요.

줄을 지어 가지고 일본 여자들, 일본 식구들, 한국 여자들이 있는데 누가 좋으냐 할 때, 한국 사람이니 일본 사람이니 하는 게 없어요. 소나무는 마찬가지로입니다. 소나무는 어디 가도, 북극에 있는 소나무를 남극에서 접붙이면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충효열(忠孝烈)의 지성을 다하면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부부 사랑의 위대함

자, 통일하는 데는 여자 남자가 통일이 쉬워요, 여자 여자, 남자 남

자가 통일이 쉬워요? 여자(女) 셋이 있게 되면 제일 나쁜 자(姦)가 된 다구요. 천하에 여자 셋이 모여 가지고 자기 자랑하면 싸움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싸움하면 머리카락을 뜯고 젓통에 피가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음부까지도 전부 다 찢지게 만드는 거예요.

*온나(女)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없구요. 일본에서 온나, 오미즈(お水), 오고항(お御飯; 밥)… 고향(御飯; 밥)만으로도 통하는데 왜 오고항이라고 그래요? 오미즈, 나중에는 오싯코(おしっこ; 소변)까지 전부 다 일본말에는 ‘오(お)’를 붙이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나를 중심삼은 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대륙을 바라보는 것이 섬이라구요. 바다를 건너간 남편을 몇십 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오고항이 기다리고 있고, 오미즈가 기다리고 있고, 오카미사마(お神様; 신)가 기다리고 있고, 오펜(お弁; 도시락)가…’ 하면서 전부 다 ‘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나 자체가 나(名)밖에 없어요. 나(名)밖에 없는 것이 여자라고 하는 거라구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 여자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이름밖에 없어서 실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사도를 중심삼은 주종관계에 있어서 종의 입장은 영원히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오’를 붙였는데, 그래서 일본 여자는 이름밖에 없어요.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본 여자예요. 기분 나쁘지요?

그래서 여자의 희망이 무엇이나 하면, 코(子), 코, 코… 무슨 코라구요? 게이코, 무슨 코? 요코, 무슨 코? 전부 다 코, 코, 코… (웃음) 아들딸을 낳음으로써 실체의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하숙을 할 때, 그 하숙집의 주인 아주머니가 재미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저녁에 남편이 나발을 불면서 돌아와서 전쟁터와 같은 집으로 만들더라도 아침이 되면 봄날과 같은 사랑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하

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알고 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선생님이 물어 본 거예요. ‘그렇게 저녁에 얻어맞고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남편과 함께 밥을 먹느냐?’ 했더니, ‘왜 물어? 내가 생각해도 모르겠다.’ 하면서 웃더라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이라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밤에 얻어맞고 사랑받는 것이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백 퍼센트, 천 퍼센트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밤도 그러한 밤이 되면 좋겠다.’ 하고 바라더라고요. 그와 같은 말이 부부생활의 안방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아내를 때려 본 적이 있어? 「없습니다.」 없으면 한번 분나굿테 (ぶん殴って; 분나구루<ぶん殴る; 후려갈기다>의 연용형)… ‘분(粉)’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가 되도록 후려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루가 되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실체가 우주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공기나 구름과 같이 말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남자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돌아가서 아무리 얻어맞아도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절대유일영원불변한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하면서, ‘아무리 후려갈기더라도 갈라질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해보자!’ 해서 그래 보라구요. 그렇게 부부끼리 결의를 하고 ‘시험해 봐라! 때려 봐!’ 해서 눈알이 하나 빠졌으면 ‘이 자고 있는 눈까지 빠지도록 또 때려 봐라! 코뼈가 부러지도록 때려 봐라! 입이고 무엇이고 다 엉망진창이 되도록 때려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때리는 것을 보고 좋아서 만세를 하도록 때려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죽음의 경지에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바라보는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훌륭할 것이냐!

너 듣고 있어? (웃음) 이 여자는 한 대를 때리면 이혼이라구. 이 여자는 신경질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한 대를 때리면 이혼장을 써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여자라는 거야. 그걸 알고 있어? 듣고 있어? 어찌 안 듣고 있는 것 같구만! 너를 위해서 교육하는 거라구! 언제든지 입은 뭐 고무같이 수축하면서 말을 할 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지? 뭐 화가 나면 대단하다구.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 가지고 선생님이 뭐 라고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힐끔힐끔 보면서... 정말이라구! 너는 이런 남자를 안 만났으면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할 팔자라구. 네가 그런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어? 「예.」 안다니까 괜찮겠구만! 오늘부터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모시라구! 아침마다 너는 기분 나쁜 소리를 하지 않으면 기분이 안 풀린다구. 그래? 「예.」 (웃음) 정말이라고 한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구! (웃음)

오모시로이(面白;재미있다)? (웃음) 여러분이 오모시로이한 반면에 선생님의 이면에는 오모쿠로이(面黒;오모시로이<面白;재미있다>의 엇먹은 말씨)한 고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구요. 오모시로이와 오모쿠로이지요? 여러분의 정면이 오모시로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의 내면에는 오모쿠로이의 검은 구름이 덮여서 천둥이 친다구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해요? 「예.」 젊었을 때 필요해요, 늙어서도 필요해요? 죽을 때도 필요해요? 「예.」 그러면 선생님의 자유가 없잖아요? 「효도하겠습니다.」 언제 효도를 해? 죽을 때까지 네가 효도하기를 기다려? 그렇게는 안 된다구.

이상적 가정이 이루어지면 부모는 없어도 돼

여러분이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필요한 세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새하얀 바위 위에서 새하얀 할아버지로 잠자다가 죽으면 좋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 뭘 해요? 판타날 개척의 선각자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여러분은 선생님

이 남미에 와서 낚시를 하면서 즐긴다고 생각했지요?

그렇지요? 겨우 3년을 넘었어요. 3년간 남미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레버런 문을 모든 나라들이 모시고 싶어할 수 있게끔 관계를 맺었습니다. 낚시만 해서 그게 가능해요? 날마다 낚시를 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사의 경지를 넘느냐 하는 심각한 시간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자, 그러니 선생님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 가정을 가지고 가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겠어요? 그 씨를 받으면 그 씨가 천리 만리 가서도 같은 싹이 나 가지고 같은 씨를 전부 다 새끼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결혼할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적 가정이 이루어지면 부모는 필요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을 합해서, 3대 사랑을 합해서 부처끼리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대신이요, 부부, 남편 아내의 대신이요, 자녀의 부부를 대신한 입장에서 3대를 거쳐가야 된다 이거예요. 6대의 남성과 6대의 여성의 통일적 기반을 갖기 위한 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살려 주어야 되고, 부부의 사랑을 살려 주어야 되고, 자녀의 사랑을 살려 줘 가지고 수평이 되어야 됩니다. 다리를 놓는데 이런 다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수평 다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첫번 다리, 부부의 다리도 올라가지 않고 수평이 되고, 거기에 손자, 천대 만대의 다리도 전부 다 수평 다리가 되게 될 때 그 다리를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둥이 무슨 기둥이나? 쇠기둥이었더냐, 나무기둥이었더냐에 따라 가지고 몇 년 갈 수 있느냐 결정되는데, 쇠기둥이라면 전부 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기념 책에 역사로 남겨 두어야 되겠다 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재료가 뭐냐 하면, 그런 기둥 하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부 사진을 찍는 거라구요. 금 다리가 되면 24금하고 비교해서 같으니까... 나중에는 손에 들고, 입에 물고 사진을 찍고, 배에 들어가 가지고 배 안의 위 엑스레이 사진까지 찍어 두겠다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못하게끔 말이에요. 이것도 빼앗아갈 수 있다구요. 고기들은 말이에요, 전부 다 본능적으로 어미 아버지가 먹는 걸 빼앗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귀중품은 어디에 놓느냐? 누가 빼앗지 못할 마음 보따리 가운데 집어넣어야 한다구요. 마음 보따리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보따리를 마음대로 풀어 버리는 사람은 도둑맞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한번 실패하고 패가망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귀한 물건의 주인은 나와 남편, 아들과 부모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비밀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의논해 가지고 며느리를 데려다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들을 데려다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건 동양사상이에요. 서양은 반대라구요. 딸한테 얘기한다구요, 딸, 딸딸 굴러간다고 해서 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같이 딸딸 굴러서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딸이에요.

남자(男)는 뭐냐 하면, 밭(田)을 힘(力)으로 지고 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남자이기 때문에 부자 상속자다 이거예요. 여자는 이것이 꼬부라졌다고요. 아이고, 몇 도가 꼬부라졌어요? 90도로도 못 선다고요. 이게 몇 도예요? 75도, 90도도 못 되고 80도도 못 되는 여자가 얼마 길이가 되겠어요? 어머니(母)는 여자 둘을 합한 것이니 이게 비준이 안 맞아요. 길기는 왜 이렇게 기느냐 이거예요. 꼴불견이에요. 여자 둘을 딱 합해서 이렇게 사위기대를 만들어 이렇게 해 가지고 통일된 것이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런 말 들어 봤어요?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 봤으니까 월사

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웃음) 월사금을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내겠습니다。」 내겠다는 사람, 손 들어라!

월사금을 낼 거예요, 자기 자체를 줄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체를 드리겠습니다。」 월사금을 낼 거예요, 자체를 팔아서 줄 거예요? 「자체를 팔아서…」 그렇게 약속들 해 봐요. 「약속드립니다。」 다 팔아 가지고 주니, 나는 뭐예요? 쓰레기통인데, 쓰레기를 넣을 것이 없어요. 쓰레기통이 우는 것이 자기 아들딸이 우는 것보다도 더 슬프게 들리게 될 때는 아들딸한테 줄 보물을 갖다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둑 맞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 영원히 도둑맞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인데, 누가 그걸 보겠느냐 이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되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쓰레기통인데, 지금 내가 모아다가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무리 팔려고 해도 사 가려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몽땅 내 사랑이고 몽땅 내 것이 들었는데 그걸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가치 있는 걸 알아요? 그 속에는 금은보화가 쌓이고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선생님이 전부 다 공짜로 주었더니… 다이아몬드는 옛날에 아프리카 어디 모래사장에서 말이에요, 523캐럿 되는 다이아몬드도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이 던지고 서로 빼앗는 놀음을 하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세계의 제일 가는 영국 왕궁의 보석이 되어 있다구요. 전부 다 뭐라고 할까? 수정 같은 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모래판에 가면 장식하고 수정 큰 것으로 되어 있다구요. 거기에서 모래알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던지고 놀았는데, 알고 보니 뭐라구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요, 여자들? 「예.」 1캐럿짜리 반지를 끼어도, 아니 반 캐럿만 돼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약혼반지로 젊은 사람들에게 1캐럿이면 너무 크지요? 0.5캐럿만 되어도 좋아서 그거 하나 껴 가지고 그걸 요렇게 하고 다닌다구요. (행동을 해보이시면서 말씀하심. 웃음) ‘왜 저러노?’ 하면 너무 좋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런 데가 있지요? 「예.」 싸구려예요, 싸구려. 1캐럿도 못 되는 0.5캐럿을 가져 가지고 좋다고 밤낮 없이 오관이 전부 다 웃음을 만발 치고 있지만, 그것이 비쌀 게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머니한테 몇 캐럿짜리 반지를 해주었지요? 여러분은 대번에 물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 보고 싶은 생각 안 나요? 그래, 생각이 부족하다구요. 싸움터에 가서는 언제나 구경꾼밖에 안 됩니다. 주인 노릇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미인 가운데 제일 미인을 제일 큰 가락지를 가지고 내 사랑이라고 프로포즈해서 사랑의 상대를 만들면 도적놈이기 때문에 사랑의 힘을 가지고 말없이 뒤꽂무니에 천리 길을 달려도 따라오고, 자기 주인이 만리 길을 가더라도 따라와서 붙는 여자를 만들겠다, 그런 남자가 되어야 천국 가요.

*선생님은 한 여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봉사한 적이 있다구요. 그 집의 아들딸과 부인까지 복종하게 되어서 아침밥을 먹을 때 그 집의 주인이 자리에 앉아야 할 텐데, 나중에는 그 집의 부인과 아들딸들이 모두 다 선생님을 그 집의 주인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도 ‘나도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양심적인 가책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리를 이쪽으로 마련했으니까 앉으세요!’ 하더라구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 (はい; 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말로 해주세요.」 (웃음) 한국말로 뭐...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알겠어요?

내가 손을 대는 날에는 정복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둘 중의 하나입니다. 죽기 전에는 하는 거예요.

*판타날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해요? 후계자가 나와서 여기서 죽는다고요. 여자는 제일 싫어하지? 「일본말을 모르잖아요?」(*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아, 일본말을 배우라구. 나도 배우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웃음) 오아마다가 불쌍하잖아? 통역하는 걸 보니까 한 25퍼센트는 빼 버려요. 제일 중요한 것을 빼 버린다고요. 고기를 먹는데 뼈다귀 없는 고기만 자꾸 먹겠다고 그래요. 그런 뼈다귀 없는 고기를 먹었다가는 틀림없이 목에 걸린다고요. 병원에 가야 된다고요.

고기를 먹었다면 뼈다귀 있는 고기를 먹게 훈련해야 되겠어요, 뼈다귀 없는 고기를 먹게 훈련해야 되겠어요? 「뼈다귀 있는 고기를…」 사람을 상대하게 될 때, 뼈다귀 있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겠어요, 뼈다귀 없고 살만 있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겠어요? 뼈다귀 있는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여기서 뼈다귀가 제일 강하고 큰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을 교육해라, 이 쌍것들아! 아버님을 교육할 수 있는 아들이 되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교육했습니다. ‘당신이 못 하면, 나 아니면 해방이 안 되지 않소? 내가 헤드릴게요.’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원리가 그렇지요? 「예.」 내가 지어 만든 원리예요? 본래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 원리예요, 지어 만든, 선생님이 맞춰 놓은 원리예요? 「본래의 원리입니다.」 본래 그런 것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한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정을 중심삼고 절대 남편 절대 부인, 유일 남편 유일 부인, 불변 남편 불변 부인, 영원 남편 영원 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 있어요? 「예.」

잘살아서 절대·유일·불변·영원한 부부가 되라

여기 이 사람은 뭐냐? 비서실장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비밀을 다 알아 가지고 속닥속닥 하고 말이야,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전부 다 그 회사를 팔아먹을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구. 여자는 그렇지 않아. 임자보다 마음이 크다구. 알겠어? 「알겠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면 임자가 듣기를 싫어해. 그런 가, 안 그런 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내 말이 틀림없지? 「예.」

그래, 잘살아야 되겠나, 못살아야 되겠나? 「예, 잘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살았으면 잘살아 가지고 절대 부부, 그 다음에 뭐라구요? 「영원 부부!」 유일을 빼면 되나, 유일을? 절대 했으면 하나가 됐으니 유일이라구. 절대를 주창해야 되는데 절대가 둘이예요? 유일에서 부터, 유일의 그 점을 중심삼고 변하지 않으니 내 상대가 영원이요, 불변이 되는 거예요.

절대·유일·불변·영원입니다. 절대·유일·불변·영원! 유일이 꼭 대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유일이 몇 번째라구요? 「두 번째입니다.」 절대적으로 두 번째라구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불변이예요, 영원이예요? 영원이 뭐예요? 변치 않으니까 영원이라고 하지요. 영원해 가지고 변치 않아요? 영원이 어떻게 먼저 나와요? 순서가 절대·유일·불변·영원입니다! 그래야 기분도 좋고, 그래야 기어가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만 쳐주면 열이 안 나고 소모 없이 맞는 거라구요.

그래, 선생님 머리가 좋지요?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그래, 선생님 모자는 일본에서 맞는 것이 없어서 공장에 주문해서 쓰고 다녔다구요. 학교에 다니면 대학생들이 이것을 짜거든요. 짜 가지고

췌어요. 요즘에는 좀 늙으니까 머리가 작아지는 모양이라구요. 옛날에 안 맞던 것이 맞는 걸 보니 말이에요. 80이 되면 사람이 줄어들어요, 늘어나나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고 줄어 30퍼센트 줄고, 50퍼센트 줄 가능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보따리 싸 가지고 영계로 이사가야 하는 거라구요.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구요. 더 좋은 데서 산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한, 부자유스러운 한, 이 한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거동의 한을 다 넘어 가지고 세계의 자유 천지를 향해 가는 곳이 제3의 부활 천국입니다. 아멘이라구요. 「아멘!」 한번 크게 해보라구요. 「아멘!」 저 사람들이 일하면서 아멘 하나, 한숨을 품고 하나? 재미있게 일하나, 뭐 하나? 아낙네로 생겨 가지고 남편을... 옛날 같으면 남편 양말에 구멍이 나게 된다면 말이에요, 양말 구멍을 손으로 떠서 기웠어요. 정성을 다 해서 기워 준 그것을 신고 나가는 남편을 보고 아내 들은 보고 돌아올 때까지 좋은 식사를 해놓고 목욕재계하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런 여자들이 지금 있어요? 「없습니다.» 반대예요, 반대. 그거 여편네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신발 바닥 닳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

임자도 그런 데 소질이 많은 여자라구. 눈이 쌍둥이 눈이 되어 있어. 「아이고...」 여자 관리를 잘해야 돼. 「저는 신랑이 아닙니다.» 어디 갔어, 신랑? 처녀야? 「예.» 처녀가 여기 어떻게 왔어? 「아버님 뵈러 왔지요.» 아버지 보러 오는데, 여기는 색시가 오게 되어 있는데, 아들까지 데려 오라고 했는데 처녀가 왔구만. 그렇기 때문에 눈이 이상하다구. 엉뚱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남편보다도 첩남편을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80퍼센트 이상이라고 본다구. 남자 주의하라는 거야. 잘난 남자를 찾지 말고, 못난 남자를 이상으로 바라야 돼. 내가 축

복해 주면 임자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을 해준다구. 「아이!」 올라구, 올라구. 「안 돼요. 아버님 옆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해주세요.」

보라구. 너는 망하더라도 아들딸이 너 10배 되면, 그것을 선생님은 좋아하는 거야. 1대는 타락성이 많아. 네가 80퍼센트면 아들은 30퍼센트 된다는 거예요. 손자 대는 20퍼센트까지 되기 때문에 축복해 주면 3대를 봐 가지고 축복시켜 주는 거야. 그것도 싫어? 「싫어요. 아버님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주세요.」 나는 너 같은 여자는 일시키지 않는다구. 그런 여자를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어떻게 일시키겠나? 내가 바라보는 대로 좋아해야만 일을 시키지.

그래, 엉뚱하게 신랑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왔어? 지금 몇 살이야? 「서른여덟입니다.」 서른여덟이면, 신랑은 몇 사람 만났어? 눈이 왔다 갔다하고, 쌍꺼풀에 층이 많다구. 「아버지 옆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몰라. (웃음)

재미있어요? 「예.」 재미있는 동안에 여러분 비밀 단지가 다 뒤집어 깨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말하게 되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아무 것도 모르는 줄 알지만, 일본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구요. 일본이 그냥 두면 망하기 때문에 일본 체제 변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명령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야 일본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을 내가...

내가 축구 선수라구요. 선생님 몸이 빨라요, 지금도 사지가 그래요. 운동을 해서 지금도 빠르다구요. 80노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과하고 동네 사람들이 80이 넘는 사람이 저렇게 걸으면 말이에요, 빨리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펴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보라구요. 선생님의 구두를 척 보게 되면 바닥이 이렇게 닳아 있어요. 일자라구요, 일자. 그거 양심적인 사람이라구요.

이 다음에 결혼할 때, 상대를 보게 되면 신을 뒤집어 보라구요. 별의별 걸음이 다 있어요.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걷고 걸으면 반드시 찌그

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야 된다고요. 지금도 선생님이 가게 되면, 젊은 사람인데 노인네한테 뛰쳐와 가지고 당신 어디 사느냐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표적을 향해서 어깨도 당당하게 수평을 갖추어 가지고 걷느냐? 그런 남자는 내가 처음 만났다. 점심 사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점심을 얻어먹어야 되겠어요, 안 얻어먹어야 되겠어요? 아이고! 점심 한 그릇에 십 배, 백 배를 부탁하는 거예요. 공밥 먹다가는 공병이 생겨요. 알겠어요? 공밥 좋아하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공돈을 좋아하는 것은 자기 손자가 도둑놈이 됩니다. 왜? 공밥을 좋아하다가 자꾸 공돈을 쓰다 보니 도적놈밖에 될 것이 어디 있어요? 나는 공돈을 원치 않습니다. 현금을 나한테 가져오는 것은 안 받아요. 어머니 보고도 그것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교회장을 통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교회장이 한 3일쯤 기도해 가지고 정성들여서 돈을 10분의 1, 한푼이라도 가해서 가져오는 돈이면 공금으로 쓰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쓰는 거라고요. 공금은 독약보다 무서운 거예요.

막간의 화동회

그래, 이렇게 살아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로마 교황청은 '예헤!' 이라고 있지요?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 가지고 허리띠에 손을 넣고 이렇게 훈시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오줌을 싸면서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다구요. 늙으면 오줌도 싸야지요. 오줌 싸는 부모한테 효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효도할 겁니다.」

나 지금 오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 변소에 가야 되겠나, 요강을 가져와야 되겠나? 「요강을 가져와야 됩니다.」 변소에 가나? 여기서 요강에 앉아서 싸야지. 「요강에 싸야지요.」 그렇지, 그렇지! 야, 이 녀석

아!

그래, 여기가 너보다 노래도 잘 하더라! 너 일어서 가지고 노래 한번 하자! (박수) 노래할 동안에 내가 변소에 좀 갔다 오겠다구요. 나올 때 재촉을 하는 바람에 변소에 안 들렀다가 왔는데, 변소에 갔다 온다고 실례예요, 유례예요?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구요. 「예.」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노래함)

목이 쉬었다. 선생님이 멋진 데가 있지요? 멋져요, 멋지지 않아요? 「멋집니다.」 여자로서 선생님 같은 남편하고 못 살아 보면 한이 될 텐데, 선생님 아들딸 같은 사람하고 살아 보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녹음이 잠시 중단됨)

그 다음에 누구? 콩밭 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콩밭, 콩밭 잘 매더라. 「칠갑산 보내 드리겠습니다.」 ('칠갑산' 노래) 다음은? 선생님이 이제 목이 쉬고 다 그랬기 때문에 내 대신에 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선생님을 시키고 싶어? 듣고 싶어?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예.」 무슨 노래? (박수) 무슨 노래를 하면 좋겠어요? 「허공이요, 아버님.」 허공이 뭐던가? 허(虛) 텅빈 게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 나는데, 허공 말이에요? 「고향무정이요.」 고향무정이 어떻던가? 「몽금포타령이요.」 몽금포타령? 「예.」 몽금포타령이 어떻던가? (웃음) 「대한팔경도 재미있습니다.」 대한팔경이 어떻던가? 팔경이 어딘지 다 안 가 봤는데. 자, 무슨 노래를 듣고 싶어요?

이제 나는 내일 모레 글피면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코디악에 가야 됩니다. 코디악에 가서... 「허공 불러 주세요, 아버님.」 허공? 허공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요?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할 게 뭐예요? 할 수 없이 하지. 할 수 없이 한 노래라구. 꿈이었다고...

나보다 잘 하니까 하라구. 하라구.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해 봐요. 「아버님, 같이 해주세요.」 야야, 싫다! 네 남편이 전부 다 꿈자리 사납게 나타나 가지고 전부 죽이겠다고 해. (여자 식구 노래) 잘했어

요, 못했어요? 잘했으면 상을 줘야지, 상을? 또 하라구요? 「예.」 또 하면 세 번까지 해야 됩니다, 소생·장성·완성. 완성하면 나 오늘 저녁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어요. 힘을 주면 말이에요, 횡경막이 힘주면 부어서 밥을 못 먹는다고요. (아버님 노래하심) 아멘! (박수)

*원맨쇼를 잘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요. 여자들도 속고 남자들도 속아서 재산을 전부 다 빼앗겨 버릴 데니까 철저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고하는 거라고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절대적 주체를 중심삼고 절대적 공명권, 통일권을 이뤄야

자, 결론을 내리자구요, 결론. 두 주체 대상이 하나되면 조화를 이루고 통일이 된다는 말을 했어요. 천지의 모든 자연 이치는 그 법칙을 따라가니만큼 사람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도 주체는 무슨 주체냐 하면 절대적 주체, 상대도 절대적 상대를 중심삼고 절대적 공명권을 찾고 절대적 통일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중심삼은 영원한 희망이요, 그것을 찾기 위한 것이 우리 영원한 생애를 통한 소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 그러려면 남자세계에는 왕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오빠가 있지만, 어떠한 급의 남자든지 마음을 맞춰 줄 수 있는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맞추는 데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무릎에 키우는 아기와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미인이라도 유혹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같이 사랑하니까. 그게 비결이에요.

남자에 대해서는 자기 어머니보다도 할머니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 그 이상, 자기가 손자, 젊은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사랑하게 된다면 상대적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어머니를 넘어서 상대적 사랑을 그리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는 할머니를 넘어서 여왕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유혹해서 자기 상대로 생각하려면 전부 다 할머니를 넘고, 어머니를 넘어가기 때문에 유혹할 수 없는 본심의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어다! 「아멘!」

그리고 남자에 있어서는 여왕을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여왕이 있게 되면 여왕을 모시는 남자들, 충신이 된 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충신은 자기의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보다도, 자기 아들딸보다 낫고, 자기 상대보다 나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여왕이 찾는 충신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남자는 내가 되겠다.’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여왕,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앞에 가 옥을 먹고 들이 맞더라도, 궁둥이를 맞고 멍이 들더라도 잘못했다고 하고 말이에요, 저녁에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원망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 얼굴을 봤지만, 아침이 되면 자기의 모든 그런 기억을 씻어 버리고 옛날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차림을 해 가지고 아버지 앞에 효자의 모습으로 가서 아침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나도 그런 남자를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를 어머니 대신 길러 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사랑을 많이 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

역사 가운데 여자들 가운데서 남편 사랑하는 일등 칭호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춘향! 춘향이는 이름이 뭐예요? 「성춘향입니다.」 장춘향인데,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장춘향이에요, 장. 춘향이가 누구예요? 봄 향기라고요. 봄 향기 중에 최고의 향기가 춘향이기 때문에 한국의 여성 될 수 있는 장춘향... 성춘향인가, 장춘향인가? 「성춘향입

니다.» 누가 장춘향이라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웃음) 여러분이 장춘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장이라고 얘기했지, 성춘향인데 말이에요. 성춘향이에요.

그래, ‘성’이라는 것이 썩은 것이예요, 새파란 것이예요? 「새파란 것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빠릿빠릿하고 기교가 아주 묘하고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싱싱하고도 멋진 춘향(春香), 봄 향기니 그게 넘버원이예요. 넘버원이 아닐 수 없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성춘향의 동반자 이름이 뭐라고요? 「이몽룡입니다.» 이몽룡(李夢龍), 꿈꾸는 용인데, 이놈의 꿈꾸는 용이 언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꿈꾸고 돌아다니지요. 몽룡이니까 그거 꿈꾸는 용 아니예요? 돌아다니게 되어 있지요. ‘이놈의 용아!’ 하고 암만 불러도 이놈이 소식이 없이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었던가? 암행어사가 되었어요. 암행어사는 전부 다 구렁이같이, 용이 구름 타고 다니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 바랄 수 없지.

그러니 춘향이 가슴이 탔겠어요, 부풀었겠어요? 「탔겠습니다.» 왜, 왜 타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왜? 보고 싶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만나면 뭘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나요?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가르쳐 줄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문가지요. 내가 가르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아는 거지, 마귀가 가르쳐 줘서 알면 큰일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라고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한다.’ 하고 다 가르쳐 줘서 알 거 아니예요?

임자네도 사랑할 줄 알아요? 눈이 새빨개지고, 코끝이 새빨개지고 그래요? 여자는 입술이 새빨개지지만, 남자는 눈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눈이. 틀림없어요. 그래, 코끝이 새빨개져야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코끝이 새빨개지지 않고 눈이 새빨개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입술이 새파래진다고요. 루즈 바르기 전에 죽은피같이 새파란 사람들은 전부 다 바람잡이예요. 성의 도수를 넘고도 또 넘어서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루즈 안 바른 입술이 새파란 여자는 성이 강해요. 그런 여자를 약한 남자가 얻었다가는 6개월도 못 가서 죽어요. (웃음) 하루에 평균 다섯 번, 여섯 번 내미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역사가 참 많아요. 이놈의 장대 같은 사내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보니까 빠다귀가 이래 가지고 이려고 다녀요. ‘너 왜 이렇게 됐니? 죽게 앓았구만?’ 하니까 웃는 거예요. ‘이 녀석아, 죽게 앓았느냐고 하는데 왜 웃어? 왜 그래, 이놈의 자식아?’ 하니까 ‘선생님이 색시를 잘못 얻어 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주 능란합니다. 변호사 출신이거든. 선생님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녀석아, 짝을 잘못 맺어 줄 게 뭐야?’ 하니까 ‘선생님도 별수 있소? 하루에 여섯 번씩, 몇 번씩 했으니...’ 횡수도 얘기할까요? 언제 언제 계산을 딱 해놓고 몇 시간만에 하는지 말이에요, 남자가 이런 페이스에는 건강하니까 이상적이라고 해서 몇 시간만에 한 번씩, 여섯 번이면 사 육은 이십사(4×6=24)니까 네 시간 만에 한 번씩 했다는 거라고요.

그러면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로서 열두 번, 삼 육은 십팔(3×6=18), 열여덟 번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있느냐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도 넘버원이 되고 싶으면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 기관이 고장나요, 안 나요? 손수건보다 더 강한 만년 가죽 수건이에요. 수리를 안 하더라도 만년 새 것이에요. 이게 고무줄이라도 그런 고무줄이 없다고요. 암만 하더라도 늘었다 줄었다 하고 말이에요. 왜 웃어? 「아직 가정 출발 안 했는데요.» 그거 알아두라구. 여자들은 다 알아야 돼.

매일 그렇게 하면 20일도 못 가서 나가떨어질 거라고요. *며칠만에 한 번 해? 선생님이 물어 보잖아, 이 녀석? 「성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직 모르겠습니다.» 보통 때 말이야! 「이틀에 한 번씩입니다.» 하루에 열 번 정도는 어때? (웃음)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일기책에 '내 기록은 몇 회다.' 하는 걸 남기고 자손들 몰래 마음으로 품고 가야 그 자손이 복을 받아요. 나와 같이 건강한 사랑을 하라 이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많이 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라구요. 알겠어요? 많이 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예요,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예요? 한국 남자들은 일본 남자들보다 활발하기 때문에 많이 할 거라구요. 어디 한국 여자들한테 물어 보자. 어때요? 어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어떤 거예요? 「많이 해야 됩니다.»

보라구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면 사랑 중의 대왕이 사람이니까, 그 모든 만물을 대왕마마가 가르쳐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부의 사랑을 예술화시키는 방법

그래, 사랑을, 부부 생활을 예술화시키는 것이 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오늘 저녁은 참새 사랑이다.' 해서 짹짹! 해 봐요. 날개 사랑을 푸르르륵 해 가지고 참새같이 암놈 수놈과 같이 짹짹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새 사랑이다! 알지요? 「예.»

그래, 남자가 어디에 올라가나요? 배에 올라가나요, 등에 올라가나요? 「히프에 올라갑니다.» 히프는 모르잖아, 이 쌍거야? 아니예요, 그거 하라구요. 그거 죄 아니예요. 자기 부처끼리는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팔아먹으면 안 되지만 그 가위는 모든 것이 오케이예요. 변소간에서 남자 여자가 뒤를 보면서 사랑한다고 죄예요? 얼마나 걸작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남자 여자가 뒤보면서 사랑한 사람, 어디 나타나 봐라!' 하면 일등상을 탈 거예요.

생각해 보라구요. 비행기를 타고 조종하면서 전부 다 키스 한 번 하

고, 동서남북으로 맞추고, 하늘땅 도수를 맞춰 가지고 둘이 비행기의 조종석에서 사랑했다고 죄예요? 이 녀석은 차에서도 사랑했겠구만. (웃음) 했어, 안 했어? 「아직 못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소질이 많아, 이 녀석아. (웃음) 아니예요. 자기 색시를 업고서 다리를 위로 벌리고 아래로 해 가지고 안 맞으니까 쭈욱 서로 당기면서 맞추고 사랑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사랑했다.’ 하고 말이에요.

참새 사랑을 예술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토끼 사랑이에요. 깡충깡충 하는 토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흥!’ 하는 호랑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요전에 내가 코디악에 가서 말이에요, 브라운 베어(bear;곰)라고 14 피트나 된 것을 봤대구요. 이야! 여자는 언제든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더벅머리 같은 것(수놈)은 총 맞고 도망가서 세상을 모르는데, 이놈의 여자(암놈)가 와서 전부 다 꼬리를 저으면서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암소도 말이에요, 암내를 내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황소가 그 암내를 맡게 되면 그제 다리가 찢어지든 뭐든, 천리 만리 달려가다가 풀이 빠져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랑 해 봤어요? 그런 거예요. 동물들도 그런데, 사람이 그 이상 되어 가지고 자기 님을 그리워한다면 그것이 죄예요? 하루 저녁에 베개가 전부 다 젖더라도... 그럴 수 있는 남자를 가진 여자는 행복한 여자예요, 부족한 여자예요?

일본 여성들! *니혼노온나(日本の女)! 니혼(二本)의 여자가 되고 싶어요, 잇본(一本)의 여자가 되고 싶어요? 니혼의 여자, 잇본의 여자? 「니혼입니다.」 니혼이면 남자도 둘이라는 말이잖아? 사랑이 둘이면 남자가 둘이라는 뜻이잖아? 잇본이 되어야 된대구!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총모님의 참부모님에 대한 자세

후 후 후 후! (운동을 해보이심) 이거 할아버지가 쓰러지지 않고 춤을 춰요. 운동들을 배워 두면 선생님같이 된다고요. 운동 배울래요? 운동 배우겠다는 사람, 손 들라고요. 운동 배우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3분에서 7분만 하게 되면 남이 세 시간 한 운동 이상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운동이에요, 사랑의 운동. 알겠어요? 「예.」

사랑의 운동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사랑할 때 얼마나 심각해요? 그 심각한 도수 이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해 놓는 거예요. 고단하면 변소에 가서 3분 동안 하는 거라고요. 사랑할 때 힘을 주지요? 「예.」 힘을 주고, 숨이 막히지? 「예.」 그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오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운동은 언제 가르쳐 주세요?」 아, 월사금 내야지. 월사금을 내 놓고, 광고하고 다 친구들을 모아 놓아야 선생님을 모시지. 학생도 없이 그러면 그거 돌팔이 의사지. (녹음이 잠시 끊김)

뭐라고 하나? 효모(孝母)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래서 효자보다 나은 총모(忠母)님이라고 이름을 지어 줬다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한마디만 했더라도 한스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쁘지 않은데... 아들이 성공하게 레일을 깔고, 세상의 누구보다도 십 배, 백 배, 천 배의 정성을 들였으면 아들의 갈 길이 편안할 텐데, 왜 한마디도 안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한이에요. 영계에 가서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보내 온 편지의 내용이지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그래,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어머니한테는 손수건 한 장 안 사 줬습니다. 신발 하나, 양말 한 짝 안 사 줬다고요. 통일교회 사람들은 집도 사 주고, 차도 사 주고, 안

사 준 게 없습니다. 그 대신 나라와 세계를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세계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해방한 후에 지상천국을 하나님을 통해서 어머니한테 바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한 거라구요. 최후의 그 목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전에 북한에 갔을 때 성묘를 갔어요. 북한의 최고 책임자들이 안내를 해주어서 말이에요, 선생님의 바로 위 누님과 바로 아래 누이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형제들이 언제나 선생님을 걱정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 남자는 왕이 안 되면 도적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결심하면 그대로 하던 남자였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었다구요. 그렇지만 효자가 못 되었기 때문에 충모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전에 이상헌 선생의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 가운데 어머니가 인사를 하고 싶다고 보내 온 편지의 내용에는 말이에요, 충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알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대해서 아버님이라고 하고 자신의 며느리를 보고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참아버님과 참어머니를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겠다는 맹세를 선생님한테 했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 가운데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같이하실 수 있는 지상천국의 영원한 기지

남자는 여자가 필요해요? 아내야? 「예.」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 네 아랫입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이야,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구! 무엇이든지 잘 참아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구. 눈을 보니까 눈도 보통이 아니라구. 적개심이 가득한 눈이라구. 화를 잘 내는 타입이니까 조심하라구! 「예.」 이 여자는 마음이 쾌활한 여자구만!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여자로 말하면 참 잘생긴 여자라구. 얼굴도 그렇고, 주름살이 없어.

임자에게는 아깝다구. 뭘 하지 말라고 할 때 하면 안 된다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성격을 자기가 알아? 잘 컨트롤하라구. 「예.」 바른길로 가게 되면 한 자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몰라. 사랑으로써 지도해 줘야 돼, 사랑으로.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하나되어야 됩니다, 하나. 하나되기 위해서는 서로서로가 화합해야 됩니다. 화합해야 됩니다. 서로 주고받지 않는 데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무엇을? 영원한 통일을 영원한 사랑을 주고받는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아담 가정의 축복식이었더라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 결혼하는 것을 새로운 축복이라는 말로 대치하는 걸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40일 수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축복해 준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둬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가정신상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신상서, 알아요? 회사에 가면 신상서가 있지요? 카드를 딱 빼 보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무엇 무엇을 했다는 것이 쪽 나온다구요. 신상증명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증명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1 선언이 절대 뭐예요? 신앙! 절대 사랑이에요. 그리고 제2 선언은 하나님의 4대 속성을 중심삼은 거예요. 절대·유일·불변·영원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하나님은 절대 참아버지고, 유일 참아버지, 불변 참아버지, 영원 참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아들딸들은 절대 부부, 유일 부부, 불변 부부, 영원한 부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들이 안착한 가정은 절대 가정, 유일 가정,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불변 가정, 영원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지상천국의 영원한 기지예요, 영원한 기지. 기지예요, 기지. 알겠어요? 「예.」 그것

이 제2 선언이에요.

*제3 선언은 뭐예요? 요전에 돌아갈 때 빨리 돌아가라고 해 놓고 선생님이 한 시간 반이나 말씀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무형의 창조주로서 자기 혼자로서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혼자로서는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거든요. 자기 혼자로서는 입도 못 열고, 냄새도 못 맡고, 들을 수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자극을 받을 수 없어요. 가만히 정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중심삼고 수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밸런스를 취하고 있어서 자극을 못 받는 거예요. 성상과 형상의 주체와 객체로 평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라구요. 기압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밸런스를 취해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정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심신일체가 되면 사랑을 중심삼고 밸런스가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상과 형상이 정, 분, 갈라져서 합하는 거예요. 합은 사랑을 중심삼고 원리원칙에 맞게 합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남자라면 여자가 있을 때 자기의 근본, 과정, 결과까지...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가 움직이는 거라구요. 그래서 만지고 싶고, 키스를 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밤낮을 잊어버리고 사계절을 초월해서 영원히 하나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단히 아름다워지는 거라구요. 천하에 그 이상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에는 그러한 힘이 있거든요. 눈이 그렇게 되고, 냄새도 그렇다구요. 옛날에는 1미터만 가까이 와도 냄새가 나서 도망을 갔는데, 웬지 모르게 사랑하게 되면 그 냄새가 모치(餅;떡)보다 달아서 오관이 입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안겨서 춤추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입니다. 기쁠 때도 눈물이 나지요? 그 눈물 뒤에는 하나님이 표시를 해 두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한테 흘려서 죽어도 좋다고 할 수 있는 경지가 정상입니다. 남자도 여자한테 흘려서 죽어도 좋다고 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거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 번 이상 그래야 된다고요. 소생·장성·완성,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의 사랑의 고개를 넘어서 천국에 입문할 수 있는 티켓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부의 사랑을 표시하는 티켓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이것이 창조이상의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일본 유학시절의 경험담

그러한 부부가 되어 있어, 아주머니? 「예.» 아저씨는 어디 갔어? 「내일 옵니다.» 내일은 선생님이 없는데? 선생님을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기 위해서 와? 니혼 여자는 믿을 수 없어요. (웃음) 잇쁜의 여자는 믿을 수 있지만. 섬나라의 여자는 믿을 수 없다고요. 대륙의 여자는 믿을 수 있지만. 일본은 그렇잖아요? 명문가의 딸이라도 말이에요, 총리의 첩이 되면 자랑한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조관념이 강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학생시절에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세련되게 입고 나시면 남자도 흘릴 정도였다구요. 머리를 눈썹이 안 보일 만큼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전당포에서 사 온 학생복을 입고 나시면 어땠겠어요? 그것은 냄새가 나서 1미터 이내에는 접근을 못 합니다. 선생님이 걸음이 빨라서 쓱쓱 가면, 여학생들이 ‘흠흠!’ 이룹니다. (웃음) 냄새가 나서 ‘뭐야? 이 남자는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옆눈으로 볼 때는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못한 남자구만!’ 하면서 핏-! 그런

것을 선생님이 보고 좋아했다구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유혹의 길을 사방팔방으로 막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구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여자들이 전부 다 프로포즈하고 편지하고 그랬다구요. 그때 일년 생활비가 1백 엔이예요, 1백 엔. 1백 엔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귀가 집 딸이예요. 귀한 딸인데, 그 딸이 선생님을 길가에서 지나가다 만났는데, 옛날에 꿈속에서 자기를 가르쳐 주었던, 어렸을 때 학생시대에 가르쳐 주었던 동양의 어떤 성인이라고 생각한 그 모습이에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철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철들어서 세상의 잡된 생각을 하니까 어렸을 때 떠나 만날 수 없었던 분을 몇 년이 되어 가지고 길가에서 만났다 그거예요. 길가에서 만나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봄비가 오던 때였어요. 사방에 초목들이 움트고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비가 내리는 귀가 길을 한 여자아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날씬하게 스커트를 입고….

다음 수련생들을 위해 버스를 더 마련하자

뭐야, 이거? 너희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둘이 배우 아니야? 배우하면 좋겠다. 부처끼리아? 「예.」 배우하면 좋겠다구. 알겠어? 「예.」 둘이 결심하게 되면 남을 사기칠 수 있는 소질이 많겠구만. 마음이 딱 맞아. 얼굴도 눈빛이 똑같다구. (녹음이 잠시 중단됨)

이번에 판타날에 갈 때 길이 좋지 않다구요. 내일 갈 때 덜컹덜컹할 거라구요. 버스 타 가지고 궁둥이가 전부 다 멍이 들어 가지고 남편보고 맞사지를 한 달쯤 해 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바란다구요. 그래 가지고 궁둥이를 보고 ‘이놈의 선생님,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벌을 주노? 그놈의 선생님, 죽어라!’ 하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웃음) 그래도 좋아요? 「예.」

다음에 일본에서 오는 자기 동생들, 전부 다 형제들인데 말이에요, 그들이 전부 다 자기가 고통스러워하고 멍들게 하던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겠어요, 내가 전부 다 없더라도 버스 한 대 기부하고 가야 되겠어요? *기부가 아니라 ‘형제자매들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바쳐야 하는 것이 아들딸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는 없다면, 정말로 선생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몇 번째 딸이야? 「막내입니다.» 막내? 지옥의 문이 가장 가까운 데서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가 불러 주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딸이 되고 싶어? 「장녀가 되고 싶습니다.» 장녀! 장녀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병이 들면 자기의 재산과 일신의 모든 것을 제물로 삼더라도 고쳐 주고 싶은 거라구. 그래야 효녀가 되는 거야. 그렇게 못 되어 있잖아? 「그렇게 되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돼? 「오늘부터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되겠다면 버스를 몇 대 사겠어?

자, 결정하자구! 장녀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두 다 놀라서 벌어진 입을 못 다물고 ‘이렇게 불효의 딸이 효녀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이상을 바치오니, 어떠하십니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백 퍼센트, 60퍼센트? 120퍼센트, 백 퍼센트? 버스 한 대씩을 그렇게 하면 7백 대가 되어서 브라질 제일의 버스 주식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주주로 만들어 주겠다구요.

그러면 남편도 ‘아이구, 잘했다.’ 할 것이고, 아들딸도 ‘우와, 선생님이 욕심쟁이가 아니라 훌륭하신 선생님이다.’ 하면서 틀림없이 ‘엄마! 더 해, 해!’ 할 것이 틀림없다구요. 그런데 주식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식을 몰라? 한 대를 사면 한 대분의 주식을 주고 말이에요, 열 대를 하면 열 대분의 주식을 주는 거라구요. 천 대를 하면 이사장이 될지도 몰라요. 선생님은 이사장, 사장도 못 되고 일꾼밖에 안 된다구요. ‘아!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아들딸을 부탁드립니다.’ 할

때, ‘언제 한번 도와준 적도 없잖아요? 투자를 한 적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욕심쟁이가 된다면 지옥으로 가겠지요? 그거 알아요?

아저씨는 아주머니를 사랑해? 싸움을 해, 안 해? 「안 합니다.» 예전에는 통일교회에 다닌다고 못 살게 했는데, 지금은 어때? 환영해? 남편과 축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 3만쌍입니다. 3만쌍? 늦지 않았구만! 예전에는 때리고 차고 욕하고, 도둑년이라고 했지? 현금할 때 돈을 잘도 우려냈잖아? 현금도 잘 했지? 너는 얼굴이 옆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불행해지거나 아들딸이 병에 걸려 죽는다구. 현금을 열심히 해서 부모로부터 꾸중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구. 그러니까 버스 몇 대? (웃음)

아내는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아, 좋은 말씀이 생각났어요. 남미 제일의 버스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해서 일본 여자들을 중심삼고 모두 다... 일본의 차장들이 유명했다구요. 화장을 잘 하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매일 감사합니다. 이 버스회사는 손님이 없었더라면 큰일났을 것인데, 여러분과 같은 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피켓을 찹찹... 학생 때는 버스 차장이 제일이었어요. ‘오라이!’ 하면, 아무리 많이 탔더라도 운전수가 부응 하고, ‘스톱!’ 하면 달리던 차도 스톱했어요. 교통순경은 상대도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이야, 버스 차장이 제일이다.’ 하고 선생님이 생각했다구요. 남자는 버스 차장과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늙은이들은 늙은이들대로 자리에 앉히고 돌

아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기분도 좋습니다. 바람도 봄바람이기 때문에 모두 다 기분이 들떠서 산보나 여행을 하기에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하는 버스 차장 어때요?

남편한테 그러면 어떤 아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아내가 돼요, 못된 아내가 돼요? 「훌륭한 아내가 됩니다.」 ‘오늘도 술을 마시고 돌아오지 않느냐?’ 하면서 삼각 눈을 해 가지고 있는데, 전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갔다 오느냐?’ 하면서 뚝은 얼굴을 하고 화살을 가지고 가슴을 팍팍 해 버리고 싶을 정도가 되면 큰일나는 거예요. 남자의 실망이 그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녁 준비를 잘 했더라도 그날의 저녁은 뿔 침 뺨을 저녁밖에 안 됩니다. 그 여자는 나쁘다구요. 남자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자는 한 남자만 기분을 맞추어 주면 되지요?

남편의 표정이 안 좋으면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이런 화장을 했는데... 옛날에는 주름이 두 줄이었는데, 오늘은 화장을 해서 주름이 없어졌습니다.’ 하면서 쓱 버터를 칠해서... ‘옛날에는 두 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렇게 주름이 펴져서 깨끗해졌습니다. 만져 보세요!’ 해서 만져 주면, 쓱 키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의 행복이라구요.

남자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선생님은 잘 알고 있다구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아멘.」 남자들은 모두 다 ‘아멘’이라구요. (웃음) ‘노멘’이 아닙니다. 왜 그게 안 돼요? 배우 같은 것을 보면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눈물을 흘리거나 춤을 추면서 영원한 인상을 남기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감동시키지 못하는 아내가 무슨 아내예요? 그런 아내가 무슨 처라구요? 악처, 악마의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죄라구요.

너는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이렇게 생긴 여자는 귀여워해 주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는다구. 정말이라구! 이중의 사랑을 하게 되면 큰일난다구. 빗나가게 되면 권총으로 쏘 버린다구. 무서운 여자라구. 그거 알아? 「예.」 싸우게 되면 갈라설 수 있다구.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녹음이 잠시 끊김)

선생님이 일본 여성들을 대하는 마음 상태

내일은 말이에요, 판타날에... 내일 모레인가? 내일이 28일 29일 30일... 31일은 내가 코디악으로 가요, 코디악. 코디악知道吗? 코디악에 가서 수련생들을 교육해야 된다구요. *가는데, 천지가 정이 깊어서 ‘선생님, 돌아가세요!’ 하면서 재촉하는데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선생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니까 사요나라(さようなら;안녕히계십시오)예요! 깃발 하나를 들고 관광객들이 ‘사요나라!’ 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은 그 줄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딱 깃발 하나를 세우고 가면 좌우로 줄을 서서 잘 따라가지요? 그것이 여자의 길이라구요. ‘그러한 전통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았어? 앞으로 해와 국가의 왕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쪽 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몇 살이에요? 「일흔둘입니다.」 선생님의 누이동생이구만! 선생님이 일흔여섯이니깐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타입이라구. (웃음) 그렇게 해서 편지 한 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거라구요. 그러면 일가의 자랑이 될지도 모르지요. 안 그래요? 일본 여자들 가운데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들이 있었지요.

그러한 여자들 가운데 한 여자는 말이에요, 매주 백 엔짜리의 돈을 말이에요, 선생님이 없을 때 찾아와서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몇 개월이 되면 몇천 엔이 된다구요. 그것을 그대로 모아 놓았다가 ‘이거 네

돈이야? 아버지한테 받았어, 형제들한테 받았어? 어떻게 한국 남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면서 돌려주었다구요. 그 당시에 대만 사람이나 흑인과는 결혼할 수 있어도 한국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던 때였다구요. 한국 사람을 무서워한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인 문선생한테 일본 여자들이 흘려 버렸어요. 일본 정보기관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고 아무리 뿌리치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안 된다구요. 일본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은혜를 입고 있는 거라구요. 전후에 선생님을 고문했던 고등검사들 몇 명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전부 다 알고 있다구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친척들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해방 이후에 만주에서 한반도를 통해서 도망가던 일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구요. 그러한 은혜를 일본 사람들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도 불가능한데, 그러한 결심으로 생겨난 것이 일본 통일교회입니다. 그 정신은 일본의 것이 아니라구요. 그 근본적인 보은의 정신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선생님을 잘 알기 때문에 어머니 나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의 결론적인 내용은 일본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은 못 들었다구요.

이번의 수련도 한국 사람들은 곁다리입니다. 본래는 일본 사람들만 하려고 생각했다구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일본의 현실로 볼 때 7백 명을 못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곁다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두 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제쳐놓더라도 괜찮습니다. 전통정신을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상속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열녀의 갈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중간적인 존재를 붙이고 싶지 않

은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자가 시집을 올 때 친정 어머니한테서 귀한 것들을 얻어 가지고 오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어머니가 잃어버린 것을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사의 경지를 넘더라도 역사의 한을 풀겠다는 그러한 모녀들을 일본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녀들을 찾아서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고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학생시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충고해 주고 가르쳐 준 다음에 헤어진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그 이상으로 훌륭한 여성들로 만들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 사람인 선생님을 따라왔던 예전의 그 일본 여학생 이상의 하늘적인 인연을 가지고 이상적인 가정의 기반을 닦아주고 싶은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국 땅은 너무 좁다

생각해 보라구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들딸을 어디서 키우고 싶었어요? 일본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안 된다고요. 한국 땅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남미와 만주가 있는 중국을 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남미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이 남미가 반대하면 만주를 중심삼고 기반을 닦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곳이 한국의 땅이었습니다. 한민족을 사람(人)과 활(弓)을 나타내는 ‘이(夷)’ 자를 써서 동이족(東夷族)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활을 쏘는 데 있어서 챔피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올림픽 대회에서 챔피언입니다. 술한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 나갈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민족

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민족과 한민족은 다르지요? 일본 사람들은 조용한데, 한국 사람들은 세 명만 모여도 백 명의 일본 여자들이 모여 있는 이상으로 시끄럽습니다. 손발을 휘저으면서 ‘와와와!’ 합니다. 그림 같은 여자와 호랑이 같은 남자입니다. 호랑이가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이 순회를 하다가 인도에 들른 적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중에 살고 있는 흰 호랑이더라구요. 이야, 그것이 눈같이 얼어서 못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손을 드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으으, 우우우, 와양… (웃음)

선생님은 그것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사겠다고 해서 얼마냐고 물어 봤더니 한 마리에 5만 달러라고 하더라구요. 한 쌍은 10만 달러였습니다. 한 쌍이 아니어서 못 샀지만, 15만 달러를 주고라도 한 쌍이 있었으면 사 가지고 한국 동물원에 기증해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그 용맹스러움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박해를 받고 지칠 때 그 호랑이를 보고 용기백배할 수 있다면 15만 달러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대구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헌금해!’ ‘뭘 하세요?’ ‘호랑이를 사서 타고 군림할 것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없었던 장군이 되어서 명령할 때는 여러분이 바라던 이상의 선생님이 될 수 있으니까 헌금해!’ 그렇게 명령하면 헌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이야, 대답이 좋구만! 뭐 헌금을 하고도 남을 것 같구만! 버스 몇 대? (웃음) 「세계의 모든 버스를 다…」 은행이라도 털 거야? 「아버님이 계십니다.» 뭐라구? 지금 당장에 돈이 있어야지! 다음에 올 사람들도 털킹털킹 버스를 타야 된대구요. 저 버스 한 대가 5만 불입니다. 중고를 사 왔대구요.

선생님은 일본에도 없는 최고의 버스에 축복가정들을 태우고 싶었는데 계획을 세워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구요. 선생님은 돈이 없습니다. 참사랑을 중심삼은 아기 씨밖에 없대구요. 그 씨는 천하일품,

하나님의 왕자와 왕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심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모두 다 생명을 걸고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 씨를 받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러한 타락한 세계의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통일교회가 끝장나는 거라구요. 그렇지 않아도 온갖 소문들이 다 있었다구요.

통일교회는 어느 분야에도 챔피언

선생님은 어디에 갔다 붙이더라도 챔피언입니다. 마피아 세계에 있어서도 챔피언, 신앙세계에 있어서도 챔피언, 전부 다 챔피언이에요. 한국에서 만든 축구팀도 세계 제일이 된다고요.

예술계에 있어서도 리틀엔젤스 예술단이 세계 제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발레단도 소련의 키로프 발레단보다 나아요. 지금까지 문선생이 만들었다는 말도 안 했는데, 세계에서 안 좋은 눈으로 보려는 사람들을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녀석아? 끝날에 문화세계가 전부 다 파괴되어 버린 이러한 경지에 있어서 문선생은 재림 주로서 천하일품의 발레단을 만들지 않았느냐?’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신문에 인터뷰를 해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선생을 예술계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지요?

정치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정치의 경계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일본 대사도 1개월 이내에 보따리를 싸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고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고 있는 거라구요. 문선생은 일본의 공격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총리가 무엇을 하

고 있는지, 천황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전부 다 조사하고 있다구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세계 언론계의 모든 최고의 정보를 먼저 듣는 사람이 선생님이라고요. 선생님이 시 아이 에이(CIA; 중앙정보국) 국장을 오라고 하면 그 어떤 약속을 못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르던까지 오게 되어 있다구요. 안 오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해서 모든 힘을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말이예요. <워싱턴 타임스>가 세계 제일의 신문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세계에서 <워싱턴 타임스>를 중심삼고 협회를 만들고 있다구요. 보수적인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에 맞설 수 있는 완벽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선생을 중심삼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수습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정의 아들딸로서 지켜야 할 길

일본도 그 방향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곤란할 거라고요. 동경에서 신앙의 자유 운동을 펼치게 되면 일본 정부가 대단히 곤란해지겠지요? 독일도 세계의 여론에 휘말려서 통일교회 인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야, 잘도 세계의 종교계를 수습해서 말이예요, 지식인들도 우향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치가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구요. 지금까지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받으러 왔습니다. 정치가들도 왔었고, 사업가들도 왔었고, 도둑놈들도 왔다 갔습니다. 아무리 오더라도 선생님의 말씀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변함이 없다구요. 아무리 하더라도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말이예요.

선생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악마 중의 악마라고 하는데, 아무리 정보기관들이 조사해 보아도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은 선생님의 실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어요. 일본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서 저금통장을 내라고 하는 명령을 보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협박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디에 숨겨 놓은 저금통장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그 이상의 협박이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협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앞날의 희망을 위한 거라구요. 지금 이대로의 일본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을 부리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수습되지 않아요. 그것은 뭐 사라져 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는 일본이라구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애국심의 성벽을 쌓아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철저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길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선생님이 라면 올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충성의 길, 충효의 길, 성인의 길, 성자의 길, 절대적인 하늘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불변·영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어서 그와 같은 아들딸을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이 되라고 하는데, 무엇이 나빠요? 그것이 세계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가정·국가·세계·우주의 기준이 되고 도 남습니다.

성자는 천국에 있어서의 국민법과 로열 패밀리 법이 되는 궁중법을 지키는 거예요. 일본의 일반 국민들은 궁중과 관계없이 육법전서 가운데 자기가 속하는 하나의 방향만 지키면 되지만, 왕자는 그렇지 않아요. 왕궁의 법과 육법전서의 내용을 전부 다 적용해서 하나도 어김이 없다고 존경받을 수 있는 센터가 되지 않으면 왕자가 될 수 없

다구요. 그거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희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것이 참부모의 입장을 갖출 수 있는 근본적인 원칙이라고요. 선생님은 지상에 살면서도 이 지상에 속하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천국의 공중법과 천국의 국민법에 맞추어 나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가정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지 않으면 영원히 하늘법의 권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방향을 수습하는 것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이상입니다.

사탄의 그늘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빛으로 충만한 밝은 방향으로 수습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상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참부모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 참부모 앞에 있어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투입한 것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모시는 것이 하늘가정의 아들이라고 지켜야 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올바른 식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부모의 소유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남편이면 그 남편이 생각하는 대로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통하는 부모를 따라서 수습해 가는 것이 효자와 효녀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요. 선생님을 중심삼은 하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일본도, 한국도, 아무 것도 없어요. 우주의 모든 인류를 하나의 가정을 중심삼은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심정을 갖지 않으면 하늘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막혀 버립니다.

성약시대에는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성약시대에는 영계를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헌 선생의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에도 있지만 말이에요. 이번에 주제별 정선 열두 권 가운데도 《지상생활과 영계》 상하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이상헌 선생이 얼마나 분명한 내용을 가르쳐 주었는가를 알 수 있을 거라구요. 그것을 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열두 권 가운데 《지상생활과 영계》의 상하권이 열한 번째지요? 이번 혼독회 때 그것을 혼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번역했나, 일본말로?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영계가 얼마나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과 틀림이 없는가를 알 수 있을 거라구요. 이상헌 선생이 원리를 중심삼고 쓴 것이 아닙니다. 원리를 제쳐놓고, 그것을 체크해서 주체와 객체의 상대적인 공명권이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명이라구요, 공명.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선생님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차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한일가정이 중심 가정이라구요. 일본의 복중에는 쌍둥이가 있어요. 그것은 조총련과 민단인데, 장자라고 주장하는 조총련을 차자로 낳아 주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일본이 어머니 나라가 될 수 없대구요.

그리고 일본의 소유권도 전환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대인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구요. 일본 재산의 20퍼센트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환하면 세계를 통일하고도 남을 수 있다구요. 그러면 일본은 손색이 없는 어머니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어린애들이 무슨 병에 걸린다고 했어요? 「아토피!」 그거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들의 강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오빠, 삼촌, 아버지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일이라구요. 프리 섹

스 같은 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라구요. 그래서 서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본에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는 길이 그것인데,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일본은 망한다구요. 일본 땅만 태평양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일본 민족까지 망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망할 수 있는 한계에 와 있다구요.

그러니까 순결운동을 경시청이 ‘그거 해라, 해라!’ 하고 있다구요. 일본 정치인들은 반대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적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밀어붙이는 거라구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문선명 선생이 구세주라고 발표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수천 번 듣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줄줄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이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옛날에 정성을 다했던 식구들이 심정이 떨어져 있다가 지금 새롭게 일선에 나서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일본의 조직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남자들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통일교회의 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경건한 마음이 없습니다. 충효로 통하는 길이 없어요.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주체성이 없대구요. 돈이 없으면 전부 다 무너집니다. 360교회를 중심삼고 3천6백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김명대가 총회장이었을 때 3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조직이 있었다구요. 그런데 전부 다 서로서로 반대하면서 못된 짓들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구요.

지금은 일본에서 김명대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모두 다 ‘왜 선생님이 김명대를 일본에 보내 놓고 있느냐?’ 하지만,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구요. 여러분이 조총련과 민단을 수습할

수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 가운데 한국 정신에 물이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관순열사정신선양대회를 할 때 김명대를 누가 세웠어요? 선생님이 세웠다고요. 유관순 열사를 아시아의 성녀로 모실 수 있도록 정착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진심으로 따라서 한 여자는 없었다구요. 그런 여자는 어머니 나라의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관순은 여섯 갈래로 찢겨서 죽었다고요. 무슨 죄가 있어요? 16세의 소녀로서 타락한 해외를 탕감복귀하는 제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 만세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태어난 거예요. 1920년 정월 초엿새날이었는데, 일본이 점령한 그 가운데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제단에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단 위에서 태어난 것이 문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정도 3:1운동의 대표였습니다. 선생님도 지하운동을 한 대표였다고요. 한반도를 달리는 열차의 바퀴 위에서 밤을 새우며 동경과 만주 사이를 오가면서 연락을 취하던 남자였다고요.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주바시(二重橋) 너머의 궁전을 내 손으로 날려 버리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일본을 살려 준 거라고요.

선생님의 몸에는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보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국가 이상으로 선생님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들을 세우지 않으면 탕감복귀가 될 수 없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심각한 말입니다. ‘신켄(眞劍;심각)’이라는 말은 신의 검(神劍)을 말하는 거라고요. 신의 검으로 악한 것들을 잘라 버리고 정리해서 전통적인 효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용서해 주고 도조(東じょう英機)까지 축복해 주었다고요.

원수끼리 결혼해야 평화의 세계를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가르침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한 사실이 하나님의 심정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대가족 평화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축복가정입니다. 성인과 살인귀들의 축복이었다구요.

그들은 형제간입니다. 성인들이 영광의 시간을 맞이했다고 하면서 살인귀들을 모두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아들딸들이 있으면 그 아들딸을 모두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안심하고 갈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는 것이 타락세계에 있어서의 형제의 우의라고 생각한 다구요.

하나님은 그 아들딸이나 부인이 있으면 물어 보는 거예요. '당장에 네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좋으냐, 1년 후에 처벌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면 '제발 1년 후에 처벌해 주세요!' 그러니까. '1년 후냐, 10년 후냐?' 하면 '제발 10년 후에 해주세요.' 부인도 그렇게 대답하고 아들딸도 그렇게 대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백년은 어때? 백년도 좋으냐?' 하면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 틀림없지요? 알겠어요? 「예.」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후손이 통일교회의 신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버지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축복해 준 거라구요. 강도의 아들딸, 마피아 등 온갖 사람들이 다 포함되었다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내적인 은사를 베풀어 준 거라구요. 선생님의 아들딸들도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정리함과 동시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우향우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수끼리 결혼하지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형제라구요. 성인과 살인귀도 형제입니다. 그러한 형제들이 처음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세계적인 지도자의 아들딸들을 어떻게 결혼시킬 거예요? 최고의 원수를 최고의 사랑의 상대로 맞이함으로써 지상에 처음으로 역사를 넘어서 평화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선생님이 한일간의 교차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 남편과 부인들이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삼지 않으면 성약시대의 완성권에 들어설 수 없대구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입니다. 절대신앙에 절대사랑을 심게 되면 싹이 터서 새 잎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키우느냐? 하나님 자신을 투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천만 년 동안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대구요. 알겠어요? 「예.」

그 하나님이 종적인 참하나님이 아니라면 수천만 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아담과 노아뿐만 아니라 모두 다 실패했어요. 아브라함 실패, 모세 실패, 이스라엘 민족 실패, 예수 실패, 전부 다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가정복귀는 실패가 아니라구요. 성인과 살인귀들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가정으로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가정들은 성인의 가정들과 살인귀의 가정들간의 틈을 메우는 거라구요.

원수들끼리 결혼하면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 국경을 중심삼고 원수가 되어 있다구요. 야마타(山田)라든가 하야시(林)와 같은 종족간의 경계가 있게 되면 지역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원수권을 이상권으로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한을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거라구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까지 마음대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 세계를 부정하지 않으면 하늘 세계로 넘어갈 수 없어

에덴 동산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네 이름이 뭐야? 「오카무라입니다。」 오카무라가 없었다구요. 오카무라의 소유권도 없었어요. 일본의 소유권도 없었습니다. 한국도 아무 것도 없었다구요. 그러한 근본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전부 다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 저쪽의 세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타락한 더러운 땅에 침을 뱉고 돌아서야 된다고요.

프리 섹스, 자유 결혼, 마약, 호모, 레즈비언? 상점에 가면 인조생식기를 팔고 있지요? 일본에 많지요? 동물들은 새끼를 낳기 위해서 1년 한 번씩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왕이라고요. 날마다 사랑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체휼하면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상대적인 박자가 맞는 이상권입니다. 가정도 그렇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들어지면 전부 다 삐걱삐걱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삐걱삐걱, 자기 부부도 삐걱삐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삐걱거립니다.

너희들, 부부야? 「부부지만 아직까지 가정출발을 안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가정을 이룰 거야, 빈틈이 없는 가정을 이룰 거야? 「아멘!」 뭐가 ‘아멘’이야? (웃음) 말로는 ‘아멘’이지만 실제로는 ‘노멘’이 80퍼센트라구. ‘아멘’은 20퍼센트밖에 안 돼. 단단히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구.

어느 경지까지 가야 되느냐? 미인과 벌거벗고 섹스를 하는 경지에 들어가서도 남자는 제로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관권 전환이 될 수 없어요. 그만큼 심각하다구요.

미인과 벌거벗고 생식기를 딱 맞추더라도 그것이 일어서면 안 됩니

다. 여자가 유혹할 때 ‘세워 봐라!’ 아무리 하더라도 안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도 그냥 그대로 꿏아떨어질 수 있는 남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남자한테 세계의 여자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본도 그렇다구요. 4년 전인가요? 일본 미인들이 17만 명, 수많은 여자들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못된 짓을 하려고 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었다구요.

‘저금통장을 내!’ ‘내겠습니다.’ ‘그 이상 할 수 있어?’ ‘그 이상 할 수 있습니다.’ ‘벌거벗으라고 하면 벌거벗겠어?’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불러들이면 어떻게 해?’ ‘문제없습니다.’ 모두 다 그랬다구요. 여러분도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불러들이면, 뭐 껌껌한 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아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이동생이라구요. 선생님은 탕감복귀의 노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다구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심정적으로 연결된 하늘적인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선생님을 따라오게 된 것은 일시적인 남녀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역사가 있는 거라구요. 사랑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지으면 천벌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선생님의 학생 시절에 혼자 잘 때 여자들이 벌거벗고 기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요? 남자가 5분이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같으면 아무 것도 없어도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뭐가 아무 것도 아니야? 네가 원하면 남자들이 줄을 설 텐데 왜 그래?’ 하면서 꾸짖은 적도 있다구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천하일품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는 것과 먹는 것, 식욕이 악마의 정문입니다. 모두 다 여자들은 선생님을 자기의 오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생각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안심하고 맡기고 싶은 거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욕심 많게 먹으려고 하면 천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통일교회는 벌써 없어졌을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없으면 일본은 망해

선생님은 일본 여자들을 동원해서 초국가적인 활동을 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선생님은 일본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한 동정녀의 딸을 맞이한 것처럼, 일본을 그러한 기준에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어머니의 입장에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구요. 거기에 자기의 일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심각한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나? 이것은 사형장의 발판을 몇십 개까지 셀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해도 안 죽습니다. 장성기 완성급의 7년 동안에는 고생을 시킬 수 있다구요. 7년이 남아 있는 거라구요. 그것은 죽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최후까지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고,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참부모를 원하고, 사탄도 참부모를 원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더러워진 빨래를 누가 빨아요? 하나님이 씻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담 해위를 타락시켜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공적으로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향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는 물론이고 가정과 청소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방법이 없다구요.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전권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누구든지 축복을 받음으로써 장자권을 상속하고 부모권을 복귀할 수 있게 되는데, 아직까지 왕권은 복귀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나라가 왕권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딸, 어머니, 아내으로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사에 없었던 그러한 축복을 차 버리면 엄청난 천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없으면 일본은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정부가 옴진리교와 같이 취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선생님은 일본의 흑심을 잘 알고 있다구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라구요. 일본 역사의 몇 배나 되는 뿌리를 뺏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뽑아 버리려고 하더라도 뽑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기반을 가진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미국을 통해서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일본 정부를 치는 것입니다. ‘문선생의 입국을 허락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언론계를 중심삼고 사방팔방으로 공격하는 거라구요. 일본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들어간다구요. 들어갈 수 없으면 통일교회를 전부 다 빼 버릴 것입니다. 지금 순결운동의 준비를 하고 있다구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몇 월 며칠까지 대이동을 하는 거라구요.

모세가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부모도 없고 처자도 없었기 때문에 친척들을 찾아갔는데, 그것은 자기의 고향이 아니었다구요. 원수 같은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아들딸을 위한 교훈이었다구요. 그런데 자기 일신의 안락을 탐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정신을 흘려 버렸습니다.

주위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은 모두 다 목장들도 소유하고 잘살고 있었는데, 이것은 누더기를 걸친 거지 떼거리예요. 어머니가 옆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해주고 식량을 얻어 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물부터 시작해서 죽을 얻어먹고 밥을 얻어먹다가 조금씩 생활형편이 나아져서 가나안 7족 이상이 되면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족 대이동이라구요, 민족. 고향도 찾지 못했던 그 민족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왕을 죽이게 될 줄은 모세 시대에 몰랐던 것입니다. 구리 뱀을 든 것이 십자가에 달리게 될 예언으로 남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선생님이 일본을 위해서 그러고 있다구요, 지금. 필리핀과 대만의 본보기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보라구요. ‘그거 따라가라! 나는 관계없다. 예전에 내 밑에 있던 사람한테 복종할 수 없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더라도 ‘따라와!’ 하면서 뒤집어엎어야 됩니다. 일본 전체에 그러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40일 동안 이렇게 철저한 수련을 받고 돌아가서 그러한 무리에 섞여 버리면 일본이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상속할 것이냐, 일족의 재산을 상속할 것이냐

메시아를 반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2천년간 피를 흘리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전쟁 때는 말발굽에 밟혀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피를 흘려 온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정신만큼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1948년에 일본이 망하게 됨으로써 가능했던 한국의 해방과 더불어 건국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사탄 편 국가로서 야오요로주노카미(八百万の神; 못신들)를 믿는다고요. 일본 문부성의 통계에 따르면 18만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어요. 유일한 나라, 유일한 이상,

유일한 헌법, 유일한 문화를 지향하는 거라구요. 아담을 중심삼고 그렇게 출발했다라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전개된 민족국가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엮은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래대로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그것을 누가 전부 다 복귀할 거예요? 끝날에 여자는 두 남자를 맞는 거예요. 통일교회의 기성가정들은 말이에요, 모두 다 자기의 아내가 있는 남자들을 홀아비같이 만든 것이 문선생이라구요. 천사장과 아담이 하나된 지옥과 정반대로 하나님과 아들딸이 하나될 때 돌아가는 거라구요. 완전히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천황이 어디에 있고 수상이 어디에 있어요? 일본의 소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탄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늘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 결혼하는 남자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남의 여자를 빼앗아 오는 것과 같은 하나님, 재림주라구요. 본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남자들한테 팔려가서 돈을 되찾아오고도 남을 수 있는 노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여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네의 여자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면서도 포기하고 있는 거라구요. 그런 일이 가정에서 발생하게 되면 끝입니다. 일본에도 그런 일이 많지요? 큰일이라구요.

미국 같은 데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모두 다 밤이 되면 아내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부인한테 프로포즈를 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한다구요. 그러니까 본처와 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언제 임신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임신하게 되면 우려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생애가 되는 거라구요. 수술도 할 수 없으면 낳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한 해에 수백 명이 된

다는 것입니다.

아홉 명의 딸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훌륭한 딸들이었습니다. 명문가의 훌륭한 가정의 딸들이었다구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근친상간 관계를 마음대로... 밤에는 할아버지가 손녀를 불러서 관계를 맺고 며느리와도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프리 섹스, 엉망진창이 되었다구요. 아버지가 자기만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 동생, 동생... 그렇게 되면 그 자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비참함! 그 가운데 행복은 의미가 없는 거라구요.

그러한 가운데 영원한 축복을 후손들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부부가 얼마나 부러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될 때 놀라운 아들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것을 거두어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 하는 거라구요.

일본을 상속할 거예요, 일족의 재산을 상속할 거예요? 「일본을 상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족의 모든 것을 국가를 위해서 바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것은 세계, 세계의 모든 것은 우주, 우주의 모든 것은 천주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게 되면 하나님을 점령하는 거라구요. 그렇게 되면 최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 것을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 귀찮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거기에 대답을 안 했다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축복가정으로서 선생님이 말씀하는 대로 정정당당하게 가라고 한 것입니다.

사탄세계를 삼켜 버리려면 속을 완전히 비워라

이번의 자르던 수련이 재미있었어, 기뻐서, 슬펐어? 어느 쪽이야? 「재미있었습니다. 기뻐합니다...」 몇 시야? 「다섯 시 20분입니다.»

팔십 난 노인이 여기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다구요. 운동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말이예요. 알겠어요?

오늘의 제목은 ‘통일’입니다. 노인과 어린 아이도 통일, 무학과 유학도 통일, 권력과 무권력도 통일해서 전체를 통일하는 거예요. 판타날에 와서 교육받은 첫 번째는 사탄세계를 삼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세계에서는 내장과 똥을 그대로 먹어서 소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병에 안 걸리는 거라구요. 조그만 물고기는 그냥 그대로 삼키지요? 마찬가지로 판타날도 삼켜 버리고, 남미도 삼켜 버리고, 일본도 삼켜 버리라고요! 「예.」 그러려면 뱃속에 아무 것도 없는 공복이 되어야 한다구요.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아들딸도 없고, 부부도 없고, 가정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공(空)이라구요. 그러니까 일본도 삼키고, 미국도 삼키고, 세계도 삼키는 거예요. 미국의 더러운 것도 뱃속에 집어넣고 소화하는 데 문제없는 것입니다. 악마의 최선두에 서 있는 것도 삼켜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소화하는 거라구요.

선생님의 생각은 그렇다구요. 여기서 배우는 것은 삼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소화하게 되면 천하제일의 남자와 여자,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무슨 명령을 하더라도 통째로 삼켜 버리는 거라구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까?’ 하면, ‘있지, 있지! 내가 못 해!’ ‘말해보소!’ ‘하나님까지 잡아먹어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똥오줌까지 전부 다 소화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거름을 덮어 주어 보는 거라구요. 냄새가 나겠지요? 그거 정말이예요?

그래서 생식기는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데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 있다구요. 여자도 남자도 생식기는 정자와 난자가 나오는 그곳입니다. 왜 그러냐? 훌륭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딸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

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라구요. 대면을 보는 기관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서 처음 듣지요? 「예.」

부부간에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보라구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자 앞에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큰일, 몇만 년 큰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그렇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 앞에 여자가 없으면 큰 일입니다. 그것이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있을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만나게 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근두근했어요? 너도 그랬어? 두근두근! 아무리 손을 내밀고 싶어도 손을 내밀 수 없는 거예요. ‘두근’ 하면 한국말로 2근이라고요, 2근. 2근과 마찬가지로 두근두근! 상대적이기 때문에 두근두근한다는 것입니다. 1근이 아니고 2근이에요. 두근두근!

사랑이 방문할 때는 폭발적인 출발이 시작되어서 두근두근하는 것이지, 여자와 남자가 부끄러워 가지고 그러면 두근두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두근두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편네가 될 수 있으면 딱 붙들고...

여자가 키스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남자가 그것도 못 하면 그 남자는 낙제라구요. 키스해 주기를 바랄 때는 딱 붙들고 키스를 해줘야 돼요. 귀싸대기를 때려 주기를 바랄 때는 귀싸대기를 때려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라구요. 여자다운 여자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숨기고 잠자는 척하면서 쪽 남편을 품어 주는 면이 있지요? 그럴 때 여자로서의 향기가 사방으로 풍기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도 그런 여자가 되고 싶었을 텐데 나이가 들어 버려서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영계에서 그러한 사람을 틀림없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래, 선생님한테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ありがとう御座います;고맙습니다)’! 해보라구요. 아리(蟻;개미)가 열 마리이니까 선생님이 열 사람을 희생하더라도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하면 틀림없이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 있는 거야, 부인? (웃음) 선생님이 재미있지? 「도테모스테키데스(とてもすてきです;아주 멋있습니다).」 뭐 스키(好き;좋아함)와 스테키는 사촌간이라구요. (웃음)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보라구요. 남자다운 데가 없대구요. (웃음) 네가 남편이야? 「남자답다고 생각합니다.» (특, 치심.) 「아야!」 (웃음) 남자답지 못하다구! 오히려 네가 남자 같대구! (웃음) 그런지, 안 그런지 남편한테 물어보라구! 뭘 숨기지 못하잖아? 「스미마셴(すみません;죄송합니다).」 ‘스미마셴(住みません;살지 않습니다).’이라고 하면 ‘죽어 버립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거 살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죽어 버린다는 말이잖아요?

일본말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서 문제가 되고, 한국말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끌어당기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뭐 배도 고프니까 어차피 가야 된다는 경고는 해 놓았으니까 여기서 선생님은 사요나라!

‘통일’의 말씀을 알았지요? 「예.» 여자와 남자가 핏타리(ぴったり);빈틈 없이 꼭 맞는 모양) 통일이에요. 핏타리, 핏타리... 해보라구요! 「핏타리!」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사랑의 전통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이거(마이크) 떴다구요. 나도 배고파요. 여러분은 배고파요, 안 고파

요? 「안 곱니다.」 나는 배고파요. 아침에 떠날 때 밥도 못 먹고 떠났
다구요. 여섯 시 반에 오는데 말이에요. 여덟 시 반이 됐어요. 「아버님
말씀을 너무 오래 하셨습니다. (윤정로 원장)」 (녹음이 잠시 중단됨)

「지금 아버님께서 ‘오늘 찍어 줄까, 내일 찍어 줄까?’ 그러셨습니다.
(윤정로 원장)」 (박수) 「오늘 찍어 주세요.」 선생님이 딱 놓고 줄로
부처끼리 일본 식구 한국 식구 한쌍 한쌍 올라와 가지고 전부 다 자매
결연을 맺으라구요. 「예, 지금 아버님 말씀이, 오늘 부부로 오신 한국
부부와 일본 부부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윤정로)」 알겠어
요? 「예.」

그 두 쌍을 중심삼고 사진까지도 자매결연한 사람들을 찍어 주려고
그래요. 「예. 이번에는 부모님이 단독으로 가정을 찍어 주시는 것이 아
니고, 한국과 일본을 먼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자매결연한 부부와
부모님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어 주십니다.」 부처끼리도. 「부처끼리도
찍어 주고요, 또 자매결연한 부부도 찍어 줍니다. 두 번 찍습니다.」
(박수와 환호)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에요. 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기를 사랑하
고 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모든 짐승들도 사랑하
는 거라구요. 물의 동물, 산의 동물을 사랑하게 되면 우주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랑하는 위에서 자기 아들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전통을, 부모가 동물을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산에 있
는 짐승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전통을 가르쳐 주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정서적인 선인(善人)이 되고 아들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
다. 그런 교육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잡아먹고 죽이고, 전부 피를 보
고 살았다구요. 그래서 선생님은 고기를 잡으면 첫번 작은 것은 크든
작든 전부 다 제사 했습니다. 산 것을 하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원만한 사랑을 성숙시켜 주는 곳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말이에요, 그 날에 큰 고기를 제사하게 되면 큰 고기들이 물어요. 벨지도(브라질에 있는 성지의 하나)에 가면 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먹을 것을 주면 고기들이 몰려온다구요. 그래, 재미가 있어 가지고 먹여 주니까 거기에 낚싯대를 던져 가지고 고기 한 마리를 딱 잡게 되면 틀림없이 물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잡은 것을 놓아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하루종일 기다려도 안 와요. 사람보다도 지혜로워요. 통일교회 사람들, 여기 자르딘에 오라 하는데도 안 오는 그들보다... 지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늘로 안 가는 거예요. 정말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번 잡은 것을 놓아주면 고맙다고 생각할 때, 큰 고기들이 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는 그걸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손자의 피살을 전부 다 보충해서 하늘의 충신을 만들기 위하여니, 너는 충신의 피살을 키우는 원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창조물로서 자기 생애의 모든 보람을 다 이루고 남음이 있다.' 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더해서 너를 먹은 원소를 전부 다 내 생식기의 요소로서 전부 다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소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접촉하는 생식기의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식기에 접촉하는 것이 소원이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남자에게서 제일 앞에 특 나온 것이 뭐예요? 그것 아니예요? 여자에게 특 나온 것이 뭐예요? 젖이에요. 젖이라구요. 이 젖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좋으면 궁둥이를 만져요, 궁둥이. 궁둥이를 만진 다음에는 젖을 만지려고 해요. 그거 체험 안 했어요? (웃음) 전차

같은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남자가 있으면 틀림없이 궁둥이를 만진다는 거라구요. 기분 나쁘게 말이에요.

척 보아서 그래도 괜찮은 여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손이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는 거예요. 안고 나갈 때는 전부 다 키스하려고 그런다구요. 하루에 그렇게 원만한 사랑을 성숙시킬 수 있는 조화의 재간을 가진 것이 남자 여자의 두 비밀 무기 창고다 이거예요.

부처끼리아? 「예.」 여기는 100점이고, 여기는 70점이구만. 만족하지 않지? 왜 웃어? 아버지가 물어 보면 대답해야지. 「예.」 그렇지? 그렇지 만 이 남자는 정직한 사람이야. 왔다갔다 안 해. 일방통행이니까 안심이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맞지? 「예.」 그래서 해준 거야. 「예.」 그래, 보화야, 보화. 그렇게 알고... 뭐 이런 얘기했다가는 혀가 닳아져 없어지더라도 계속하겠으니 중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생님이다 이거예요.

그래, 안녕히 주무시라 이거예요. 저녁때 안 나타난다구요. 재미있는 영화라도 하나 보고 싶은데, 대신 실화를 보면 좋겠다구요. 부처끼리 ‘오늘 어떻게 재미있게 살았는지 한번 내 앞에서 시험을 해 봐라.’ 하면 그런 놀음을 할 수 있는 부부가 있겠나 생각한다구요. 부모이니,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그랬을 것 아니예요? 에덴에 돌아가는 거라구요.

백과사전처럼 가르쳐 주었으니 실제로 그렇게 살라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발가벗고 여자 입술이 새빨개지고 남자도 눈이 새빨개져 가지고 전부 다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웃으면서 ‘야,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님이 쭈욱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래, 무거운 중심이 내려오니까 중량이 있기 때문에 인력에 있어서

수직이 평선 앞에 쑥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힘이 쭉 밀어서 들어와서 쭉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 사랑, 첫사랑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백과사전같이 실체를 이렇게 분석해서 가르쳐 주니, 실제 맛이 괜찮지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라구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여왕님을 찾아가는데... 해와가 여왕님이예요. 하나님의 부인이예요. 실제 부인이예요. 해와는 남편한테 갈 때는 왕궁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조용히 가게 갈 때, 남자가 누워 있더라도 말이예요, 그 옆에 가서 어디 돌아가려면 길이 머니까 그걸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볼 것 다 보면서... (웃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꿈에도 좋고 싸울 때도 좋고, 그렇게 만사가 좋으니 천국이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런 부부가 행복한 부부인데 너희들은 그런 시간을 많이 안 가졌다구, 눈을 보니까. 분석적인 머리가 되어 가지고 사랑이 요렇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생각할 거라구요. 대단하기 때문에 아들딸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배웠습니다, 아버님한테.」 아버님한테 배웠으면 월사금을 내야지. (웃음)

형제가 너무 많은데, 형제가 굶어 죽으니까 여러분 껌테기를 벗겨서라도 팔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껌테기 벗으면 둘째 껌테기 나오는 거 알아요? 게 발을 떼면 또 발이 나오지? 봤어요? 이 껌테기를 벗으면 껌테기 안에 살이 메워져서 껌테기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니다.」 이 껌테기, 첫 껌테기는 사탄에게 받은 껌테기니 벗겨서 팔고, 벗겨 판 후에 진짜 껌테기가 나온다 할 때는 이 껌테기를 벗겨 파는 운동을 하게 된다면 천하는 자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것을 하고 나면 남자를 팔아서, 여러분 남편을 팔아서 세계를 살

려 주어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장에 갈 수 있는 남자 대신 사거리랑 몇천억 원을 받아 가지고, 남편을 형장에 보내고 그 돈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형제를 천 명 만 명을 살릴 것이다 이거예요. 좋은 생각이예요, 나쁜 생각이예요? 「좋은 생각입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왜 웃어? 「좋아서요.」 좋아서? 말은 잘 한다. 살살 녹여도 녹지 말라구. (웃음) 30퍼센트는 가짜가 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보기에는 30퍼센트는 가짜라구. 손을 보면 재간이 있겠구만. 손이 이렇게, 손톱이 짧으니까 기술적인 면에 재간이 있겠어. 그래? 「예.」 밤에도 바늘귀를 잘 꿰지? 손을 싹싹 만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안 해봤어? 그거 해봐야 재간 있는 여자가 된대구.

자, 입 벌리라구요. 물 한 잔씩 줄게요. 탕감수를 마실지어다! (박수) 아이, 맛있다! 「아이 맛있다!」 물까지 먹었으니 그 다음에는 보따리 싸 가지고 이별이예요. 자, 안녕!

오늘 뭐라구요? 공명? 「통일!」 공명? 「통일!」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경배! (박수) *

섭리적 총정리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 혼독 후에 말씀하심) *영계가 복잡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원리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가 없으면 영계와 지상에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부모를 중심삼은 원리의 길밖에 갈 길이 없는 거라구요. 지금 예수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다 '석가, 마호메트, 공자 등 모든 성인들도 축복을 받았어요?' 하면서 식구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

타락 이전에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원수라는 개념은 타락 후에 생겼습니다. 타락 후에 상하가 갈라진 거예요. 그 말은 가정에서 부모와 아들딸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졌어요.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고, 가인과 아벨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거짓 사랑을 중심삼고 그렇게 여섯 갈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1998년 9월 20일(日), 벨베디아 수련소.

그것을 어떻게 복귀할 것이냐? 복귀라는 말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상하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불변 통일이요, 영원 통일입니다. 거짓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짓 부모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거짓 생명, 거짓 혈통, 거짓 양심을 포함한 그 넷 모두 다 사탄편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본연의 창조이상 가운데에는 그 넷 모두 다 절대적으로 하늘편에 속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양심이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끄러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갈라진 존재들 가운데 인류에게 있어서 ‘내가 모든 피조세계의 중심이다.’ 하는 센터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의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중심이다. 부모도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라!’ 하는 거라구요. 부모, 아들딸,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자기가 중심이라고 하는 개인주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에 의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끝날에 이 땅 위에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아무래도 좋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들딸을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아들딸한테 뭐라고 하면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프라이버시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주의 개념을 심어 놓은 곳이 미국입니다.

거기에는 조부모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들딸도 없습니다. 부모도 필요 없고, 부부도 필요 없고, 아들딸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사탄이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 왕국인 미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키 고? 「흠!」 선

생님은 모르겠다구요.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양키고 홈! 이 땅, 어디에서도 양키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교육, 군사,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시스템이 세계 제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라구요.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근본은 사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랑의 원수라구요. 그 혈통이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는 종교가 필요 없다, 인본주의가 최고다.' 하는데, 인본주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을 중심한 세계를 하나님 중심한 세계로 돌려야

이제 끝날입니다. 미국도 갈 길이 없고, 세계도 갈 길이 없습니다. 미국은 '원 네이션 언더 갓(One Nation under God)'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나라에는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 월드 언더 갓(One World under God)'이라는 칸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러한 칸셉이 없어요. 절벽에 이르러서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끝날의 세계는 잘라 버리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개인가 정·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를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컨트롤하는 거라구요. 이 타락한 세계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싸우지요? 그거 왜 그래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페어 시스템(pair system)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몸도 주체와 대상으로 페어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종적이고, 몸은 횡적입니다. 이것이 90각도를 이루는 거예요. 상하전후좌우가 센터를 중심삼고 직각입니다. 사과를 상하, 전후, 좌우로 자르면 열두 조각이 됩니다. 그 열두 조각들 가운데 어떤 것을 중심삼고 보더라도 센터에 대해서는 직각입니다.

가정도 그것과 같아야 됩니다. 가정에는 부자의 관계가 있고 부부 관계도 있는데, 이것들이 직각인 것입니다. 형제도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 세 방향이 가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와 아들딸,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들, 여섯 존재들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하나 되어야 하느냐?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타락한 부모가 아닙니다. 타락한 부모, 타락한 부부, 타락한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센터가 될 수 없습니다. 참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님과 비교해 보라구요. 내 남편이 절대적인 남편이고, 내 아내가 절대적인 아내예요? 그럴 수 없구요.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언제나 변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미국 가정에는 부부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에 의해서 타락한 아담 해와보다 더 사탄적이 라구요. 거짓된 남자와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한 가정들은 지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절대·유일·불변·영원의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유일·불변·영원의 상대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고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있지 않지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주의 쌍쌍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되고 사람의 몸과

마음도 하나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영원한 센터를 중심삼고 중
 황이 하나되고 전후도 하나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살고 싶겠어요? 우리 가정의 센터에 임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삼고 상하, 전후, 좌우가 완전히 하나되는
 가정이 창조이상을 완성한 가정이 됩니다. 그것이 아담이 타락하지 않
 고 이루어야 할 가정이었는데, 그러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
 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사랑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절대적인 동기는 하나님입니다. 혈통도 없어
 요. 아무리 세계 제일의 선진국인 미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침을
 뱉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종교의 핵심적인 칸셉은 절대 믿음·사랑·복종

하나님은 이와 같은 비참한 인류를 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래서 종교를 세웠습니다. 그 종교의 센터 칸셉이 절대 믿음, 절대 사
 랑, 절대 복종입니다. 어떻게 사탄에 대한 믿음, 사랑, 복종을 완전히
 끊어 버리느냐? 그러니까 모든 종교세계의 핵심적인 칸셉이 절대 믿
 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이라는 말은 수천 번이라도
 제로의 상태까지 내려가서 '나'라는 존재가 없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
 다. 사탄의 피가 이렇게 검은 점으로 얼룩져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
 우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고 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먼저 누
 가 죽음의 길을 가느냐? 그것이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칸셉입니다. 절대 믿음, 그것이 없으면 사탄세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랑이 없으면 사탄의 사랑을 영원히 청산할 수 없습

니다.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지워 버릴 것이냐? 재창조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 복종! '모든 인류가 따라갈 수 있는 절대 칸셉이 필요한데, 나한테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복종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 네 이름이 뭐야? 「지니입니다.」 지니라고 하는 칸셉이 있으면 안 돼! 미국 여자, 미국 사람이라는 칸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구! 절대복종이라구.

역사적으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의 관점을 가지고 피를 뿌리며 싸워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 것이냐?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계는 사탄의 세계가 되고, 사탄의 세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결하는 매개적인 것이 종교입니다. 그 종교는 절대 믿음을 요구합니다. 통일교회의 멤버들이 그러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사랑이 있어요? 그 절대라는 말의 뜻은 자신의 형제, 부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지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절대 사랑을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섭리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믿음·사랑·복종이 없으면 본연의 세계로 복귀가 안 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그러한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칸셉 위에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칸셉으로 창조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복귀하느냐? 더 높은 차원의 절대적인 믿음, 사랑, 복종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기준 이상의 기준으로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혈통 같은 것은 짐을 뺏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신부를 원수가 채가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가지고 아들딸을 낳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렇게 낳은 아들딸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본래의 남편이 환영하겠어요? 아니라고요. 그 사랑의 원수 때문에 아담 해와가 타락해 가지고 온 인류의 가정이 깨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의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사탄의 대표가 되어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모른다구요. 미국 국민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무서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프리 섹스를 청산해야 됩니다. 호모, 레즈비언, 알코올, 담배, 마약 등은 끝날에 인류를 망치기 위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아무리 미국의 힘을 자랑하더라도 그러한 갈고리에 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편으로 돌리느냐? 처음에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칸셉으로부터 모든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까지 인간이 그러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사랑의 상대를 못 찾았습니다. 예수도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아담을 대신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참부모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독교 세계가 몰라요.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가정 이상을 깨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 가정 이상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는 조부모, 부모, 부부, 아들딸의 4대가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조부모, 부모, 부부, 아들딸의 4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모델이에요. 가정이 사랑의 수련장입니다. 거기서부터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 출발해서 국가와 세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센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면 영계와 육계의 어디든지 연결됩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공명하게 되면 영계까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여러분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타락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됨을 거라구요. 완전히 몸 마음이 하나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유일·불변·영원의 인격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그래요? 어느 누구도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녀석들은 지옥으로 깨끗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세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사탄세계를 넘어서는 것은 절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의 몸 마음은 언제나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면 평화의 세계는 영원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칸셉을 발견하느냐? 인간이 그러한 기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절대유일·불변·영원의 인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그와 같은 대상적인 상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타락한 세계가 그와 같은 기준에 도달해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정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종적으로 부모와 아들딸, 횡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기준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딸이 없는 부모가 행복해요, 불행해요? 아들딸을 잃어버린 부모와 같은 입장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해요? 아무도 그것을 몰라요. 에텐 동산

에서 아들딸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하나님의 고통을 어느 누가
알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딸을 복귀하기 위해서 찾아 나
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 세계를 청산짓기 위해 참사랑을 갖고 오시는 재림주

그래서 재림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재림주가 구름을 타고 와요?
똥!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름 위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구요.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곳은 이 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청산해
버릴 것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
니다. 이 땅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궁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참부모의 심정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안 죽는다고 호연장담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한 길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똥!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
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레버런 문은 다릅니
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레버런 문은 전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분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의 모든 사탄세계가 하나되어
가지고 레버런 문을 반대했습니다. 40년 동안 죽이려고 했어요. 그
렇지만 레버런 문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팔십을 넘고 있어요. 누
가 나를 보호했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세계가
짓밟으려고 해도 레버런 문은 반대쪽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
탄세계의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는 전부 다 레버런 문을
반대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 세계는 신부의 입장에 있습니다. 2차대전 후 민주세계가 레버런 문과 하나되었더라면 가톨릭과 신교도 문제없었을 것입니다. 가톨릭과 신교의 지도자들을 이틀만 수련을 시켰더라면 완전히 하나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진리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진리냐? 참사랑의 진리입니다. 참사랑은 전기와 마찬가지로요. 닿기만 하면 확...!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참사랑의 힘에 터치만 하면 도망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극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참사랑을 중심삼고 외적인 오관과 내적인 오관이 공명을 일으키며 하나되는 것입니다.

너, 미국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메리칸입니다。」 아메리칸? 아메리카는 넘버 원 메리 카(number one merry car)의 나라라는 뜻이구요. 기술이 좋아서 제일 좋은 차를 만드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어떻게 미국이 230년 만에 이처럼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이 미국의 힘에 의해서예요, 이민을 온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예요? 기독교 문화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때 잘못 해 가지고 하마술드도 죽고 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르던 선언의 첫 번째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신앙의 차원이 얼마나 높은 차원인지 모른다구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념입니다. 그 절대 신앙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래야 절대적인 상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자극을 느낄 수 없어

하나님도 혼자서는 사랑의 자극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생명·혈통·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는 그것들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생명·혈통·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혼자서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없어요. 그렇지요? 「예.」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사랑·생명·혈통·양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들이 밸런스를 취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상과 형상도 밸런스를 취하고 있으면서 이와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터치(touch)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느냐? 상대가 나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분·합입니다. 왜 분(分)이냐? 사랑의 자극을 느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오관이 늘라는 것입니다. 입도 벌어지고, 눈도 벌어지고, 후각도 벌어지고, 오관이 전부 다 벌어져서 닫힐 줄 모릅니다. 영인체의 오관과 육신의 오관이 전부 다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인이라도 혼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없지만, 이 미인 앞에 험상궂은 남편이 나타나면 그러한 것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것처럼 나의 사랑·생명·혈통·양심이 최고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때가 결혼 첫날밤입니다. 그렇지요? 나는 모르겠다구요. (웃음) 그러한 것들이 상대가 없을 때는 잔잔한 물처럼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가 상대가 나타나게 되면 전후좌우, 사망 팔방으로 소용돌이를 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도 사랑의 상대가 나타나게 되면 뒤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상대가 자기보다 더 훌륭하기를 바라는 거라구요. 하나님도 사랑의 상대가 하나님보다 낫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들도 결혼할 때 자기의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지요? 그렇지요?

부모가 아들딸을 낳아서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마찬가지로는 것입니다. 그러한 칸셉이 변함 없이 대대로 상속되어 왔습니다. 생각해 보라구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자기 사랑의 상대는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젊은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은 통일교회밖에 없어

너도 미국 여자야? 어디서 왔어? 「루이지애나에서 왔습니다.」 루이지애나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 사탄편에 속해 있어? 「파더의 주(州)입니다.」 파더의 주가 아니라구! 「하나님의 주입니다.」 하나님의 주야? 하나님은 루이지애나 주와 관계없다구. 지금까지 반대했다구. 유대인, 앵글로색슨족 등이 ‘레버런 문이 소수 민족들과 하나되어 가지고 앞으로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다.’ 하면서 반대했다구. 시 아이 에이(CIA;미국중앙정보국)와 에프 비 아이(FBI;미국연방수사국)도 미국 백인들한테는 넘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튼튼!

여기도 보라구요. 일본 사람들은 많은데, 앵글로색슨계는 적다구요. 자기들은 순수한 백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요. 앞으로 세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세계도 힘이 없습니다. 2차대전 후에는 수천만 명의 신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자랑했는데, 지금은 다 늙은 사람들만 앉아 있습니다. 칠십 이상의 무덤이 가까운 노인들만 앉아 있고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통일교회는 다르지요? 늙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팔십 이상 된 사람, 손 들어 봐요! 레버런 문밖에 없지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나이 든 지도자를 좋아하지 않지요? 레버런 문은 팔십이 넘는 노인인데,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손자들 같은 젊은이들이지요? 그렇지요? 누가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레버런 문이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

모들이 아니라구요. (웃음)

이 종족이 누구의 종족이에요? 레버런 문의 종족이지요? 지금 3억6천만쌍을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국가의 기반을 닦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입적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제일 앞에 서겠다고 싸우게 될 거라구요.

미국 정부가 젊은이들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제, 정치, 외교, 교육, 종교의 힘으로 그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은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것이 칸셉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선생님은 칸셉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칸셉이 필요 없다.’ 하지요? ‘우리는 리얼리티가 필요하다.’ 하는 반면에 레버런 문은 이것이 칸셉이라고 생각하는 데, 여러분은 ‘사실입니다.’ 했지요? 그래요? 「예,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사실이 아니잖아? (웃음)

여러분은 선생님을 좋아해요? 「예.」 얼마나 좋아해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얼마나 많이 좋아해요? 「제일 좋아합니다.」 지옥의 밑바닥과 천국까지 다 포함될 만큼 좋아해요? 지난 50년 동안 천국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혼독회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배우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성약시대라고 하는데, 성약이 뭐예요? 가정 이상의 완성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상천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락권을 벗어나느냐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타락권을 벗어나느냐? 아무리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가 레

버린 문을 짓밟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반대편으로 자꾸자꾸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짓밟아서 통일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통일교회가 너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높은 수준까지 올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레버런 문이 박해를 이겨내고 빅터(victor; 승리자)가 됐습니다. 빅토리어스(victorious; 승리를 거둔)가 아니에요. 형용사는 필요 없습니다. 빅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빅터는 크리에이터(creator;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완성한 다음에 앉는 자리는 빅토리어스의 자리가 아니라 빅터의 자리입니다. 어느 쪽을 좋아해요? 빅터를 좋아해요, 빅토리어스를 좋아해요? 「빅토리어스를 좋아합니다.» 빅토리어스를 좋아해요? 어느 게 좋아요? 피조물이 좋아요, 창조주가 좋아요? 빅터는 크리에이터를 말하고, 빅토리어스는 그게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아요? 선생님은 빅터가 좋은데, 여러분은 어때요? 예스, 노? 「예스!」 히히히, 처음에 대답을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커버하려고 ‘히히히!’ 하지. (웃음)

언제나 타락한 세상에서는 확신을 못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엇이 필요하더구요? 「믿음.» 절대 뭐라구요? 「사랑.» 그 다음에는 절대 복종! 그 세 개념을 생각해 보라구요.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 믿음을 원하느냐? 오케이! 절대 사랑? 오케이! 절대 복종? 오케이! 그러나 몸은 어때요? 미국이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라는 관념이 있는 곳에는 절대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센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사랑, 육적인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면서 점점 커 가지고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모든 피조세계의 사랑의 코어(core; 핵심)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절대 믿음의 자리에는 절대 사랑이 따라옵니다. 부부끼리 ‘당신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

느냐? 절대적으로 믿느냐?’ 하고 물어 보지요? 그럴 때 ‘예스!’ 하는 거기에서부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 위에 절대 사랑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 없으면 절대 사랑이 연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을 대해서 절대 믿음이 있어요? 예스, 노? 「예스!」 영원이에요, 잠깐이에요? 그것이 영원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절대 믿음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을 믿지요? 왜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요. 미국의 2억4천만 국민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지금까지 그러한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예!」 통일교회에 들어온 지 몇 년이나 되었어요?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있지요? 처음에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의심이 많았지요? ‘선생님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동양 사람이다. 백인이 아니라 황인종이다. 그러니까 싫다.’ 했지요? 하나님은 색맹이라구요. 하나님은 영원한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좋아요? 미국식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레버런 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좋아요?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워요?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까워요, 미국의 세속적인 것이 가까워요?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깝습니다.」 대답은 듣기 좋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요. 대답은 좋아요. 그렇게 대답만 좋은 것은 사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앞에서는 ‘만세!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떠들어대지만, 저 문 밖에만 나가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한테 그러한 습관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은 40년 광야노정을 마치고 가정이 정착하는 시대

지금 선생님이 축복받은 사람들은 모두다 자르딘에서 40일수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요?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중심삼고 애굽의 40년 고역에서 벗어나서 고향을 찾아간 것과 같습니다. 고국이 아니에요. 지금 통일교회가 40년 광야노정을 끝마치고 가정들이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노정을 끝마치고 가정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무엇 때문에 레버런 문이 4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축복 때문이었잖아요? 36가정부터 출발해서 3억6천만쌍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이루어다구요. 사탄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축복이 전세계로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지옥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레버런 문을 핍박하고 통일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총공세를 폈지만, 레버런 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모든 인류가 ‘저들이 누구냐?’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레버런 문과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경계선은 지구로 확장되고 우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탄의 경계선은 지옥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경계선을 철폐해 버리는 것입니다. 1998년 6월 13일 축복 때 천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에 성인들과 살인마들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다 형제들이라구요.

선생님이 원수 국가들끼리 교차결혼을 해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원수의 국가들이었던 한국과 일본을 축복으로 묶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딸이 태어나면, 그 아들딸은 어느 나라에 속하겠어요? 한국에 속해요, 일본에 속해요? 한국도 원수고, 일본도 원수입니다. 통일교회를 제일 많이 반대한 곳이 한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반대한 곳이 일본이라구요. 세 번째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

다. 한국과 일본이 부모입니다. 미국은 장자예요. 그것은 처음으로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가정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선생님이 3억6천만쌍을 축복함으로써 그 조상들이 천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축복하기 이전에 영계를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1998년 6월 13일에 시작된 것입니다. 성인과 살인마들을 축복해 주었는데, 성인은 장자의 입장이고 살인마는 차자의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차자들이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칸셉을 가지고 장자를 따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황적으로 수평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칸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마피아와 갱패들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원수와 세계의 원수들이 똑같은 차원에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선생님이 인류에게 그러한 축복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으로 전인류가 참부모의 기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참사랑의 가정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래서 영계의 아무리 악한 조상이라도 우리의 조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가인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입장에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나라와 장자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차자의 나라는 필요 없습니다. 영계와 육계의 모든 사람들이 차자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두 형제가 하나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둘을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 부모의 생각입니다. 부모 중의 부모 입장에 있는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졌습니다. 이 타락한 세계에 있어서도 창조주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날에 깨끗이 청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물처럼 밀려들던 핏박도 썰물과 만나서 밸런스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승리의 깃발을 펼키면서 천국으로 향하는 배를 띄우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전에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지 모른다구요.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선생님은 알지만, 여러분은 잘 모른다구요.

지금은 섭리가 종결되는 때입니다. 빌딩이 다 올라갔다구요. 그러니까 잘못된 곳만 체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러고 있다구요. 여러분은 어때요? 모두 다 그렇게 완성됐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아담 가정이 종족민족국가세계적인 가정의 대표라구요. 그렇게 다양한 칸셉의 센터 홈이 완성된 아담 가정이라야 참사랑을 중심삼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 가정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적인 사랑·생명·혈통과 횡적인 사랑·생명·혈통이 하나되어서 상속되면 천국 가정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은 가정들을 어떻게 180도 전환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의 장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국에 국가관·사회관·가정관이 없어요.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4대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러한 가정이 없어요.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없으니까 불안정한 것입니다. 인본주의 칸셉을 따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정 기준을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복귀된 그 기준에서 부부의 가치가 찾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레버런 문을 따라오지 않으면 앞날이 길지 않습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없습니다. 레버런 문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와 기성교회가 하나되지 않아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영어를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잊어버렸네. (박수) 내가 어느 나라의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 조직

내일은 내가 자르딘에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바쁘게 남미의 판타날 이라든가 코디악 바다로 가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판서하시며) 이렇게 되면, 이게 글로브(globe;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통일교회 가정 조직이 이것과 딱 같아요. 이 우주의 글로브를 통하는 것같이 상하관계좌우 관계·전후관계를 묶어 가지고 센터가 있어요. 이런 세계가 되기 전에 맨 처음 여기에서부터 모든 만물이 깃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과 같은 구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운드(ground;지면, 바닥), 이것은 전부 다 이것을 중심 삼고, 이것이 중심이 되고, 이것도 전부 다 여기에 평형이 되고, 이것도 평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중심삼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구요. 요것하고 요것이 종적으로, 횡적으로 전부 다 평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왜 생겨났느냐? 사랑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왜 생겨났느냐? 하나님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우주를 창조하는 힘의 존재로서 있었겠어요, 작은 데서부터 자라났겠어요? 「자라 나왔습니다.」 어떻게 자라났겠어요? 통일교회로 말하면 소생·장성·완성 3단계를 거쳐서 자라 나왔다 이거예요. 그것을 말할 때 유아시대, 형제시대, 커플(couple;부부)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랄 수 있는 그 모든 단계, 이 모든 칸셉은 사랑을 중심삼고 시작했는데, 사랑의 개념 가운데 하나님도 플러스 마이너

스 존재의 핵을 세워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여기에서, 이와 같은 자리에서 이것을 중심삼고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센터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중심삼고 옮겨지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또 이것을 중심삼고 점점 커 가는 것입니다. 옮겨져 가지고 더 커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 가는 거라구요.

「센터가 옮겨진다는 말씀입니까? (통역자)」 센터가 그래요. (판서하신 것을 가리키시면서) 한 점을 중심삼고 개인·가정·종족, 이렇게 커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을 중심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으면 딱 이것이에요. 전부 다 횡적으로 전부 다... 그래서 이 버티컬(vertical; 종적인)도 평형선, 호리젠털(horizontal; 횡적인)도 평형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것이니까 센터에서 이것만큼 더 머니까 가치가 요만하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점점 커 가니까 이만하다는 거예요. 더 크게 되면 이렇게 돼요. 점점 가까울수록 가치가 있는 거라구요. 맨 나중의 중심이 뭐냐? 여기에 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주입니다. 하나님 대신과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횡을 중심삼고 보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작지만 같은 거예요. 이만큼 멀 때는 이게 이만큼 커 가면서 옮겨지고, 전부 다 이렇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에 반대되니까 여기에 오는 거예요. 사람은 맨 나중에 지었으니까 커 가지고 이쪽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물건을 지어 가지고 전부 다 중앙이 사람이 되니까 딱 누르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는 것

세상을 평면적으로 보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세계도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식물세계도 플러스 마이너스, 동물세계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전부가 사랑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쌍쌍 제도로 돼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구요.

플러스 마이너스 칸셉이라는 것은 전부 다 남녀의 칸셉이에요. 남녀가 무엇이나? 컨벡스(convex; 볼록)와 컨케이브(concave; 오목)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운동이 안 된다구요. 운동을 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광물세계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고받음으로써 존재하고, 식물세계도 수술과 암술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고받음으로써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물세계도 수놈 암놈의 칸셉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평균도 수놈 암놈으로 돼 있다는 얘기를 하지요? *그것들도 수놈과 암놈이 하나돼 가지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식함으로써 존속해 나가는 거라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 언제든지 사랑의 질서와 사랑의 관문을 거치지 않고는 존재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구요. 이렇게 볼 때, 사랑의 관문을 만들고 관문을 열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부부를 중심삼고 자녀를 번식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물건은 큰놈들이 삼켜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구요.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은 진화론에서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작은 것은 투입해 가지고 큰 것을 완성시켜야 할 우주의 사랑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세포가 하나님의 생명의 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광물이나 모든 존재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접촉하는 그 곳을 희망봉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혀야 돼요. 빨리빨리 먹혀서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광물세계는 식물세계의 요소로써 흡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흡수돼 가지고 더 큰 데

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더 큰 데로, 더 큰 데로 가 가지고 최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담 해와를 중심삼은 사랑의 주인 될 수 있는 컨케이브(concave;오목) 컨벡스(convex;볼록)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빨리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래, 사랑의 근본에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면 빨리 들어갈수록 빨리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작은 것은 전부 다 흡수되려고 하는 거라구요. 사랑의 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인의 그 바탕에 흡수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물을 자기 아들딸보다 더 사랑하고 그 아들딸을 키워야 그 만물이 희생한 가치를 중심삼고 높이 올라온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사랑하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해서 사랑을 몰라요. 전부를 희생시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탄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한 가치의 관계를 갖게 하는 곳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구 때문에 지었느냐 하면, 아담 해와 가정의 사랑 때문에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사랑 때문에 지었다고요. 완성된 하나의 가정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아담 가정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것은 왜냐?

하나님을 중심삼고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절대 주체자인데, 절대 주체자라면 전부 다 아담도 마이너스(대상)요, 아담 후손도 마이너스예요. 이게 합해야 여기에서 큰 플러스의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들의 가치적 관계를 동일하게 갖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라가 아니고 가

정이에요. 가정부터입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해야 완전한 종족, 완전한 나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관계의 내용이 영원히 변치 않을 수 있는 숙명적인 과제와 같은 내용으로서 부자지관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면 아담의 아들딸은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 십 대, 백 대의 후손들은 무엇이나? 백 대의 할아버지라고 하겠어요, 아버지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아버지와 아들딸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숙명적이기 때문에 부자지관계는 영원히 뜯어고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형제관계를 뜯어고칠 수 있어요? 부자지관계를 뜯어고치고, 형제의 관계를 뜯어고치고, 부부관계를 뜯어고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담 가정에 여자 하나 남자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디보스(divorce;이혼)가 안 된다고요. 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하나님이 꼭대기에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에요. (판서하시며) 하나님하고 이것이 자녀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업(up;위)이 상현이에요, 상현. 이래 가지고는 이것을 돌릴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돌리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선이니까 어디에 가든지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적 세계,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의 칸셉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중심삼고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중심삼고 사위기대라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또 앞을 중심삼고 보게 될 때는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될 때, 어디를 놓더라도 다 수직이 되는 거예요. 안전해요.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아도 좋고, 옆에서 보아

도 좋고, 아래서 보아도 좋고, 어디에서 보아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따 버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굴러가게 하려면 이 귀퉁이를 따 버려야 돼요. 그래 가지고 굴리면 돼요. 굴릴 수 있다구요. 그냥 놔두면 구르면 깨져 나가는 거예요. 굴리는데 굴리는 그것이 깨진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굴리는 데도 여기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중심을 중심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돌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는 상대를 중심삼고 관계되어 있어

남자도 여자도 사위기대라구요. 하나님의 창조이상의 사위기대가 되어 가지고 이것하고 여자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센터가 있어야 돼요. 몸 마음도 전부 다 센터가 있어요. 전부가 다 센터 센터 해 가지고 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센터인데 무슨 칸셉이 센터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힘입니다, 힘. 힘으로 하게 되면 힘은 한 줄에도 끌려갑니다. 절대적 위어로 전부 다 올라붙어요. 앞으로 가게 되면 뒤가 없어요.

여러분, 상(上)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下)를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아래가 있어야 상이라는 말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른쪽이라는 말은 왼쪽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앞이라는 말은 먼저 뒤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라는 말은 여자를 먼저 인정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구성요소라는 것은 자체를 중심삼고 관계되어 있지 않고 상대를 중심삼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플러스가 있는 데는 절대적 마이너스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pre;이전의) 칸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플러스라는 말은 그 전에 마이너스를 먼저 인정하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자기 혼자를 위해서 태어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위해서 태어났다는 개념이 나온다고요. 모든 존재는 이렇게 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원형, 구형을 이루기 위한 목적 때문에 전부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달도 둥글고, 별도 둥글고, 해도 둥글고, 우리 마음도 둥글고, 온 우주가 둥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우주라는 것이 전부 다 둥근 거예요. 그래 가지고 상관관계를 이루어 주고받으면서 운동을 계속하는 세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겨났느냐 하면,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도 쌍쌍으로 되어 있지요? 코도 둘이라구요. 전부 다 그래요. 세포도 뼈와 살로 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어떤 것이 코어(core;핵)냐 하면 마음이 코어예요. 뼈가 생긴 대로 살이 붙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명령대로 몸뚱이는 움직여야 된다는 결론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구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나요? 뼈(마음)를 따라가요, 살(몸)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있어서 몸이 마음, 뼈를 따라가는 존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강력한 뼈입니다. 그 변함 없는 뼈가 마음이라구요.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그렇게 몸이 뼈를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매개체로 오신 참부모

그래, 젊었을 때 달라지고, 청년 때 달라지고, 부부 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예요. 젊을 때도 사랑, 청년 때도 사랑, 중년 때도 사랑, 늙어 죽어서도 사랑, 영원히 사랑을 위해서 메인스트림(mainstream;주류)

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면 양손을 한번 들어 보라구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아버님이요.」 아니라구요. *아버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구요. 하나님이 영원한 센터라는 거예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아버님은 매개체입니다. 레버런 분이 도적놈이라면 ‘내가 만들었다. 아! 좋다. 내가 했다.’ 이래야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선생님 속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진리와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전통의 주인은 단 하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주인은 레버런 분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 거기에는 절대적 개념만이 있는 거예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레버런 분으로 말하게 되면, 인간 개인적 세상의 인격을 파괴하는 자요, 가정을 파괴하는 자요, 나라를 파괴하는 자요, 세계를 혼란하게 만든 자라고 그렇습니다. 왜? 타락한 세계가 그릇되었으니 그러한 결과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의 센터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겠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존재가 이 세계에 나왔다는 것은 끝날을 청산짓기 위한 하나의 표제로 나타났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레버런 분이 공산주의의 원수이고 민주세계의 센터인 미국의 원수라고 하는데, 그래요?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미국 사람들이 레버런 분을 미워하잖아요? 통일교회 멤버들만 안 그렇다고 한다구요.

미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면 5년 이내에 미국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구요. 그렇

지만 레버런 문은 미국에 온 지 25년이 되었어도 미국화되지 않았다구요. (박수)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레버런 문의 칸셉을 중심삼고 무니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웃음) 황인, 백인, 흑인 등 유색인종들이 하나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유엔에 195개 국가가 가입해 있어서 대단히 다양한데, 그것은 레버런 문의 칸셉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칸셉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칸셉밖에 없어야 됩니다. 원 월드 언더(One World under), 뭐라고요? 「갓(God)!」 어느 게 올바른 섭리관이예요? 원 네이션 언더 갓(One Nation under God)이 옳아요? 노! 레버런 문의 칸셉은 원 월드 언더 갓입니다. 앞도 영원히 하나님 편, 센터도 영원히 하나님 편... 그러한 것을 원 월드 언더 뭐라고 한다구요? 「갓!」 그것은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그 부정하는 것이 영원히 깨지는 것입니다.

참사랑으로 엮어진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이예요? 원 네이션 언더 갓에 속하는 사람들이예요, 원 월드 언더 갓에 속하는 사람들이예요? 「원 월드 언더 갓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원 월드 언더 갓에 속해요? 더 큰 것은 어때요? 그것은 원 월드 뭐예요? 「코스모스(cosmos;우주)입니다.» 영원히 원 코스모스 언더 갓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를 연결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이상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개인도 ‘내 코스모스’, 가정도 ‘내 코스모스’... 왜 그러냐? 아담의 아들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부자간에는 자동적으로 우주적인 사랑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바꿀 수 없

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도 36가정이 참부모라고 하는 분을 3억6천만쌍도 참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원 월드 언더 갓에 속하는 모든 피조세계는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잖아요? 모든 것들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내 것이 됩니다. 그렇게 참사랑을 중심삼고 묶어진 것은 어느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내 집입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해보라구요! 마이 홈(My home)! 「마이 홈!」 마이 홈! 「마이 홈!」 마이 네이션(My nation)! 「마이 네이션!」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마이 유니버스!」 포에버(forever;영원히)! 「포에버!」 하나님을 중심삼고 영원히 연결된 세계가 내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원리관이에요! 그거 좋아요? 「예.」

본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그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가치가 개만도 못해요. 미국 여자들은 개를 좋아하지요? 인간보다 개를 수천 배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요. 사람이 개새끼 하나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불쌍해요? 이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사랑의 상대가 주막집에 가서 얻어먹는 물 한 잔보다도 더 가치 없는 자리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녹음이 잠시 끊김)

떨 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이 하나님이 바라는 가정

이 삼각형은 넘어질 수 있는데 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원형으로 만들려니 하나님을 중심삼고 삼대상목적을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머니와 딸,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를 중심삼고 하나님과 아내와 아들, 어머니를 중심삼고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전부 다 떨 수 없는 거예요. 삼대상목적을 갈아치울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통일교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나누어지면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센트럴 파크(Central Park; 뉴욕시 중심부의 공원)에 가게 되면 언덕에 앉아 가지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 보게 되면 말이예요, 아들딸 집에 가고 싶고 손주들이 보고 싶어도 못 가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이 미국의 가정입니다. 부부 중심의 가정이기 때문에 센터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쌍한 미국의 가정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회개들 하라구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기 자체와 가정과 나라와 희망의 세계를 파탄시킨 그 자리에 가지고 ‘하하하!’ 웃고 조킹(joke; 농담) 하는 것은 뭐예요? 남자 여자 조킹, 프리 섹스 조킹, 드링킹 조킹, 알코올 조킹, 레즈비언 조킹이라구요. 사탄이 ‘하하하!’ 하면서 ‘이야! 내 뜻을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비통해하는 미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뉴욕의 큰 빌딩의 이름이 무엇이라구요? 「엠페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입니다.」 엠페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하나님이 있어요? 미국의 고층 빌딩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1930년대에 지었다는데, 그때는 전부 다 하나님이 같이 지어 가지고, 이 세상을 기독교 통일의 세계로 만들려고 세계의 제일이 되라고 축복해 가지고 230년 만에 이렇게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었는데, 이게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구요?

*그것을 무엇이 지었느냐? 기독교 문화의 힘이 지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준 것입니다.

아메리카라는 말은 넘버 원 메리 카(number one merry car)의 국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을 타고 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예요, 사탄편에 속하는 사람들이

예요? 레버런 문이 그 사람들을 사탄편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면서 ‘레버런 문, 고 백 홈(Reverend Moon, go back home)!’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 아이 에이(CIA)와 에프 비 아이(FBI)에서는 ‘돈트 고 백(Don't go back)!’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워싱턴 타임스>가 필요하니까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자탄보다 무서운 통일교회 진리의 힘

2차대전 후에는 전세계적으로 ‘양키, 웰컴(Yankee, welcome)!’ 하는 분위기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그 환영하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양키, 뭐라고 해요? 고 홈! 세계를 더럽히고 있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키, 고 홈!’ 하면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를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각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을 깨울 것이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그 어떤 분야의 지도자들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레버런 문밖에 없습니다. 레버런 문이 가르쳐 주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에 와서야 그러한 내용을 이해하는지 ‘저기에 미국의 희망이 있다!’ 하는 소리들이 선생님의 귀에도 들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120일 수련을 받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레버런 문을 반대해 나왔던 미국의 목사라는 사람들도 이틀만 말씀을 듣게 되면 완전히 돌아서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통일교회에 진리의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40년 전에 전 인류가 레버런 문을 환영했다라면 세계가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윈 네이션 언더 갓이 아니라 윈 월드 언더 갓 이상의 차원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기독교가 주류 칸셉

이잖아요? 레버런 문은 더 깊은 주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알게 되면 국가를 지도하고 세계를 이끄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가 선생님을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조부모, 부모, 남편과 아내, 아들딸, 친척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모든 젊은이들이 레버런 문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레버런 문이 언론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면 6개월만에 전세계는 완전히 돌아갈 것입니다.

선생님이 180개 국가에 신문사와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언론계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오지에 있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레버런 문이 그만큼 힘을 가지게 되니까 기존의 세력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주겠어요? 당연히 레버런 문입니다. 그렇다고 레버런 문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은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희생할수록 중심자가 돼

동물, 식물도 더 빨리 더 높은 차원으로 가고 싶어서 인간에게 먹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귀한 생명·혈통·사랑의 본거지입니다. 판타날이나 코디악에서 물고기의 세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장과 똥이 있는 그대로 통째로 삼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삼켜서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켜 가지고 소화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멤버들도 어디에 가든지 물고기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삼킬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켜서 소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도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레버런 문이 삼켜 버린 것입니다. 공산세계도 전부 다 삼키는 거라구요. 중국도 삼키고, 소련도 삼키고, 미국도 삼키고, 기독교 세계도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축복가정들이 세계를 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탄까지 삼켜서 소화시킴으로써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칸셉입니다. 하나님은 소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키려고 벌리는 입은 겁니다.

여러분도 입을 한번 벌려 보라구요. 벌려 봐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삼켜 버리고, 아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나 학교에 가서 나쁜 목사나 못된 선생이 있으면 삼켜 버리고 사탄까지도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레버런 문도 그렇게 살아 왔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네가 최고의 아들이다.' 하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칸셉이예요! 어디서든지 투입하고 희생하면 할수록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기독교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곳은 통일교회밖에 없어

통일교회에도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앞에 앉아서 '선생님이 무슨 자랑을 그렇게 하고 있노? 실천은 안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기만 하는 것은 필요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구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

은 모델을 따라서 여러분도 재창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참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 아이 에이(CIA)나 에프 비 아이(FBI)라고 하더라도 참조를 못 합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생각해 보라구요. 미국 사람 중에 20년 가까이 미국을 위해서 일년에 1백만 달러씩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은 매해 1억2천만 달러씩 17년을 써 왔다구요. 레버런 문이 정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린 카드(green card; 영주권)를 갖고 사는데, 그것 가지고 미국에서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될 거예요, 무슨 주지사가 될 거예요? 9년 이상이 되어야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거라구요. 나는 그린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코리안 레지던트(resident; 시민, 거주자)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해 여기서 이익을 내 가지고 써 본 적이 없어요. 월급 한푼 받아 본 적이 없는데도 매해 이렇게 써 오는 거예요. 바보지요, 바보.

왜 그러냐? 하나님이 6천년 동안 기독교 문화권을 세우기 위해 수고했던 그걸 없애지 않게 하려니 하나님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제1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제2 이스라엘이 기독교 세계입니다. 기독교 세계의 기반이 나라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누가 미국을 보호해 나왔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톨릭과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곳은 통일교회밖에 없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기독교만 구해 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놀음이 아니라구요.

레버런 문에게 ‘고 백 유어 홈, 코리아(go back your home, korea; 네 나라 한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지만 한국이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있습니다. 기독교 대표 국가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미국을 구해 주어야 세

계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레버런 문이 활동해 나온 것이 이 미국에서 지금까지 살아 온 목적입니다. 알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그 돈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써 보라고요. 수십 개 국가를 복귀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써 보라고요. 수십 개 국가를 이미 복귀했을 거라고요. *지금 한국도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리 센터에 세워 주어도 인류와 종교 세계를 지도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종교의 힘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벨적인 독립국가입니다. 이전에는 이와 같은 독립국가가 없었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일교인들은 선생님 이상 있는 재산을 팔고 있는 땅을 팔아서라도 미국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력,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미국을 구하게 만들었으니, 미국 국민인 여러분은 그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아야 돼요. 나한테 값으라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세계 사람들, 형제들에게 값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1년에 2천만 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모두다 형제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원조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레버런 문 혼자서 그 준비를 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피시 파우더(어분)를 중심삼은 수산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도 그러한 준비를 못 했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세계는 레버런 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세사회의 평화를 중심삼고 이와 같은 세계적 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생의 어려움을 전부 다 이겨 나오는 것을 볼 때, 저분이 걸어가는 데는 하나님이 같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따라올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 꼭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박수)

그래 가지고 하나님과 참부모와 하나의 축이 되어 가지고 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세계를 본다면 *미국의 축, 영국의 축, 프랑스의 축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한 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어요. 서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 싫다고 밀어 내리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본궁

삼각에서 왜 이런 사위기대를 이루었느냐? 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지었느냐? 이런 사위기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구요. 지금까지는 남자 여자의 섹슈얼 오건(sexual organ; 생식기)을 제일 나쁜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더럽혀진 것을 다시 찾을 때는 사랑의 최고 성스러운 본궁이 되는 것이요, 생명의 본궁이 되는 것이요, 혈통의 본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구요.

*알겠어요? 「예.」 무엇이 그렇다고요? 타락하지 않은 생식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의 본궁의 출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세계에서는 결혼을 못 하게 한 것입니다. 독신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종교세계는 사탄세계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끝날에는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새로운 것으로 되찾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한다구요? 생식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유일·불변·영원의 생식기입니다. 거기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오로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우주적인 코어 러브가 정착하는 곳이 완성한 아담 가정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의 모든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의 축복은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가정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불룩은 사탄세계의 모든 남자들의 불룩을 다 합쳐 놓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구요. 그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오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세계의 모든 여자들의 오목을 다 합쳐 놓은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룩의 왕, 오목의 왕입니다. 그것이 하나되는 것이 사랑의 본궁, 기지입니다. 군대의 집결지가 기지지요? 그지가 얼마나 귀한 곳이에요? 사랑·생명·혈통의 본궁입니다.

아담 해와가 한날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져 버려서 온 인류가 지옥과 같은 고통의 세계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미국의 상류층 사람들이 날마다 부부간에 상대를 바꾸는 놀음을 하지요?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레버런 문의 힘으로 깨끗이 청산해 버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자르딘 40일수련의 의의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레버런 문을 찾을 거라구요. 보라구요. 선생님은 말이에요, 하늘편이에요. (판서하시면서) 이 영계의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구요. 이 센터 칸셉을 가지고... 이게 개인·가정·종족, 민족인데 전부 다 이 칸셉을 알았다구요. 그 다음에는 미래의 천국에 대한 것을 전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 가지고

하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바다를 사랑한 것입니다. 바다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보면 전부 다 하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땅을 사랑하고, 지금은 바다까지 사랑하면서 여기에 왔다고요.

여기에 국가 메시아도 와서 40일수련을 받는 거예요. 국가 메시아는 그 나라의 아벨 왕이에요. 그 국가 안에 있는 축복받은 사람은 아벨 나라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백성이예요. 여기에서 다 갈라졌어요. 부모가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형제가 갈라졌던 것을 통일해야 됩니다. 여기에 전부 다 모여야 한다고요. 선생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절대신앙으로 절대 선생님과 하나되라는 거예요. 절대·유일·불변·영원히 하나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중에 떠서 없어요, 없어. 그런 기반이 없다고요. 선생님만이 이 길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축복가정들은 세계화 교육, 재차 40일수련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쪽에는 반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계가 축복가정을 환영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세계의 가정들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 메시아 가정을 재차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3억6천만쌍을 할 때는 대번에 돌아간다고요. 여기서 입적시대로 들어간다고요, 입적시대. 알겠어요? 가정을 거느려서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 국가를 넘어서 세계·우주·천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하늘나라와 결속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민족 감정 등 모든 감정을 없애라는 거예요. 국가 감정을 전부 다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적하려면 7대, 160가정 이상, 180가정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인 여기에 와서 이것을 대표해서 고기도 네 종류 -사위기 대라고요.- 160마리를 잡으라고 한 거예요. 국가 메시아들 말이에요. 그래, 네 종류를 40마리씩 잡으면 그걸 완성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

사절 선포를 북쪽 여기(코디악)에 와서 한 거예요.

여기, 참부모 가정하고 축복가정에 있어서 참부모 가정 플러스에 횡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축복가정을 전부 다 연결시키는 장소가 자르딘 이라고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물이에요, 물. 그곳은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판타날에는 원시림이 그대로 있고, 모든 짐승들이 다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곳을 중심삼고 개척하는 센터가 되어 있다고요. 누구보다도 그곳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물을 사랑하고 고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모든 환경적인 여건에 있어서 참부모임에 틀림이 없다.' 할 수 있는 네임 벨류를 가져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낚시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16수 탕감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한 참부모, 땅을 사랑하고 바다까지 창조한 모든 만물을 사랑한 대표적인 참부모의 승리 기준 앞에 자녀로 태어났으니 승리한 부모의 모든 것을 자녀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무슨 상속을 받느냐? 가정을 잃어버렸으니 가정을 규합해 가지고 결실을 하기 위해서 이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가정도 160가정이에요. 그것이 뭐냐? 유엔에 가입한 것이 북한이 160번째이고, 한국은 161번째예요. 161이니까 160을 탕감해 가지고 1이 남게 되어 여기에서 새로운 나라의 입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전도 한국에서, 통합도 한국에서 되어야 하는데, 노태우가 내 말을 듣고 전두환이 내 말을 들었으면 그때 완전히 세계를 통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국가 기준을 찾

아 가지고 자르딘은 세계적 중심이 되는 거라구요. 그것을 다시 탕감해야 할 때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88서울올림픽에서 소련과 동독이 1, 2등을 했는데 가인적인 형제가 되었고, 미국과 한국이 3, 4등을 했는데 아벨적인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올림픽대회 역사상 기적 중의 기적이예요. 저쪽이 형제가 되었고 이쪽이 형제가 되었다 이거예요. 가인 아벨 입장이에요. 이것을 선생님을 중심삼고 뒤집어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쳐 가지고 반대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중심삼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전부 틀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예요, 구약시대는 만물시대,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자녀시대입니다. 성약시대는 뭐냐 하면 부모시대입니다. 앞으로는 해방시대라구요. 축복 해방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약시대, 하나님 완성시대입니다. 하나님 완성이예요, 하나님 완성!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해방시대예요, 해방시대. 뜻 완성시대입니다. 이렇게 4단계라구요.

이것은 무엇이나 하면, 바다의 160, 육지의 160, 나라의 160, 하늘 땅의 160입니다. 알겠어요? 하늘땅도 마찬가지로요. 전부 다 등록해 가지고 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4단계를 거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전부가 160이예요, 160. 유엔(UN) 군도 16개국 들어갔지요? 4수의 4배가 된다는 거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4단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총탐감하기 위해서는 4수의 4배 되는 산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한꺼번에 4가지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류, 땅, 만물! 사랑하는 것도 4가지입니다. 복귀섭리도 4단계입니다.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완성시대예요.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160수 전체를 합한 제물로 하늘 앞에 바쳐 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160수! 1600수도 될 수 있고 말이예요. 그래

서 해방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해방권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말이에요, 가는 데 방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등록할 수 있는 제단, 전체 총합 청산 제단을 쌓아 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이 여기에서 하는 수련회입니다. 그러니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가정을 중심삼고 만물을 바쳤습니다. 구약시대는 만물시대요, 성약시대는 아들 시대요, 그 다음에 성약시대는 부부가 합해 가지고 바치는 시대요, 그 다음은 완성시대로 하나님의 160수를 바치는 시대인데, 이 네 가지 제물을 한꺼번에 바쳐서 해방적 제사로써 제물시대를 종결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 잘 하라구요.

그럼으로써 제물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만물을 대표하고, 아들을 대표하고, 부모를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고 하늘땅을 대표할 수 있는 총합적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단위의 160수 이상을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160수 이상 헌금해야 합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안 돼요. 이 땅 끝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 끝에. 땅 끝에 세워야 돼요.

타락으로 인해 자기 소유권이 없어

3년 동안에 남미를 중심삼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수고했겠는가 생각해 보라구요. 받아들일 수 없는 보고라는 거예요. 12개월을 기한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1년 6개월이 넘었어요. 12개월만에 완성한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다구요. 일본이라든가 전체가 책임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지장을 가져온 거라구요. 12수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12문도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숫자적으로 맞추어 나가야 한다구요.

이런 네 가지의 제단을 대표해서 여러분 가정들이 지금까지 부모님이 해 오던 것을 부모님과 더불어 제단을 맡아 가지고, 탕감해 가지고 이 전체를 타락 전 기준으로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축복받기 전의 아담 해와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주 참부모가 와 가지고 전세계의 가정을 전부 다 묶었다는 것은 가정 가운데 소속한 것이 세계 만물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물건들이 먼저 자기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부터 모든 전부를 상속받을 수 있는 가정이 아담 해와의 원칙적인 조상 가정의 출발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소유 관념을 전부 넘어서 가지고 자기 소유가 없는 입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하나님의 소유와 참부모의 소유로써 거기에 자리잡아 가지고 자기 소유권으로 상속받아 넘어가지 않고서는, 타락하지 아니한 완성한 가정들이 차지할 수 있는 소유권 시대인 지상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부모와 아들딸이 하나님 편에 연결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타락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과 참부모가 절대적인 주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정 소유의 상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기 전에는 소유 관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세계를 해방하기 이전에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원리에 어긋납니다. 참부모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되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들! 여자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여자가 여왕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이 돌리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재림 시대에 여자가 신부가 되고 오시는 신랑이 재림주가 되는 것입

니다. 그때에는 여자의 모든 것이 그 여자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 뒤에 보석들이 쌓여 있지요? 여러분의 남편은 천사장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부부가 이혼할 때 보면, 아들딸이 모두 다 엄마 쪽으로 따라갑니다. 남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자는 복귀되어서 하나님 편에 속하고, 남자는 사탄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중심 삼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탄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여자가 모든 것을 품고 참남편, 채림주, 참부모 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래, 전부를 탕감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 대표, 나라의 것, 그 다음에 자기 사회의 것, 자기 가정의 모든 것, 그 아들딸, 그 다음에 아들딸 여편네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탕감할 수 있는 조건물로 제시하는 것이 제물인데, 무슨 제물이나 하면 소유권 제물이에요. 소유권을 대표하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16수를 해야 하는데 160달러를 할 거예요, 1600달러를 할 거예요, 1만 6천 달러를 할 거예요? 「1만 6천 달러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계의 소유권이 뒤집어져서 문제가 됩니다.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서양이 동양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

미국에 있는 땅과 집을 전부 다 팔아서 아프리카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극과 남극이 돌아가고, 동과 서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서구의 남자들도 하나님 편에 있는 동양 여자들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여자들은 동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양 여자들은 앞으로 남편감이 없어집니다. 통일교회의 모든 젊은 이들은 결혼할 때 동양, 특별히 한국의 남자나 여자들을 원합니다. 한국이 조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인구는 32억이나 됩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백인은 전부 해서 8억 5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흑인은 6천5백만 명밖에 안 된다고요. 세계적으로 흑인이 약 7천만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대양 연안의 오서닉 월드하고 모슬렘 월드(Moslem world; 회교권)예요. 그것을 모두 보게 되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젠 바뀌어야 돼요.

보라구요. 서양은 글을 왼쪽에서 써 가지고 왼쪽부터 읽어요. 동양은 바른쪽에서 써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읽어 들어간다고요. 완전히 반대예요. 이것이 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종적으로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지만, 서양 사람은 횡적입니다. 서양 사람의 사랑은 동물 이하로 떨어지지만 동양 사람은 하나님 사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동양을 따라가야 한다고요. 동양이 아침이 되면 서양은 밤이 된다고요. 아침 햇빛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동양에서부터지요? 미국은 그 반대라고요. 그것이 지나가게 된다면 밤이 아침이 되고 아침이 저녁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로 볼 때, 어두울 때는 몰랐지만 아침이 되고 점심때가 되니까 동양의 레버런 문 사상과 레버런 문 사랑의 가정이 넘버원이라는 걸 다 아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사람은 비교해 보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교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러니까 세계는 하나되게끔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보라구요. 서양 사람들은 잠도 옆드려 자지요? 병신이나 그렇게 자는 거예요. 동양은 반대입니다. 하늘을 보고 자요. 또, 동양은 오라고 할 때 손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라고 한다고요. 이걸 주겠다고는 거예요. 그러나 서양은 뒤집어서 오라고 합니다. 이걸 받겠다고는 거예요. 전부 다 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다고요.

서양은 현실적이고 외면적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외면적인 것을 자랑하고 조금 잘 해주면 사흘도 못 가서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몰라요. 자랑하지 않아요. 다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마음을 숨기고, 서양 사람들은 마음을 드러내지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서양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도 ‘와와’ 떠들고 자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세계에 있어서 성인들은 다 동양에서 났어요. 선생님도 50년 전에 드러내지 않고 지금까지 참고 비밀을 지켜 오다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언론기관과 인터뷰 같은 것을 안 해요. 하게 되면 자꾸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파고 들어온다구요.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때가 되면 우리 신문사들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르딘 제1, 제2 선언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자르딘에서 선언한 거라구요. 제1 선언은 에덴에서 창조하던, 죄 없이 출발하던 그 경지의 반대쪽으로 왔으니 여기 자르딘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면 안 된다구요. 그러면 남쪽 반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잃어버린 세계를 재창조하기 위한 세계화 시대에 들어왔으니 불가피하게 본연의 하나님 입장을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 가정 다음에 아담 종족이 나와야지요? 아담 일족이 나와야 된다구요.

그 다음에 발표한 것이 무엇이나? 절대·유일·불변·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적인 내용이 전개된 사랑의 목적체를 세워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절대·유일·불변·영원한 부모, 자녀, 부부, 가정 설정을 선포했다구요. 그것이 제2 선언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찾았느냐? 참부모, 참자녀 관계가 그런 개념이에요. 유일의 개념, 불변 영원한 개념인 것을 알아야 한다구요.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이기 때문에 저나라에 가서 여기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류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천년 만년 억만년 기다려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라구요? 「절대·유일·불변·영원입니다.」

*절대부모·절대자녀·절대부부·절대가정이 돼야 하고, 유일부모·유일자녀·유일부부·유일가정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불변부모·불변자녀·불변부부·불변가정, 영원부모·영원자녀·영원부부·영원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부모·절대자녀·절대부부·절대가정, 유일자녀·유일부부·유일부모·유일가정, 불변가정·불변부부·불변자녀·불변가정, 영원부모·영원자녀·영원부부·영원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 어떤 것도 그 네 가지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참부모·참자녀·참부부·참형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정착하는 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것이 인간 시조가 세웠어야 할 가정입니다. 거기에서 참역사가 시작되고, 거기에 모든 이상이 연결됩니다. 확실히 알았어요? 이것이 자르던 제2 선언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서 자르던에 가서 상속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됩니다.」 지금 1차를 끝내고 2차 수련을 하고 있어요. 3차까지 하고는 옮길 수도 있다구요. 그럴 때는 그 나라를 중심삼고 국가 메시아와 부메시아가 코디악에 와서 하고, 그 다음에는 2세와 직접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2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내용을 맞추어 가지고 해원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서 연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21세기는 하나님을 중심삼은 사랑의 가정이상을 중심삼은

세계로 종결되어 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서하신 것을 가리키시며) 여기에서 이것은 빈 것과 마찬가지로요. 반대되는 것은 전부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 거라구요. 36가정은 이렇게 해야 올라가지만 따라와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떨어질수록 전부 다 여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하기 전 본연의 가정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다 지나서 여기에 올라가 가지고는 이것을 잘라 버리기 위해서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180도 반대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온 인류의 가정들이 타락 전 아담의 완성된 가정의 기준에 서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똑같은 기준에 서는 거라구요.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가던 것이 다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를 전부 다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 참부모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확장해야 됩니다.

지금은 가정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정이 없어요. 모든 가정이 깨지고, 개인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참사랑에는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타락한 세계를 콘크리트와 같은 세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오에는 그림자가 없지요? 아침과 저녁에는 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데서 싸워 가지고 망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낮이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이젠 죽더라도 지옥 안 갑니다. 축복받고 나서는 지옥에 안 가요. 알겠어요?

우리는 제3의 창조주다

자르던 제1 선언인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한 후에, 그것을 갖추어 가지고 가정을 찾은 뒤에는 전부 다 절대·유일·불변·영원의 제2 선언을 가정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 선언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아들딸 가정들이 제3차 창조주라는 거예요. 제1차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제2차 창조주는 아담이고, 우리는 제3차 창조주라는 것이 제3 선언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을 중심삼고 커 나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해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한 과거의 어린아이 때, 형제, 커 가지고 부부가 될 때, 그래 가지고 부부 된 자리에서 창조해 가지고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던 때를 사진 찍은 것같이 보면서 실제로 다시 한 번 느껴 보고자 한 것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난날의 사진을 보면 자극이 되지요? 그런데 사진이 아니고 살아 있는 실체를 보게 될 때는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겠느냐 생각해 보라구요. 사랑의 자극을 배가하기 위해서 아담 해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해와는 제2 창조주의 입장에서 아들딸을 낳아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체를 보고 좋아하는 것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 해와는 횡적인 면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두 세계의 형상을 전부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담의 아들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해서 아담도 아버지라고 하고 손자도 아버지라고 하는 거라구요. 같다고요, 같아. 가치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족속들은 이퀄(equal; 동등한)하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지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에 있어서 참사랑을 중심삼고

평등이라는 말이 나온다구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남녀 평등권을 주장하는데 그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참사랑이 없으면 평등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여자가 ‘남자와 여자는 평등이다.’ 하기 이전에 참사랑을 중심삼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부모·부부·자녀의 여섯 갈래가 같은 내용을 갖는 것입니다. 영원히 평등한 것입니다. 참사랑이 연결되지 않으면 자유·사랑·행복·희망의 세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참사랑을 빼 버리면 모든 것의 핵심이 빠져 버립니다. 알겠어요? 「예.」

여러분의 오관도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전인류의 오관도 그 한 점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한 점에 초점을 모은다구요. 하나님의 관심도 그 한 점에 모아져 있습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선되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깃줄이 그렇게 스파크를 일으켜서 붙어 버리게 되면 그 가닥을 뿔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계의 사랑은 그렇게 되더라도 이상적인 사랑의 세계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똘! 침을 뱉어 버리고 차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스, 노? 「예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신을 창조했고, 아담 해와를 지어 가지고 그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다 큰 자극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커 나온 그 사랑 자체를 느꼈다는 거예요. 아담 해와의 아들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조상인 아담 해와, 두 세계를 횡적으로 낳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3세대 창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상적 자기 가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리, 부모는 아담 해와의 자리, 현재 세계의 왕의 자리이고, 손자는 미래의 왕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세계와 아담 세계의 두 나라를 대표해서 횡적인 세계가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어서 지상, 천상천국의 완성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상이 영계의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한 자리에 서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판서하신 것을 가리키시며) 종적인 면에서 조상의 자리인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말이에요, 이것은 천국 왕권을 대표하고, 이것은 현재의 왕권을 대표하고, 이걸 미래의 왕권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천국을 대표한 할아버지가 여기에 있고, 또 부모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부모가 중심이에요. 이 모든 가정 전체가, 할아버지도 왕 되고 싶고, 어머니 아버지도 왕이 되고 싶고, 자기도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의 중심존재가 자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 여러분의 할아버지도 왕 되고 싶고, 아버지도 왕 되고 싶고, 자기도 왕 되고 싶지요? 그거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그 칸셉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실질적 완성을 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구요. 알겠어요? 「예.」

지상천국의 이상은 지상에 있다

그런 하나님을 중심삼고 모시는 아들이고 왕자고, 세상의 임금인 아담의 자리니 아담의 왕가가 되는 거예요. 그 두 왕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손자이니, 손자는 하늘나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이 땅 위의 왕의 사랑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지 통일을 할 수 있는 횡적 아들의 지상천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이 천상천국과 일체가 되는 거라구요.

두 세계, 종적인 천국 왕권과 횡적인 천국 왕권, 둘을 우리 가정에

서 이루어 가지고 그것을 이어받을 것이 손자이니만큼 손자는 할아버지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담 해와의 아들딸은 두 나라 왕 입장의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 그 가치가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천국 완성의 이상은 지상이지 천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부터 출발한 세계는 3대가 없습니다. 3대는 손자를 말해요. 손자가 있으면 할아버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는 천국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아버지는 왕 중의 왕입니다. 할아버지가 명령하면 부모부부·아들딸·손자손녀들이 ‘예!’ 하면서 한 방향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두 방향이 아니라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야 여기서 이걸 중심삼아 가지고 삼대상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삼대상목적이예요. 여기도 삼대상목적, 여기도 삼대상목적, 전부 다 삼대상목적이라는 겁니다. 상헌 씨가 영계에 있지만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의 세 사람이 있고,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하면 사위기대가 편성된다는 거예요. 삼대상목적이 하늘나라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위기대 완성이라는 것은 아들딸을 낳아 가지고 하늘나라의 이상적 구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공식적인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 준 거라구요.

누가 거짓 부모를 중심한 이 세계를 해방할 것이냐

*처음에 이상헌 선생이 원리는 깊은 내용까지 알았지만 영계는 몰랐어요. 그런데 영계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선생님이 말씀한 그대로

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도 축복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낙원에서 2천 년 동안 참부모가 현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중심삼고 영계가 완전히 180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타락할 때, 하나님이 아담 가정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날에도 이 세상에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것도 참부모입니다. 거짓 부모가 하나님을 슬프고 외로운 자리로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한 아담 가정이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해방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세계입니다.

어느 누가 거짓 부모로부터 비롯된 세계를 해방할 것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참부모를 중심삼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박 마리아의 가정이 부탁했다는 것이 있잖아요? 이상현 선생이 지옥을 돌아보고 갔을 때, 하나님이 '상현아, 가슴이 아프냐?' 해서 그저 하나님의 앞에서 울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현아, 울어야 할 일이 아니다. 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너에게 보여 준 것이다.' 하신 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그 박 마리아의 가정이 통일교회를 반대한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박 마리아의 가정이 선생님을 환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모든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한국도 깨졌고, 세계도 깨졌고, 지상천국도 깨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한 대표가 박 마리아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정이 연결되었더라면 선생님의 가정이 1대가 되고, 그 가정이 2대가 되고, 기독교 세계가 3대가 되어서 지상천국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참가정을 환영하게 되면 이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도 레버런 문을 차 버렸기 때문에 가정이 없는 개인주의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롭게 축복을 받았더라면 새로운 가정, 새로운 종

죽, 새로운 국가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주를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사탄에게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서 이것을 전부 복귀하는 거예요. 2차대전 이후에 구교 신교를 축복할 수 있었던 세계적 축복시대를 실패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탕감해 가지고 다시 펼칠 수 있는 복귀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인데, 그 둘을 어떻게 하나로 묶느냐?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센터가 어머니입니다. 1992년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횡적으로 선생님의 왼쪽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횡적으로 나란히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종적이었어요. 1992년에 여성연합을 중심삼고 해방해 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을 지나고 7년째인 올해 1998년에 전인류의 축복을 중심삼고 사탄 혈통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45년부터 1952년까지의 7년 동안에 이루어야 할 것이었는데, 기독교가 레버런 문을 광야로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없고, 종족도 없고, 국가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정탐꾼처럼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모른다구요.

그래 가지고 17세의 어머니를 택해 세웠습니다. 보통 같으면 마흔의 늙은 남자가 딸 같은 처녀와 결혼한다고 하면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도둑 같은 천사장 가운데서도 하늘편 천사장의 입장이었다구요. 그것은 복귀노정입니다. 거기서 복귀노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런 것을 말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알겠어요? 「예.」

자르딘 제4 선언 — 속명적 과제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사랑했지만 손자는 사랑하지 못했어요. 손자

까지 봐야 사위기대가 이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손자가 없기 때문에 사위기대가 안 된다구요. 아담의 아들딸에서부터 사위기대가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환시대, 반대 없는 이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코디악에 가서 사사절을 선포한 것입니다. 거기서 합해야 손자를 사랑했다는 터 위에서 새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라구요. 그거 알겠어, 미스터 주? 「예.」 그래서 지상, 천상천국이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에 160수를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1만 6천 달러씩 헌금하지 않고는 전부 다 축복가정 수련을 받을 수 없고, 총탕 감해 가지고 같은 자리에 서서 하늘나라에 입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구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구약시대 완성, 신약시대 완성, 성약시대 완성, 해방시대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 번째 선언은 무엇이나?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부자지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정의 관계라는 것은 운명이 아니예요. 변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숙명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러한 관계가 참부모, 참아들딸, 참부부, 참형제, 참가정의 관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관계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간섭을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 부자지관계, 숙명적 부자지관계가 설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하지 않은 완성시대에 시작될 것인데 지금은 타락한 시대이니 축복을 통해 참부모의 혈통을 접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혈통의 배후는 접목이에요, 접목. 트루 시드(true seed; 참된 씨)를 심어서 난 것이 아니라 접목하는 것입니다, 접목. 알겠어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인데, 하나님의 과수원에 돌감람나무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것이 민주세계와 공산세계입니다. 공산세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탄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세계입니다.

그 민주세계는 하나님의 참감람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절반 이상이 사탄편의 돌감람나무입니다.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사탄편이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참감람나무 밭에는 사탄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재림 때 참가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를 잘라 버리고 참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는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가정을 이루었다면,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했겠어요? 이 세계를 전부 다 문제없이 커버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탄편과 싸워 가지고 이만큼의 기반을 닦았는데, 예수의 후손들이 있었다라면 로마도 컨트롤하는 것은 문제없었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참가정의 감람나무에 참부모의 칸셉을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연의 에텐 동산에 하나님이 원했던 이상가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차대전 후 미국을 중심삼고 그러한 기반을 닦았어야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은 장자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40년 후에 통일교회가 다시 세워 준 것입니다. 미국의 구교와 신교가 하나 돼 가지고 신부가 될 것이었는데, 그 기반을 닦지 못한 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통일교회가 하나된 기반 위에 어머니가 서게 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부모의 나라입니다. 장자가 미국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세 나라는 반드시 하나돼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적으로 하나되는 칸셉이 전세계로 확장될 때 원 월드 언더 갓 (One World under God)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탄이 절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소생·장성·완성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편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 편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

요.

그래, 부자지관계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죽어서라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모로 와서 인류를 자녀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와서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2천 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와 가지고 구하는 역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다가요.

이 땅 위에서 이루지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저나라에 가서 영원을 두고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지 관계의 완성을 살아서 이루지 못하면 영계에 가서라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대에 완전히 세계를 수습해 가지고 뒤집어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대예요, 일대! 일대! 일대! 그것이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은 가정 하나도 하나 만들지 못하는데 세계, 하늘땅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대가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다구요.

지금까지는 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 선생님이 그걸 다 발표했기 때문에 요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물어물 연장돼 왔지, 이제는 끝이에요. 돌아간다고요.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헤미스피어(hemisphere:반구)가 달라져요.

미국은 장자 국가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라

*지금까지는 하나님 편이 밤이었고, 사탄편이 낮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편에서는 낮이 시작되고, 사탄편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이쪽의 밤은 저쪽의 낮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다른 세계라구요. 대번에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재산이고 무엇이고 다 팔아 가지고 아프리카의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해 주기 위한 구세주 놀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일본 여자, 미국 여자들은 참부모님 앞에 형제예요, 형제. 한 시대에 낳은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말 일본말 할 것 없이 전부 다 타락한 언어입니다. 참부모가 쓰는 말이 모국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워야 된다고요. 이 땅 위에서 참부모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한국말도 못 배우고 영계에 가면 조상들이 ‘왜 한국말을 안 배웠어?’ 하면서 참소합니다.

선생님을 생각해 보라구요. 지금 이 나이에 영어 공부를 한다고요. 저녁에 사전을 찾아서 단어를 외워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때라구요. 한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전을 스무 번도 더 찾아봅니다. 그만큼 어렵다고요. 여러분은 젊으니까 3년이면 한국말을 마스터할 수 있다고요. 한국말을 모르면 나중에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따라올 수 없습니다. 기억해 두라구요. 그럴 때가 멀지 않았습시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대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백인 주인이 될 수 있고, 다 그렇게 됩니다. 새들도 철 따라 이동하는 것은 좋은 종자를 남기기 위한 것 아니예요?

마찬가지라구요. 강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분향 땅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동해 가지고 살다가 뼈를 묻기를 원하는 거라구요. 본심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부자지관계가 숙명적이고 부부관계도 숙명적인 것인데, 지금은 마음대로 결혼하고 마음대로 이혼하지요? 마음대로 이혼하잖아요? 그러나 죽어서도 하나돼야 된다고요. 부부, 부자, 가정의 관계가 전부 숙명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막혀 있는 부자지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가정의 관계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 자르딘의 제4차 선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아담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복귀의 과정에서 이것을 다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제1, 제2, 제3, 제4차 선언은 자르딘에서 했는데, 제5차 선언은 코디악에서 했습니다. 어디서 해도 괜찮다구요.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알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미국이 장자 나라로서 이와 같은 가정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리 섹스니 호모니 하는 것을 완전히 미국 땅에서 근절시켜 버려야 됩니다.

미국은 낭비가 많지만 이제부터라도 장자 국가로서 절약해서 형제 국가, 수많은 형제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 1년에 2천만이 죽어가는 것을 방어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전인류가 2백 명이 한 사람씩 책임지면 2천만 명을 구해 줄 수 있습니다. 50억 인류가 2백 명 당 한 사람씩 맡으면 전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2백 명이 한 사람을 못 살리겠어요?

참부모는 그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40년 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갑자기 안 돼요. 피시 파우더(fish powder; 어분)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구요.

3시대를 거쳐야 할 인생이니 다음 시대를 위해 준비하라

아, 배가 고프다! (웃음) 뱃심이 없대구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한국에

서 고위층들은 레버런 문 어서 오라고 야단이에요. (박수) 만나자고 하는 것을 내가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세계에 손을 대고 싶지 않아요. 사탄세계라서 안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복잡한 환경을 헤엄쳐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선생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쉽고도 쉽다구요. 죽음의 바다를 어떻게 헤엄쳐 건너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섭리적 총정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이 섭리적 총정리라고요. 이제 대개의 섭리가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알 거라고요.

여러분, 복중시대는 물 시대이고, 그 다음에는 육지시대입니다. 이제 육지시대에 들어간다고요. 세계의 땅을 주관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복중시대, 육지시대, 하늘시대까지 3시대로 도약할 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복중시대 다음에는 육지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제2의 어머니가 이 지구성이예요. 복중시대에는 어머니 몸뚱이를 전부 다 나누어서 크지만, 그 다음에 낳아 가지고는 제2의 어머니가 땅이라는 거예요. 땅은 만물이예요.

물 가운데 있는 그 생애 때는 오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복중을 벗어나 ‘와!’ 하고 나오는 거예요. 바뀌지는 거예요. 그때는 물을 받는 것이 아니예요. 영양을 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의 영양소를 먹으려니까 전부 공기시대에 맞게끔 오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낳아 준 부모로 말미암아 배우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크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보다도 낮고 지상의 무엇보다도, 왕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 오관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중에 있을 때 이 육적 오관을 완전히 준비해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병신이 되

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육적 오관시대인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저나라에 가서 살 준비를 다해야 됩니다. 저나라는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은 사랑의 공기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 내적 오관을 육적인 세계에서 전부 다 완성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 시대에 육적 오관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적 오관세계의 몸뚱이를 버리고 죽어갈 때는 영적 오관을 완성해 가지고 사랑의 공기와 사랑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저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3세계의 변화를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영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오관을 준비하지 않고는 죽음이라는 제2 출생의 문을 열고 저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2 출생의 관문을 통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는 죽는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복중에서는 복중이 어머니이고, 지상에서는 이 지구성이 어머니라고요. 여기에서 공기를 받고 영양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3차는 하나님이 부모고 저나라의 모든 환경이 여러분이 자랄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3세계를 거치는 거라고요.

잠자리 같은 것도 물에서부터 육지, 공중까지 3세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과 동거하려면 무형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내적인, 영적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론적이라고요.

*영계에는 옷 공장도 없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랑의 칸셉만 있으면 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곳이 영계입니다. 레버런 문이 그런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이 땅 위의 것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알겠어요? 「예.」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래, 섭리적 총정리를 해주었다구요.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칸셉이라구요.

몇 시간 설교했어요? 「다섯 시간 하셨습니다.」 다섯 시간 설교하는 목사가 쫓겨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이 자랑이라구요. (박수) *

참사랑의 복귀역사

(앞부분은 녹음되어 있지 않아 수록하지 못함) 아담 가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이상이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찾기 위해서는 국가적 기준에서... 가정에서 실패했으니 가정에서는 이기더라도 하나님이 면목이 서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 기준에서 4천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가정적 메시아권을 잃어버린 것을 복귀하기 위해 종족적 메시아권을 통해서 국가적 메시아권까지 올라가기 위한 이런 책임을 담당시켜서 보낸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국가 기준에서 복귀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뭐냐 하면 제2 아담입니다. 제1 아담은 가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제2 아담은 나라, 사탄세계에 로마나라가 있으니 나라를 대치할 수 있는 하늘편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결혼식을 못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부모로 왔기 때문에 참어머니를 찾아 세워서 결혼식을 해야 할 텐데, 그 참어머니라는

1998년 9월 22일(火),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브라질 자르던).

* 이 말씀은 40일 수련생들에게 하신 것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존재는 유대교를 대표하고 선민을 대표하는 존재여야 됩니다.

선민은 뭐냐 하면 천사장권입니다. 아담권이 아니라구요. 돌감람나무인데 그 돌감람나무를 잘라 버리고 예수님이 참감람나무로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그 가정을 중심삼고 접붙여 가지고 오늘날 선생님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 기준만 세웠더라면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때 문화적인 면이라든가 내적인 면에서 부패해 가지고 아시아권 내에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의 종교권,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그런 종교 배경을 중심삼고, 로마를 대치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중심이 되었더라면 이 모든 주변의 종교를 연합해서 이 로마를 흡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뜻도 못 이루고, 가정의 뜻도 못 이루고, 국가의 뜻도 못 이루고, 로마를 정복하여 하나님이 통일천하를 이루려 하던 세계적인 뜻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하고 국가 복귀의 이루지 못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 가지고 지금까지 재림이라는 말, 재림의 이상이 남아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해 가지고 세계 판도의 국가적 기준에 섰으니까 세계적 기준에서 그 실패한 것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면목이 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정에서 실패했던 것을 국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가정이 에덴에서 아담 가정 기반 위에 국가 기반 형태를 갖추므로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를 이루려 했던 것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국가를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연장해 가지고 세계 무대로 확대된

거라구요.

예수님이 돌아갈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두고 싸웠지요? 오른편 강도는 하늘편이요, 왼편 강도는 사탄편인데 이로부터 역사 과정을 통해서 선악의 투쟁,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좌익과 우익이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건 원래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면, 에덴 동산의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가인은 좌익 사탄편이요, 아벨은 우익 하늘편입니다. 좌익 우익 사상의 근원은 아담 가정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국가적 기준에서 통일함으로 말미암아 가인 아벨이 바뀌지고 통일적 형제 기반을 중심삼은 거기에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황후를 모실 수 있는 준비를 유대 민족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궁을 짓고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 전국민이 하나되고, 교회 자체는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돼 가지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는 하늘편 아벨 입장인데, 동생이 아닌 형님의 자리에 서야 되고, 형님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가 동생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형님이 동생이 되는 이런 천지개벽이 예수시대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갔다구요.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의 살육전이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편이 왼편에 서고 하늘편이 바른편에 서 가지고 사탄편 장자권이 오늘날 종교권을 학살하는, 종교권이 피를 흘리는 역사를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것 세계 무대까지 확대돼 가지고 재림할 때, 세계 통일을 이루는, 세계를 하나 만드는 그때까지 연장해 나온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 좌익과 우익이 싸워 나왔는데, 좌익은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입니다. 알겠어요? 「예.」 우익은 신을 인정해요. 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신 자체도 부정하지만 신의 뜻을 중심삼은 완성적 기반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으로 하나된 가정의 기준을 세계 판도에 이뤄야

뜻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남자면 남자로서 완성하고, 여자면 여자로서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몸 마음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몸 마음이 하나된 남자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합니다.

사랑만이 몸 마음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랑? 참사랑! 그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 사람과 접해야 하나되게 돼 있는 거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쫓아 버렸기 때문에 이 몸 마음이 하나될 수 없게 된 거예요. 싸움터의 근본이 된 이 몸 마음의 싸움은 아담 가정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종식시켜 가지고 몸 마음이 통일된 남자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통일된 부부를 이루고 그런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통일된 부모 앞에 자녀도 통일된 자녀가 돼야 합니다. 아담 해와가 싸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사랑으로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형제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들딸이 평면적 기준이나 상하전후좌우의 입체적 기준에서 하나되는 일체적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참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이 기준을 세계 판도에서 이뤄 가지고 전세계 가정들이 타락하지 아니한 아담 가정 완성의 자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주지 못

한 축복을 세계화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권 축복을 완결해 가지고 가인 세계, 로마를 흡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부패할 대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범적인 가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도 그 영향을 받고 돌아서면 로마 이외의 모든 종교권도 여기에 하나되는 환경 여건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 자체가 청소년 윤락과 더불어 가정 파탄의 형태가 벌어지는 오늘날과 같은 형세에 있고, 주변 아시아의 유교와 불교, 가외의 모든 종교들이 가정적 혼란에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중심삼은 유대교가 통일적 가정 이상을 중심삼고 통일해 가지고 청소년들과 세계의 가정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청소년과 세계의 가정들을 지배해 나왔던 사탄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관계 없는 거예요.

이들을 누가 지배해야 되느냐 하면,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참부모가 와서 지배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가정을 하나님이 손을 못 댔습니다.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며칠 안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도적놈이 와서 겁탈했다는 것입니다. 더럽힌 몸을 하나님이 상대적 권으로 세울 수 없겠기 때문에 쫓아내 버린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쫓아낸 것입니다.

그것을 복귀하는 과정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 고개를 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사탄세계의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세계의 사람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피를 흘림으로써 사탄세계의 천만인을 대신할 수 있으니 이런 탕감적 조건으로 피를 안 흘릴 수 없는 것입니다.

피의 가치의 비준을 중심삼고 사탄세계, 세계 국가 인류를 수습해야 할, 탕감복귀해야 할 책임을 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려 가지고 죽음의 고개를 거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는 반드시 앞에 사탄 개인이 있고, 사탄 가정이 있

고, 국가가 있고, 세계가 있어서 올라가면 모가지를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뜻을 이루려면 가정을 이뤄야

그러면 종교 가운데서도 순교의 피를 연이어 나온 것이 어느 종교나 하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로 말미암아 끝날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독교를 중심삼고 세계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뭘 가르쳐 주었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부자지관계를 확실히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부자지관계를 확실히 가르쳐 줬고, 또 남자로서 신자들을 대해서 ‘나는 신랑이요, 너희들은 신부라.’ 하는 부부관계를 확실히 가르쳐 줬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바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고, 너희들도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와 같이 하나님 안에 너희들도 있느니라.’ 하고 형제지권을 확실히 가르쳐 줬어요. 형제 일체권을 이렇게 가르쳐 준 종교는 없다구요. 부자지관계의 결정적인 내용을 제시해줬고, 부부의 관계는 좌우관계인데 신랑 신부라는 관념을 제시해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부 교회입니다. 전세계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쌍둥이로 보는 거예요, 쌍둥이.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쌍둥이로 보는 거예요. 에덴동산의 아담 해와가 하나님 가운데서 태어난 쌍둥이와 같은 거예요. 창조할 때 쌍둥이와 같은 것으로 지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삼고 어머니를 모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교는 아벨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가인인데, 가인 나라에 왕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편 아벨 나라에

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나라의 왕과 마찬가지로요. 알겠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 기반 위에서부터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찾지 못한 그 기반 위에서는 나라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반드시 가정 위에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정을 확대시켜 가지고 종족국가 세계, 지상지옥, 천상지옥을 편성하던 것과 반대로 참된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혈통을 연결시켜 가지고 후대 후손들이 가정으로 출발해 가지고 민족국가세계로 대치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본연의 뜻을 이룰 수 없겠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시대적 사명을 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메시아, 나라의 임금을 보내 가지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대입니다. 이 나랏님으로 왔던 예수님이 뜻을 못 이뤘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한 중심적 왕을 세워서 사탄세계의 수많은 나라 앞에 거짓 대왕을 물리쳐 가지고 그 모든 거짓 왕들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할 수 있는 이 기준에 서게 된다면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 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의 역사를 남기고 예수님이 2천년 동안 가 있었던 곳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입니다. 천국은 이상적 부부가 들어가게 돼 있고, 이상적 가정이 들어가게 돼 있고, 이상적 종족이 들어가게 돼 있다구요. 이상적 가정만 형성됐다면 하나님의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가정적 사랑의 틀에 짜여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체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까지도 이것을 해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하전후좌우로 완전한 가정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 천국 이념인데, 예수님은 가정은 커녕 자기 자체의 한도 못 풀었다

구요. 예수님이 성자라면 성녀가 있으면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성녀를 보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4천년 역사 위에 나라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거기에 성녀 될 수 있는 어머니를 편성해 놓고 국가 전체가 오시는 메시아를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아들로써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국가적 형태로 대신할 수 있는 기반을 세워 참여머니 될 분과 하나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참아버지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위한 다말의 혈통전환 역사

에덴에서 아담 해와를 추방해 버린 거예요. 이상적 아들이 되어야 할 아담을 추방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품으로 들어갔던 것이 다시 국가적 기준에서 독생자의 자격을 갖춰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혈통을 전환시키는 역사과정에서 온갖 슬픔과 희생의 길을 거쳐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말의 역사를 알 거예요.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해 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의 1대조가 되었어요. 그렇게 보면 다말은 음녀예요, 음녀. 용서할 수 없는 여자가 이스라엘 구원섭리사, 선민 역사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타락한 해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해와가 타락할 때 아담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아들인 아담을 속였고, 아버지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그것을 복귀하는 거예요. 2대에서 복귀하려고 했는데 복귀할 수 있는 자기 상대가 없어졌습시다. 상대가 없으니까 시아버지를 중심삼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상대를 유다의 다른 형제를 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도리어

거기에서 또 하늘의 축복을 시기하고 죽이는 놀음이 벌어진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열두 지파의 중심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해 가지고 형제적 대표자를 낳는 모험을 한 여인이 다말입니다. 대담한 여자지요? 시아버지하고 사랑 관계를 맺어 가지고 그 가문을 중심삼고 열두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중심자리에 서겠다는 의욕이 대단했어요. 또 그것은 자기 시할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고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를 중심삼고 장자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리브가가 그랬잖아요? 해와가 아담을 그렇게 속여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자리에서 반대로 뒤집어 박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리브가도 장자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렇게 속여 가지고, 차자 앞에 장자의 복을 빌어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속여 가지고 복을 빌어 준 야곱을 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탄이 거짓말해서 뒤집어졌으니 하늘도 이 한때는 거짓말을 해서 뒤집어 박아도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물감으로 칠했으면 반대로 지워 버려야 돼요. 지워 버린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자리를 중심삼고 반대의 색깔을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힌 핏줄을 씻어 가지고 새로운 핏줄을 하나님과 연결짓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적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세계 전부가 반대했다구요. 다말을 환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오로지 환영한 사람은 하나님만이예요. 알겠어요? 동생을 통해 가지고, 1대, 2대를 통해 가지고 복귀하는 섭리를 하는 거예요. 2대권은 투쟁적 형제들이 많아요. 다말이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열두 지파의 모든 후손들이 전부 다 ‘저놈은 음녀의 자식이

다!’라고 얼마나 몰아쳤겠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저 보면 다말이 영리한 여자입니다. 시아버지와 붙어 가지고 형제를 낳아 놓았으니 시아버지가 그런 죄상을 중심삼고 내놓고는 ‘그거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리브가 라든가 역사적 사실을 중심삼은 증언하고, 아들을 중심삼고 증언한 배경을 갖춰 가지고 하늘이 시킨 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는 변명의 기준을 다 닦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혈통 기준이 지상에 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한 마리아의 혈통전환 역사

이와 같은 일을 해 가지고 뒤집어 박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책정돼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선민입니다. 하늘과 혈족관계를 맺은 선민이에요. 혈통을 뒤집어 박기 위해서 다말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가 올 때, 국가적 기준이 되기까지의 2천년 동안의 역사 과정에서, 이방 나라에 포로가 되어 왔다갔다하는 그런 기간에 많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국가적 대표로 태어난 예수시대에도 다말과 같은 민족 출발 기지, 야곱의 종족 출발 기지를 성별하던 내용을 다시 펼침으로 말미암아 안팎으로 자리잡는데 깨끗해졌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나와서 뭘 하느냐 하면 말이에요, 마리아도 자기와 약혼한 남편, 에덴에서 약혼했던 아담과 같은 입장에 선 남편도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일족 전부를 속이는 거예요. 그 아기를 어떻게 뱉느냐 할 때에,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 볼 때, 아버지의 이름을 뱉다가는 당장에 모가지가 달아나는 거예요. 돌로 때려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성신으로 잉태했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신으로 잉태했다고 하

는데 성신을 보거나 했어요? 성신을 알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잉태했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핍박도 받고 고생하던 것을 전부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락에서 문제가 되고, 나라에서도 헤롯왕이 때려 잡아 죽이려고 하니 애급으로 피난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의 수난 과정은 다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메시아 자체도 그래요.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리아의 복중에 아이를 잉태함과 동시에 사탄이 ‘그 잉태한 핏줄에 내 피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고 하늘 앞에 참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깨끗이 성별한 자리에 세우지 않고는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을 잉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해와가 타락했던 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말이 세운 종족적 기반 시대를 지나서 민족국가적 시대를 넘어가기 위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고개를 넘어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대표적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약혼자 요셉을 속이는 거예요. 약혼자를 속인 여인을 하늘이 왜 편드느냐 이거예요.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에 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알겠어요? 속인 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역시 다말과 마찬가지로, 리브가가 장자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요셉 가정 전체를 다 속이는 거예요.

만일에 누가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면 당장에 죽는 거예요. 그때 법은 처녀가 아기를 배면 돌로 때려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 당장에 마리아도 옥살박살이 날 것이고, 그 가운데 잉태한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어요, 살겠어요? 그걸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적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가를 여러분은 모른다구요. 선생님이 나와서 이걸 다 밝히니까 ‘아 그렇다.’ 하고 아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론에 맞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걸 풀 수 없어요.

핏줄을 맑힌 기반 위에서 완성한 아담으로 태어난 예수님

그래,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카라입니다.」 사카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요. 천사장이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장이라고요. 처음에 악편의 천사장이 타락했으니 하늘편의 천사장이 씨를 쥐 가지고 선민권에 투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맑힌 핏줄 위에서 국가적 기준의 실제 천사장의 아들로써 태어났으니 하나님 편에 타락하지 않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16세 이전의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아들딸 기준입니다. 16세 이후에 사탄세계로 전복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핏줄을 바로잡아 가지고... 16세에 이 핏줄이 잘못됐거든요. 그러니 핏줄을 바로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직계 천사장권 핏줄을 중심삼고 예수가 잉태된 거예요.

예수는 완성한 아담입니다. 완성한 아담으로 태어났는데, 16세 기준, 결혼하기 전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천사장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갔으니 이 천사장권을, 하늘편 천사장과 사탄 천사장, 이 둘을, 가인 아벨 형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어머니를 세워 가지고 그 어머니와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세 이후의 타락권을 벗어난, 타락과 관계없는 신랑으로서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와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빼앗겼으니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혼했으면 천하에 이것을 파괴시킬 자가 없어요.

지상으로부터 영계까지 완전히 이 축을 받들어 가지고 철용성 같은... 오늘날 우리 자르던 선언이 그렇지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

대복종을 통해 절대부모·유일부모·불변부모·영원부모가 되고, 자녀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게 된 가정이라면 누가 그걸 깨뜨려요? 국가적 기준의 패권을 쥔 그 사탄이라도 세계 정상의 완성 기준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결탁한 것에는 손댈 수 없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그래 가지고 비로소 마리아가 복중에 예수를 뱉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거예요. 16세 이후에 잃어버린 아담의 혈통적 인연을 이을 수 있다 이거예요. 천사장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편 천사장을 통해 핏줄을 이어서 사탄적 핏줄을 부정해 가지고 예수가 타락하지 않은 그러한 핏줄을 이은 것으로 대치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예수님이 가정을 이뤘다면

예수가 부부를 이뤘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유대교 중심삼아 가지고 전체를 축복해 가지고 그 주변 국가, 유교권 불교권 등 모든 종교권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오늘날 통일교회가 모든 종교를 합해서 축복을 하지요? 또 그 다음에 세속적인 세계의 타락한 사람들도 같은 입장에서, 평준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듯 유대교 전체 축복과 더불어 종교권 전체에 축복을 이뤘다 할 때는 로마 제국은 문제도 되지 않아요. 아시아권이 얼마나 방대해요? 힌두교로부터 불교, 유교 등등... 유대교 통일권이 벌어졌으면 예수를 중심삼은 통일권의 이스라엘 왕국권을 누가 삼킬 수 없어요. 도리어 로마를 점령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로마를 점령해 가지고 패권의 주인으로서 로마를 지배해야 할 예수님이 거꾸로 됐어요.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음을 당했어요? 로마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잃어버린 그 몸뚱이를 찾기 위해서 열두 제자가 같이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로마에서 기독교가 생사지권을 중심삼고 승패의 결정적인 투쟁 역사를 거쳐 가지고 4백년만에 기독교 문화권을 성사해 가지고 비로소 로마 교황청 전권시대, 하나님을 중심삼은 세계 제패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국가 기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절대 사랑을 중심삼은 국가 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절대 사랑과 하나된 국가 기준을 넘어서 절대 세계로 연결시켰으면, 그때에 지상, 천상천국의 기반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에덴 동산의 완성한 6천년 문화 역사를 잃어버렸던 것을 세계 판도 위에, 모든 승리적 국가 기반을 세계 판도까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전권시대, 개인으로부터 전세계 인류의 고개를 넘어서 오든 가든, 어디든지 반대할 수 없는 자유 해방권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환경적 축복받은 하나님의 혈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상천국이 시작되고, 여기에 있던 모든 혈족이 그냥 그대로 천상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 완성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의 실패를 세계 기준에서 다시 이뤄야

그런 일을 예수님 때 국가 기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세계 기준을 중심삼고 이 일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유대교와 같은 것이 기독교이고,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것이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제2 이스라엘 나라 대표요, 기독교는 제2 이스라엘 유대교 대표입니다. 알겠어요? 잃어버렸으니 세계적 판도로서, 잃어버리지 않은 가치의 내용으로 확대시켜 놓은 종교인 기독교 문화권의 미국이 이스라엘 나라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유대 나라를 중심삼고 볼 때, 가인 아벨이 하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독교가 가인 아벨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형태를 보게 되면 구교는 가인이요, 신교는 아벨로서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하나돼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교나 신교나 신부라고 절대 믿고 있는데, 참된 신랑이 나타나게 되면 구교 신부나 신교 신부나 마찬가지로요. 형제예요, 형제.

야곱의 가정에서 레아와 라헬이 싸웠지요? 자매가 싸웠어요. 라헬의 복을 레아가 빼앗아 갔어요. 이걸 탕감복귀해야 돼요. 구교 신부권이 신교 신부권을 망치고 죽이는 놀음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요. 4백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수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교 신부권과 신교 신부권이 하나될 수 있는 때가 세계통일 시대입니다. 2차대전 이후에 비로소 기독교 문화권이 세계를 통일한 거예요.

그러면 세계는 무엇이나? 기독교의 가인 아벨인 구교와 신교만 하나 됐으면 하나된 그것이 아벨이 돼 가지고 외적 세계의 모든 국가가 가인으로서 오시는 주님 앞에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다 커버해 가지고... 그때 8억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축복받게 됐다면, 그때 미국 나라를 중심삼고 전세계가 통일된 국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나라가 축복을 주도해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구교, 신교 기독교가 하나되어 어머니를 모셔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그 가정 판도 위에 모시면, 그 판도가 세계와 연결된 판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중심삼고 이루지 못한 통일천하를 기독교 문화권과 미국나라를 중심삼고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구요. 오시는 주님만 맞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2차대전에서 영국·미국·불란서가 승리했지요? 그렇지요? 연합국은 영·미·불인데 영국은 여성 국가입니다. 해지는 날이 없다는 영국이 전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자체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나라가 하나되게 되면 미국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4백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 사 십육($4 \times 4 = 16$), 16세기에 통일천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역사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복귀역사를 중심삼고 세계적인 투쟁사를 가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삼은 종교권을 세워 가지고 끝날에 이렇게 섭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88서울올림픽을 중심한 세계 복귀의 섭리

그런데 종교권이 또 원수라구요. 그 원수는 형제끼리예요. 형제끼리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재산이 있으면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열두 형제가 있으면 전부 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가 의논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추첨해 가지고 세우자.’ 하는 민주주의 대통령 제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4년 만에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해먹었다가는 곤란하지요? 형제들이 배가 아파 죽어요. 4년, 4수예요. 춘하추동을 대표한 4년입니다. 그래서 사 사 십육($4 \times 4 = 16$)이에요. 4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아담 가정의 4수, 사위기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16수는 뭐냐? 유엔군도 16개국이에요. 88올림픽대회가 끝나고 북한과 한국이 유엔에 가입할 때도 160, 161번째였어요. 북한이 160번째고, 한국은 161번째로서 이걸 잘라 버리면 1, 단 하나가 남는데,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때 메시아를 중심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미국과 올림픽 대회에서 승리한 모든 나라들이 그때 선생님을 중심삼고 하나됐더라면 통일천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88올림픽 때 선생님이

국가보다도 돈을 많이 썼어요. 24억이라는 돈을 풀어 가지고 선수들에게 선물로 양복도 해주고, 우리 일화의 진생업, 맥콜을 돈 한푼 안 내고 끝날 때까지 마음대로 마시게 했어요. 그런 놀음을 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전세계의 160개국 이상의 선교사들... 그들은 통일교회 2세입니다. 하늘편이예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은 사탄편 2세들입니다. 하늘편 2세는 아벨과 마찬가지로, 사탄편 2세는 가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운동 경기장에서 미국과 소련, 가인 아벨이 갈라져 싸우던 것이 비로소 평화시대로 결속된 거예요. 냉전시대는 지나가고 평화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평화시대로 들어가는데 그 기반이 뭐냐 하면, 가인 아벨, 통일교회 선교사 아벨과 육체적인 사탄편 가인인 선수들이 하나돼 가지고 선생님을 모신 것입니다.

통일천하를 이루기 위해 준비해 나왔지만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노태우를 내 손으로 대통령 만든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내 말을 깨 버려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노태우도 내가 대통령을 시킨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공산당 앞잡이 동생 아니예요? 형님이 공산당인데 그걸 무마시킨 사람이 나라구요. 또 일본의 나카소네로부터 후쿠다를 수상으로 만들어준 것도 나라구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카터 대통령의 모가지를 찍고 부시 대통령을 당선시킨 게 나라구요.

아담 국가, 해와 국가의 왕권을 움직일 수 있는 대표자를 내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나라들이 전부 다 천하가 통일교회로 돌아가겠으니 공산당 배후를 조종해서 반대하고 미국, 일본, 한국까지 공산권의 침해를 받아 완전히 박멸시키기 위한 싸움을 한 것이 한국 전쟁입니다. 그거 문선생을 잡아죽이기 위한 거라구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탄편 재림 왕이 김일성입니다. 거기에서도 아버지라고 하지요? 하늘편 재림 왕이 아버지라고 하는 레버런 문입니다. 맞아요? 두 아버지의 싸움이 40년 동안 있었는데, 김일성은 왕권을 가지고 별의별 놀음을 다 했어요. 악한 놀음을 다 하고, 세상에 할 수 없는 별의별 악마 이상의 놀음을 다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레버런 문은 악한 세계에 그 이상의 선한 도리를 세워 가지고 순결을 주장하고, 절대 사랑과 절대 성을 논의하고 절대 부부와 절대 가정 이상을 중심삼고 통일천하를 어떻게 엮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걸 준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끝까지 가인 국가가 하나 안 됐으니 이걸 통일시켜야 되겠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길을 닦아 나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없어요. 정부도 내 손과 내 신세를 지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길을 못 닦아 나가요. 무슨 현대가 어떻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나는 북한 정부의 내부 비밀실까지 들어가서 의논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문총재밖에 없다가요. 알겠어요?

통일교인이란 녀석들, 선생님이 이런 노정을 세계에서 홀로, 홀로, 홀로 닦아 나오는데 언제 눈물을 머금고 밤을 새워 가면서 선생님의 뒤를 돕기 위해서 힘쓴 자가 있어? 도적놈의 패라구. 사탄 혈족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가정적으로 접붙여 가지고 개조해서 하늘편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그래도 안 믿어요. 여기에 오라고 하니까다 싫어했어요. 알짜, 모를짜? 「알짜!」

기독교가 선생님과 하나되었으면 통일천하가 출발했을 것

오늘날 세계적 축복가정이 예수가 실패한 것을 대표해 가지고 세계 판도 위에서 기독교 문화권 가인과 아벨을 중심삼고 어머니를 세웠더

라면 선생님 가정이 이혼을 안 해요. 알겠어요? 이혼을 안 하고 축복하게 되면 한국이 중심 국가가 돼서 오늘날 남북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동서가 갈라지지 않아요. 기독교 문화권과 종교권이 하나돼 가지고 통일천하의 출발 기준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완전히 반대해 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레버런 문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광야로 쫓아낸 거예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상에 있는 영계를 통하는 사람들을 중심삼고, 80세 노인들을 중심삼고 출발한 거예요. 이래 가지고 80세 노인들이 정성들여 가지고 죽음 길에서 선생님의 뒤처리를 해주고, 이래 가지고 70세로, 60세로, 50세로, 40세로, 30세로, 20세로 해서 10대까지 다시 찾지 않으면 부모를 찾을 길이 없어요.

레버런 문은 다 잃어버렸어요. 하늘땅을 잃어버리고, 동서 세계 통일천하를 잃어버리고, 국가를 잃어버리고 쫓겨나 가지고,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처자까지 잃어버리고 홀로, 고독 단신이 된 거예요.

아담이 가정을 잃어버려 가지고 하나님 품을 떠나 고독단신으로 미래에 새로운 재림의 역사를 받아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에 상륙하여 가정적 기틀을 다시 잡아 가지고 세계 제패를 이루기 위한 이 일이 천년 만년이 아닌 40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4천만 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아담을 찾지 못했는데, 40년 동안에 아담을 세워 가지고 해와까지 찾아서 가정을 완성하고 나라와 세계를 찾아서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귀섭리해 나온 구원섭리에 있어서 메시아를 보낼 때의 몇십 배, 몇백 배 어려운 짐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전세계가 개인적 입장에서 반대하고, 전세계의 가정들이 합해 가지고 반대하고, 세계의 종족이 합해 가지고 반대하고, 세계의 국가가 합해 가지고 반대하고, 공산당과 민주세계가 합해 가지고 반대했어요. 사탄과 합작해 가지고 선생님 타도 운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근대

40년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생님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원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리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완전한 주체 앞에 완전한 대상이 되는 문제가 벌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위에 모시고 수직에 서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그림자가 없어요. 정오와 같이 딱 수직에 서니까 그림자가 없어요. 존재의 형태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레버런 문이 보이질 않아요. 이걸 누가 쳤다가는 친 녀석이 꺾여 나가는 거예요. 통일교회를 반대한 개인가정·일족들이 40년이 지나 다 망했어요. 반대하던 기독교도 다 망했어요. 천주교도 다 망하고, 신교도 다 망했어요. 미국도 다 망했어요. 선진국가도 다 망했어요.

2차대전은 뭐냐 하면,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불란서, 이태리, 이 7개국을 중심하고 싸운 것입니다. 이 7개국을 40년 동안 선생님이 붙들고 싸운 거라구요. 이걸 내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하루에 세 번씩 전부 다 기도해 주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숙명적인 책임을 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 숙명이 라구요. 부자지인연, 아버지와 아들딸이 같이 동거할 수 있는 지상천국 기반을 확정하기 위한 싸움을 해 나왔다는 것을 누구도 몰라요.

참된 사랑·생명·혈통이 가정에 정착해야 창조이상이 완성돼

축복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꺼떡거리고 살던 이 가짜 패들을 거느리고 천국에 입적시키겠다니 처량한 신세예요. 이제는 법이 생겨야 된 다구요. 하늘나라의 헌법, 무시무시한 법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할 것이 다 이거예요.

보라구요. 사랑도 거짓 사랑이요, 생명도 거짓 생명이요, 혈통도 거짓 혈통이니 이것을 여과해야 된다고요. 사랑 여과 과정을 거쳐야 되고, 생명 여과 과정을 거쳐야 되고, 혈통 여과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순결한 사랑, 순결한 생명, 순결한 혈통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는 여과 장치를 거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난 후처럼 여러분 자체가 똥개보다 더 더러운 것이 다 돼 있다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여과 장치를 통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여과장치예요? 하나님의 원리 말씀입니다. 말씀을 거쳐 넘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백 퍼센트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과 장치를 백 퍼센트 통과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들어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과장치를 거쳐 나갔더라도 천국을 모르면 안 됩니다. 천국 문에서 걸리면 어디로 갈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들어갔어야 할 천국이 비어 있지만 그 순서적 질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천국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구조 형태와 천국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낙원에 갔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혈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에 결탁한 부모를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 피와 살이 하나돼 가지고 소용돌이치는 그 가운데 내 생명의 씨가 돼 가지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삼위기대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사랑은 남자 여자를 부르고, 남자 여자는 혈통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위기대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것들이 이 모든 우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가지고 사탄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못 했느냐? 그릇된 핏줄을 연결시켰으니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핏줄을 더럽힌 거짓된 아담이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참된 아담이 나와 가지고 하나님과의 핏줄이 연결될 때 이것을 잘라 버리고 부정할 수 있다구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 참된 하나님의 생명, 참된 하나님의 혈통이 지

상 가정에 착지할 수 있는 이것이 천지대도의 창조이상 완성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것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이걸 사탄도 알아요. 너희 가정이 뭐냐 이거예요. 사탄도 천리 원칙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자지관계의 사랑을 누를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사탄세계, 타락한 세계에 남은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어머니가 잘못해 가지고 아들딸의 분쟁을 일으키던 것과 같은 데서 어머니가 참된 어머니가 돼 가지고 아들딸을 하나님의 아들딸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자리에서부터 천하가 수습되는데, 이와 같은 가인 아벨의 형태로서 몸 마음과 가정의 형제를 중심삼고 가인 아벨권으로부터, 일족을 중심삼고 종족적 가인 아벨, 국가적 가인 아벨, 세계적 가인 아벨의 형태로 연결되는 이걸 전부 다 정리해야 돼요.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비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참사랑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 가정이 진리의 실체

참사랑 앞에는 사탄도 굴복하는 거예요. 사탄이 되기 전 천사장의 책임이 뭐냐 하면, 아담 해와를 축복받게 만들어서 참된 부부를 만드는 것인데, 아담 해와를 겁탈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참된 부부를 만들라고 명령했으니 그것을 보호하고 축복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키워 나가고 시중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 새끼가 이들을 겁탈해 버렸다고요. 알겠어요? 「예.」

이놈의 원수! 사탄이 사랑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도 처리 못 해요. 사탄도 끝날에 다 와서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벨이 따라오는 것을 죽일 수 없어요. 사탄이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사랑의 중심,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가인적 형들도 그 동생 아벨

을 존경할 수 있는 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사탄이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사탄도 손들고 하나님도 손들었다구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느냐? 오시는 재림주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완전한 아담이 전권을 가지고 이걸 뒤집어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위에 있던 것을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의 근본은 참사랑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변할 수 없는데, 이걸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의 실체가 뭐냐 하면, 타락하지 않은 완전한 아담 해와의 가정이 우주 전체의 진리를 대표한 핵, 핵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 가정으로부터 종족이 편성되고, 지상 나라로부터 지상천국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유스럽고 행복스런 희망이 넘쳐흐르는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윤박사! 「예.」 그런 거 알았어,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잖아? 생각이 왔다갔다하잖아, 어디로 가야 할지? 선문대학이 자기 대학이야? 가인 아벨을 중심삼고 하나 만들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해야 될 텐데... 몇 년 동안 해먹었나? 「11년 되었습니다.」 아, 11년 했으면 됐지, 24년 해먹고 30년 해먹을 거야? 그러면 죽어, 죽어. 그것이 편안치 않아 가지고 내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말이야. 아예 싹 정이 떨어졌어.

여기에 와서 자르딘의 전통을 이어 가지고 대학교에서 훈시할 수 있는 일을 해놓아야 돼. 후퇴해 가지고 세계적인 학자들을 모아서 역사에 없는 큰배를 만들어 가지고 선장이 되어 천하를 호령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랬는데, 십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 됐다구. 뭐야, 그게?

지금 무슨 관장이 됐나? 도서관장, 박물관장? 「박물관장입니다.」 박물관장이 뭐야? 이 시대가 아니야. 지나간 것 아니야? 국민훈장을 누구 이름으로 받았나? 김대중이야, 김영삼이야? 국민훈장을 누구 이름으로 받았나 말이야?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이름이 아니라 김영삼 이름으로 받은 거야. (녹음이 잠시 끊김)

2차대전 직후에 이뤄야 할 세계통일 기준을 이루기 위한 섭리

노동조합을 소화 못 하는 한 그의 갈 길은 암담해요. 자기 당 제일, 자기 일당 제일 아니에요. 국가를 대표한 자기 당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권을 세우지 않으면 그는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문총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도 가능할지 모르지요.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김대중 께들도 많겠지만. 김일성도 살려면 별거 없어요. 김대중도 마찬가지로 예요. 살려면 문총재 뒤를 따라와야 돼요.

선생님이 현재 <워싱턴 타임스>를 중심삼고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한 거예요. 북한을 때려치울 수 있고, 남한을 때려치울 수 있고, 일본도 때려치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런 놀음을 안 해요. 정정당당하게 사실적 기반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승리의 길을 따라 가지고 자연굴복을 시키려고 하지,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그래, 선생님 시대에 있어서 세계의 기독교가 하나되어 선생님을 밀었다면 벌써 1945년부터 7년 노정, 1952년 안에 다 끝나요.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40년이 지난 1992년부터 7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년까지 세계적으로 약속한 것을 전부 다 되돌려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억6천만쌍 축복과 지상세계 사탄 혈통 단절이라는 표어를 중심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승리적인 고개를 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1억2천만쌍이 아니라 1억4천5백만쌍을 축복했어요. 지난 주일까지 나머지 2억1천만이 넘었다구요. 3천만은 한 달 동안에 넘어갈 수 있는 거라구요.

그걸 볼 때 3억6천만쌍은 승리적 완결이 되어 초과달성이겠어요, 미달성이겠어요? 「초과달성입니다.」 그걸 인간의 힘으로 했다고 봐요? 영계의 우리 선조 축복가정이 수백억이 돼요. 수백억을 축복해 버렸어요. 타락하지 않은 아담 가정부터 천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조상부터 천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못 들어갔어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중심삼고 천사장권을 물리치고, 하늘편 천사장권 내의 사탄을 제거해 가지고 아담 몸과 바꿔 가지고 축복해준 거예요. 그것이 수백억이 돼요. 지상의 현재 3억은 문제도 안 된다고요.

그 영들이 내려와 가지고 지상을 이 선조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복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귀는 후손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2세를 통해야만 복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미암아 축복한 천국 가정이 생겨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 수 있는 다리, 천국에까지 다리가 놓였으니 지옥문 해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참사랑을 기반으로 한 세계 가정 재편성 운동

그래서 성인들과 살인마를 같이 축복해줬어요. 에덴 가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불상사가 하나님을 중심삼은 통일 가정 축복시대에 있어서는 불상사가 아니고, 도리어 원수와 원수끼리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타락이 없는 세계로 이양해 간다는 거예요.

조수가 만수가 되었다가 나가게 되면 맨 처음 나간 물이 제일 멀리 가지요? 그렇지요? 「예.」 바뀌지는 거예요. 맨 나중에 떠 있던 물건이 맨 처음으로 들어와요. 알겠어요? 바뀌진다고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물은 만수가 됨과 동시에 나중에 들어온 물과 수평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것이 여기에서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편 나라와 하늘편 나라, 오른편은 하늘편 나라,

원편엔 사탄편 나라로 해서 선생님은 수평선에 서 가지고 원수의 출발을 해소해야 됩니다. 청소년 시절에 윤락했던 것,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살육전을 벌인 것 등 모든 것을 해소해야 돼요.

그것을 해소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거짓 부모는 파괴의 놀음을 했지만, 완전한 아담 1대조서부터는 파괴시키지 않고 이에는 이, 눈에 눈의 탕감 법도에 의해서 같은 가치로 탕감해 가지고 방향만 돌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탄세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선생님을 중심삼고 ‘뒤로 돌아!’ 하게 되면 자리바꿈이 돼요. 오른쪽은 저쪽으로 가고 왼쪽은 이리 와 가지고 전체가 바뀌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인은 살인마의 자리에 가고, 살인마는 성인의 자리에 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과거 아담의 잘못, 지금까지의 역사과정에서 예수님이 실패했던 모든 죄상을 중심삼고 용서를 빌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세계 가정 축복권 내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른손에는 하늘편, 왼손에는 사탄편을 쥐어 가지고 영계의 성인과 살인마를 같은 자리에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형제가 실패한 모든 한을 이 아들을 중심삼고 풀고, 거짓 부모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참부모로부터 완전 탕감 해소하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임하여 가지고 영계의 모든 영인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예비축복을 했다구요. 수백억을 했다구요.

승리의 독자를 중심삼고 천사장권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이 16세 때 연결된 그 몸뚱이가 아담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전에 죄 된 모든 것을 잘라 버리고 선생님의 승리한 몸뚱이를 접붙여줘야 하는 거예요. 악마한테까지도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아담이 완전한 하나님의 첫째라면 모든 사람들은 2세입니다. 1세, 2세로 말미암아 완전히 평등 기준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위기대 아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사위기대 완성을 중심삼고 사사절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지상 위에 맺혔던 것이 완전히 하늘편으로 돌아가 가지고 시계가 이렇게 돌던 것이 여기에 돌아와 가지고 전부 다 잘라 버리고 하늘편 하나님과 참 부모를 중심삼고 참혈족 세계 평준화를 이루어, 이걸 잘라 버리니 대번에 지옥문을 개방하고 천국문을 개방할 수 있는 시대에 왔다는 것을 알지어다! 알겠어요? 「예,」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배후에 어떻게, 하늘나라와 영계가 어떻게 참부모, 재림주를 중심삼고...

구약시대는 결혼을 못 한 것입니다. 한스러운 구약시대입니다. 그건 투쟁역사입니다. 선민을 중심삼은 투쟁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시대는 신약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약, 새로운 약속만 세웠지 이루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신랑 신부의 약속을 중심삼고 신부권, 신랑권...

신랑은 하늘에 가 있고 신부는 지상에 있어 가지고 견우와 직녀가 칠월칠석날에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7수, 7수, 14수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신랑 신부를 말한 것이 한국의 동화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참 한국이라는 나라가 묘하다구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모든 전후의 얼크러진 것을 다 풀어 가지고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패권적인 입장에서 세계 가정을 재편성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참부모로서 타락의 후예들을 살리기 위한 마무리와 정비해

광야에 쫓겨난 레버런 문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핍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리어 축복해 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머니를 찾아야 돼요.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80년 역사를 중심삼고 신부 역사의 하나님이 역사하던 모든 인연을 모아 가지고 10대 처녀의 자리까지 갖다 놓지 않으면 어머니를 찾을 수 없어요.

사십이 된 그런 남자가 열 일곱 살 처녀한테 장가가겠다는 것은 도적놈이지요. 알겠어요? 「예.」 도적놈인데 진짜 도적놈은 뭐냐 하면, 어머니를 세우기 위해서, 칠십 노인, 육십 노인 할 것 없이 여자라는 모든 여자는 어머니 하나 씨를 만들기 위해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어머니의 분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알싸, 모를싸? 「알싸!」

정신차리라구, 이놈의 간나 도적놈의 자식들! 이렇게 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이 한을 풀고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칭찬하면 좋겠지요? 「예!」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선군은 못한 것은 못한다고 하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선군이 아닙니다. 그건 악군입니다. 그래서 내놓고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벼락을 맞을 간나 자식들!

보라구요. 내가 참부모라고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참부모라는 말을 가르쳐 줘 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귀하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집을 버리고 전부 쫓겨나서 욕을 먹고 별의별 요사스런 길을 거쳐와서 참부모 때문에 고생했지만 참부모의 이름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그래, 죄를 지어 가지고 형장에 나가게 된 입장이에요. 사형밖에 필요한 것이 없는 녀석들이 됐다 이거예요.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죄를 지어서 사형장에 나가게 되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잘 했다! 이 나라 법과 이 나라의 정신으로 볼 때 잘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헌법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알겠어요? 「예.」

타락한 세계의 부모도 그런데, 참부모의 이름을 가진 문총재라는 사은 어떻겠어요? 죽을 꽤들을 살릴 수 없으니 이것을 천법에 맞게끔 최고의 집을 짓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뒷마무리를 하고 정비하는 이 놀

음을 하는 거라구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논리가 나와야 되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절대신앙을 해야 됩니다. 에덴에서 아담 해와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게 될 때, 절대신앙 아래서 한 것이 아니라 절대신앙 위에서 한 거예요. 누가 절대신앙? 「하나님이…」 절대신앙의 조상이 누구라구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를 절대신앙 위에서 했어요. 절대사랑의 상대를 찾기 위한,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상대를 찾기 위한 그 일을 조상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그 조상의 혈통적 인연을 상속받은 여러분도 자기보다 십 배, 백 배, 천 배, 몇억만 배 훌륭한 상대를 얻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횡적으로도 그렇고, 종적으로도 자기 이들은 자기보다 잘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 중에 왕 부모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욕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똥 구더기보다 더 악한 패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똥 구더기는 새라도 쪼아 먹지만 이견 새도 못 쪼아먹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여기 자르던 제1 선언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절대복종은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면 몇천 배, 몇만 배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절대 진공 상태가 되면 이 우주의 한 데 몰렸던 힘이 여기에 와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진공은 자꾸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요. 마찬가지로라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를 부정하고 투입하고, 부정하고 투입하다 보니 점점 큰

것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싸 가지고 자꾸 하면 하나님이 조이고 조여 가지고 몸이 아프고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몸을 움츠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뼈다귀가, 핵이 둥그래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핵은 둥글고, 뼈와 살이 둥그래지는데, 하나님 자체가 내적인 뼈로 들어가고 아담 자체가 살이 되어서 뼈와 살이 둥그래져 가지고 한 몸, 일체가 되어 운동을 함으로써 영원히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결실체, 사랑의 원인체가 실체 창조물로 나타난 것이 핵입니다. 아담 해와가 완전히 한 덩어리, 남자는 뼈다귀가 되고 여자는 살이 되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자기보다 높을 수 있는 상대와 자기보다 높을 수 있는 후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날을 바랄 수 있고, 소망의 날을 바랄 수 있고, 이상이라는 날을 바랄 수 있는 기점이 그래야만 그 자리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상은 천국 국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지

그렇기 때문에 땅이 천국의 국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지상에 태어나야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종적인 기준에 있기 때문에 생산을 못 해요. 요 초점에 기둥으로 설 수 있지 면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횡적인 면으로 구형을 이뤄 가지고 하늘나라의 아들딸을 무한히 번식할 수 있는 이 대우주 공간과 같은 세포권 내를 통해서... 세포와 세포의 거리가 별 세계의 거리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여기서 무한히 많은 자녀를 번식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을 무한히 채우기 위해서 아담 해와 가정을 만들고 오목 불룩을 지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 오목 볼록이 누구의 오목 볼록이에요? 하나님은 남성격이에요, 여성격이에요? 「남성격입니다.」 하나님이 남성격이면 생식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웃음) 앞에는 남자 생식기, 뒤에는 여자 생식기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돌아서면 이것도 생식기고 돌아서면 이것도 생식기이니, 남자 여자로 갈라났기 때문에 오목 볼록이 필요하더라! 알싸, 모를싸! 「알싸!」

그래, 남자는 앞에 이걸 버티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는 뒤로 전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배 안에까지, 새까만 그림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님 몸뚱이의 앞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 똥구멍이 중심입니다, 똥구멍이. 똥구멍이 중심이라고요. 남자의 똥구멍 앞에 뭐가 있어요? 남자의 그것 있고, 여자의 똥구멍 뒤에 뭐가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식기에서 오줌도 나오고 다 그렇지요? 세상에, 어이쿠! (웃음) 왜 웃어요? 그게 사실인데, 그 사실을 몰랐는데 이제 사실을 똑똑히 알았다는 거예요. 남자의 거기에서 오줌도 나오고 아기 만드는 씨도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그 집을 죽어도 못 놓고 살겠다고 야단입니다. 아이구! 그거 왜 그래요? 씨예요, 씨. 거기에서 사랑의 씨가 태어나고, 생명의 씨가 태어나고, 혈통의 씨가 태어나요.

완전하고 거룩한 그 씨가 크려면 거름더미에 심어야 돼요, 거름더미. 매일같이 앉아 가지고 똥내 증기로 흠뻑 목욕하는 것이 생식기입니다. 그거 알아요? 그걸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살려면 영광된 향기가 나는 자리가 아니라 똥냄새가 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생명의 근본이요, 사랑의 근본이요, 혈통의 근본인 거기에 뿌리를 박고 살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문선생의 사상이 그것입니다. ‘지옥까지 소화해라! 지옥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삼켜 버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다 판타날에 가서 수련할 거예요. 본래는 판타날에서

40일수련을 다 해야 돼요. 판타질이 어떤 곳이나 하면, 고기를 보게 된다면 그냥 조그만 고기를 큰 고기가 몽땅 삼켜 버립니다. 몽땅 삼켜 버린다는 거예요. 똥구멍이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제일 밑창에 내려가려고 해야

여러분 남편 아내들이 사랑할 때 그걸 생각하며 사랑해요? 더러운 그 오줌 구멍을 서로 맞춰 가지고 비벼댄다고 생각해요? 꿈에도 생각 안 하지요? 천하를 대신한 영광이요, 사랑의 모든 가치가 될 수 있는, 최고 절정의 가치의 핵을 붙들고 내가 춤을 춘다고 생각하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비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 사람은 높은 데 갔으면 똥구덩이를 찾아가야 돼요. 윤박사도 그렇게 찾아가야 된다고. 총장이고 뭐 국민훈장 받은 것을 자랑하지만, 전과 몇십 범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만 천하 어디를 가든지 악마의 세계까지 굴복한다는 거야. 그거 맞는 말 같아, 안 맞는 말 같아? 「맞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말을 절대 듣겠어, 안 듣겠어?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생식기를 팔아서 현금하라면 어떡할 테야? (웃음) 아, 답변하라구. 생식기를 잘라서 팔아 현금하라면 기쁨으로 ‘예! 나는 천하에 없는 충신 중의 충신이요, 성인 중의 성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박물관의 일등 자리에 갖다 장치할 수 있는 생식기가 됩니다.’ 해야지. 그렇게 해봤어요? 윤박사! 생식기를 잘라서 팔라고 해서 팔게 된다면 그 생식기가 하늘나라의 박물관 존재 세계의 왕좌에 전시되겠어요, 지옥에 거꾸로 꽂히겠어요? 생각해 보라구요.

이것이 삼위기대입니다. 알겠어요? 가인 아벨이 하나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삼고. 그래, 그게 한꺼번에 운동하지요? 그게 클 때는 달

린 것은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크지 않아요. 이게 늘어지게 된다면 긴 게 없어지고 다 그래요. 숨춥니다구요.

여자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지 말라구요! 세상의 비밀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그런 걸 다 들춰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결론짓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겠나 생각해 보라구요. 미친 사람 같고 정신 나간 사람같이 별의별 과정을 다 거쳤지요.

들어 보라구요. 아침에 여편네가 한결에서 요강에 싸-악 하면 폭포 소리가 나지요. 남자는 철렁철렁해서 소리가 여자보다 강하지 않아요. 그래, 오줌만 싸게 된다면 ‘야, 남편 일어나!’ 그 말이라구요. 그러니 시간을 알려주는 경종이 필요 없지요.

오즘에는 오즘을 먹는 패들이 생긴 것 알아요? 세계적으로 그 운동을 한다구요. 무슨 병? 당뇨병 같은 데는 오즘을 먹는 거예요. 그런 클럽이 세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기가 차지요. 그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 똥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손에 똥이 묻으면 냄새 맡고 씻어요, 그냥 씻어요? (웃음) 어때요? 그냥 씻어요, 냄새 맡아 보고 씻어요?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맡아 보고 씻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어떻게 날까 하고 말이에요. 똥내도 여러 가지거든요. 사고가 났으니 똥을 흘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옛날 똥과 비교해 가지고, 맛을 봐 가지고 ‘아, 이거 정상적이 아니니까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똥이 달면 병이 악화되고, 쓰면 낮게 된다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용관이라는 참 잘생긴 미남 동생이 있었는데... 우리 형진이, 형진아! 형진이가 선생님 아들 중에 제일 넘버원 미남이라고 그런데, 저 사람보다도 더 미남이었어요. 참 잘생겼어요. 선생님도 못생긴 사람 축에 들어가지 않는데, 선생님이 ‘아이고, 내가 동생 얼굴만 같았으면 내가 천하의 미남자로서 세상 여자들 다 녹여 먹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구요. 그러지 않아도 세상 여자들을 다 녹여 먹는다고 야

단인데 말이에요.

천국 가려면 참부모 가정을 중심삼고 완전히 하나돼야

여자들은 선생님 편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에덴에 여자, 그 다음에 천사장, 아담, 이 셋이 있는데, 이 탕감복귀 시대에 있어서 전세계의 여자는 어머니의 분신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전세계의 남자들은 아버지 분신이에요? 천사장 분신입니다. 원수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자 중에 여왕을 찾아야 되고, 할머니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엔 자기 여편네를 찾아야 되고, 장녀 차녀까지 다 찾아와야 돼요.

그래,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다구요. 뭘 찾아 재림주가 오느냐 하면, 여자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전세계의 기독교가 신부 아니에요, 신부가네무라야, 무슨 무라야? 「나카무라이입니다。」 나카무라 제일 좋은 색시를 얻어왔다 그 말이라구. 나이 육십, 칠십이 돼 가지고 처녀 색시를 얻었으면 뭐 제일이지.

이러다 보니 혼동회 하려다가 혼동회도 못 하고, 내가 다 잡아먹겠구만, 지금. (웃음) 「아버님 말씀이 흥미가…」 흥미가 뭐야? 맨 마지막에 박사학위 사인할 때 훈시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 절대부모·유일부모·불변부모·영원부모, 또 그런 남편 아내, 그런 가정… 그런 말 들어 봤어요, ‘숙명적 제안 해원성사’라는 말? 전부가 근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합격해야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워 가지고 선생님의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절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에서 선생님의 가정을 중심삼고 절대가정을 중심삼은 절대부모·절대자녀·절대부부, 여러분도 그런 전통을 이은 똑같은 모델이 되었으니, 대량생산을 하려면 공장에서 모델을 중심삼고 재까닥 재까닥 찍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판 박은 대로 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선언, 4차 선언까지 하고 나서 저 북쪽(코디악)에 가 가고 고향의 환경에 들어갔으니 사사절을 선포한 거예요. 아담 가정의 사위기대, 아담 아들딸의 사위기대, 전세계 가정의 사위기대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를 수 있는 아담의 씨와 아들의 씨가 이 쉼이예요. 씨, 열매는 마찬가지로는 거예요. 천만 대 역사의 거리가 있더라도 소나무 씨는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같은 씨,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선생님과 완전히 하나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뒤에 붙었더라도 허리띠를 얹어매고, 뒤로 끌려가더라도,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 이리 하며 끌려서 뒤로 따라가더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비행기 안의 파리가 한 자리에 붙어 있으면 여기에서 한국에도 가고 천국에도 날아가니, 딱 붙은 파리새끼 모양으로 선생님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천국으로 통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가는데 선생님은 누가 안 막으니 붙어서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선생님이 책임지지요. ‘너 누가 붙어 들어오라고 했어?’ 하면 ‘내가!’ 그러는 거예요. ‘왜?’ 하면 ‘나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 해와도 모르게 세상을 사탄이 뒤집어 박았지요? 마찬가지로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의 길에 들어왔다. 모진 풍파, 모든 반대의 문을 통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의 그 지혜와 그 재치가 얼마나 멋지냐! 내가 책임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끼라든가 파리 왕, 벌 왕한테 말해 가지고 ‘대신 죽 한번 돌아와!’ 하면 돌아와야지 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나라에 가서 큰놈들을 세워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논리다 이거예요. 알싸, 모를싸? 「알싸!」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 나중에 지옥에 가 가지고 ‘선생님 나 여기 와 있어요.’ 하면 ‘이놈의 자식!’ 꼭대기를 들이 눌러서 수루메, 편포와 같이 만들 것이라구요. (웃음) 그렇게 세밀히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좌익 우익이 어디에서 근원 되었는데도 모르지요? 거꾸로 됐어요, 이게. 통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런 문은 공산당을 굴복시킨 거예요. 민주세계, 망하는 미국을 바로잡고... (녹음이 잠시 끊김)

종교자유옹호대회의 의의

구교 신교가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워싱턴, 동경, 베를린을 중심삼고, 상파울루를 중심삼고 디프로그래밍하는 이 반대파들 모가지들 잘라 버리기 위해서 세계적인 최고 종교 지도자들과...

클린턴 대통령이 말이에요, 한 가지 쓸 만한 일을 했어요. 정치 포어를 과거에는 경제적 문제라든가 학술적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세워 나왔지만, 이제는 그게 다 지나갔다면서 헌법이 다 망쳤으니 종교의 자유, 개방을 중심삼은 포어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받는 종교를 보호해라, 세계적으로 역사를 두고 제일 반대받은 종교가 통일교회다!’ 이래서 클린턴 행정부의 종교자유옹호위원회 위원 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통일교회 역사를 전부 다 보고해 주소, 일본에서 하는 디프로그래밍이 어떤 것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나서는 ‘아이쿠! 야만적인 일본 사람들!’ 이런 거예요.

끝날에는 하나님은 손 안 대고 자기들끼리 싸움하게 해서 청산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워싱턴 종교자유옹호대회를 할 때는 이들이 주도해 가지고 세계의 모든 종교집단을 국가의 이름으로 불러 가지고 대회

를 하는 거예요. 여기 상파울루에서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그 대회를 하는데, 마지막입니다. 4차라구요. 알겠어요? 이것도 4차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절을 선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윤박사! 「예.» 윤박사가 박사면 뭘 해? 박살 맞게 돼 있는 것을 나 때문에 꼬리라도 붙들어 가지고 살려 줬으면 됐지. 세상에….

여기(얼굴) 구멍이 전부 다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수입니다. 이게 정보기관입니다, 정보기관. 여자들은 하나 더 있지요? (웃음) 여자들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일곱에 아홉, 여자가 아홉 수입니다. 아홉 수는 사탄 수입니다. 투전판에서 짓고뎡 할 때의 아홉 수, 사 오를 빼게 되면 천하의 명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 오? 다섯은 사망의 중심입니다. 이래 가지고 9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하를 중심삼고….

여러분, 아기 때 사람들이 손을 어떻게 쥐어요? (손을 쥐어 보이시면서) 이렇게 쥐어요, 이렇게 쥐어요? 박사님! 「이렇게 쥘니다.» 왜 그렇게 쥐어요? 그렇게 쥐었으면 일생동안 살 때도 그렇게 쥐고 살아요, 이렇게 쥐고 살아요? 사람의 습관성은, 세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는데 말이예요, 엄마 뱃속에서는 이렇게 하고 자랐는데 이걸 펴지 못하고 자랐으면 그게 습관이 돼 가지고 이렇게 쥘 텐데 태어나 가지고는 손을 이렇게 쥐더라구요. 아이들을 보라구요. 이렇게 쥐는 아기가 없다구요.

입에 집어넣을 때는 이래요, 입에 집어넣을 때는. 주먹을 빨지요? 주먹을 빨면 손톱으로 입안이 흠을 내겠으니 그렇게 쥐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렇게 넣고 빨아요. 천지 조화를 태어나면서 다 체득하게 되어 있어요. 뭐 잘살겠다 못살겠다 하지만 다 잘살게 돼 있다구요.

자, 이만하고 그만둘까요, 더 하자구요? 더 하자면 옥밖에 남지 않았습시다. (웃음) 더 하자면 몽둥이밖에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엔 발로

밟아 죽기 전까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모가지를 버터 가지고 악 소리를 해서 죽기 전까지 그렇게 되면 살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방받는 거예요.

왕권까지도 바꿀 수 있는 사랑의 힘

타락한 죄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세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사탄을 중심삼은 습관과 전통의 그 버릇이 몇 억만 년 갈 수 있다는 내용이라구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참사랑에서는 그것도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백년, 몇 대 모은 재산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바꾸자면 바꾸는 것입니다. 왕권까지도 바꿀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사랑 좋아해요, 나빠해요? 「좋아합니다,」 그런 사랑 때문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인간이 똥개 새끼, 구더기보다 못하게 되어 버렸어요. 인간의 가치가 이게 뭐예요? 그래, 통일교회에 들어오면 말만이라도 할 줄 알지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보다도 높을 수 있는 가치, 그 하나님의 상대도 그래야 되고 아들딸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계에 부모라는 종자는 나쁜지 좋은지 모르지만 그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절대 믿고 가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고 출세하는 사람이 되느니라! 나라의 왕을 절대 믿게 되면 충신이 되는 것이요, 세계의 왕 성인의 말을 절대 믿는 사람은 성인이 되는 것이요, 천지의 왕 하나님의 말을 절대 믿으면 성자가 되느니라!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라는 말은 이치에 통하는 말이었다!

사랑은 경계선도 없고 무엇보다도 빨라

그래서 땅에서부터 천상세계까지 그 내용이 통할 수 있는 참사랑의 궤도가 하늘에나 지상에나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궤도를 타고 사랑의 스위치만 껐... 그 스위치가 뭐냐 하면 사위기대입니다. 동서남북, 상하전후좌우 이 스위치만 딱 해놓으면 휘익...

사랑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태양 빛이나 전기도 1초 동안에 3억 미터를 가는데, 1초 동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 돌 수 있는 속도라구요. 그것을 빠르다고 하는데 이보다 몇천만 배 더 빠른 것이 참사랑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이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갈 때 경계선을 생각해요?

소도 암내가 나게 되면 수놈이 바람에 한번 흠- 맡아 가지고... 암내라는 것이 수놈에게서도 나오? 암내가 뭐예요? 암컷의 냄새를 말하는 겁니다. 알아요? 암내넌다고 그러지요? 그 암컷의 냄새를 암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지? 「알았습니다. (윤세원)」 알았어? (웃음) 그것은 알았지만 이름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았느냐 말이야. 박사니까 그걸 알았을는지 모르겠구만.

수놈은 벌써 바람이 슬슬 불어서 그 냄새만 맡게 되면 정신이 뒤집어져요. 그곳을 향해서 뿔이 있든, 다리가 부러지겠으면 부러지고 대가리가 깨지든 말든,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어도 그 사이로 달려가다가 어긋죽지가 떨어지더라도 그 암놈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요렇게 살살 피해 가는 것은 진짜 사랑을 못 찾아요. 내가 죽든 말든 돌진하는 녀석이 제일 미인을 얻고 미남을 얻는 것입니다. 여자도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안전한 여자들은 절대 미남을 못 얻고

추남을 얻어요. 돌진해 가지고 붙들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이놈의 간나 죽인다.’ 그러면 ‘허허허-’ 그럽니다. (웃음)

세계적인 미인을 보면 마피아 아니면 갱스터 같은 제일 힘있는 못난 녀석들이 그 남편이 돼 있어요. 찾아보라구요. 비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강패들 여편네를 보면 전부 다 미인입니다, 내가 알아보니깐 그렇더라구요. 목사 부인들은 전부 다 반놈이라구요. 못생겼어요. (웃음) 목사 부인이 잘난 것을 내가 못 봤다구요.

나도 목사인데 우리 어머니는 별종이지요. (웃음. 박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생동안 그런 모든 걸 연구해 가지고 구슬을 꿰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말을 하려면 십년, 만년도 계속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같이 못난 사람들에게 너무 처넣어 주면 체한다구요. 알겠어요? 위 주머니가 요만한데 자꾸 처넣으면 체해서 죽어요, 죽어. 주거(住居)라는 것은 같이 사는 것을 주거라고 하지요? 이걸 그 반대로구만.

원리를 알고 말씀을 들으면 심각해져야

자 그만하고, 이제는 욕밖에 할 것이 없는데, 욕먹고 싶소, 안 먹고 싶소? 욕먹을 짓 했어요, 안 먹을 짓을 했어요? 부모님 앞에 답변해 봐요. 여기 나이 많은 아저씨! 참부모가 사실이라면 그분 앞에 자기가 참된 자녀로서 책임 못 한 무엇이 얼마나 많고 많으냐 하는 것을 볼 때, 죽을 짓을 했느냐, 살 짓을 했느냐? 뭐예요? 「아버님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총을 암만 쏘도 타깃을 못 맞추면 천만 개를 쏘도 손해고 파괴이지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아? 암만 쏘면 뭘 해? 하나라도 맞춰야지. 그러니 총 쏘는 거 잘못했으니 빌어야지요. 잘못됐으면 그것의 십 배 이상을 변상하라고 할 때 싫다고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하겠다고 했으면 뭘 해? 안 됐는데. 나이가 많아 가지고 언제 하겠어? 이제는 다 틀렸지. 그래, 어디서 왔어? 「황해도에서 왔습니다.」 황해도? 여기에 황해도가 없잖아, 남한에? 「전쟁 때 도망해서 나왔습니다.」 황해도가 남한에 없잖아? 남한에 나와서 어디에 살고 있나 물어 보는데, 황해도는 또 뭐야? 「지금 토론토에 있습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가나다라마바사로구만. (웃음) 카타과하로 돌아가야 돼요. 복귀의 길이 멀구만.

*일본 멤버들! 귀가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전부 다 알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어? 「예.」 심각한 내용이에요, 심각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전부 다 알겠습니다.」 전부 다 알겠다고 하면 시험 점수를 30점도 못 받아요. 심각한 내용인가 심각하지 않은 내용인가를 물어 보는 것이니까 심각한 내용이라고 대답하면 백 점을 받겠지만 알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 뭘 알았어? (웃음)

통일교회 멤버라면 전후 좌우가 이론적으로 맞게끔 대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물어 보면 그렇게 물어 보는 것에 딱 맞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점수를 못 받아요.

여긴 아내야? 「예.」 얼굴을 보니까 언제나 싸움할 상이로구만! (웃음) 욕구불만이 가득 찬 모습이라구. 왜 웃어?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라구? 「예.」 그러니까 보고 그러잖아?

이 남자는 어때? 「아버님이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복종해야 된다고. 때때로 ‘이거!’ 하면서 주먹이 나온다구. 「예, 맞습니다.」 맞다구. 맞아서 축복받는다구. 복종하면 네 가정에 복이 찾아온다는 거라구. 「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웃음) 그렇다고 아내를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구. 그러면 안 돼! 네가 아내를 때리더라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잖아?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타입이라구, 얼굴을 보니까.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원리의 내용을 알고 선생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심각해져요, 안 심각해져요? 「심각해집니다.」 역사적인 위대한 것은 신켄나(眞劍な;심각한) 것입니다. 일본도(日本刀)의 신켄(神劍) 말이에요. 그것을 휘두르면 한 나라의 왕의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신켄나(眞劍な;심각한) 생각으로 신켄(神劍)을 가지고 신켄니(眞劍に;심각하게) 치게 되면 신켄노(眞劍の;심각한) 세계 제일의 남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신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한(神權)도 된다고요. 그렇지요?

일본도가 대단해요? 「예?」 일본도가 대단하냐구? 「예?」 일본도! (웃음) 미야모토 무사시의 손에 들린 일본도는 천하무적으로 모든 세계를 평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지요? 권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을 합해서 신켄(神劍)이 되었다고 한다고요. 신켄(眞劍)은 무엇이든지 생각하게 되면 그대로 일로매진(一路邁進)하는 것을 말합니다.

팔십 된 노인이 일본말을 술술 말하는 것을 들어 보면 젊었을 때 일본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요? 친구들이 선생님과 말하기 시합을 해서 모두 다 졌어요. 이렇게 팔십 된 노인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한국말도 빠르고 영어도 빨라요. 훈련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예.」

일본 문화의 특성

니혼(二本)이 좋아요, 잇폰(一本)이 좋아요? 한국말로 일본을 일본(一本)이라고 합니다. 니혼(日本)이라고 하면 니혼(二本)이라고 합니다. 잇폰과 니혼을 합치면 삼본(三本)이 되지요? (웃음) 그러니까 이(二)는 일(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러한 말로 볼 때, 일본은 어머

니의 나라이고 한국은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맞다구요.

내일은 한국의 예언서를 읽어 주려고 합니다. 천년 이내에 예언한 사람들이 33명 정도가 있지만, 모두 다 목표는 하나라구요. 130년간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름까지 다 맞다구요. 시대의 변화도 전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느 때,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낙담하지 않아요. 세계가 혼란기에 빠지더라도 재림주가 와서 한민족을 해방할 것이라고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열강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역사적인 전통을 이어 나온 것입니다. 중국의 한자를 만든 것도 한국 사람이라구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 중국의 역사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도 한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구요. 그것을 연구하면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한국 사람과 절대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만 사람이나 중국 사람과는 결혼을 하더라도 한국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구요. 만약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여자들이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되면 일본은 대번에 뒤집어져 버립니다. 일본의 주권이 없어진다고요. 일본의 주장이라든가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섬나라의 여자가 뱃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아침에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만선해서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 남편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져 죽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남편들끼리 부탁을 한다구요. 뭐 그런 일은 다반사로 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서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내 처자식을 책임져 줘!’ 하는 것입니다. 뭐 죽으면 어쩔 수 없다구요. 아버지가 죽으면 섬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받은 친구의 첩으로 살면서 가게를 꾸려 나가는 거라구요. 그

런 것을 보통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살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유명한 세도가의 딸이 총리의 첩이 되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요. 대신의 첩이라든가 말이에요. 첩으로 사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친족간의 결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문씨면 문씨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촌끼리도 결혼하잖아요? 만약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딸이 빌어먹는 것보다는 사촌의 집에 가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녹음이 잠시 끊김)

일본에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좌측통행이지요? 문화는 영국의 문화, 군대는 독일의 군대, 법은 이태리의 법에서 전부 다 훔쳐 왔다고요. 여자는 무엇이든지 따라하는 것입니다. 모방을 해서 남편보다 좋은 것을 남기려고 하는데 큰 것은 안 되겠으니까 조그만 것들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일입니다. 여자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자랑할 수 있지만 남자같이 큰 것은 못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 민족입니다.

그래서 소니 같은 회사에서 조그만 전자제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세계에 자랑하는데, 그거 별것 아니라고요. 우주까지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일국 시대가 지나고 연합국 시대가 왔다

지금 선생님은 우주공학의 세계에 뛰어 들고 있다고요. 와콤도 선생님이 만들었지요? 일본 10대 재벌의 전자연구소 소장들, 수염이 허영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러한 소장들이 찾아와서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적인 손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소련 우크라이나의 우주공학이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한테는 시키고 싶지 않아서 문선생한테 바치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계적인 박해를 받으면서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문선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없는 위인이라고 해서 말이에요.

중국도 지금 상류계층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한 바케쓰(バケツ)의 물을 머리 위에 뒤집어쓰면 그 물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틀림없이 몸 전체에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억6천만쌍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인구가 12억이지요? 인도까지 합하면 얼마예요? 20억이 넘는다고요, 20억. 그것을 전부 다 포함시키면 아시아만 해도 32억이 됩니다. 50억 인류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요?

그것이 선생님과 연결되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일국주의는 지나갔다고요. 연합국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일본뿐만 아닙니다. 일본에서 무엇을 만들면 한국에서는 3개월 이내에 그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한국입니다.

한민족은 언어가 훌륭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다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왜? 말이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부사나 형용사를 입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이 입체적입니다. 할 수 있는 발음도 49억 가지가 됩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세계의 어떤 언어도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말을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세가 되면 벌써 혀가 굳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선생님은 어디에 가든지, 일본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만큼 나이를 먹으면 노망이 들어서 무엇이든지 다 잊어버리지요? 다 알고 있던 이름도 잊어버리고 ‘네 이름이 무엇이던가?’ 하고 묻는다고요. 그런 나이에도 공부를 합니다. 머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고요. 정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세계적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소련이나 중국 사람들과 회담을 할 때 한국 사람을 통역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비밀을 전부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열강들의 한가운데서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민족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치가 좋은 곳이 있으면 나라의 임금이 구경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 세계에 놀라운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도 그곳을 찾아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금강산이 있지요, 금강산? 지금 금강산 문제를 놓고 통일교회의 문선생과 현대그룹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일본이 해와 국가가 된 것은 참부모가 용서하고 선택했기 때문

선생님은 어디든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지금 소련에서는 지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5년 전부터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도 선생님이 세웠다고요. 후쿠다도 선생님이 수상으로 세웠습니다. 만나면 직접 물어 보라고요.

요전에 선생님이 가네마루를 만나려고 일주일 동안 가 있을 때 나카소네를 불러서 ‘야아, 이 녀석! 입을 열지 말고 들어!’ 해서 두 시간 동

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신타로! 무슨 신타로라고요? 「아베 신타로입니다.」 아베 신타로? 아, 배가 아픈 신타로! 신지테이쿠베키(信んじていくべき; 믿고 가야 될) 남자가 되어야 할 텐데... 한국말로 믿는 남자라고 하는 타로(太郎)지요? 타로, 야로(野郎; 녀석)! 여자는 야로가 오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야로(八郎)는 여덟 번째의 남편입니다. 그것은 재림주를 말한다고요.

그리고 여자는 모두 다 코(子)코코, 코코코, 코코코... 뭐 닭같이 꼬꼬꼬, 꼬꼬꼬, 꼬꼬꼬 합니다.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을 낳고 싶다고 꼬꼬꼬, 꼬꼬꼬, 꼬꼬꼬 한다 이거예요. (웃음) 하늘의 아들딸을 낳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모두 다 남자도 아닌데 왜 코예요? 사탄권에 있는 여자로서 생사의 경지를 넘어서 야로(八郎), 여덟 번째의 남편을 만나 가지고 하늘의 아들딸을 낳고 싶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모두 다 명치유신 이전에는 성(姓)이 없었다고요. 너는 뭐라고 그래? 「쓰루마(鶴間)입니다.」 쓰루마! 학을 키운 아버지였구만! 너는 뭐라고 그래? 「야마자키(山崎)입니다.」 야마자키라면 야마(山)의 사키(崎; 산부리)에 살았던 적이 있다는 말이지? 전부 다 지명을 중심삼은 것입니다. 뭐 가와베(江邊)라든가, 나카무라(中村)라든가, 다케시타(竹下)라든가 하는 전부가 자연과의 관계를 중심삼고 메이지유신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하고 일본 사람들을 문화인이라고 칭찬할 만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메이지유신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어요? 120년이예요? 120년 전에는 모두 다 야만인들이었습니다. 훈도시(禪; 남성의 음부를 가리기 위한 폭이 좁고 긴 감)만 걸치고 있어서 옆에서 보면 전부 다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보았지요? (웃음)

일본 사람은 모두 다 한국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구다라(百濟)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라구요. 구다라, 구다라나이(くだらない;가치 없다.)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도망을 간다구요. 그리고 한국은 역사 가운데 931번의 외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80퍼센트 이상을 일본이 침략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배를 타고 와서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의 해안지대를 약탈해 간 것입니다.

그러한 민족이 해와 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영원을 반복하고 반복할 때까지도 있을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서해서 선생님이 해와 국가로 세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어때요? 그 자체가 비참한 거라구요.

선생님의 학생시절에 일본 여자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유혹했는지 모르지요? 사탄권에 있는 일본 여자 때문에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어디를 가더라도 사탄의 무리가 선생님을 둘러싸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일본 여자들한테 부끄러울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바른 길을 가르쳐 왔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은 살아 있는 설교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온갖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꺼내면 해가 바뀌어도 끝나지 않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소설 같은 것을 안 읽습니다. 선생님은 하룻밤에 소설책을 두 권, 세 권도 만들 수 있다구요. 선생님은 설교 같은 것을 준비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설교 같은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활동할 때 만났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청중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당시의 역사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명한 살아 있는 설교가 된다고요.

선생님은 힘이 세기 때문에 씨름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구요. 뱃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지요? 폭풍이 부는 바다에도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은 보통 이라고요. 폭풍 경보 같은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지 않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라앉지 않는 배를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조선회사들은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팔고 있어요. 그 원조가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기잡이배로는 원호프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이거 자랑 할 만합니다. 그런 배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사 주면 좋겠어요? 사고 싶어요, 타보고 싶어요? 「예.» 사 가지고 탈 거예요, 빌려서 탈 거예요? 「사 가지고 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느냐?

지금부터 배를 판다구요. 지금 세계적인 조선회사들이 배를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데, 통일교회의 멤버들한테 맡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소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배를 팔 수 있는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선생님은 해외 국가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시집을 온 부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진정한 부인이 못 됩니다.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부부의 관계를 맺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시는 재림주는 아무 것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남편이라고요. 그래서 수천 년을 재림의 날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수천만 년이라고요, 수천만 년.

일본 멤버들, 선생님이 필요해요? 「예.» 왜 필요해요? 너희들 둘이 부부야?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야? 일본의 온나(女)! 온나는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나, 오미즈(お水)… 남자가 오미즈라고 하면 남자가 아니라고요. 남자인 주제에 오미즈가 뭐야, 이 녀석?

그것은 과부의 아들이라고요. 엄마한테서 배웠기 때문에 오미즈, 오고항(お御飯;밥), 오카미(御上;천황, 군주, 여편네), 오싯코(おしっこ;소변), 오다이벤(お大便;대변)… (웃음) 정말이라고요, 정말! 남자가 그런 말을 하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배웠다는 것을 대변에 알 수 있습니다.

‘오(お)’를 붙이기 좋아하는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본래 그 ‘오’가 없으면 나, 나, 나밖에 안 남습니다. 나(名;이름)밖에 없는 것이 여자입니다. 이름이 없지요, 일본에는? 무사 가문의 부인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명령에 따를 뿐 이름도, 성도, 권한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한 여자를 어머니의 자리에 세워 준 것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안 고맙다는 말보다 부, 비, 무, 없다는 것을 붙이는 것이 귀찮다구요, 전부 다. 그래서 부, 비, 무 고맙다고 해도 통하지요?

원수 나라를 섭리의 중심 국가로 세운 뜻

선생님 때문에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구요. 독일과 일본이 패전해서 잿더미가 되었다구요. 동경에 집이 있었어요? 홍수가 나면 물이 마음대로 흘러갈 수 있는 들판이었다구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국가를 해외 국가와 가인 국가로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선생님의 입장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반대하는 미국을 아벨 국가로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선생님의 입장이 어땠겠어요?

전부 다 원수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의 대표로서 선생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넘버원의 상대가 되어야 했는데 완전히 반대한 것입니다. 원수 중의 원수라고요. 그 나라를 구해 주기 위해서 25년 간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기독교 때문이었습니다. 제1 이스라엘은

소생, 제2 이스라엘인 기독교는 장성인데, 그 소생과 장성이 없으면 완성의 세계통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구요. 거자를 먹으면 눈물이 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과 선생님의 입장은 아담이 타락하던 그때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3년 이내에 천하통일을 이루어서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했던 운세를 반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영국은 섬나라라구요. 옛날에 그것은 해적의 기지였어요, 해적. 그 해적의 기지였던 영국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싸워 가지고 이겼지요? 그래서 인도를 비롯해서 전세계를 식민지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영국을 해지는 날이 없는 나라라고 했다고요. 그것도 섬나라로서 여자의 국가지요? 그것이 일본 문화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 영국의 아들이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그것은 아벨이라구요. 프랑스는 가인입니다. 미국과 싸운 원수라구요. 그 연합국을 중심삼고 아담 가정의 어머니와 가인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되어서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연합국을 중심삼고 일본독일이태리가 완전히 반대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일본도 섬나라지요? 어머니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아벨 국가, 이태리는 천사장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태리는 잇타리키타리(行ったり來たり; 갔다왔다)하는 거라구요. 이태리는 일본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뒤에서 영국과 장사를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천사장입니다.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유일신을 믿는 종교권이고, 이것은 무신론이 아니라 잡교신의 통일권입니다. 일본에서는 야오요로주노카미(八百万の神; 못신들)을 믿지요? 야오요로주의 신이라면 신이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을 말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잡교의 국가입니다. 지금 문부성에 18만 종파가 등록되어 있어요. 서양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

다. 유일신을 믿는 어머니와 장자 그리고 차자가 연합국을 이루어서 일독이와 싸운 것입니다. 완전히 정반대라구요.

그 둘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졌느냐? 1차대전 때도 진 쪽이 먼저 졌다구요. 2차대전 때도 히틀러가 먼저 졌고, 3차의 사상전에 있어서도 소련이 서구를 친 것입니다. 언제든지 먼저 치게 되면 70퍼센트까지는 승리합니다. 1차대전과 2차대전도 그랬고, 3차대전의 사상전에 있어서도 소련을 중심삼고 세계의 70퍼센트가 공산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0퍼센트를 넘어서면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문선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있는 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국가를 중심삼고 세계적으로 자신의 영향권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엔의 회원국이 180국이지요? 하나님이 하나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의 세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무서운 것은 재림주가 오게 되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오면 거짓 부모에 의해 이뤄진 것은 모두 뿌리뽑혀

참부모가 와 가지고 거짓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뿌리까지 뽑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뽑아 버릴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구요. 하나님의 비밀, 사탄세계의 비밀, 인류의 미래의 비밀을 전부 다 알고 그 뿌리까지 뽑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전권을 주고서 ‘해라, 해라!’ 한다구요. 하나님의 권한을 없애기 위한 것이 프리 섹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칸셉

에 프리 섹스가 있었어요? 호모, 호모! 일본 상류층에서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자!’ 그러고 있다구요. 여자들끼리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인조 생식기까지 생겨났대구요. 여자가 욕정을 못 참는 거라구요. 그런 것은 하나님도 못 참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를 닦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미남이나 미녀가 유혹을 하게 되면 모두 다 걸려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자립권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될 경우에는 컨트롤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중심삼고 있으면 성욕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것도 그렇지요? 강간을 당하게 될 때, ‘안 돼, 안 돼, 안 돼!’ 하다가도 그런 감정이 생기면 끌어안아 버리지요? 그런 영화를 많이 보지요? 원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분쟁의 환경권에 있어서는 평화라든가 통일이라는 것이 꿈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예,」 정말이야? 네가 일본 제일의 부자라면 어떻게 하겠어? 아무리 1백 번을 고쳐 죽어도 여자는 필요 없다고 결심을 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사랑의 감정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타오르게 될 때는 ‘전 재산을 다 주고서 여자와 바꿀 수 있느냐?’ 하고 물어 보기 이전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생각을 수십 번, 수 백번 하게 되는 거라구. 사랑의 상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무섭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가치가 있다는 말이지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무서운 것이 되는 거라구요.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면 죽어 버린다구. (웃음) 희망이 없다구. 태어난 가치도 없고, 죽더라도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구.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죽여 버리는 것이 좋다구. 깃!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내가 회의 때는 절대 외국말을 하지 않고 한국말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명령하고 이를 위반했으니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줄꼬? *(통역자에게 말씀하심) 선생님 앞에서 ‘샤베루(しゃべる;재잘거리다)’라는 말은 쓰지 말라구! (웃음) 그렇게 무례한 말을 쓸 수 있어? 옷샤루(おっしゃる;말씀하시다)! 샤베루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일본 사람들이 보고서 ‘저분은 제일 존경해야 될 분인데, 통역을 저렇게 하나?’ 한다구.

그러니까 보상(坊さん;중을 친숙하게 부르는 말)의 얼굴을 하고 있다구. (웃음) 보상은 인간의 도리 같은 것은 아무 것도 모르지요? 무례할 대로 무례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야마다(小山田), 조그만 산에 있는 보상의 밭이라구. (웃음) 그러면 조건이 되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스미마셴(すみません;미안합니다)!

쓰메키리(爪切り)로 깎았는데 무엇이 걸리는 것이 있다구요. (웃음) 신경이 쓰이는구만! 이럴 때 어머니가 있으면 와서 잘라 줄 텐데, 어머니가 없으니까 불쌍한 남자가 되어 버렸지요? (웃음) 그렇다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와서 그렇게 해주는 것을 어머니가 보면 천하가 뒤집어진다구요. (웃음)

참사랑의 중심과 연결되면 내 것이 돼

그래, 오모시로이(面白;재미있다) 선생님이예요, 오모쿠로이(面白;좀 재미있다 오모시로이의 엇먹은 말투) 선생님이예요? 「재미있습니다.」 (웃음) 오모시로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배후에는 오무쿠로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집은 부잣집이야? (웃음) 안 그래? 너는 먹을 걱정 같은 것은 안 해도 될 좋은 상이라구. (웃음)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

람들을 책임지고 결혼시켜 준다고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저 남자, 전재산을 선생님 앞에 무조건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바치겠습니다.» 언제 바칠 거야? (웃음) 「당장에 바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쳐? 이익을 보기 위해서 바쳐, 손해를 보기 위해서 바쳐? 「효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효자도 이익을 바란다고. 선생님한테 바치면 세계를 살 수 있다고 하는 조건이라면 바쳐도 좋다고 한다는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치면 아깝지 않다고.

그런 생각도 없이 바치고 난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선생이 일본 경제를 망치려고 밤낮 켄킹(獻金; 헌금), 켄킹, 켄킹!’ 한다고요. (웃음) 켄킹의 켄이 무슨 켄인가? 신켄(眞劍; 심각)의 켄이라고. 그러니까 심각한 돈이라고요.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을 신켄(神劍)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못한 돈은 동서남북으로 도는 것입니다. 돈은 돌게 되어 있는데, 신켄의 돈은 수직으로 올라간다고요.

일본의 돈이 하나님한테 바로 올라가면 그것으로 덴추(天宙)를 살 수 있습니다. 덴추라고 해서 전주(電柱)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웃음)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빚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남편의 애정이 깊어지지요? 천하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남편 앞에 모든 것을 바치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덴추를 위해서 바치면 그 돈으로 사는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 중에서도 그런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돈을 한푼도 못 쓸 데 쓴 적이 없다고요. 공적인 입장에서 갖추지 않은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잘 알고 있어요. 그 기준에 합당한 주체로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경우에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수직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밸런스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평행이 부딪쳐 버리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일체 이상권이기 때문에 참사랑의 중심과 연결되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백 년 된 나무의 조그만 가지가 그 나무 전체를 내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구요. 왜 그러냐? 그 가지도 나무 전체와 하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의 끝에 열리는 열매도 다른 수많은 가지들의 끝에 열리는 열매들과 같은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생님과 하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크면 클수록 그 가지도 큰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모르고... 너는 비서 타입이구만! 사무실에서 속닥속닥하는 그런 것 이외에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구. (웃음) 왜 웃어? 아, 그렇게 하라구.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이야? 대개 사무를 보듯이 지내고 있다구요. 이 남자는 좀 달라졌어요, 이 남자는. (웃음)

재림주를 절대신앙·사랑·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될 길이 없어

결론을 내자구요. 앞에서 기도한 그대로 얘기하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어요? 재림주는 누구라구요? 구약시대의 완성을 상속한 분이고, 신약시대의 완성을 상속한 분이기 때문에 완성된 성약시대는 아담 가정의 완성을 패스한 기준 위에 서 있는 거라구요. 예수님의 실패권을 패스한 기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세계의 가정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대권의 입장에 있는 것이 해와 국가입니다. 그 해와 국가와 남편이 하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하가 하나, 좌우가 하나, 전후가 하나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되어 있어요?

너! 「예.」 아내야? 「예.」 누가 묶어 주었어? 「아버님이 묶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묶어 주었어? 그래, 동그란 얼굴이니까 상대는 얼굴이

길어야 벨런스가 잡히는 거야. 사랑하면 원만한 아들딸이 태어날 거라구. 싸움을 하면 언제든지 네가 이기지? (웃음) 이 남자는 맞아도 불평도 못 할 상이라구. (웃음) 너는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허허허!’ 하고 웃지. (웃음)

너는 사기성이 많다구. 통일교회에 안 들어왔더라면 틀림없이 사기꾼이 되었을 거라구. (웃음) 그런지, 안 그런지를 생각해 보라구. 자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구.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재미있는 것이 많다구요. 알겠어요? 「예.»

재림주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라구요. 종교권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측도 좌측도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후와 상하도 다같이 기뻐하지 않으면 중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재림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주의 말씀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될 수 없습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틀림없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씀입니다.» 정말이에요?

지금은 밤이라구요. 아침이 아니라 밤이라구요. 그러니까 꿈을 꿀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거 정말이냐고 물어 보는 거라구요. 밤이라구요. 정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빌 때보다 더 확실한 입장에서 대답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 하면서 영원히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고요. 밤이 늦었다고 비몽사몽간에 ‘예!’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정신 차려! 「예.» 정말이야? (웃음) 절대신앙, 절대복종할 수 있어? 「예.» 어떻게 할까? (웃음) 네 아내야? 「예.» 아내를 사랑해? 「예.» 이 여자는 헨드레이징을 하면 잘한다구. 생활력이 있다구. 네가 생활이 곤란하면 여자한테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다구. (웃음) 정말이야? 왜 ‘호흥!’ 그래? (웃음) 그렇게 묶어 주었다구. 그것이 불평이야?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호흥호흥!’ 해? (웃음) 어떻게 할까? 너는 남편이

없잖아? 「1기로 끝났습니다.」 1기로 끝났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내의 입장이라고요.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는 일본말을 알아, 한국말을 알아? 「일본말을 조금 압니다.」 조금 알아?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스페인 멤버라고 합니다.」 스페인 멤버한테 에이고(英語)로 말을 하는 거야! (웃음) 한국말로 ‘에이고’ 하면 죽겠다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고, 에이고!’ 합니다. (웃음) 그거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 말(영어)에는 중심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주의 세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일본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편한테 절대복종하게 되어 있지요? 옛날의 무사도에서는 누구든지 복종하지 않으면 깍 잘라 버렸다고요.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죽어 갔습니다.

노기(乃木) 장군의 일가를 알아요? 메이지 천황이 죽었을 때 모두 다 할복을 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에 아내도 아들딸도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할복!’ 하면 할 수 있어요? 할복이라고 해서 배만 내밀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구요. (웃음) 그것을 잘라 버린다는 말이라고요.

모든 것을 청산하고 대이동 준비를 하라

돌아가면 빨리 청산하라구요. 대이동을 한다구요. 시베리아로 갈는지, 남미로 갈는지, 아프리카로 갈는지 모른다고요. 전부 다 동원해서 오라고 할 때 오지 않으면 전부 다 일본도로 잘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시키느냐? 일본 사람한테 시킨다고요. 신검(神劍)을 가지고 훈련받은 일본 사람을 세워서 오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다 잘라 버리라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잘라 버려요? (웃음) 아, 물어 보잖아? 그럴 수 있는 배짱이 있어?

네 아내야? 「아닙니다.」 그러면 혼자 왔어? 축복받았어? 네 오른쪽 눈은 왜 커? 왼쪽 눈보다 6분의 1은 더 크구만! 그거 알고 있어, 너? 알고 있어? 아내는 어디에 있어?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야? 네가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 여자와 살아 보니까 어때? 한국 여자는 일본 여자와 다르지? 다른 게 없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없는 것 같다고 하지?

한국 여자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자유롭다구. 너는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하지 않고 이리저리 재는 면이 있는데, 네 아내는 그렇지 않다구. 오로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를 물어 보는 거라구. 어때? 눈이 그렇게 되어 있다구. 눈이 크기 때문에 똑바로 보지 않고 왔다갔다한다구. 성격도 그렇다구. 입은 뭐 말을 잘하게 되어 있다구. 변명을 잘 할 수 있는 입이라구.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섭을 하게 되면 실패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구. 그래서 일로매진(一路邁進)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안 그런가를 물어 보는 거라구. 그래, 안 그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웃음)

지금부터 통일교회의 멤버들이 우향우를 하면 천국에 통해요, 좌향좌를 하면 천국에 통해요? 일본 전체가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향우를 해야 돼요, 반면적으로 우향우를 해야 돼요? 「전면적으로 우향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가던 방향에서 180도 돌아서지 않으면 희망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환, 대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롯의 처한테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뒤

돌아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되어 버린 거라구요. 왜 소금기둥이 되었느냐? 그것은 어느 누구도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라구요. 짠 소금, 몇천 년이나 그렇게 서 있는 짠 소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도 ‘우향우!’ 하면 어떻게 해요? 우향우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한밤중이 된다고요.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아, 10시가 되었다구. 10시지요? 선생님의 시계가 좋다고 이룬다고요. (웃음) 흠쳤다고요, 흠쳤어. 이거 프랑스에 있는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1만2천 달러라구요. 해마다 선생님의 회사에서 선물로 보내 준다고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고 싶을 때 줄지도 모른다고요. (웃음) 줄지도 모른다고 했지, 준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구요. (웃음)

‘우향우!’ 할 때, 안 하겠다는 사람은 손 들어 봐요! 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모두 다 우향우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그래요? (웃음) 다 늙은 할아버지도 그럴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렇게 명령하면 싫다는 생각이 없이 그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양손을 들어— 봐!’ 하고 나서 들면 안 돼요. (웃음) 벌써 모두 다 들었는데, 선생님이 ‘봐!’ 한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끝나기 전에 들어야지 마지막 말을 다 듣고 나서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경고를 하니깐 얼마나 선생님의 머리가 치밀한가를 생각해 보라구요. 누구든지 반항할 경우까지 생각해서 척척 내 갈 길을 직행해 가기 때문에 타락 세계를 잘라 버리고 정정당당한 승리의 노정을 통과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 부인? 미인이구만, 이 부인! (웃음) 남편이 좋아해? 어때? 「예?» 남편이 좋아해? 「예.» 남편도 왔어, 안 왔어?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 돌아갔다면 어디로 돌아갔어? 무덤으로 돌아갔어, 집으로 돌아갔어? (웃음) 「오우치니카에리마시타(お家に歸りました; 집에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오우치(お家; 집)가 뭐야? 일본말을 할 수 있어? 대학을 졸업했어? 「단대(短大)를 졸업했습니다.» 단대를 졸업했

어?

모두 다 약속했지요? 전부 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흐려지지 않도록 더 이상 말씀을 하면 안 되겠다구요. 벌써 약속을 하고 결심을 했으면 일본에 돌아가서 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주인이 될 것이 틀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안심하고 오늘밤의 말씀을 일본 멤버들의 혜택으로 마치고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박수)

영계를 확실히 알라

지금부터는 혼독회입니다. 두 시간 동안 혼독회 하는 거예요, 두 시간. 화장실도 가면 안 된다구요. 거기에 앉아서 불 일을 보면 기념이 되겠지요? ‘선생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열심히 들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줌을 싸는 것도 모르고 들었다.’ 하면서 후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재료가 남겨 두라는 것입니다.

이 혼독회의 교재는 선생님의 3백 권 이상의 말씀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상생활과 영계》라는 열한 번째의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계와 인간의 관계를 상세하게 이론적으로 밝혀 놓았습니다. 이상현 선생의 현실적인 내용을 기록한 책만으로는 안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 내적인 내용을 먼저 확실히 알고 그 외적인 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영계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에 말씀한 내용이 아니라구요. 50년 전에 말씀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자체가 꼭 맞기 때문에 말이에요, 통일교회 멤버들 가운데 갖고 있는 불신감을 깨우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를 확실히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더라도 잘 모르는 것은 잃어버리지요? 알겠어요?

영계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앎으로써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영원히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모르면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실패한 것을 성약시대에는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찾아 나왔던 것은 참사랑을 중심삼은 완전한 가정기반의 정착입니다. 그것은 창조이상의 근본적인 희망이고, 복귀이상의 종착적인 목적이며, 역사를 통한 희망의 표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활 가정, 탕감복귀의 부활 가정, 역사가 바라 나왔던 부활 가정으로서 세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이것은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중심삼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천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천운 자체가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천운이 보호하기 때문에 멸망이라든가 파괴 같은 것이 없는 영생권이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아멘!’ 해보라구요. 「아멘!」

누구야? 어디 갔어? 하라구! 선생님은 없어도 되겠지요? 선생님이 없는 것이 좋아요, 있는 것이 좋아요?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은 죽어도 없는 것이 좋다고요. (웃음) 여러분은 어때요? ‘죽어서 부활하더라도 있는 것이 좋다.’고 대답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 마지못해 있어 줄 것인데, 그런 대답도 못 하니까 안 되겠다고요. (웃음) 언제나 사탄에게 끌려가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 동서남북을 살펴서 대답할 수 있는 챔피언이 되지 않으면 하늘편 왕의 아들딸이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젊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늙었으니까 재미가 없지요? (웃음)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시작하라구, 크게! 그 책 말고... 그것밖에 없어? 「《지상생활과 영계》 상권입니다. 처음부터 읽어야지요.」 그래, 크게 해봐! 「예.」 나는 지나가는 손님으로서, 저녁도 얻어먹고 점심도 얻어먹고 아침도 얻어 먹을 수 있는 손님이니까 자리도 없다구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들어 보다가, 배가 고프면 가서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구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이제 나한테 바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잘 알아들으라구요. 읽으라구! 전부 읽어! (《지상생활과 영계》 상권 훈독)

내일은 선생님이 올림포라고 하는 곳에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아갈 때까지 선생님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구요. 자, 끝 내자구요. *

하나님의 인류구원을 위한 참부모의 생애

(앞부분은 녹음되어 있지 않음) 육적 오관, 입 코 눈 귀 손발은 못 써요. 필요 없대구요. 손발은 못 쓰기 때문에 태어날 때까지 필요 없는 거라구요.

수중세계(복중)에서 지상세계의 삶을 준비한다

그러면 왜 이것이 있느냐? 이 지구성에 있는 공기나 햇빛, 이런 것이 전부 다 필요한 요소인데, 이 전체에 화합할 수 있게끔 수중에서 완전히 완성되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중시대에 필요 없는 육적 오관이 준비되어서 ‘아양!’ 하고 우는 것과 더불어 이 지구성에 나올 때, 수중세계를 파괴하고 자궁을 깨쳐 버리고 배꼽 줄을 잘라 버려야 된대구요. 그것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일 귀하게 여기던 물주머니가 터지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환하면서 결국 배꼽으로 숨쉬던 것이 입과 코로 올라가는 거예요.

1998년 9월 23일(水) 아침,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브라질 자르딘).

* 이 말씀은 세계평화와 이상가정을 위한 제2차 40일 특별수련회 수련생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상세계의 지구성은 여러분의 부모라구요. 여기 배꼽 줄을 통해서 부모의 모든 몸을 이어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성의 모든 만물의 영양소를 받아 가지고 몸이 큰다는 거예요. 몸이 크는데, 수중시대에 육적 오관을 완전히 준비해 가지고 복중세계를 파괴시키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의 공기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원한 사랑의 세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세계에 태어나면 누구와 더불어 같이 사느냐 하면, 부모와 더불어 같이 먹고 살면서 부모가 하는 대로 모두 배워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은 하나도 없다구요. 부모가 사는 생활,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면서 육지의 모든 영양소를 받아 가지고 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적 오관이 있습니다. 육적 오관은 현재 모든 기관이 활동하지만, 영적 오관은 무형세계에 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삼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 가정의 사랑을 느끼면서 부모와 더불어 같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상세계에서도 그렇다구요.

물 세계에서 필요 없던 육적 오관을 완성해 가지고 나올 때 이것을 계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세계에 사는 데 있어서 내적인 오관, 영적인 오관이 필요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다시 한 번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을 파괴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가 복중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중에서 태를 끊어 버리고 자궁을 깨치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숨과 모든 것이 스톱됨과 동시에 사랑의 공기 세계에 화합할 수 있는 영원한 오관, 내적 오관이 눈을 뜨고 나와 가지고 무형세계에

서 하늘 부모를 중심삼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 지상에서 전부 다 완전히 준비하지 않으면 저나라에서 병신이 되는 거예요.

지상세계에서는 영원한 사랑의 세계에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그렇기 때문에 육(肉)적인 것만을 중심삼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사랑의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오관을 준비하는 것이 지상세계입니다. 지상세계에서 무한한 세계의 영적 부모를 모시고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세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교육받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이 우리의 본고향인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잠자리 같은 것도 물의 세계에서부터 곤충이 돼 가지고 자라다가 허물을 벗고 공중을 날면서 곤충을 잡아먹고, 꿈도 꾸지 못한 것들을 잡아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3세계를 날고 있는 거예요. 곤충도 전부 날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3세계를 날아다니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무한한 세계를 날 수 없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확실해요? 「예.」

죽음이라는 것은 제2의 출생이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지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공명권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공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 사랑을 중심삼고 생활하게 되면 영계의 사랑과 같은 과장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에 살면서 영적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영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상에서 부모한테서 나 가지고 부모와 더불어 살면서 부모한테 배워 가지고 지상생활을 완성시키

는 거와 마찬가지로, 천상세계의 사랑의 모체인 하나님을 중심삼고 다시 태어나 가지고, 하늘 부모와 더불어 살면서 영원한 사랑세계의 내적 오관이 개발돼 가지고 완성한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이거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구요. 죽음은 제2의 생으로,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의 한계선을 격파하기 위한 것이요 고개를 넘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아기가 복중에서 공기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러나 사랑을 중심삼고 이 지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적 사랑권 내에 삶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공명되기 때문에 영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계속 읽어요. (훈독)

『……축복가정의 영계 입장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영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어째서? 어떻게 돼서? 많은 체험을 통해서 부정하려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또는 현실적 사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오늘날 통일교회가 이만큼 세계적인 기반을 형성할 때까지 그 배후, 전후를 살펴볼 때 많은 체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교회 교인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위하는 사람은 레일이 같아요. 레일이 같기 때문에 영계와 육계가 맞지 않으면 큰일나는 거예요. 같으니 그냥 그대

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사는 데는 영계의 표본을 거기에 맞추려니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중심삼고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부모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가지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의 생명의 출발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자면 남자가 태어난 것이 남자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무엇,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태어났느냐? 여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사랑을 점령하고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점령하기 위해서 결혼해 가지고 하나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돼야만 정상 형상, 큰 플러스가, 정(正)이 분(分)했다가 합(合)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합해서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다시 큰 플러스인 하나님과 이 가정이 하나되는 데 있어서 중황을 이루는 거예요.

횡적인 기준이 벌어지면 반드시 좋은 생겨나는 것이 천지 이치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결혼해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되게 되면, 정에서 분했다가 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지상생활에서 사랑을 중심삼은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 자체의 사랑과 통할 수 있는 상대적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이렇게 귀한 거라구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수평이 안 돼요. 수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수직으로 접할 수 있는 하늘 세계가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돌이 돌아야 할 때 못 돌아요. 아무리 노력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수포입니다. 싸움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리 했댔자 안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평적 사랑이 부부 사랑입

니다. 그 다음엔 반드시 종적 사랑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주인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결혼해 가지고 부부가 첫날밤 첫사랑을 하기 전에 아담의 마음 가운데 성상적 하나님이 들어가고, 형상적 하나님의 영적인 여성 실체가 해와한테 들어가 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 가지고 몸과 마음이 공명권에 있기 때문에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면, 위하고 사랑하는 본체의 부모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공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세계에 나면서부터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부부의 사랑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사랑해요. 그러니 태어나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청년이 돼 가지고는 부부의 사랑을 받고, 부부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 자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모든 전부는 저나라의 부자지관계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게 될 때 하나님 품에서 전부 다 사랑받고, 하늘나라에 가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부부가 같이 한 몸이 되어 살고, 그 다음에 신앙의 아들딸을 중심삼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딸이 있어야 되는 이유

신앙의 아들딸은 믿음의 아들딸인데 그 믿음의 아들딸이 없으면 큰 일나요. 타락을 안 했으면 인간 자체에서는 자기 아들딸을 낳으면 바로 믿음의 아들딸로서 저나라에 가서 사랑할 수 있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딸을 사랑하고 나서 자기 아들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천사장의 사랑을 받고 나서야 아담 해와의 축복을 이루고 둘이 하나되어 아들딸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 아들딸을 두어 가지고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장과 하나된 사랑의 기준 위에서 결혼해 가지고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들은 믿음의 아들 다음이기 때문에 저나라에 가게 되면 타락한 후손의 계열을 잇게 되므로, 천사장권을 내가 아담권으로 전부 전복시키지 않으면 본연의 세계로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믿음의 세 아들딸이 있어야만 축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1800쌍 축복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믿음의 세 아들딸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구요, 시대가. 결혼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들딸을 낳을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에게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믿음의 세 아들딸을 두어야 했지만 개인시대·가정시대·종족시대·국가시대를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 아들딸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 아들딸 대신 직계 아들딸을 낳기 위해서는 완성한, 영계와 육계가 공명되는 자리에 있어서 참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사장권 시대를 지나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딸을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 대신 가정의 열두 사람, 가정에 있어서 사위기대와 삼대상목적을 중심삼은 가정에 들어가서 열두 사람과 하나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72문도, 120문도, 그리고 민족 전체를 넘어서 4300년 만에 430쌍을 하는 거예요.

120쌍 축복가정은 뭐냐? 예수님을 중심삼고 120명을 전도하는 것은 나라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120개 국가 기준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국가적 사명이기 때문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20개 국가니 120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이 120가정은 국가적 대표로 보냈던 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지상세계 유엔에 가입한 120개 국가와 마찬가지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맞아야 돼요. 지상세계와 같이 공명될 수 있게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늘나라의 레일에 맞게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생활을 해야

그래, 내가 태어나기를 나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남자는 여자 때문에, 여자는 남자 때문에 태어났다구요. ‘인생이 왜 태어났느냐?’ 하고 여자들이 생각할 때 그게 뭐예요? 여자가 왜 태어났어요? 자기 때문에 태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남자 때문에 태어났고 아기 때문에 태어났어요.

여자의 몸뚱이가 그렇잖아요? 젖하고 궁둥이, 그게 누구 때문에 큰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여자가 왜 얼굴이 예쁘냐? 남자들이 예쁜 얼굴을 중심삼고 좋아해요.

남자는 전부 수염이 나고 성격이 대담합니다. 여자하고 달라요. 뼈와 같으니 살과 같은 여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전부 다 상반된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남자는 우락부락해야 여자들이 좋아한다구요. 여자 같은 신랑을 얻겠다는 여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가구요. 상대적인 입장에서 뼈와 같아야 되고 우락부락하고 그래야 돼요. 남자가 얌전하면 안 돼요. 우락부락해야 돼요. 사방을 전부 다 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락부락하고 앉아서 큰소리를 하고 외칠 수 있어야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방향성만 맞추면 돼요. 한국의 격언에 여자의 말이 담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이 망한다고 그러지요? 그 상대적 방향성 자리에, 사랑을 찾아간 그 자리에 들어가 하나되면 남자의 권한을 대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딸을 대신해서는 남자의 주체적 책임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결혼해서 사랑받기 전까지는 암전하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런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된다구요. 알겠어요?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철학 입문에 있어서 인간이 왜 태어났느냐 할 때, 그걸 몰랐어요. 여자가 태어난 것은... 여자의 그 대표적인 표상이 뭐냐 하면, 오목이예요, 오목. 남자의 대표적인 표상이 볼록입니다. 그 오목 볼록을 딱 맞춰 가지고 영원히 떨어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한 사랑의 정착지, 사랑이 고착된 위에서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해서는 뭘 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레일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하면, 아담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해와가 시작한 거예요. 남녀가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예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촉을 먼저 느낀 다음에 아담 해와 사랑의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는 사랑의 감촉은 영원한 세계의 감촉을 배경으로 하고, 지상세계 사랑의 감촉은 순간적인 세계의 감촉인데, 이것은 그 배후가 완전한 무한한 세계의 플러스요, 이것은 무한한 세계의 마이너스입니다. 인간적 입장에서 세계 인류의 모든 마이너스를 합해야 하나님의 플러스와 같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자리는 전부 다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태어나기를 위해서 태어났으니 사랑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봉사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지상생활을 하지 않고 영계에 가면 레일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 멋대로 가면 좁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삼고 살면 레일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넓고 크게 하늘나라의 레일에 맞게끔 지상에서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를 위해서 태어났으니 위해서 살고, 더, 더, 더, 더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사랑하고 잊어버리고 무한히 사랑해야 됩니

다. 사랑해 가지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때는 벌써 주체 대상의 환경적 실체가 남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저나라에 가서 자기 재산이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영계에 완전한 합격자가 되려면

영계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기세계의 수중체와 마찬가지로 영적 오관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위해서 태어났으니 위하고 사랑하고 잊어버리고 또 사랑하겠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육적 아버지를 모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적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육적 아버지는 순간이요, 무한한 아버지는 영원인데 그 사랑의 본체 플러스와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완전한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개인이 아기사대에, 청소년이 되기 전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엔 결혼해서 부부의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아서 아이를 사랑하는, 이 3시대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태어나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에서 시작했지요? 그렇잖아요? 복중의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과 생명이 하나돼 가지고 혈통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랑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면서도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가게 되면 영계의 모든 박자에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계의 박자에 맞추기 위한 준비가 참된 가정을 중심삼은 사랑의 생활이요, 인간이 참된 사랑 때문에 태어난 생애를 성공적으로 거쳐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요, 그리하

여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아멘.」 틀림없는 사실이라고요. 알겠어요? 「예!」

수중시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구성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몸과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사랑해야 돼요. 아기를 뱀 어머니가 사랑하며 기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성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명을 투입하고 잊어버립니다. 모든 만물을 먹고 희생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도적놈같이 먹지말고 고마워하며 사랑하고 먹어야 돼요. 복중의 어머니의 몸뚱이를 이어받은 거와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는 어머니를 대하여 받은 자식은 고맙게 생각하는 것처럼 만물을 사랑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모르고 배꼽 줄을 통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알기 때문에...

땅은 제2의 어머니예요. 그렇잖아요? 젖 먹어요? 똬로 먹어요? 배꼽 줄 대신 입으로 먹어요. 두 세계인데 공기세계는 영계를 상징한다구요. 생명이 공기로부터... 물론 음식으로도 생명이 연결되고 공기로도 생명이 연결되지요?

여기에 숨구멍이란 게 있지요? 영계에 가게 되면 이 몸 전체가 숨구멍으로 보면 돼요. 사랑의 모든 숨구멍이 먹는 입과 마찬가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생활을 하면서부터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상세계에 갈 때 레일이 맞아요, 레일이. 알겠어요?

왜 태어났어요? 「위하여...」 위하여! 그 말은 뭐냐? 여자는 절대적인 생명을 가진 내가 태어났다 할 때는 절대적으로 남편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의가 없어요. 남편이 절대적인 내 생명의 귀한 가치로 태어났으면, 그 사랑의 길은 절대적인 상대인 아내를 절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둘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인데 몸이 둘이에요?

만 생각을 하면 벼락을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게 될 때 아담 해와가 싫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는 자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하는 거예요. 상헌 씨 말도 있지요? 부부가 사랑하는 데로 스탈린이니 뭐이니 데려가 가지고 그 사랑하는 환경을 보여 주니 놀라자빠질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자연히,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가 자석이 달라붙듯이 자연히 하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결혼식하고 예복을 입고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하면, 사랑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하면 하나님 자신이 기쁨과 동시에 종적인 입장에서 덮어 가지고 횡적인 부부가 아니라, 그 세계에 있던 우주 전체의 모든 감정이 들어와서 전부 다 취해 버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요지경 같은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지요?

사랑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두 줄기의 힘이 와 가지고 전부 다 하나 돼 가지고 빛의 세계에 동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참사랑이 없으면 그 생활이 없어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는 직감적인 자기 개념이 실재화 할 수 있는 세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무엇을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먹겠어요? 또다시 만들어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겠다고 하면 전부 사랑의 원칙을 중심삼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도 짹짹해 가지고 다 준비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차가 마시고 싶어서 ‘오차 나와라!’ 하면 오차가 나오고, 사랑의 대상이 원하는 모든 전부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으면 원하는 자가 플러스이니 상대가 되는 영계

에서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몇 명이라구요? 3백 명이 오늘 뱅퀵을 하는데 옷은 무슨 옷으로 하고 음식은 무슨, 무슨 음식으로 한다 하면, 시간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뱅퀵을 시작할 수 있게 짜악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예.」 거기에 밥 만드는 부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내들은 일생동안 밥짓기 싫지요? 해방이 벌어진다구요. 그거 필요 없다구요. 옷 만드는 공장이 있겠나,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 있겠나, 아무 것도 없어요. 꽃밭이에요, 꽃밭. 오만 만물이 지저귀는 노랫소리와 좋아하는 모양들뿐이라는 거예요.

그 상헌 씨 보고에 보면, 부부가 사랑하는데 파도 위에서든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꽃송이 가운데서도 하는 것이요, 공기 세계 어디든지 주인의 사랑을 전부 다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의 사랑하는 그 모양을 봐 가지고 전부가 화동하는 거예요.

윤박사! 그 세계에 갈래?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위해 살아야 돼요. 개인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종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그 세계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야 돼요. 전체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성한 부모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이하의 세계는 지상세계나 물세계나 전부 다 복종권 내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종권 내. 알겠어요? 윤박사! 「예.」 복종하기 싫어하지? 「복종하겠습니다.」 총장을 언제나 해먹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선생님 말을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이사장이니 뭐니... 김영휘 이사장을 허재비로 만들어 가지고 우습게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

사랑은 큰집에도 들어가고 작은 집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만 명이라도 순식간에 뱅퀵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오색 가지 보석 빛이 호화찬란한 옷을 입고 무도회를 준비하기 위해 거기에 먹을 음식이 무엇 무엇이라고 딱 결정하게 되면 일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직감

적인 자기 개념이, 관념이 실제 화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것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치우려면 의자니 뿔이니 얼마나 복잡해요? 먹고 남은 찌꺼기들까지 소제하려면 큰일이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원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소로. 아시겠어요? 원소는 없어지지 않아요. 존재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소로, 본원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시에 정리되는 거예요. 그거 꿈같은 얘기에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미치광이라고 소문나겠기 때문에 얘기 안 했지만, 미리 다 이런 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한 그 세계가 다 맞는 얘기지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상헌 씨는 가서 현상을 봤지만 선생님은 직접 하나님을 대해 담판을 해 가지고 깊은 세계의 골짜기를 다 안다구요. 그것을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구요.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영계가 어떻게 하는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모르는 사람같이 해 가지고... 진리가 이래요, 진리가.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세계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과 봉사의 생활

그렇기 때문에 지상생활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겠어요? 수중생활에서 잘못되면 지상생활을 전부 망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실체세계 이 땅을 부모로 해 가지고 사는 이 세계에서 잘못되면 영계, 영원한 부모를 모시는 사랑의 세계가 쭉그러들어가 가지고 망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지상세계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모시고 형제를 모시고 나라를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나라가 있다구요. 그래, 지상세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하고 동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서로서로 위하고 어려운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부모 대신 나선 사람들이 중

심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나라에도 높은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러한 장자권 장녀권의 책임을 한 사람이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동생들을 길러야 되고, 형제들이 있으면 손자 할 것 없이 할아버지가 사랑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랑권을 헤엄쳐 넘어가셔야 천국세계가 자기 소유권 세계로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예.」

영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뭘 봐서 알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 윤박사? 이제 똑똑히 알았어? 기독교 교인들은 영계에 대해 모르잖아요? 청맹과니가 다 되었어요. 내적인 오관을 전부 죽여 버리고 말이에요. 뭐 믿으면 구원 얻어? 사랑을 위해서 영적 오관과 육적 오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믿음이 아니예요. 믿음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 사람이 무엇 때문에 태어났어요? 남자가 누구 때문에? 「여자!」 여자는 누구 때문에? 「남자!」 사랑 때문에 태어났으니 여자의 주인이 남자요, 남자의 주인이 여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인을 서로 엇바꿔 놓았으니 하나님이 위대한 지혜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대로 못 해요, 사랑을. 나는 좋은데, 나는 암만 좋지만 저쪽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이 돼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이 거기에 중심이 되게 되면 세상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봉사하고 이르면 고통이 없어요. 사랑을 하면 봉사가 따르기 때문에 봉사하면 슬프지 않아요. 기쁨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봉사의 폭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봉사를 극복할 수 있고, 희생을 극복할 수 있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까지 간다고요.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론적입니다. 확실해요, 확실 안 해요? 「확실합니다.」

그러니 영적 세계의 하나님과 공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결혼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 공명권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 물질과 천상 물질을 환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시대의 통일교회는 영계를 모르면 안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원인을 통해 가지고 이론적 결과를 전부 다 집약해 가지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50년 전에 선생님이 설교하게 되면 전부 다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고 했대구요. 그때는 차원이 다르니 그걸 몰라요. 지금 와서 보라구요. 책에 써 놓은 것이 전부 다 이론적이지요. 윤박사, 그런 거 알아?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않았어?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무섭고 엄격한 사랑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하는 생애

인생이 왜 태어났느냐? 사랑 때문에 태어났어요. 싫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태어나 가지고 부모와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아내와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자식과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는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천국은 가정이 가니까 가정을 중심삼은 하늘나라에 가 가지고 부모는 부모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같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의 큰 제너레이터(generator; 발전기)에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전등이라는 것은 송전선, 배전선을 통해 가지고 오는 110볼트나 220볼트 전기에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36만 볼트 송전선에 직접 연결해 보라구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 폭발할 때 조화의 빛이 벌어지니, 세계와 통해 가지고 자기와 연결되니 무슨 조화 환경을 느낄 수 있겠어요? 행복해도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런 세계가 싫거든랑 마음대로 살라구요. 알겠어요? 「예.」 마음대

로 살 거예요, 거기에 도수 맞춰 살 거예요? 「도수 맞춰 살겠습니다.」 도수에 맞추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위하는 사랑입니다. 주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이 없어요. 주고 잊어버리고 무한히 주고 잊어버리고 이래 가지고 우주의 사랑권 내에 연결되는 거예요. 우주의 사랑권 내에 연결시키려니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위하고 또 위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아내도 우주의 결실입니다. 동서(東西)를 중심삼고 우현 좌현이 있는데 좌현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뚱이는 만물을 중심삼고 집약된 요소들이 전부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또 먹을 때 만물을 사랑하고 먹으면 이중적 사랑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함으로써, 창조한 모든 것의 영육 일체적인 사랑권을 내가 이뤄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적 오관, 외적 오관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야 되겠다구요!

나중에 천국 못 가 가지고 영계에 가서 선생님을 불러도 안 들어 줘요. 이놈의 자식 뭐냐고 말이에요. 그때 불러도 선생님이 대답해 주면 안 돼요. 완전한 플러스가 90밖에 안 되는 마이너스를 찾아가 가지고 조화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자라는 자리에서는 선생님을 따라서 자라지만, 100퍼센트가 못 되면 100퍼센트 못 된 만큼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부를 수 없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단계가 있다구요.

지극히 무섭고 엄격한 사랑의 질서를 세워 나가는 생애라는 걸 생각할 때,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싸, 모를싸? 「알싸!」 일본 식구들 알싸, 모를싸? 일본이고 한국이고 하는 것은 타락 때문에 그래요.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오목 불록을 하나님이 같이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교회는 국제결혼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앞으로 누가 아들을 국제결혼 많이 시키느냐 하는 경쟁을 해야 할 때

가 온다구요. 하나님의 가정은 전부 다 분립의 한이 맺혀 있어요. 원한의 골짜기를 만들어 놓았던 것을 메우기 위한 하나님 앞에 오색가지 인류가 전부 사랑의 빛에….

여기 전구를 보게 되면 필라멘트가 새까맣다구요. 빛이 나게 되면 까맣게 보여요? 저나라에 가게 되면 광명한 오색 가지 빛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그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네온사인은 빨간빛이 되지요? 빨간빛인데 흰 것은 안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 없어요, 저나라에 가면. 병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불행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한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닦고 살 수 있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일체권에서 살게 된다면 전부 다 마음과 말해요.

마음은 부모·스승·주인보다 앞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부모보다 앞서 있다는 말을 했다고요. 스승보다 앞서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마음은 영원히 나와 더불어 하나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영원히 하나 안 돼 있고, 스승이 영원히 하나 안 돼 있고, 주인이 영원히 하나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마음이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물어 보기 전에 마음에게 의논해야 돼요. 그러면 물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공명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몸이 원하는 것을 물어 보면 주파가 같기 때문에 답이 오는 거예요. 내일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어떨까 마음보고 물어 보면 마음이 기뻐하든가 나빠하든가 한다는 거예요. 벌써 알아요. 가서 만나는 것이 좋고 나쁜지 마음이 알아요. 싫으면 마음이 쭈그러든다고요. 알겠어요? 좋으면 활개를 퍼지요?

몸뚱이 자체가 마음보고 물어 보면 끌리기 때문에 통하지 않아도, 음성까지 못 가더라도 감으로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마음이 ‘왜 그렇지 니까?’ 하고 말한다고요. 영계를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통하는 데 있어서 절대 같다고 믿으면 안 돼요. 마음 상태가 다른 기준에 따라 천태만상의 환경 여건이 벌어진다구요. 참사랑권이 아니고 상대적 사랑권에서도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공중에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뒤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부터 붙들고 싸워야 됩니다. 몸뚱이하고 마음이 하나돼 가지고 더 하나될 수 있는 기준에 올라가게 될 때 거기에 공명권이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구요. 이것이 전부 다 이론적이고 과학적이랍니다.

윤박사! 「예.」 과학자라고 하지? 그런 거 알았어? 기도할 때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얼마나 못 했나?’ 이거예요. 마음을 뒤에 놓고 하나님을 암만 불러야 안 통해요. 마음이 하나돼 가지고야 통하게 돼 있는 하나님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명령을 중심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마음보고 물어 보고, 부모한테 물어 보는 대신 영원한 부모인 양심한테 물어 보라는 거예요. 양심은 부모보다 앞서 있어요.

부모와 갈라질 수 있고 이별할 수도 있지만 마음은 갈라질 수 없어요. 그렇지요? 스승과 갈라질 수 있지만 마음은 갈라질 수 없어요. 주인과 갈라질 수 있지만 마음은 갈라질 수 없어요. 이 3대 주체사상을 모시고 사는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 알아요?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요, 스승을 무시하는 것이요,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본래의 참부모라구요. 그렇지요? 나를 낳아 준 영원한 부모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과 직결된 것이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스승 중의 스승입니다. 그렇지요? 마음

은 스승과 직결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하면, 주인 중의 주인입니다. 그 마음은 주인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직접 관계돼 있기 때문에 부모보다 앞서 있고, 스승보다 앞서 있고, 주인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부모와 갈라질 수 있고, 스승과 갈라질 수 있고, 주인과 갈라질 수 있지만 마음만은 영원히 갈라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상대 기준에 양심이 서 있기 때문에 양심은 부모보다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승보다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주인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나라의 왕보다도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양심을 얼마나 푸대접하고, 하나님을 울리고 부모를 울리고 스승을 울렸고 왕을 울린 것과 같은 입장에 선 이 몸뚱이 원수를 품고 사랑하겠다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싸, 모를싸? 「알싸!」 기도할 필요 없어요. 마음을 붙들고 의논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마음이 작년까지 하던 그 이상의 자리….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놓아주리라.’ 한 거예요. 통일교회 원리를 앞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윤박사의 마음도 발전했어, 안 했어? 윤박사! 통일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윤박사 마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못 올라갔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중심 존재는 책임지고 보호하고 육성해야 돼

선생님을 두고 말하면, 선생님은 하나님 대신 입장에서 부모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자기 아는 것을 감춰 가지고 자기 제자에게 안 가르쳐 주는 도적놈 새끼들이 많아요. 자기의 아는 것까지도 다 주고 더 주고 싶어서 밤을 새워 가지고 학문을 연구해 가지고 더, 더, 더 주겠다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윤박사는 그래? 월급 받아야 좋아하지? 주

인이예요, 주인.

주인은 중심 존재인데 중심 존재는 그 중심의 환경의 대상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통일교회의 중심은 선생님인데 세계적 모든 사건이 문총재 때문에 됐다고 전부 다 나를 욕한다구요. 그렇지요? 미국에서 통일교회 원리를 듣고 하루 이틀 교회 갔다 온 사람이 철로에서 죽은 것을 놓고 문총재가 시켜 가지고 자살했다고 별의별 말이 많았어요. 전부 부모 앞에 갖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걸 싫다고 안 한다구요.

주인은 중심 존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보호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육성해야 돼요. 이런 3대 요건이 돼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총장은 중심 존재로서 왕과 같은 존재인데, 그 일을 하려면 전체의 좋고 나쁜 것을 책임져야 돼요. 좋은 것은 내가 책임지고 나쁜 것은 자기 부하들이 책임지게 하는 것은 도적놈의 새끼예요. 부자지관계 일체권을 범하는 것이요, 부부관계 일체권을 범하는 것이요, 사제지관계의 일체권도 범하는 거예요. 부자일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부일신, 그 다음에 뭐예요? 없지요? 스승하고 제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일체가 돼야 된다구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는 왕하고도 일체가 돼야 됩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일체의 경지

가정을 중심삼고 부부관계, 부자관계가 일체 되어야 합니다. 상하관계는 부자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삼대상목적입니다. 아담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해와와 아들과 하나돼야 합니다. 이게 삼대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대신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담 해와, 아들과 하나돼야 되고, 손자

도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돼야 삼대상목적이 이뤄지는 거예요.

쪼개 놓으면 우현 좌현으로 나뉘지는데, 우현 좌현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분 앞에는 두 존재가 삼각형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쓸데가 없어요. 이거 운동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각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사위기대. 사위기대는 뭐냐 하면, 중심을 돌아야 됩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둥으로 말미암아 각도가 전부 다 깎여 가지고 구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에서부터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보더라도 같고, 어디에다 갖다 놓고 아무리 구르더라도 거기서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삼각형은 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구형의 이상적 가정 형태를 본받기 위해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전부 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데 들어가서 싫다고 해서는 안 된다구요. 부처끼리 사는 데 자식들이 들어가서 싫다고 해서는 안 된다구요.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부처끼리 사는 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오면 반대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간격을 만들어 놔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3대가 한 자리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자주 하지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부모 부부, 자녀 부부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가르쳐 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 첫날 사랑은 부모들이 와 가지고 입회한 데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딸은 어머니가 오고 아들은 아버지가 와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사돈끼리도 그 사랑에 하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옷을 벗겨 주고, 사랑하는 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가르쳐 주고 맞춰 놓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음을 안 하지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전통적인 사

랑,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사랑을 느끼는 모든 전부를 전수해 주기 위해서 신부 뒤에는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뒤에 아버지가 있고, 신랑 뒤에는 사돈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 가지고 사위기대 기반에 있어서 사랑의 판국을 이뤄야 된다는 것이 창조이상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중심삼고 그 놀음을 하겠다면 다 웃겠지요? 아니에요. 저나라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결혼을 했을 때 사랑하는 것은 내적으로 하나된 것이니 외적으로 하나되기 위해서 그 앞에 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경배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돼 가지고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되고, 횡적인 부부가 하나되어 가지고 미래에 있어서 내가 창조하던 아담 해와를 너도 창조해 가지고 내가 느낀 그 모든 행복과 소망적인 실체를 다시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 잉태한 자녀였더라 그거예요. 그런 거 알았어요? 선생님이 미쳤지. 그런 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쌍놈이라고 말이에요. 사탄세계의 쌍놈이면 하나님 편에는 뭐예요? 「양반입니다.」 양반. 쌍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지관계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에미 붙을 녀석’이라는 것은 사탄세계가 여기에 근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쌍놈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이 돼야 할 네 놈이다.’ 그 말이에요. ‘에미 붙을 녀석’ 하면 뭐예요? 에미하고 자식이 붙어서 났는데 뭐. 안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게 욕이에요. 그래, 사탄이 욕하는 것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늘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탄세계에서 욕하는 것은 전부 다...

또 뭐라고 하나요? ‘육시랄 년’ 그러지요? ‘몸뚱이 육시랄 년’은 뭐예요? 복귀시대에 있어서 아버지하고 오빠하고 붙지 않으면 복귀가 안 돼요. 에덴에서 그랬지요? 아담은 아들이고 아버지하고 하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오빠하고 결혼하는 것이고 아버지하고 결혼하는 것입

니다. 종적 횡적으로 다름 뿐이지, 일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핏줄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어떻다구요? 「진하다!」

물이 뭐예요? 물이 이 세상의 푸른 지대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는 물이 만들었어요. 안 그래요? 땅의 진액도 물 때문에 모세관작용을 통해서 수수작용을 하는 거 아니예요? 물은 틈바구니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보다 틈바구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건 영원한 뿌레기까지 켜 버리기 때문에 돌리면 천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부의 사랑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안 사람이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류 복귀의 과정과 그 길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얘기할 거라구요. 이거 지금 혼동회를 방해하니 언제 끝나겠나? 할까요, 말까요?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사랑의 본체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타락한 세계의 여자를 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여자를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서... 창녀가 뭐야? 창녀 대왕보다도 더 끔찍한 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영원히 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땅 위의 인간을 구원 복귀하려면 여자와 대할 수 있는 길을 세우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아담 몸을 통하는 것밖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 위의 여자들을 전부 다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가 3시대를 망쳤어요. 아담을 죽여 버렸어요. 가정의 주인을 파탄시켰고, 국가적 주인 메시아를 파탄시켰어요. 그리고 오시는 재림주

를 신부인 기독교가 쫓아낸 거예요. 그랬지, 윤박사? 그래서 광야에 쫓겨난 고독아가 문충재예요. 하늘땅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족을 잃어버리고, 부부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려 가지고 고독 단신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신부가 쫓아냈어요. 다 파탄시켰지요? 안 그래요? 거기에서 다시 상륙하기가 얼마나... 창조하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복귀하기 위해서 침투 공작을 해야 돼요. 기가 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찾아가 가지고 사랑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자체는 못 해요. 이것을 다리 놓아 가지고 자기의 상대와 하나돼 가지고 복귀한 아담 해와의 사랑 기준에, 소생·장성·완성의 3단계가 있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윤박사, 알겠어요? 종적인 3단계예요.

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레아를 통해야 됩니다. 복귀 과정이 그렇습니다. 야곱 가정도 그렇잖아요? 레아를 통하고 라헬을 통하고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3단계입니다. 알겠어요? 어머니에게 태어난 형제가 있지요? 종적으로 동생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돼야 합니다. 동생이 레아의 반대를 소화해서 하나돼 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야 됩니다. 이런 3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아담도 이 땅 위에서 3대 남자를 살인해 버린 그 여자를 살릴 길이 없어요. 알겠어요? 세상의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주인밖에 모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표를 해서도 안 되는 그 일을 미리 알아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묻혀진 일이에요.

주님은 여자를 살려 주기 위해 오시는 사랑의 십자가의 개척자

그러면 선생님의 할 일은 아담 가정 완성이니 먼저 해와를 완성의

자리에 세워 놓아야 됩니다. 어머니를 완성시켜야 되고, 만딸을 완성시켜야 되고, 작은딸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손자를 중심삼고 -아담은 손자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랑을 전부 다 심어 줘야 됩니다.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뜻 가운데 하나돼 가지고 자기 손녀딸, 둘째딸을 출세시키기 위하여니 자기의 모든 전부를 투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도 선생님을 사모하고, 어머니도 선생님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를 중심삼은 형제가 한 몸이 돼 가지고 사랑하는 느낌을 느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이해가 돼요? 원리가 그렇다구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딴 어머니를... 아담 가정시대에 잃어버렸으면 국가시대에 있어서 이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어요. 선생님만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다른 사람은 이혼이 안 돼요. 아담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할 수 없는 여자라는 괴물을, 천지를 파괴한 이 여자를 살려 줄 수 없으니 살려 주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십자가의 개척자가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의 십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생식기가 동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동하게 해줘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자리에 서지 않고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선생님은 그런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디가 간지러워도 참고,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것을 훈련한 사람이에요. 생각으로 몸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선 거예요.

그렇게 모든 면에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세상 여자들을 대하더라도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천하를 망친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늘이 몸뚱이를 갖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걸 살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니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원수한테 시집갈 때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통곡해도 갈 수 없는 길, 그 이상의 길도 가야 할 책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 심정적으로 볼 때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요, 눈물의 골짜기의 근본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상이나 모든 포괄된 자기의 희망과 자기의 소원을 성사해 준 대표자이기 때문에 효자라 하면 몇백 배 훌륭한 효자요, 충신이라면 몇백 배 몇천 배 훌륭한 충신이요, 성인 성자라면 몇백 배 몇천 배 가치적 존재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윤박사! 윤박사도 많이 의심했지, 선생님에 대해서? 의심했어, 안 했어? 선생님에 대해서 의심했지? 왜 이혼을 하고, 주위에 여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따라가 가지고 선생님을 위해 죽겠다고 야단하느냐 이거예요. 여자들이 모여 가지고 사랑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관계를 못 해요. 그들은 누이동생입니다.

누이동생으로서 잃어버렸으니 누이동생을 키워 가지고 하늘나라의 훌륭한 제2 왕후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어요. 훌륭한 아내를 만들어야 돼요. 타락이 없는 인류의 조상으로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로 키워야 되고, 할머니로 키워야 되고, 여왕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리의 근원을 풀기 위해서는 해와가 아담을 죽였으니 살려준 아담의 자리, 해와가 나라의 중심자를 죽였으니 그것을 세워 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계의 왕까지도 죽였으니... 그 자체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세웠지만 어머니의 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 탕감의 기준을 세워 나온 이 원통한 사실을 선생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알고, 사탄밖에 몰라요.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이런 놀음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요즈음에 그렇잖아요? 통일교회 가정이 뭐 어떻고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어떻고 하는 패들은 전부 다 사랑

의 직격탄, 폭탄을 맞아 가지고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놀음이 벌어진다
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하나님이 타락한 해와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메시아를 통해서

절대사랑을 중심삼은 하나님이 타락한 해와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길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찾아야 됩
니다. 몸뚱이를 통해서 전부 다 잃어버렸으니, 거짓 사랑을 해서 거짓
부모가 됐으니 몸뚱이를 통해서, 사랑의 십자가 위의 천길 만길 골짜
기를 울면서 찾아가 가지고 전부 다 복귀해 줘야 돼요.

여왕으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기 상대로부터 만딸까
지, 여자를 전부 다 사랑 줄에 걸어서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조상 어머니와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재현해 가지고 갖다 맞춰 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여자
들은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자들,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을 보면 오빠와 같고, 자
기와 약혼한 남자와 같고, 결혼한 남편과 같고, 아버지와 같고, 할아버
지와 같고, 왕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복귀시대에 여자들에겐 선생님
외에는 없어요. 자기 나라의 왕의 명령도 거스르고, 할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 남편의 명령, 아들딸의 명령을 다 박차고 선생님만이
제일이라는 이런 자리에 서서 통일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본질적 사랑의 봄동산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3대만이 아니에요. 작은
딸, 만딸, 어머니, 할머니, 여왕, 하늘나라의 왕후까지 6단계를 넘어가
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는 동물은 선생님을 싫다 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 여자들 손 들어 봐요. 다 선생님을 좋아해요? 전부 다 선생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예.」 손 들어 보라니까.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싫다는 사람은 통일교회 교인이 못 돼요. 왜 그러냐? 타락으로 말미암아 4대 심정권을 잃어버렸어요. 유아,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은 이상적 결혼을 위한 것입니다. 형제가 자라서 바라는 사랑 이상의 열매는 결혼이에요. 남자가 바라고 여자가 바라는 사랑의 결착지도 결혼입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결혼을 중심삼고 아들딸을 낳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망이니 뭐니 연결 안 된다구요. 행복도 연결 안 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 같은 데에서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는데, 뭐가 영원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영원해요? 영원하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하면 타락하기 전 본심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 4대 심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아기와 같이 품습니다. 자기가 선생님의 품에 아기와 같이 품겨 가지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형제와 같이 일치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꽃동산에 데리고 다니면서 꽃도 꺾어 주고 꽃반지도 만들어 주고 꽃 목걸이도 만들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형제가 에덴동산에서 외로우니까 둘이 벌거벗고 안고 잤지요? 그런 체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모든 남성들을 다 부정해요. 나중에는 사랑하는 관계의 경지까지 가요. 그 자리에까지 가 가지고 본성적으로 타락으로 더럽힌 것을, 문을 다 열어 줘야 됩니다, 4대 심정권. 그렇기 때문에 아기와 같은 자기가 돼야 되고, 형제와 같은... 아담 해와가 형제지요? 쌍둥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복중에서 쌍둥이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쌍둥이는 같은 감정을 느끼지요? 선둥이든 후둥이든 서로 서로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의 상대적 관계의 오누이로 태어났으니 이견 상대적 심정, 사랑적 근원까지 느끼기 때문에 갈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을 해 가지고 커서 갈라져 가지고 부부로 되

는 거예요. 어릴 때의 목적인 형제로서 하나되고 싶은 마음을 갖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되는 거예요. 영적 부모인 종적인 부모와 횡적 부모가 결합하는 사랑의 그 자리에서부터 사랑의 본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의 본궁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남자 여자의 생식기가 합하는 사랑의 그 자리가 사랑의 본궁이요, 사랑의 그 자리가 생명의 본궁이요, 사랑의 그 자리가 혈통의 본궁이라구요.

그 자리를 떠나서 혈통이 연결돼요, 여기 윤박사? 그 자리를 떠나서 생명이 연결돼요? 남자 여자의 생명이 연결되는 곳이 그 자리라구요. 하늘과 땅이 통할 수 있는 사랑이 연결되는 곳이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뭐냐 하면 사랑의 본궁이요, 생명의 본궁이요, 혈통의 본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주도 필요 없고 창조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정도 안 나오고, 나라도 안 나오고, 세상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궁을 파괴시킨 해와의 죄가 하나님의 본궁까지, 사랑의 본궁, 생명의 본궁, 혈통의 본궁을 다 파괴시켰지요? 엄청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 문제가 간단히 흘러가는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천리의 대동맥이 되는 것을 끊어 뺐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맥. 알겠어요? 이것을 끊어 놓은, 타락한 그 해와를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사랑의 주인인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는 말을 하겠어요? 아이쿠,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파먹고, 비린내가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접할 수 없는 것인데, 아담이 타락에 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담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한 아담, 오시는 재림주가 그걸 감당하여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서로 모시려고 싸우한 거 알아요? 레아와 라헬과 마찬가지로 운명입니

다.

6단계의 여자를 복귀해야 하는 참부모

끝날에 남자는 두 여인을 접해야 돼요. 남자에게 여자는 종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자리요, 횡적으로 보면 형제의 자리라는 거예요. 종횡의 자리를 남자가 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내놓고 첩을, 곁가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혼란이 와요. 하나만 사랑해야 할 텐데 더 좋은 것을 자꾸 취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한 사탄이 사랑의 길을 유혹해 가지고 망치는 놀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정 전체가 깨져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사랑의 하나님은 잃어버린 해와를 실체적 몸으로 접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아버지 아담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아버지가 이것을 구원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생사지권을 가려 놓아야 할 입장에 선 것입니다. 참아버지가 맡은 바의 이 중차대한 천지의 비밀 창고를 여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도 몰라요. 알겠어요? 올라가야 돼요, 3단계. 그래서 통일교회 여자들은 삼위기대가 있다구요. 남자들도 삼위기대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삼위기대끼리 하나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이혼했다.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사랑을 주장하는 레버런 문이 그래 가지고 사기다!’ 하는데, 뭐 사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사기가 아니에요. 전통 중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한 사탄도 얘기 못 하고 하나님도 얘기 못 하고 선생님도 얘기 못 하는 일을 여러분의 입으로 평하는 것은 완전히 걸려 버리는 거예요. 영적 육적 오관이 청맹과 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사실을 모르고 그런 문제를 법정에게

지 끌어들이고 가지고….

선생님을 가정 파탄의 괴수, 형제자매를 망친 도적놈, 딸 도적놈, 여편네 도적놈, 어머니 도적놈, 할머니 도적놈, 왕후 도적놈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해 줘야 되니까… 사탄세계가 그렇지요?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탄한테 망하게 되면 이렇게 6단계, 왕후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여편네로부터 두 딸까지도 그 왕이 보고 할아버지가 보고 아버지가 보고 남편이 보는 한 자리에서 범한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전부 다….

이것을 수습해 줘야 돼요. 영원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선생님의 책임이라구요. 알겠어요? 함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을 언제나 그렇게 데리고 사랑할 수 없어요. 조건적인 기준을 넘어서야 된다고요. 조건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주가 무엇인지 알아요? 무서운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시면 사탄과 하나님과의 선생님과 계약 조건이 그래요. 이것을 마시면 지옥문을 열어야 되고 천국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도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축복이 세계적 기준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문이 열리게 되면 사탄세계가 전부 형님입니다. 그렇지요? 복귀된 형님입니다. 이것을 죽여 버릴 수 없어요. 열여섯 살 이후의 몸뚱이는 전부 사탄 몸뚱이입니다. 열여섯 살 몸뚱이를 중심삼고 거기에 사탄 몸뚱이가 와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선생님 몸뚱이는 자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타락하지 않은 몸뚱이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요. 알겠어요? 그러니 본연의 사랑 전통을 다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열여섯 살 이후에는 사탄이 머물게 돼 있다구요. 완성한 그 몸뚱이를 가지고 부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완성한 몸을 중심삼고 부부를 이룬 전통을 중심삼고 이것을 잘라 버리는 거예요. 사탄과 통하는 모든 사랑관계를 모두 잘라 버리

는 거예요. 여왕으로부터 전부 다 찾아가 가지고 남자라는 전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세계의 남자들이 전부 다 레버런 문을 죽이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 여자들은 선생님 말에 절대복종해야 돼요, 이의 없이. 자기의 역사적인 사랑의 십자가의 구렁텅이를 메워 가지고 자기를 해방할 수 있는 그분이 오빠예요, 오빠. 오빠 중의 오빠요, 아버지 중의 아버지요, 주인 중의 주인이요, 할아버지 중의 할아버지요, 왕 중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입니다. 여기서 6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6수가 또 걸려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자로 말하면 동생, 언니, 아내, 어머니, 할머니, 여왕이지요? 6단계까지 거쳐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 가정의 그런 내용도 몰라 가지고 입을 열었다가는 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때가 됐기 때문에 성진이 어머니까지도, 우리 어머니의 할머니까지도 내가 결혼식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입니다. 이혼하고 죽으라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성진이 어머니까지도 내가 풀어 주고, 사랑의 상대를 해주지는 못하지만 영계에 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왕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상대도 본처가 있지요? 본처까지 축복해 주고 딸까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 해방을 했기 때문에, 남자로 생긴 것 여자로 생긴 것은 모두, 영계에 가 있더라도 이 해방권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부모가 공인한 자리에서 같은 축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탄세계는 물러가고 하나님과 바뀌진 지상세계 천국이, 사랑의 주권시대가 강림하는 것입니다. 그래, 평화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여자로 말하면 3대가 하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랏님까지 보게 되면 이것이 6대예요, 6대.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면 여자 셋이면 제일 나쁜 자(姦) 아니예요? 간부(姦夫).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참부모를 붙들고 따라가야

그러니 여러분은 선생님의 가정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암만 듣더라도 그거 상관하지 말라구요. 선생님이 그렇게 떼뻘한 사람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건 어머니가 알아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안다구요. 만일 결혼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결혼한다면 어머니와 와서 소개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는 여자들이 생명을 열 번이라도 바쳐도 값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본을 어머니로 세웠는데, 이놈의 간나 년들 말이에요, 자기 보따리를 싸 놓고 선생님을 고생시키고, 일선에서 가지고 거지 모양으로 몰아내고 잠을 자요? 벼락을 맞는다는 거예요. 여왕을 구해 준 주인을 무시하고, 할머니를 구해 준 주인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구해 준 주인을 무시하고, 여편네를 구해 준 주인, 맏딸과 작은딸을 구해 준 주인을 무시한 그분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나라를 대신한 해외의 나라는 그러한 어머니 입장에서 1분의 1의 입장에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6대 부인을 대신 해방한 그 은사를 망각하는 그 일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은 2천년 동안 멸망해 가지고 곳곳마다 부락에 들어가 피를 흘려야 되고, 통곡하며 쫓겨나야 했던 거예요. 말굽에 차이고 쇠창살에 찢려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리고 죽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본이 책임 못 하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이놈의 간나들, 6마리아니 뭣이니 하는 박정화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소문 난 것을 마음대로 꾸며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은 말하지 않아요. 그거 말하려면 하늘의 비밀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하늘의 비밀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윤박사, 알겠어? 「예.」

종적으로 3단계요, 뉘어 놓으면 3단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탕감하는 거예요. 딸을 중심삼고 요게 거꾸로 조상이 됩니다. 할머니 어머니 딸 시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6마리아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별의별 소문이 다 났다구요. 자기 생각에 ‘원리가 이래야 된다.’ 해 가지고 별의별 짓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다.’ 한 거예요.

이래 가지고 나쁜 이름을 뒤집어쓰고 지금까지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누더기 판을 벗어나기 위한 싸움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거예요. 반대 축복가정이 있으면 전부 다 반대하게 마련이에요. 선생님을 중심삼고 빨리 축복권을 형성하여 세계가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버지인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만아들을 자기가 얻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 안 하는 거예요.

비참하지요? 윤박사! 사랑의 태양을, 사랑의 달을... 선생님이 사랑의 태양이면 사랑의 달을 찾아 가지고 자기 위신과 체면을 다 버리고 깜깜한 천지의 누더기 보따리, 여자들 보따리를 벗어나지 못할 그런 싸움의 길을, 핍박의 길을 거쳐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간나가 선생님에 대해서 이려고저려고 말하면 아가리를 썰 버리고 배때기에 창을 꽂는 거예요. 선생님은 함부로 된 남자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안 한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특권입니다.

여기에 어머니의 삼위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삼위기대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길이 없어요.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자리를 넘어설 길이 없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전부 다 이려고 저려고 하는 간나는 아가리를 찌고, 혀를 빼 버리고, 눈을 빼 버리고, 귀를 다 망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고도 어려운 하늘의 비밀이었어요. 그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제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꼭 잘라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떤 무서운 방법으로 할지 모를 거라구요. 그런 것을 다 여러분은 몰라요, 앞으로 갈 길을. 선생님을 붙들고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해와 국가의 사명이 간단치 않다

*알겠어요, 일본 식구들? 「예.」 해와 국가의 사명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예요.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여자의 사명이라든가 어머니의 사명이라든가 아내의 사명이라든가, 그러한 관점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 다구요. 모든 것을 무사(無私) 초월하여 한 방향으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어머니가 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요전에 5년 전인가 4년 전에 수택리에서 17만 9천 명을 교육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너희들 통장이랑 전부 선생님한테 가져와!’ 하고 얘기했다구요. 가져오겠다고 모두들 두 손을 들고 맹세했는데, 한 명도 안 가져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선생님이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빚쟁이 왕으로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저금통장을 감추고, 돈을 품고 편안한 생활을 하지요? 고군분투하는 선생님 앞에 그런 자세로 사는 아내는 없어요. 없다구요. 알겠어요? 「예.」

모든 것을 바치고도 자기 일족, 6대 여자 전부를 모아 선생님 앞에 제물로 바쳐도 다 보답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은혜의 주인인데 말이예요... 그런 개인의 입장에서조차 그걸 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해방권이 없어요. 알겠어요? 「예.」 일본 남편은 하늘편 천사장 입장이지, 하늘편 남편 입장이 못 되었어요. 참부모를 완성시킨 그 자녀의 입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천사장 부모라구요.

일본에 해와 나라 통일을, 가인권을 축복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벨이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부자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이라구요. 맨 처음에 120개국에 선교사를 보낼 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을 보내면서 ‘하나되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하나되어 일본 대사관, 미국 대사관, 독일 대사관을 세계적으로 감동시켰다면 통일교회는 핍박받지 않았을 거라구요. 선생님이 이런 고생길을 안 간다구요. 삼국의 전권함을 가지고 그 국민과 그 국토를 관리하는 주인이 되어야 했다구요.

일본 사람은 ‘아, 우리가 통일교회에 먼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아벨이다!’ 미국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재림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리고, 독일은 ‘현대 과학문명을 개발한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의 공로가 없었다면 현대 과학문명이 일어설 수 없었을 것이다!’ 하면서 모두들 자기들이 아벨이라고 생각한다구요.

위하여 산다든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자기 희생의 길을 가는 것이 원리 원칙의 근원(根源)인데, 그런 원칙을 저버리는 태도 때문에 선생님은 16년 간을 버렸어요. 편지 한 통 쓸 수 없었어요. 핍박에 완전히 휩싸이고 말았어요. 카터 정권과 싸울 때 일본 대사관이나 미국 대사관 혹은 독일 대사관이, 레버런 문은 카터 정권의 원수니까 절대로 그를 도와주지 말도록 26개국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를 거부하고 선생님을 지지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구요. 선교사의 잘

못된 태도 때문에 이런 반대권의 세계가 형성된 거라구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아벨 입장을 누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다구요. 일본 자체가 지금 골치 아픈 것이 뭐냐?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통일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책임자가 되면, 원리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아벨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을 구해 주지 않으면, 가인이 없으면, 가인을 굴복시켜 승리권을 갖지 못한 자는 아벨이 될 권리가 절대로 없어요! 틀려먹었어요.

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벨이라고? 외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아벨이 될 수 없어요. 순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며, 열심히 일생을 다 바치는 자세로, 부모를 대신하고 형님을 대신하여 모범을 보이고, 그 나라 천황 이상으로 모범이 되지 않고는 아벨이라는 이름은 생길 수 없어요. 그런 전통을 세워 놓았어요.

일본이 해와 국가라고 해서 전세계가 일본에 복종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전세계의 해와를 감복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린 그런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어머니의 사명을 했다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일본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반대 입장에 서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망한다구요.

참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 예언의 실현

지금부터 씌어진 지 천년 된 한국의 예언서에도 일본이 망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한, 딸로서의 3개국의 보조 역할까지 예언하고 있다구요. 그런 예언서를 선생님은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구요. 깜짝 놀란다구요.

그걸 보면 선생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예언된 그 이상의 기준을 세운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주목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구요.

‘오실 메시아는 성이 문(文)씨인데, 문씨는 두 번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에서 태어나야 하고, 일본을 통해 돌아와야 한다. 감옥을 통과해야 한다.’ 모두가 선생님을 두고 하는 말이라구요. 그리고 선남 선녀를,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세계적으로 축복 결혼시켜 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구요. 선생님이 하고 있는 열두 가지 항목과 전부 일치한다구요.

선생님이 이런 예언의 내용을 미리 알고 이대로 해왔다면 선생님은 사기꾼이라구요. 그러나 선생님은 예언서를 무시하고 해 나왔어요. 그 대로 했다가는 본래의 전통적인 원리의 길을 개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예언되어 있어요. 한국의 미래에 일본이 언제 어떻게 침략하고 언제 돌아갈 것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도자는 걱정하지 않고 기다린다고요. 한국전쟁에서 김일성이 쳐내려온다는 것도 모두 예언되어 있다구요. 미국이라든가 소련이 한국을 어떻게 분할해서 어떻게 된다는가, 맥아더 장군이 인천을 공략한다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세계에 대해 예언한 내용 중에서 나라를 중시하고 이처럼 확실하게 예언된 나라는 없다구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해와 국가의 사명이 이렇게 힘들다구요. 여왕님 전체를, 할머니 전체를, 어머니 전체를, 아내 전체를, 장녀, 차녀 전체를 합하여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는 그 이상의 중심이 바로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러한 희생의 길을 위하여 찾아가야 할 것인데, 선생님이 지시했는데도 사잇길로 돌아가고 있는 여자의 모습. 그림자도 꼴도 보기 싫다구요. 알겠어요? 「예.」

꼴도 보기 싫은 자들을,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고 꼴 보기 싫은 무리

들을 데리고 가르치면서, 조건적으로라도 천 미터, 백 미터의 산을, 고 무줄을 붙잡고 따라오도록 조치를 한 것이 지금의 가정적인 조치라구요. 알겠어요? 잘라 버려야 한다구, 한국도 일본도!

뭐 돈이 없다고? 아이들 학비 때문에 비용을 내놓을 수 없다고? 자기 집, 땅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그 따위 소리가 어딴어? 천국 건설의 센터, 아버지의 왕이며 할아버지 대신, 아버지 대신, 남편 대신, 아들 대신의 사명을 지닌 그분에 대해서 대상인 여자들의 그러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가구요.

천적(天的)인 법률에 걸려들고 말기 때문에, 나라를 중심삼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본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해요. 그런 심각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일본 내 통일교회의 정정당당한 여성, 어머니의 자세를 가다듬고 나가야 한다가구요. 눈물과 더불어, 땀과 더불어, 희생의 피를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길이 없다는 것을 통고한다가구요.

일본의 실패 때문에 대만과 필리핀과 캐나다... 캐나다는 영국의 여동생이에요. 3대 섬나라의 중심으로서, 어머니 대신인 일본 때문에 희생당한 입장이라구요. 그런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야-, 선생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신 천주 재창조의 길을 공식적으로 밟아 온 것을 보고 선생님도 정말 놀란다가구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선생님과 함께 개척의 선두에 서서 원조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쨌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표한 내용대로 이끌어 오심과 더불어 종적인 역사를 쌓아 온 세계의 승리권을 평정하고, 세계 전반을 넘어 횡적인 승리권도, 평면적으로 평정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 예언의 실현이었음을 실감하면서 사명감을 더 한층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각하다가구요. 알겠어요? 「예.」

일본은 빛을 진 입장

일본 사람! 「예.」 아니야, 일본 사람이 아니야! 이놈의 자식들. 모두가 죄를 짓고 멀리 유배되어 간 사람들로 일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섬은 그렇다구요. 한국에서 귀양 간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복수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이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사촌 형제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언젠가는 갚겠다고 하면서 한국을 원수시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침략의 역사를, 기록을 남겼어요.

수많은 일본인한테 피를 흘린 역사를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본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않아요. 40년 간의 일제치하에서 한 명의 여자도 결혼한 적이 없다구요. 하녀라든가 식모살이 할 때, 일본 남자에게 강간 당한 일은 있지만 말이에요. 그런 일본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구요. 한국 여자는 그게 유명하다구요. 중국인도 일본 사람하고는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런 여자들을, 그런 남자들을 일본인과 교차결혼을 시켜? 한국 집안에서는 그거 꿈에도 생각 못 할 일이라구요. 그런 일을 하면서 선생님님이 일본인을 평등한 입장에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도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빌미로 문선생을 적대시하게 하는 데 그 내용을 이용하는 녀석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한다구요. 그런 자들을 다시금 안고서 끌고 가는 선생님의 비참함을 아는 일본인이 없어요.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없는, 오직 한 방향으로 조건을 다 채워 발표할 수 없는 일본 여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딱하다구요.

지금 빛을 졌어요. 빗져서 일본 대신 이렇게 하고 있다구요. 알겠어요? 「예.」 알고 있겠지만 앞으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보고 내 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이 썩는다구요.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이 썩어 버린다구요.

무서운 전환기라는 것을 알고 굳게 결의해야

그런 무서운 대전환기에 그걸 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모두가 바라는 좋은 것도 없어요. ‘뭣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렀는지?’ 할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선생님이 아니라구요.

어떤 일을 단행할 때, 모든 반대 환경을 넘어섬으로써 역사적으로 미완성한 정조의 미완성 기준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알겠지요?

3회 째는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지만. 1만 2천 명, 그 이상 와야 한다구요. 서로 오겠다고 다투어 줄서서, 비행기표를 미리 사놓고 1개월이고 몇 개월이고 기다리며, 경쟁하면서, 올림픽 경기 이상으로 오고 싶어해야 한다구요. 천국 들어가는 티켓이 그렇게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무가치하게 대한 자들은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전환기라는 사실을 알고 각자 굳게 결의하고 돌아가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을 나쁜 남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오늘부터 안 한다면 안 해요. 선생님은 절대로 안 해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어머니를 여러 면에서 지도해 왔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의 품에 안겨 줄 수 있는 심정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어머니도 원수에게, 내 대상도 원수에게, 나와 가장 가까운 누나도 원수에게, 여동생도 원수에게 안겨 주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저런 소문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심각한 심정의 세계,

사랑의 세계의 가장 쓰라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 온 남편이라구요. 일본은 얼마만큼 충효의 도리를... (녹음이 잠시 중단됨)

정보면에서는 세계 최첨단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구요. 시 아이 에이 (CIA;미국중앙정보국)도 못 따라온다구요. 무서운 선생님이라구요, 사실은. 무력한 선생님이로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이라구요. 알겠어요, 일본 사람?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이 한국 놈들도 마찬가지로야. 알겠어, 이 녀석들아? 「예.」 대가리들이 커서 박사나 뿔이니 하지만, 박사가 박살이 되는 거예요. 잘났다는 녀석들 선생님 앞에서 꺼떡거리지 말라구요.

절대 부모, 절대 자녀, 절대 부부만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

절대, 뭐라구요? 「사랑!」 절대신앙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절대사랑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대복종도 절대사랑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희생이니 뿔이니 절대사랑 가운데 다 들어가요. 절대 부모, 절대 자녀, 절대 부부, 절대 가정 가운데 다 있어요. 이것만 가지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못 할 것이 어디 있어요? 네 아들딸 팔려면 팔아야지요. 여편네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지요. 남편 내놓으라면 내놓아야지요.

그래, 군대에 동원되어 가지고 죽을 사지에 몰아낸다고 불평할 수 없어요. 따라가야지.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라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지 않은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옥권 내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이상의 차원 높은 3단계 이상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참부모의 명령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는 몇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생님의 뒤를 못 따라가요. 선생님이 수평으로 가는데 자기들은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있으면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합할 수 없는 거예요. 수평으로 따라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여기 한국 놈들, 집을 다 팔고 땅을 다 팔아 가지고 세계의 집, 세계의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남을 수 있는 이런 땅이 있게 되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나라 없는 무리 아니에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나라가 없어요, 가정은 가지고 있지만. 가정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할 숙명적인 책임이 남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먹고 잠자는 것을 행복을 삼으면 배때기가 찢히고 벼락이 내린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자면서 행복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가정도 없었고 나라가 없어요. 천국에는 모든 나라들이, 세상의 하늘나라 같은 나라들이 들어가고 가정들이 들어가야 할 것인데,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라 없는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불쌍하지요.

선생님이 뭘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자가 없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떼거리로 얼마든지 있어요. 일본에 가서도 나를 유혹하는 별의별 미인이 있고, 유력가의 딸들이 나한테 반해 가지고 죽는다고 혈서까지 쓰고 별의별 소문을 내도 그들을 동생과 같이 키우기 위해서 수고한 걸 알아야 돼요. 일본 여자들이 선생님을 유인하려고 별의별 놀음을 다 한 거예요. 이 쌍년들! 그랬기 때문에 일본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예요.

또 2차대전 때에 일본이 멸망했을 때 원수 되는 고등계 형사들을 보따리 싸 가지고 돌아가라며 보내 준 사람입니다. 그 빛을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젊은이들은 선생님을 위해서 생사지권을 넘어서 가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역사적인 인연을 맺어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 오야마다? 「예.」

뭐 여덟 시면 내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가게 돼 있는데 이거 시간 다 잡아먹었구만. 이제 밥 먹고 가게 되면 ‘아이고, 약속 지키지 않는 문 선생.’ 이렇게 소문난다고요. (웃음) 이놈의 자식들, 법으로 하면 전부 잘라 버리고 형장에 데려다 모가지들 잘라야 할 것인데, 부모의 자리에서 고맙게도, 하늘나라가 창건 안 되고 법이 설정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해방시켜 주는 안타까운 선생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영계에 가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떡할 거예요? 선생님을 만날 수 없어요. 천년 만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그 마음을 애국자의 마음, 효자의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선생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윤 박사, 알겠어?

식량난 해결과 환경보호를 위해 판타날을 개척한다

비참한 선생입니다. 믿을 수 없는 아들딸을 찾아 헤매면서 그들을 전부 다 끌어올리는 것이 이 복귀시대에 있어서 참부모의 사명이요, 재림을 중심삼은 영원한 구약신약성약시대의 책임자의 사명입니다. 이 책임자의 행로가 이렇게 비참할 줄이야 누구도 몰랐어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돈도 수십억 불을 벌어서 다 썼어요, 세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쓴 거 없어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면 매지만, 그 외에는 넥타이를 안 매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절약해 가지고 굶어죽는 한 사람이라도 살려 줘야 할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시 파우더(fish powder;어분)를 만들어 가지고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일선에서 있어요.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 판타날을 보호해야 돼요. 하

나눔이 지은 생물의 종들을 멸종시켜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는 낚시질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양식시대로 들어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양식을 해야 돼요. 다 길러서 놓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을 하나도 멸종이 되지 않게끔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박물관, 그러한 양식장, 그런 연구소를 대학을 세워 가지고 만들 준비를 하기 위해서 판타날을 개척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원초적인 생물이 다 남아 있어요. 식물이나 새나 고기나 다른 동물도 다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판국에 선생님이 정성들이는데, 이 정성의 배후에 태워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여기에 모아 가지고 판타날이라든가 살로브라라든가 경치가 좋은 벨지도를...

소유권 전환의 조건인 1만 6천 달러 현금

*선생님은 빛을 지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8년 동안 통일교회 부도난다고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이제나저제나 하면서 사탄이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구요. 그런 한계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의지해 온 일본이 반역자, 어머니로서 반역자가 되어 버렸어요. 아버지 나라 한국도 반역자가 돼 있어요. 한국은 지금 뿌리가 잘렸어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해와 국가의 뿌리가 잘릴 판국이에요. 심정적으로는 모두 선생님과 떨어져 있어요. 일본 여자라 하면 주야로 선두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연상되지만, 지금은 일본 여자의 모습이 희미해져 갑니다. 충성을 다하던 그 얼굴 모양이 사라져 가고, 이름마저도 기억에서 잊혀져 간다구요.

어떻게 변명하려들지 말라구요. 무얼 가지고 돌아갈까가 아니라구요. 반대로 생각해야 해요. 에텐의 축복 해방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해방

전에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고서 비로소 소유권이 있는 법인데, 지금껏 소유권을 붙들고 있는 자는 그래서 안 됩니다. 소유권 전환의 조건으로 1만 6천 달러를 내라는 거예요. 전부를 바쳤다는 조건으로. 이를 행동에 옮기게 되면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문제가 된다고요. 소생 단계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선생님은 무관심합니다. 알겠어요, 일본 사람? 「예.」

해와 국가, 아담 국가가 없어요. 오직 혼자밖에 없어요. 아담은 영계로부터 왔기 때문에 물질적인 조건은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복귀될 영·마·불은 세계의 신앙, 우수한 인종 선진국가, 돈 등이 전부 모여 있는, 세계를 전부 하나로 통합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생님 것 이어야 한다고요. 선생님을 반대한 그런 나라는 뿌리까지 없어져 가고 있어요. 미국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 모두 청년, 40대 이하의 젊은이들은 지금 없어졌어요. 70, 80대가, 영계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 있다고요.

이제 늘어나게 되면, 청년들이 기성교회에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통일교회와 형제관계를 맺고 축복의 인연을 초교파적으로 맺어 오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받고 낳은 아이들은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렇게 해서 40대 이하의 젊은이들이 연결된다고요. 그러한 운세가, 미국에도 새로운 종교운동을 부흥시킬 때가 왔는데도, 새로운 세계를 지도할 곳은 통일교회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통일교회의 청년들 모두가 파고들어 가게 돼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들이 자기 선조들이 통일교회를 믿어 온 역사를 냉정히 비판한다고요. 어머니는 그때 뭘 했는지. 선생님은 이렇게 세계 복귀를 위해 선두에 서서 싸워 왔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도와드렸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무덤을 파헤쳐 버리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심판을 하게 되면 통일교회 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고한다구요. 알겠어요? 「예.」(*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이것을 깨
끗이 정리해 가지고 돌아가는 자체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아담 해와는 완전히 소유가 없었어요. 사랑의 실체권을 중심삼아 가
지고 소유권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자기 이름의 소유가 있는 사람은
사탄세계의 껍탈, 딱지가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벗
어나기 위해서 이번에 현금을 16수를 대표한 160, 1600, 1만 6천 중
에서 ‘어떤 것으로 할 거야?’ 해서 최소 단위로 정한 것이 1만 6천 불
입니다.

구약시대 물건, 신약시대 아들, 성약시대 부모, 완성시대 하나님 해
서 4단계라구요. 4수를 중심삼고 사 사 십육($4 \times 4 = 16$), 16수를 중심
삼고 여러분은 전부 다 1만 6천 불이 아니라 160만 불, 1억 6천만
불,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정성을, 그런 심정적 표시를 해 가지고
사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표적 조건으로 현금해야 되는 거예요.

일족을 축복시키지 못하면 영계에서 갈 길을 못 가

윤 박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윤씨네 아버지 전도하라고 해도 안
했지? 아들딸 전도하라고 해도 안 했지? 그게 아비아? 그게 아들이야?
아들이면 몽둥이로 후려갈겨서 ‘이놈의 자식들, 앞으로 서!’ 해서 데리
고 가서 일주일 수련을 받게 하고, ‘이제부터 마음대로 해라.’ 하는 거
예요. 수련받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야 할 것이 부모가 가르쳐 줄 일입
니다. 형님이 그래야 되고, 누님이 그래야 돼요.

자기 손아래 사람은 믿지 않으면 몽둥이로 때려 가지고 축복받지 않
게 되면 ‘일주일동안 수련 가! 수련비 없으면 내가 대 줄게.’ 해서 데
리고 가서… 아들딸이 몇이야? 아들이 몇이야? 「3형제입니다.」 딸은
몇이야? 「다섯입니다.」 전부 여덟이야? 여덟 자녀를 전부 데려다가 ‘나
란히 일렬로 서!’ 해 가지고 궁둥이를 후려갈겨 가지고 ‘일주일 수련

받아! 말씀을 들은 뒤에 마음대로 해라, 이 자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못 하면 책임져야 된다고요. 영계에 가 가지고 갈 길을 못 가요.

윤씨 가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총장을 시키고, 경희대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책임진 입장에 서 가지고 그 일가를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여기 나카무라도 혼자 살다가 말겠으니 내가 일본에 주선해 가지고 내가 데리고 가서 자기 축복해 줬지? 내가 하늘 앞에 기도한, 교수 중에 일인자로서 내가 대해 준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놀음을 해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윤씨네 가문이 복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잘라 버렸다 이거예요.

윤씨 가문에서 교육을 중요시해서 인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 윤치호로부터 윤가들... 어떡할 테야? 아버지, 윤씨네 아버지를 축복 안 하면 안 된다고요. 본래는 빼 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권고도 받지 못한 부모를 누가...

얼마나 긴급한 때인가를 알고 새롭게 결의하자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고, 지금 때가 얼마나 긴급한 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오늘부터 자기 이는 삼위기대 가정은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라도... 도적질해서는 안 되겠지만 할아버지, 친척을 중심삼고 1만 6천 불을 현찰로 현금하고 참석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체단에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오는 사람은 현금을 내고 참석하게끔 전부 다 전화나 편지라도 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본 책임자하고 한국 책임자들에게 이런 것을 지시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못 해 봐라, 이놈의 자식들 전부 다... 차라리 3억6천만쌍들에게 일주일이고 몇 달 동안 새로운 것을 교육해 가

지고 여러분 이상의 사람을 만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 열어 뿔어요. 이놈의 오래된 36가정, 72가정 이놈의 자식들, 이래 보라구. 전부 다 쫓겨나는 거예요. 정신차리라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그만둬야 되겠지만. 아침을 먹고 내가 약속한 시간에 맞춰야 돼요. 비행기가 지금 기다릴 거라고요.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박차 버리고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됩니다.» 왜? 국가 메시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요? 「다녀오시랍니다.» 다녀올 거라고요. (웃음)

오늘 중요한 말을 했다고요. 시시한 말을 듣거든 ‘이 자식아!’ 하고 배때기를 차 버리라고요. 심정의,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개척한 대왕마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색시 있을 때 기쁨으로 대했어? 통일교회 교인들은 앞으로 위안 축복을 받더라도 그 아내가 자기 생식기를 일으켜 주기 전에는 관계를 못 하는 사나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선생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머니는 알고 있다라고요. 알겠어요? 「예.» 존경을 해야 돼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뿌리로부터 하늘까지 통할 수 있는, 사랑의 순이, 길이 연결되는 다리와 같은, 전횡줄과 같이 통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한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를 예수도 못 졌어요. 그건 하나님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경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사스러운 별의별 소리를 들을 때는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전부 다 내 손으로 청산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알겠지요? 「예.» 그런 결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습니다.» 결심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 봐요! 음!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 가르쳐 줬어요.

이제 내가 못 올지 모를 거라고요. 언제 끝나나? 「아버님, 주일날 2

차 끝나는데요。」 어느 주일날? 「10월 9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상파울루에 가지기 전에 사진을 줌…」 사진은 무슨 사진이야? 사진을 거꾸로 하면 진사, ‘죽는 것이 사실(死眞)이다.’ 그 말이라구. (웃음) 자! 「아버님, 감사합니다.」 (박수) 일본 여자들 정신차리라구, 이놈의 간나들! 세상에 여자를 간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요? *

참부모와 영계

〈기 도〉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1998년 10월 1일입니다. 이 10월은 통일교회에 있어서 해방의 달, 축복의 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월 4일과 10월 14일을 기념하는 이런 날들이 통일교회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의 날로 남아 있사오며, 그 날들을 추모할 수 있는 통일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을 닮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3억6천만쌍 축복 완성을 선포할 수 있는, 지상의 해결점을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그을 수 있는 날을 갖게 하심으로써 전세계를 대표한 국가 메시아들과 가정을 대표하여 40일수련을 받고 있는 축복가정이 합세하여 그 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하늘 앞에, 참부모 앞에 3억6천만쌍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모든 영광된 한 시대를 놓고 아버지께서 부족한 통일교회를 세우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 배후에서 얼마나 수고하셨다는 사실을 이 자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소망의 천국을 향한 천리원정 먼 길을 홀로 개척해 오신 하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이

1998년 10월 1일(木),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브라질 자르딘).

* 이 말씀은 남미 제2차 40일수련생들에게 초하루 경배식 때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제 통일교회 우리들은 중심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모든 영원한 생애의 노정이 우리의 생애를 대신할 수 있고, 승리의 한 때를 넘고 환희의 찬양을 하늘과 땅, 만우주를 합하여 아버님의 사랑의 주권을 향하여 돌려 드려야 할 책임을 피조만물이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는 때가 저희 목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해원성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해방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라는 엄청난 사실을 통일교회 교인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역사시대, 아담 이후에 신앙세계에서 아벨적인 책임을 지고 왔다갔던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역사적 사실을 저희들은 앎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하늘 앞에 소명을 받고 결심하던 이상의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하늘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짐해야 할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것을 망각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형제 없는 세상에서 살았고, 부모 없는 세상에서 살았고, 주인 없는 세상에서 살았던 고아와 같은 모든 신앙계의 사람들이 당신의 혈족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갖고, 나라를 갖고, 형님의 도리를 따라서 당신을 모실 수 있고 해방된 본연의 자식들의 모습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본연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 부모님이 축복의 문을 옆으로 말미암아 해방적 천상·지상세계에 이 일을 개척하여 주신 하늘과 참부모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무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0일 수련생들과 판타날에 있는 국가 메시아들이 일체가 되어서 오늘 이와 같은 축하의 날을 맞아 경배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마음 깊이, 하늘의 심정의 주류가 저희들의 마음을 통하여, 부부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시어 천년 만년, 만대의 후손까지 붉은 사랑의 정열의 불길이 길이길이 타게 하시옵소서.

만세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하나님 자신이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영계와 육계가 우리 생활권에 접촉해 있는 하나의 모습이며, 양면의 모습인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알았사옵니다. 성약시대는 하늘을 완전히 앎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거기에 합당한 합격자가 되기 위해 매일의 생활을 주선해 나가는 선민 된 모습을 갖추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지상세계가 모든 것을 완결 완성 지을 수 있는 해결의 터전이요, 여기서부터 승리적 사랑의 출발이 지상천상천국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자녀들과 하나된 가정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통일의 무리들은 이번 수련기간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과 더불어 절대유일·불변·영원한 부자지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정관계를 확립하여, 하나님의 해원성사를 하여 전체 사위기대의 44수를 갖출 수 있는 해방적 입장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품길 수 있는 온 인류의 해방의 문을 열어 놓았사오니 지상과 천상세계에 닫혀 있던 지옥문과 천국문을 여는 그 길을 위하여 온전히 일체 일심이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해방된 통일교회 식구, 축복가정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영계의 모든 소원의 성사가 지상을 통하여 완성되고, 지상의 우리 인간들이 바라던 모든 소망이 천상세계의 식구들과 조상들과 하나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충효의 도리, 성인·성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선택받은 통일교회 무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

고 원하옵니다.

오늘 10월 초하루를 맞게 해주셨사오니 이 날부터 이제 해방의 새로운 즐거움을 가지고 2월 7일까지, 찾아오는 새해 하늘의 영광을 흠뻑 돌려드릴 수 있는 축하의 기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8천만 청소년들을 중심삼은 축복의 길을 결의하고 나서는 모든 모임 자리에도 친히 같이하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영계의 선조들과 더불어 지상의 축복받은 모든 무리들과 하나가 되어, 일체 일심이 되게 하시어 지상 천상의 해방권을 완성하여 만우주의 피조만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때가 어서 속히 오기를 바라옵고, 그러한 지상천국이 되고 천상천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날을 맞이하는 이 날에 한 달을 축하의 달로써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오니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서 기쁨의 달로 전진, 전진, 전진, 승리, 승리, 승리를 향하여 영광된 전진을 다짐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 하였습니다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말 씀> 이전에 우리가 여기에 들렀다 갈 때 《지상생활과 영계》의 1장까지 했던가? 그 다음부터 읽으라구. (《지상생활과 영계》 상권 제2장부터 혼독)

영계는 입체적인 감각으로 사는 세계

영계를 다룬 거예요, 영계에 대한 문제를. 영계가 있어요, 없어요? 윤박사! 영계라는 것은 영점(零點), 영(零)입니다. 영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자신이 있어요, 안 죽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은 심

장이 멎을 때 죽는다고 하지요? 심장은 영원히 멎지 않습니다. 그 심장의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뿌리를 받았기 때문에 심장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거두어 주는 것이 영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계에 가게 되면 어떨 것이냐? 영계는 육계하고 마찬가지로입니다. 도리어 선화되고 신성화된 것이 영인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관보다도 입체적인 감각으로 삽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평형이라든가 종적이라든가, 상하관계 전후관계를 통할 수 있는, 생명의 맥을 느끼지만, 영계에 들어가면 이것이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커지는 거예요.

커진 그 심정의 감촉이라는 것은 오늘날 제한된 몸을 중심삼은 나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심장이 멎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심장을 심은 것입니다. 처음에 물에 심었습니다. 알겠어요? 이것이 수중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땅에 심었어요. 이것이 지상시대이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계예요. 그래, 하나님과 같은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심장은 자라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장이라는 말이 말이에요, ‘마음 심(心)’ 자하고 뭐예요? ‘마음 심(心)’ 자를 쓰지요? 심장(心臟), 오장(五臟) 할 때의 장(臟)이에요. 마음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심정은 사랑의 근원지요 사랑의 집

그러면 마음을 봤어요? 마음을 못 봤습니다. 그래, 심정이라는 것을 봤어요? 그것이 전부 다 하늘과 관계된 것입니다. 근원적인 세계에 존

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세계의 원인적인 내용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마음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또, ‘가슴이 아프다.’고 하지요?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 뭐예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요? 속이 상하고 일이 안 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더구나 가슴이 아픈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랑관계에서예요. 가슴이 아프고 복통을 일으키는 것은 사랑관계에서입니다. 사랑이 떠나게 될 때는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왜 가슴이 아프고, 사랑하는 상대가 떠나면 왜 가슴이 아프고, 부모가 죽으면 왜 가슴이 아프냐?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심정은 뭐냐 하면, 사랑의 근원지요, 사랑의 집입니다. 알겠어요? ‘사랑의 집’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깝게 느껴져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공중에 떠돌아다니고, 흘러가는 영 같지만 ‘사랑의 집이다!’ 하면 얼마나 가까워져요? 사랑의 집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심정, 정(情)이 뭐예요? 사랑을 중심삼고 관계를 맺어 가지고 흘러가는 힘, 통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 아니예요, 정? 인정(人情), 사정(事情), 물정(物情) 그렇지요?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장이 멎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장은 물 시대에서 육지시대로 옮겨질 때 심장이 멎질 않아요. 또 육지시대에서 무한한 세계로 옮겨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이 지구성은 조그마한 것입니다. 별 세계, 모든 것은 지구성을 확대한 것입니다. 지구성하고 별 세계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성에 있는 것이 다 있다 이거예요. 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뭐 상식화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하나된 세계예요. 거기에서 지구성을 보면 아주 뭐... 태양만 해도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그걸 생각하게 되면 뭐라

고 할까? 콩알보다 더 작거나 콩알만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집이 무슨 집이에요? 그 빌딩의 130만 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거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태양도 불이 붙고 있지만 말이에요, 태양이 무엇일 것 같아요? 태양도 요소가 마찬가지로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는 사랑을 중심삼고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물세계나 식물세계나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상대적 관계의 수주작용을 중심삼고 사랑 때문에 존속하는 것입니다. 영계도 그래요.

그렇게 볼 때, 새도 심정이 있지요? 새도 심장이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영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들도 혈통을 통해서 천년 만년, 몇 억 년 살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맥박의 동기, 출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심어 놓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심어 놓았으니 영원한 생명을 빼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내게 심어진 심정의 심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집이니까, 이 집은 아무리 뭘 어떻게 하더라도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하지요? 또, ‘가슴이 벽차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가슴이 벽차다고 합니다. 그 기쁨은 반드시 사랑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집을 심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해

‘선(善)’이라고 하면 ‘양(羊)’을 그립니다. 양은 선을 상징합니다. ‘의(義)’ 자를 봐도 양이 있어요. 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인 앞에 희생하는 거예요. 동료들끼리 그렇게 많은 떼거리로 몰려갈 때도 소새끼들은 받아 치우는데, 궁둥이 사이에 이렇게 대가리를 밀더라도 이렇게 비켜가지, ‘이놈의 자식아, 왜 그래?’ 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순리대로 순응해 가려고 하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을 오라고 한 이 집이 너무 커서 문제가 돼요.

이만한 집은 아마 5만 명은 들어갈 거예요. (웃음) 아, 정말이에요. 우리 청파동 집에서는, 축복할 때 보면 8백 명, 1천 명이 잤어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잤어요. 공동이도 못 대겠으니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서로 붙들고 잤다구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너무 넓어요.

그래, 사랑은 좁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결혼하는 것은 일생의 문제인데, 사랑의 상대를 찾기 위해서는 좁은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복종이 좁아요, 넓어요? 넓어요, 좁아요? 「좁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하다구요. 그래도 심장은 움직여요. 심장이 물 속에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런데 그게 육지에 나와서도 또 움직입니다. 물에서도 움직이고 육지에서도 움직였던 것이 공기에 가서 죽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어진 심장의 소생·장성·완성입니다. 천지 이치는 3단계입니다. 우리 얼굴도 눈 코 입, 3단계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합해서 3수입니다. 하나, 둘, 셋, 전부 다 3수라는 것입니다. 뿌리와 결과가 사위기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위기대는 삼각형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영점은 안 됩니다. 이것이 딱 이렇게 되면 영계와 육계가 하나되기 위해서 십자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 도는 데는 혼자 못 도는 것입니다. 사각형이 도는 것은 상하를 연결시켜 가지고 도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은 하늘과 땅이 같이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의 심장을 심은 분이 누구라구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걸 순환시켜 가지고 열매를 거두어서 계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요?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면 요즘에 와

서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내 심장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죽지 않으니 내가 죽지 않은 심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가 사랑의 집이에요. 이 사랑의 집 가운데 있는 것이 영원한 사랑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까워지지요? 알겠어요? 「예.」

먹고 자고, 가고 오고, 좋고 나쁜 것은 사랑이 원인

심장이 뭐라구요? 「사랑의 집입니다.」 사랑의 집입니다. 불탄다, 가슴이 탄다고 하지요? 가슴이 탄다고 할 때는 무엇 때문에 타요? 사랑이 떠난다든지 사랑을 찾고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타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첫사랑의 여자를 대하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지요? 두근두근해요? 그런 걸 느꼈어요? 아무리 심장이 크고 아무리 세상의 독재자라 할지라도 여자를 대할 때는 심장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뛵니다.」 김영휘! 김영휘는 어때? 대화를 만났을 때 심장이 뛰었어? 3년 동안 안 뛰었지 뭐. 그거 뛰어야 돼. 원래는 뛰어야 되는 거라구.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한다고 하지요? 한 근이라고 하지 왜 두 근이라고 해요? 두근두근, 하하, 전부 다 상대적인 거예요. 한국말이 재미있는 것이 그거예요. 설렁설렁, 휘청휘청, 전부 다 상대적이지요? 혼자는 재미없어요. 휘청휘청, 가고 오고, 먹고 자고, 그 다음에는 뭐라구요? 먹고 자고, 그 다음에는? 좋고 나쁘고, 인간 생활은 이거 여섯입니다. 그러면 다 수습되는 것입니다.

가고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고 오느냐? 사랑 때문이라고 할 때는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구요? 먹고 자고, 무엇 때문에 먹고 자는 거예요? 밥 때문에 먹고 자는 거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좋고 나쁘고는 무엇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지식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좋고 나쁘다는 말은 인생사의 전부를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생명이 고통이니 심장이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집인 심장이 편안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그러져요. 이게 무너져 간다구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눈이 답답하면 왜 이렇게 자꾸 비비고 보려고 해요? 왜 굳이 보려고 해요? 무엇 때문이에요? 참사랑을 찾기 위해서예요. 참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먹고 자고, 가고 오고, 좋고 나쁜 모든 전부는 사랑 때문입니다. 무슨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또 유일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불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왜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의 소성이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유일·불변·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유일·영원·불변한 속성이 왜 생겨났느냐? 하나님이 왜 생겨났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기준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그 과정에는 영원성이 없고 유일성이 없고 불변성이 없고 절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거 이론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적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둘이 절대적으로 사랑해? 「예,」 싸움을 하더라도 그 싸움은 한때이지 절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한 고개를 더 넘기 위해서는

싸움해도 괜찮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삼고는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패서라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생식기가 생겨났다

남자를 차게 되면 말이에요, 어디를 차느냐? 남자의 제일 약한 데가 어디인 줄 알아요? 어디인 줄 알아요? 삼각지대에 매달린 것입니다. 여자들이 뒤로 잡아 가지고 끌게 되면 굴복 안 할 남자가 없어요. 자연히 굴복해요.

여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구요. 거기가 제일 신경이 예민한 곳입니다. 그 사이의 털을 딱 잡아 가지고 잡아당기면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요. (웃음) 이 아저씨는 왜 웃노? 거기가 제일 예민한 곳입니다.

그게 왜 생겼어요? 생식기가 왜 생겼어요? 생식기라는 뭐냐 하면, 생명을 심는 기관입니다. 번식시키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생식(生食)’, 생명을 먹는 기관이라는 뜻도 됩니다. 또 생식기는 새로 심는다는 뜻도 돼요. 옛것이 아니고 새로이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합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뜻이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생겨났지요?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고 찾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인데, 찾아가 가지고는 뭘 해요? 보고 앉아 있고, 십리 밖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가서는 이마를 맞대고 코를 맞대야 됩니다. 그래요? 아줌마도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웃음) 그래.

그 다음에는 코를 맞추고, 그 다음에는 가슴을 맞추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마

음이 맞아야 돼요, 눈과 마음이 맞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래, 한국 말에 눈 맞춘다는 말이 있지요? *일본말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눈을 맞춘다고 한다면가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눈 맞춘다, 마음 맞춘다, 그 다음에 사랑 맞춘다 이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생식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조화롭게 됩니다. 심장이 영원히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수평세계를 그려 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수평세계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심장, 여자의 심장이 수평을 그려 가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어

수평이라는 것은 종적인 것을 먼저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수평의 사랑 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 때문에 살기 때문에 사랑의 상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상대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 혼자서 안 됩니다. 하나님도 생명을 가지고 있고, 혈통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못 느끼는 것입니다. 혼자서 못 느껴요.

왜 상대가 필요하냐? 사랑을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뭐라고 할까, 수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합니다. 수평이 되면 고요하지요? 상하의 움직임이 없게 되면 자극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자극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수평 때문에 전부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생명,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못 느껴요.

*너도 사랑을 가지고 있지? 생명도 가지고 있지? 혈통과 양심도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혼자로서는 느낄 수 없습니다. 혼자서 ‘아, 나는

사랑의 실체다! 사랑, 사랑, 사랑!’ 하면 미친 사람이 된다고요. ‘생명 생명 생명은 무한한 힘이다!’ 하더라도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자로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상대를 품고 ‘사랑이 불탄다.’ 하게 되면 오케이입니다. 사랑이 불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도 볼 수 없고 불도 볼 수 없는데, 사랑이 불탄다고 하면 알지요?

그렇게 사랑이 불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경이 전부 다 불붙어서 모든 세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포가 전부 다 살아서 접촉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 결혼했어?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여기에 와 있어? 「축복받았습니다.» 아, 축복을 받았어? 아, 그래.

사랑이라고 하면 세포가 불꽃처럼 타오르지요? 빨강게 타오르기 때문에 말이에요, 사랑이 불타오르는 데는 무엇을 던져 놓더라도 타 버리는 것입니다. 이야, 위대한 말이라구요. 사랑이 불타는 데는 무엇을 던져 놓더라도 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밀어 놓더라도 부모도 타 버리고, 뭐라고 할까, 사탄을 밀어 놓더라도 사탄 자체도 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사랑이 불타는 곳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본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이상의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이상의 사랑을 가지면 천주가 주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천주가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사랑이 불타는 데 임재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없어요. 배가 고프지요? 몇 시예요, 지금? 여섯 시 35분!

또 계속해요? 재미있어요? 오모시로이(面白い;재미있다) 이상의 것이 뭐예요? 「오모쿠로이(面黒い;面白이의 엇먹은 말씨)」 오모쿠로이는 사탄적인 것이라구요. (웃음) 그것은 오모시로이의 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다고 하는 거예요. 도약은 각도가 있지만 비약은 수직입니다. 어느 쪽이 좋아요? 각도가 있는 도약이 좋아요, 수직으로 나는 것이 좋아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수직으로 날게 되면 빠져나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녹음이 잠시 중단됨)

아들딸은 사랑의 불 구슬

자기의 사랑을 마음의 밭에 심고 싶어요, 사랑의 밭에 심고 싶어요? 어느 쪽이에요? 「사랑의 밭에 심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웃음) 모두 다 정말인지 아닌지를 모르면서도 입이 먼저 열리면서 정말이라고 한다구요. 자기의 의식보다 앞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 만물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못 먹는 것이 없지요? 이번에 국가 메시아들이 3미터에 가까운 뱀을 잡아서 구워 먹었다고 하길래 잘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식물도 심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생명체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사랑권 내에 머물 수 있기를 바라지,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쿠상(奥さん;아주머니)! 오쿠상의 귀도 그렇지? 남편이 귀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기분이 좋지? 그런 경험이 있어? 「예.」 부부관계를 하면서 이것을 만져 주면 대단히 자극적이라구.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해보라구. 선생님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라구요. 아직 여러분은 모르니까 그렇게 해보고 좋으면 그대로 해도 좋을 거라구요.

왜 웃어요? 젊은 아가씨가 웃는 것을 보면 좋지만, 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웃는 것을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웃음) 젊은 아가씨는

더 사랑이 불타기 때문에 말이에요, 화산이 터지기 직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 예쁜 것입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엄마에게 있어서 가장 예쁜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사랑의 불 다마(玉;구슬)입니다. 사랑의 불 다마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아들 딸입니다. 그 사랑의 불 다마에 흘러서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면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그렇습니다. 아들딸이 뭐라고요? 사랑의 뭐라고요? 히노타마(火の玉;불 다마)! 히노타마가 좋아요? 킹노타마(金の玉;금구슬)가 뭐예요? ‘노(の)’를 빼 버리면 뭐가 돼요? ‘노’를 빼 버린 다마와 킹노타마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웃음) 여자가 너무 그렇게 웃으면 곤란하지요. (웃음) 그런 여자는 과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킹노타마를 좋아해요, ‘노’를 빼 버린 것을 좋아해요?

여사님! 교주님이 이런 말을 한다고 모두 다 이상한 교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구요. 영계에서는 옷을 벗으려고 하면 대변에 벗는 거예요. 여러분은 옷 벗는 것이 어렵지요? 거기서는 생각만 하면 대변에 벗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안고 사랑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계는 못 느낄 것이 없는 사랑이 충만한 세계

이상헌 선생이 영계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무한히 찬란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입체적인 불꽃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빛입니다. 그것을 실감, 오감... 오감이 아닙니다. 영계에서는 백감(百感), 만감(萬感), 억만감(億萬感)입니다. 이 4백 조 이상의 세포들이 전부 다 느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화려한 불꽃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참사랑이 타오르면 화려한 불꽃같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홀려 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모르게 수직으로 내려와서 '이야, 저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려한 불꽃이 자기를 커버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인지 모를 사랑의 힘이 포용해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낌이 미치지 못하는 이상의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육감(六感)이 아니라 십감(十感), 백감(百感), 만감(萬感)의 느낌을 갖기 때문에 세포들이 전부 다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세포들을 전부 다 기쁠 수 있게 해서 남녀가 하나되는 것이 부부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따라와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가 있는 거라구요. 그러한 세계를 알고 있는 선생님을 전세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문선생 박멸운동을 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1억2천5백만의 일본 사람들이 '문선생은 싫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차, 쇼우센(省線;국철)까지 '문선메이 야쓰(文鮮明 やつ)!' 야쓰(やつ;사람을 막되게 부르는 말)가 커서 문선명씨가 되었고, 문선명 선생님, 참아버님까지 되었다가 문선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라고 하는 데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요?

지금부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영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계를 통할 수밖에 없지요? 영계와 육계가 통일되느냐, 안 되느냐? 사랑의 힘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는 국경이라든가 원수와 같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불타면 녹이지 못할 것이 없어요. 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일본이 해와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일본과 한국은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원수라고 생각하기보다 한국이 일본을 더 원수라고 생각하지요? 한국이 933회나 외

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80퍼센트 이상을 일본이 침략한 것입니다. 흉년이 들면 건너와서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약탈을 많이 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망할 때 선생님을 고문했던 고등계 형사 같은 사람들을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장래에 일본이 해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시아 대륙이 크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명은 여자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도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구요. 그래서 서양문명도 영국으로부터 비롯되었지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영국 문명은 하나님의 문명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야오요주노카미(八百万の神;뭇신들)라고 해 가지고 잡교를 믿습니다. 절대 유일신이 아닙니다. 절대 유일신의 절대 유일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을 서양문명에 연결한 것입니다. 영국과 묶은 거라구요.

일본의 법은 로마법을 중심삼은 것이고, 군대는 독일의 군대를 본받은 것으로 모든 것을 모방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자는 그런 것입니다. 남편의 좋은 것을 전부 다 자신의 조그만 보따리에 쑤셔 넣지요? 큰 보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니의 뭐라구요? 라디오! 조그마한 것이라구요. 여자의 조그만 보따리 속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 자신은 그렇게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딸은 세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키우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남자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어요? 본래는 아버지가 낳았다고 해야 할 텐데, 왜 여자가 낳았다고 해요? 아들딸은 어머니의 몸을 나누어 받습니다. 어머니의 살, 뼈, 그리고 피를 전부 다 받아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자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정자를 보면 1억5천만 개나 3억 개 가운데 오로지 하나가 난자와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지요, 사랑

을 통해서? 그 3억 개 가운데 하나가 남았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최고로 우수한 것이 난자와 만나 가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은 컴퓨터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보이지 않는 몇억만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파이프를 쫓고 흡수해서 자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것은 없어요. 사랑이 중심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결실체로 태어난 나는 곧 조상들의 결실체

생명의 출발점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정자도 아니고 어머니의 난자도 아닙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사랑! 정말이에요? 사랑에 의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명이 섞이는 것입니다. 싫은 생각이 없는 거라고요. 영원히 하나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됨으로써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결실체, 어머니의 사랑의 결실체가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사랑의 결실체를 위해서 서로서로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들딸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자동적으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합쳐진 실체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것입니다. 아들딸이 그렇게 명령하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듣고 있어요? 아침인데 대답이 왜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선생

님의 기분이 좋지 않다구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 부모는 사랑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근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쳐놓고서는 부모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그 부모의 생명이 하나될 길이 없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모, 그 부모로부터 아들딸로 연결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몇만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조상들의 총결실체로, 4백조 개의 세포들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살아 있는 거라구요. 조상들 가운데 누군가의 세포들이 전부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상들의 결실체가 나입니다. 그 나는 3시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현재·미래를 대표하고 싶다고 생각하지요? 자기 혼자만으로 끝내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라구요.

무슨 좋은 것이 있으면 부모, 친족 그리고 후손들을 생각하지요? 3시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3시대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세계적인 환경을 이룬다면 그것을 파괴할 사람은 없습니다. 영계와 지상세계를 상속해서 자기에게서 꽃을 피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소테스(そうです; 그렇습니다).’ 하면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소테스!」 ‘쇼’ 하면 한국말로 우시(牛)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말로 ‘소테스, 소테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시를 생각하는데, 그 소만큼 인간이나 만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테스’ 하면 ‘우시테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절대복종입니다. 그래서 ‘소테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강합니다. 그

거 정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소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순한 짐승이 소인데, 호랑이 같은 것들이 잡아먹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멸종하지 않고 이렇게 번식되어 나왔느냐?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소가 인간의 세 배 이상 있습니다. 번식력도 강하지요? 마찬가지로 통일교회 선생님의 말씀에 영원히 ‘소, 소, 소…!’ 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번창해서 모든 천지에 충만하고도 남을 것이다! 아멘! 「아멘!」 진정으로 ‘아멘!’ 했어요?

이러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지요? 기분이 좋아요? 「이이테스(いいです; 좋습니다).」 왜 이이(いい; 좋다)예요? 10에서 시작해서 이치(一)는 20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숫자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10을 중심삼고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리면 이쪽도 돌아요. 기분이 좋아요?

모든 존재는 소생·장성·완성의 3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

오늘 훈독 말씀의 제목은 시(死; 죽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입니다. 시라고 해서 문학적인 시(詩)가 아닙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정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주 창조에 있어서 소생·장성·완성이 근본입니다. 그 가운데 중심은 장성입니다. 완성은 그 위지요? 중심은 두 번째입니다. 좌우의 중심도 두 번째이고, 전후의 중심도 두 번째입니다. 3단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존재 가운데 그 공식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한 원리로 볼 때 소생·장성·완성의 공식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복중세계의 물의 시대, 공기시대의 지상시대, 사랑시대의 천상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상시대에 있어서는 부모와 더불어 사랑하면서 커 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의 복중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배면 자기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우면 이렇게 되어서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천지가 더불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분이 들지 안 들지 모르겠다구요.

지금부터 나를 중심삼고 시작해서 일본의 제일이 되느냐, 세계의 제일이 되느냐, 천주의 제일이 되느냐, 천만의 재능을 가진 혈통을 남기는 근본이 되느냐, 헛된 꿈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되지요, 사실?

사랑의 전통을 붙들면 바람이 깊이 돌아서 먼 데까지 포함하여 그 권내에 전부 다 품기기 때문에, ‘나는 넘버원의 주인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구요. 하나님까지 점령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본의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여자들도 ‘세계적인 미남자를 얻고 싶은 것이 본래의 내 본심 중의 본심이다.’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심정적인 사람이 미인 중의 미인

영계에는 미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인 미인이 되라구요. 미인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만상이 ‘아, 가까이 가고 싶다.’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이 아름다우면 만우주의 모든 것이 따라오는 미인 중의 미인이 되는 거예요. 이상헌 선생의 영계도 말이에요….

선생님이 영계의 실상을 쓰면 누가 믿어요? 왕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거짓말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양심이 혼란을 일으켜서 듣게 되어 가지고 통일 교회 멤버가 되었는지 모르지요.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지요?

심정은 무엇의 집이라구요? 무슨 사랑이라구요? 하나님은 사랑의 왕입니다. 그 왕이 자기의 심정을 집으로 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마워요, 고마운 것의 반대예요? 그 반대가 뭐예요? 아리가타쿠나이(ありがたくない; 고맙지 않다)라고 하지요? ‘나이(ない; …않다)’ 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不) 아리가타이(ありがたい; 고맙다), 히(非) 아리가타이라고 하자구요. (웃음) 그러면 좀 감미롭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게 반대말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요?

심정 가운데 정(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나 한밤중과 같은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의 심정 가운데 사랑이 불타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도 밤중에 찾아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라구요. 4백조 세포들의 문을 열어라! 열었다! 자기 개인적인 것은 지워졌기 때문에 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이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양심이 커요? 양심의 문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전우주를 집어넣더라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가 타락한 이후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 이상의 남자나 여자가 있으면 그 당시보다 수백, 수천 배 이상의 천주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생각하겠지요?

누구든지 아담 해와 이상의 부부가 되었다면, ‘하나님!’ ‘뭐야?’ ‘뭐가 뭐요? 어떻게 해요? 아담 해와가 타락해서 창조의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고생시켰는데, 지금에 이르러 천사장이었던 사탄을 굴복시킨 자녀를 맞이하는 기쁨이 어떻습니까? 아담 해와를 창조했던 이상으로 기뻐요, 안 기뻐요?’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훌륭하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민약에 하나님이 ‘훌륭하다!’ 하면,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아담을 위해서 창조한 천주에 타락의 오점이 남아 있는 것이 나는 싫소! 그것보다 십 배, 백 배, 천 배, 천만 배로 더 훌륭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만들어 주소!’ 하면, 창조의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그거 싫다!’ 할 것 같아요, ‘그거 그렇다.’ 할 것 같아요? 「소다토오모이마스(そうだと思います;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시라고 생각하지요? 소고기를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웃음)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위해야

누구든지 영계에 들어가면 직감의 실체로서 자유롭습니다. 영계는 그런 세계입니다. 좀 말이 어렵지요? 모두 다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지요? 그러한 다이아몬드를 자기의 반지에 얼마든지 박더라도 남는다고요. 천 개, 만 개라도 끼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망상이 아닙니다.

이상현 선생의 간증이 없었더라면, 이런 말을 하는 선생님이 미쳐도 보통으로 미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처럼 떠돌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계에 갔다 왔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바보가 아니라구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현 선생의 그것을 보고 그 내용에 맞추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그 내용의 결과를 이상현 선생이 본 대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 철학자, 종교인들도 아연실색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보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오쿠상이다! 너, 그래? 그래? 「예.» 남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 (웃음) 복종이라고

하는 데는 자기의 관념이 없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가 아닙니다. 참사랑 앞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기준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만물세계를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기준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나도 그 기준에 이르게 되면 평면적인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가 하나님 자신보다 더 훌륭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담 해와는 아들딸이었습니다. 부모와 아들딸이 종적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숙명적인 것으로서 우주가 변하더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꾸면 각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직각이 안 됩니다. 90도가 안 맞으면 전후 좌우가 틀어져서 구형체가 되지 않습니다. 타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타원형이 되어서 운동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도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후·좌우·상하가... 그것을 열두 조각으로 쪼개서 위의 것을 아래에 맞추어도 맞고 왼쪽의 것을 오른쪽에 맞춰도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디든지 딱딱딱 맞는 것입니다. 전기로 말하면, 이것은 부하(負荷)가 걸리지 않습니다. 로스(loss; 손실)가 없는 것입니다.

심정은 죽는다? 「안 죽습니다.」 정말이에요? 무덤에 가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심정이 없어지잖아요?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을 보았지요, 뱀? 그것을 보면 허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육신은 제한되어 있어서 무한한 세계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육신의 옷을 벗고 무한한 세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환경을 상속해 나갑니다. 사랑의 왕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눈은 하나님을 닮았다구요. 흰색, 갈색, 그리고 새까맣습니다. 소생·장성·완성입니다. 눈을 위해서 음

직입니다. 선생님의 몸이 무엇을 위해서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의 각도에 맞추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도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이 코는 머리를 상징합니다. 가장 많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두 구멍은 남자와 여자예요. 왜 두 구멍으로 되어 있느냐? 둘을 합하지 않으면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그렇지요? 광물세계에도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있습니다. 식물도 뭐예요? 수술과 암술이 있지요?

모든 것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남자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할 때는 사랑의 완성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평등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생님이 여자의 세계를 해방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남자들이 천사장으로서 여자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사형 당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밝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심정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됩니다.」 안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얼굴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나기 쉽지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기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을 수 있도록 흐물흐물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얼굴도 그렇지요? 옛날에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는 미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학생 시절에 선생님한테 프로포즈를 한 여자들이 많았다고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일본이

사탄 국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빈민굴에서부터 장관의 집까지 전부 다 거쳤습니다. 일본이 어떤 곳인가 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적인 나쁜 면을 소상하게 알게 됨으로써 그것과 180도 반대의 방향으로 돌게 되면 천국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나쁜 것이 무엇이나 하면, 술도 잘 마시고, 사람을 잘 때리고, 여자를 좋아하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예요. 눈도 안 맞았는데 강제적으로 그 녀석들이 그러더라구요. 이것은 지고쿠(地獄)예요, 지고쿠.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치코쿠(遲刻)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지요? 지고쿠, 알겠어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무엇이 없으면 좋은 사람이 못 되느냐? 사랑의 내용이 없는 곳에는 좋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나쁜 것과 통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면 심정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든가, 희생할 줄 모른다든가, 교만하다든가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참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참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참사랑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수직. 정오에는 그림자가 없어지지요? 왜 참사랑이 필요하나?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안팎으로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없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영계에 갈 때. 그렇게 되면 천상에 가더라도 지상에 통할 수 있고, 지상에서도 천상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아침은 남자, 저녁은 여자로서 하나되어 가지고 그림자가 없는 것이 정오(正午)라구요. 평등입니다. 여기에 십자를 긋더라도 통합합니다. 하나님도 오케이입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그림자입니다. 타락된 사랑의 그림자가 두 부부 사이에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교회의 축복받은 가정에는 그러한 그림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오의 나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한 수직 하에 들어가면, 우주가 그것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 거라구요. 선생님도 핍박을 받을 때 그 가운데 들어가서 ‘쳐라! 아무리 일본이 대국이라고 하더라도 문선생을 쳐봐라, 누가 쓰러지는지!’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를 복귀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 편으로 돌리고 일본 정부의 야카라타치(輩達; 패거리들)가 남았습니다.

야쓰보다는 야카라(輩; 패거리)가 좋지요? 야쓰가 좋아요, 야카라가 좋아요? 「야카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쓰가 아니고 야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선생을 그만큼 철저하게 핍박한 사람들을 원수라고 하지 않고 야카라라고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복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요가나이(仕様が無い; 할 도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시요가나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을 때 시요가나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예.»

전도가 밝다든가, 기쁘다든가, 즐겁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 하는 말이지 사랑이 없는 곳은 그 반대입니다. 지옥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사랑이 싹튼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사랑이 싹터서 꽃을 피워 가지고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창고입니다. 사랑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창고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결실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자 여자의 특성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문제지요? 남자와 여자가 문제라구요.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천사장이 없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는

냐? 아담은 남자였기 때문에 생식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땠어요? 이성성상으로서 무슨 격을 가지고 있다가요? 주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든가 말이에요, 중심입니다. 위와 아래인데, 위가 아버지입니다. 부자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성격이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성을 가지고 움직임으로써 여자는 따라서 도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생활도 그렇다구요. 여자는 엉덩이가 크다구요. 그러니까 앉아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기 내기를 하게 되면 백 남자가 한 여자를 못 이깁니다. 엉덩이가 좁기 때문에 세 시간만 앉아 있으면 아파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섬세한 것은 빼 버리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고 살아가는 것이 여자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도 백 퍼센트 여자, 가정 파괴도 백 퍼센트 여자입니다. 아들딸이 거기에 몰들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머니의 몸을 그대로 이어받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대번에 어머니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들딸은 못된 것을 전부 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한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본도? 오쿠상은 값비싼 기모노(きもの)를 입고 술도 마시고, 봄이 되면 버드나무 아래서 색남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남편은 헌옷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새 옷이 좋다고 하면서 뭐예요? 종이로 만든 가짜 옷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비단같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지요? 가짜가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그거 뭐예요? 무명옷은 가볍지 않고 무거워서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옷을 입고 기분 좋게 옆

동네로 살랑살랑 돌아다니고 싶은 것이 여자의 욕심입니다.

여자들은 좋은 옷을 입고, 목걸이도 걸고, 반지를 번쩍거리면서 그러고 싶지요? 여자의 반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표상입니다. 끼고 살 수 있어요. 반지는 끼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목걸이는 걸어야 귀합니다. 그것은 남자에게 매달려서 살고 싶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자의 귀고리도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합니다. 그 생식기는 어디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웃음) 왜 웃어요, 기분 나쁘게? 여자는 그렇다구요, 여자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반지는 남자와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남자의 목에 매달려서 남자가 기둥같이 서서 휙 돌아 주면 여자는 발을 들고 따라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동아 전쟁 때 일본 병사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 보면 오쿠상은 남편이 몇십 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면서 비행장이나 부두 같은 데 마중을 나가서 만날 경우에 달려가서 축...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해보지 않았지요? 지금 돌아가서 방에서 해보라구요. (웃음) 그거 좋다구요. 그래서 좋은 부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쯤이 되어서 맛있는 저녁을 지어 놓고 깨끗이 샤워를 하고 남편을 맞이해서 결혼 첫날밤을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볼을 비비면서 서로 바라보고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결혼한 날보다 더 기쁩니다.' 해서 말이에요, 준비하라고 해 가지고 축... (웃음) 그렇게 해보라구요, 기분이 좋으니까.

날마다 밥 먹기 전에 세 번씩만 그러면 절대 이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웃음) 이혼이 없다구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는 오쿠상은 10년을 기다린 외로움을 잊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자다운 기쁨이 있어요. 그러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너! 좀 둔하지? 여자가 세구만, 너보다! 그렇지? (웃음) 너무 세서 도수를 넘으면 큰일난다구. 통일교회의 온갖 오쿠상들이 선생님을 찾

아온다구요. ‘선생님!’ ‘뭐야?’ ‘우리 남편이 큰일입니다.’ ‘뭐가 큰일이야?’ 밤일이 말이에요, 밤에 하는 일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느 정도야?’ 하룻밤에 여섯 번이나 한다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선생님도 배우려고 했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참부모

그것을 배워도 큰일이지요? (웃음) 그거 한번 보고 싶다고요, 데리고 와서. 그렇게 데리고 와서 ‘해봐라, 죽는지!’ 물어 보고 싶어요. 너는 어때? 죽어? (웃음) 결혼해서 석 달만 지나면 이것은 뼈, 뼈밖에 안 남아요. (웃음) 한 달 이상만 되면 죽으니까 ‘제발 한마디해 주세요!’ 해서 말이에요, 선생님이 한마디를 해주었더니 두 부부가 선물을 들고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더라구요. 통일교회는 그렇게 훌륭한 데가 있단구요.

선생님이 뭐예요? 자기의 부모나 남편한테도 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척척척 배후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말이에요, 모든 여자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쁘게 났단구요. 너도 선생님을 좋아해? 남편이 알면 ‘이런 바보 같은 여자가 어디에 있느냐?’ 한단구요. 못된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늘적인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접붙여 주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선생님은 뭐... 오늘은 바쁜 날이에요. 오늘 사진도 찍어 주어야 되지요? 사진을 찍는 것도 큰일이라구요. 6시 반에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상과울루의 회의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쁜 선생님, 팔십이 넘은 노인을 세워 놓고 말씀은 시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남자와 여자들이 미래의 효자와 효녀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두 유 언더스탠드 파더스 토킹 콘텐츠(Do you understand father's talking contents;파더의 말씀 내용을 알겠어)? 일본 사람이 아니야? 얼굴이 다르다구. 왜 그래? 「오키나와에서 왔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왔어? 왜 남편한테 일본말을 안 가르쳐 주었어? 아직 가정 생활 출발 안 했어? 영어가 어려워? 일본말을 가르쳐 주면 좋다구, 일본 말. 밥 먹을 때 밥이면 밥이라고 하지? 손가락을 가지고 ‘이것은 손가락’이라고 하고 말이에요, 젓가락을 가지고 젓가락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지? ‘이것은 눈입니다. 눈, 눈, 눈! 이것은 코입니다.’ 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다구요.

키스를 할 때 코가 문제입니다. 서구 사람들은 코가 너무 크기 때문에 키스를 할 때 방해가 됩니다. 그럴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요! 그것은 죽어도 싫다고 합니다. 왜냐? 사랑이 없는 곳에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남자들, 생각해 두라구요. 좋은 것을 언제든지 원하지요?

너는 너무 힘이 센 남자라구. 여자한테 너무 순종하라고만 하면 안 된다구. 너 이상으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너 무 명령만 하면 안 된다구. 오늘부터 반대 명령을 하라구. (웃음) 왜 웃어? 히히히, 그게 뭐야? 알겠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가난하더라도 좋을 수 있는 일이 있지요? 아들딸을 낳으면 사랑하는 심정을 생각해서 ‘좋은 일이 있고 말고!’, 오쿠상이 있으면 오쿠상을 생각하면서 ‘좋은 일이 있고 말고!’, 부모를 생각해서 ‘좋은 일이 있고 말고!’, 집을 생각해서 ‘좋은 일이 있고 말고!’, 이렇게 언제든지 좋은 일이 없을 수 없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계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립니다.

지금 선생님은 세계적인 중심이 되어서 큰일입니다. 일본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중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 척하는 해외 국가의 멤버들이 많이 있다구요. 누구든지

선생님이 찾아가면 모두 다 기어서 도망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차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차 버리고 걱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는 것입니다.

일본이 참부모의 말을 들으면 세계 제일의 국가가 돼

누구든지 현금해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일생동안 현금... 선생님의 포켓에는 한푼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지금이라도 상파울루에 가면 세계적인 평화회의를 열게 되는 거예요. 돈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지배 하에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 국가한테 하라고 하면 국가가 망하고, 세계한테 하라고 하면 세계가 망합니다.

모두 다 도망갈 수 있는 입장에 서더라도 선생님은 당당하게 밀어붙여 나왔기 때문에 말이에요, 선생님 뒤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선문대학이나 브리지포트 대학을 부도 직전에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중심삼고 33개국의 교육도 믿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라구요. 그것이 실패했느냐 하면 실패가 아닙니다. 심각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결심하여 이루는 그 영향은 천주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념이 필요하다고요, 신념.

일본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계 제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소련과 중국에 점령당해서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중국이 규슈와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북해도는 소련이 점령하고, 본섬(혼슈)은 미국이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대전의 패전국가로서 변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선생님이 도와주었다고요.

선생님이 일본을 지키려고 고생했습니다. 일본 천황뿐만 아니라 어

는 누구보다도 고생한 사람입니다. 나카소네를 지도한 사람도 선생님이고, 후쿠타를 지도한 사람도 선생님이예요. 그것을 정계의 고위층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자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나카소네를 불러서 ‘이 녀석, 잔소리하지 말고 들어!’ 해 가지고 두 시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나카소네가 훌륭한 것이 무엇이나? 선생님이 ‘네가 이랬으면 좋았을 것이다.’ 했더니,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일본의 희망적인 날이었습니다.’ 하면서 큰소리로 외쳤다고 하는 보고를 선생님이 듣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들은 대로 하면 일본에 나쁘지 않을 거라구요.

지금 영계로부터 그렇지요? 기시, 후쿠타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나카소네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카소네(中曾根)는 넘버원이 아닙니다. 중간이기 때문에 살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나카소네입니다. 최고를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지요?

후쿠타(福田)는 일본에 복의 받을 일군다는 말입니다. 후쿠타가 수상이 되면 구보키 회장을 부수상으로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밀어 준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일본이 해와 국가로 서야 되는 이유

여러분은 일본이 해와 국가로 등장한다는 것을 몰랐지요? 아시아에서 일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서양 문명이 들어오는 문이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탄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에요... 거꾸로 돌게 되면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머리가 됩니다. 그러니

까 영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양의 일본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서양이 무너졌기 때문에 동양을 중심삼고 해와 국가를 선생님이 세웠습니다.

본래의 해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을 중심삼고 다시 해와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와 국가를 세웠다고 해서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망진창이에요, 영망진창.

그래서 선생님이 16만 명 이상, 17만 명에 가까운 여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래, 모두 다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생님이 명령하면 언제든지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저금통장까지 가지고 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약속했다구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약속을 지키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보따리를 싸 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다구요.

섬 여자들 가운데 그런 여자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고기를 잡으러 간 남편이 만선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저녁에 나가 보니까 죽어버린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친구들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첩으로 삼아도 좋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은 한 남자의 첩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명문대가의 딸이 수상이나 장관의 첩이 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귀가 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이 택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처보다는 첩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근대 역사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는 전통적인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위법적인 사랑의 아들딸로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부부의 사이보다 사랑이 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양 남자는 동양 여자, 동양 여자는 서양 남자와 극과 극으

로 만나기 때문에 미국 남자들은 동양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 여자들은 서양 남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도둑질을 한 돈 보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통일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못 그러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여자들도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구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절대유일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천국은 틀림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영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본향의 모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원형이라구요.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원한 사망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싫더라도 맞추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겨운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싫은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일본 전체가 전부 다 반대로 가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로 간다면 통일교회가 필요 없지요? 통일의 '통(統)'이라는 것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말은 끌어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무력이 아닙니다. 수완이 아닌 것입니다. 외교적인 힘,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이 아니지요? 본연적인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으로 자연굴복을 시켜서 따라오게끔 지도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선생님입니다.

타락의 여자들의 해방은 복귀 완성한 남자가 다리 놓아 줘야

일본 여자들 가운데 선생님을 자기 남편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구요. 16만, 17만에 가까운 여자들을 교육했는데, 선생님이

못된 남자였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었다구요. 밤마다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었다구요. 그러지 않고 누이동생으로서 말이에요, 내 큰딸이나 작은딸로서 앞으로 훌륭한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여왕이 될 수 있게끔 교육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백 퍼센트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구요.

미국 여자들 가운데서도 선생님을 유혹한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의 학생 시절에 일본 여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찾아와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선생님이 벌거벗고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어 들어와서 ‘남자가 뭐요? 5분도 시간을 못 내서 생사를 건 여자의 희망을 들어 주지 못하는 남자라면 부끄러운 남자가 아니요?’ 하는 그러한 여자를 훈시를 해서 돌려보낸 그 때를 지금도 잊을 수 없대구요.

선생님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선생님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그러한 이름이 붙은 잡스러운 남자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통일교회 교주가 못 되었을 것입니다. 여자, 돈, 권력으로 사방팔방에서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적으로 시험해 보아 가지고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일교회 교주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배후에서 도와주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선생님은 위대한 남자입니다. 내 자신의 몸을 컨트롤해요. 아무리 벌거벗고 유혹하더라도 성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까지 했습니다. 미인이 벌거벗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제로(zero)가 되는 거예요, 제로. 무서운 말이라구요. 생각해 보라구요. 하나님이 타락한 여자와 실제적으로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해 볼 때, 아이구!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고기가 썩는 냄새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연결하는 데는 말이에요, 누가 다리를 놓아요? 복귀되어

서 완전한 남자가 다리를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대부터 10대까지 전부 다 물고기 껍데기같이 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통하면 참사랑의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죄가 된다구요. 그러니까 누이동생처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복귀의 노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선생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지쳐서 못 따라갈 정도의 경지까지 넘어서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통일교회 여자들 가운데도 선생님을 유혹한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자들은 광야에서 6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독수리 밥이 되어서 죽어 간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찢어서 독수리한테 던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마지막의 최후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복귀시키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손을 뻗쳐 나온 선생님의 일생입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반대하던 수상들이나 공산당 패들을 전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대변에 잊어버려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 축복해 준 거라구요. 이전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축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아들딸 이상으로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탄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다고요.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자리에 나가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15년 전에 참부모는 문선생이라고 일본 열도가 떠들썩하게끔 외치라고 했지요?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안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해와의 운명이 날아가는 거라구요. 발판이 전부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알고 있다고 해서 뭘 해요? 일본열도가 날

아가는 거예요. 패전의 변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4개국을 찾아가서 달을 쳐다보면서 올 수 있는 여자들을 해방해 주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이 받은 은혜

일본을 해와 국가로 택해 세웠기 때문에 말이에요... 독일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이 세계적인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을 선교사로서 120명을 보냈습니다. 하나되라고 한 거예요, 하나되라고 희생하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통일교회에서 일본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내가 아벨이다.’ 하는데, 일본의 교육 전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대변에 들어오면 아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거라구요. 가인을 키워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고개를 넘어가지 않으면 아벨이라는 이름이 정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통일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원리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아벨을 모셔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완전히 180도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어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희생하고 봉사해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인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 생활하는 이상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림자도 없이 깨끗이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위에서라도... 모든 부모들을 아들딸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어떻게 세워 주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언들 가운데 일본이 36년 동안 지배한 다음에 8월 15일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면서 그 날짜까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겁내지 않았다고요. 한국 여자들은 열녀로서 정조를 절대시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과 교차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창녀와 같은 여자가 귀한 집의 귀공자와 같은 남자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니까 문선생한테 감사에 감사를 후지산보다 몇십 배 더 높이 쌓더라도 부족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서서 방귀 냄새만 풍기고 있다구요.

일본 여자들! 일본이 지금 뭐라고 할까, 고개를 넘을 수 있느냐, 못 넘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느냐, 못 올라가느냐? 거의 정상에 다 올라갔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발을 잘못 디디서 넘어지면 역사에 그림자도 없어지는 거라고요. 옷을 잘 입는다고 자랑하지 말고, 저금통장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 집, 그 나라가 날아간다구요.

이번에 축복기금도 낸다고 해놓고 내지 않았어요. 9월중에 1만6천 달러를 현금하고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구요. 이전에 미납한 사람들은 그 이상 보태서 현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선생님한테 현금하는 것이 아니라 복귀시대의 중심자들이 다하지 못한 책임을 해방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에 의해서 모두 다 해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조건적인 해방권을,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완성시대의 4단계 해방을... 4단계라고요, 4단계.

구약시대에는 만물을 제물로 바쳤고, 신약시대에는 아들딸을 희생했고, 성약시대에는 부모님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성진님의 어머니와 헤어졌다구요. 부모님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일본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구요. 그 살을 사시미(刺身)로 해주더라도 먹고 싶지

않을 해와한테 희망을 걸고 지금까지 이려고 있다구요.

참가정 이상 귀한 것이 없다

이 수련회는 일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 사람들은 결다리라고요. 해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축복가정을 제물로 삼아서 선생님이 영계를 해방하고, 인류를 해방하고, 만물을 해방하고, 바다까지 내려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선생님이 영계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도 사랑해서 하나로 전부 다 연결하는 것이지요. 알겠어요?

여기에 천주 메시아, 국가 메시아, 가정 메시아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묶어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대신해서 탕감복귀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정착하는 것이 타락한 인류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그 전제가 되어 있다구요, 일본 나라가. 일본 나라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룻밤에 복귀될 수 있습니다. 천황으로부터, 국가의 관리들로부터 전부 다...

일본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각해 볼 때, 문선생이 제창하는 평화가정 이상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천황이 가는 방향에 보조를 맞추어서 며칠 몇 시에 통일교회의 목사들로부터 축복을 받아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면 먼저 천황이 축복을 받고 사흘 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천황이 대신 하여 전국민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2차대전 후에는 기독교 문화권을 이루어서 미국을 중심삼고 원 네이션 언더 갓(One Nation under God)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구요. 대번에 선생님이 원 월드 언더 갓(One World under God)으로 바꾸어서 죽은 미국을 부활시켜 가지고 사랑의 세계에 연결하려고 했

는데, 오히려 선생님을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구교와 신교가 장자와 차자로서 하나되어 가지고 선생님을 모셨더라면 천하통일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통일되었더라면, 나머지는 3년도 안 갔을 것입니다. 6개월 이내에 전부 다 깨끗이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우주·천주의 모든 구상이 분명한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영계로부터 지상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요, 믿어요? 믿어, 알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구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와카루(分る;알다)라는 것이 구체적이라구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물을 와케테(分けて;쪼개서)… 사탄편과 하나님 편으로 쪼갰 것입니다. 오른쪽은 하나님, 왼쪽은 사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려서 사탄이 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천하가 동서로, 남북으로, 그리고 빈부로 갈라진 모든 것이 하나되는 것도 사랑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남북통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것은 소련,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 이들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이들이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하나되면 자동적으로 통일세계가 이루어 집니다.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던 선생님이 광야로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선생님에게 있어서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전부 다 원수라구요. 일본을 뭐라고 해요? 무슨 축국이라구요. 뭐라고 해요? 연합국, 추축국? ‘추축’이라는 것은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먼저 취하는 거에

요.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이론은 지상천국에 있어요. 천황의 만세일계(萬世一系)도 하나님의 전통입니다.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御神; 해의 여신)를 숭상하는 일본은 여자의 나라입니다. 그 여자가 악마의 여자라구요.

진무텐노우(神武天皇)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권좌에서 쫓겨갔다구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 후손들이 복수를 해야 된다고요. 백제에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민족의 뿌리는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지요? 왕족이 망해서 도망을 가 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일제시대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거짓 국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남을지 두고 보라구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틀림없는 정통의 길을 따라가면 남아지게 되어 있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

모든 좋은 것, 놀라운 것, 희망이 있는 것, 그리고 바람직스러운 것은 사랑이 없는 데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지옥은 사랑의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싹이 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되면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본래부터 위하여 생겨난 우주인데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번에 수련을 받은 사람들은 일본에 돌아가면 선생님 사진 앞에 매일 경배해야 됩니다. 조상들과 더불어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영계도 축복받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계에서 '이 녀석!' 하면서 당한다구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사람, 손 들어 봐요! 그런 것을 원하면 말이에요, 언제나 사랑의 심정을 가

지고 있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가도 없어집니다.

생각해 보라구요. 그러니까 ‘의(義)’ 자에도 ‘양(羊)’이 들어가 있고, ‘선(善)’ 자에도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美)’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희생의 제물입니다. 소, 양, 그리고 비둘기가 제물입니다. 유대나라에서 그것들을 들로 쪼개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스라엘도 선한 이스라엘과 악한 이스라엘의 들로 갈라졌지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한테 뭐라고 했대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갔지요? 낙원에 예수님이 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익과 좌익이 생겼는데, 좌익은 무신론을 주장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국가가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2차대전 때의 히틀러와 공산주의자였던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히틀러가 학살한 유대인들이 6백만이 아니었다구요. 6백만 이상, 620만을 학살했습니다. 스탈린은 1억 7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런 것을 선생님이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구요. 어린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를 품고 10분, 20분도 입을 맞추고 싶지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너, 아들딸을 낳았어? 「예.» 그런 생각을 해? 선생님은 아들딸을 낳아 보지 못해서 모르겠으니까 너한테 배우자구!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희망도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백 퍼센트, 천 퍼센트 사랑하면 죽을 경지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너는 그 만큼 남편을 사랑해? 남편을 대해서 그러한 사랑의 체휼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명령에 아내는 절대복종, 형의 명령에 동생은 절대복종, 부모의 명령에 아들딸은 절대복종,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가족들이 절대복종하는 데 있어서 사랑은 아무런 상처도 없이 그대로 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옥토에서 나무가 잘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알겠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데는 희망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사랑의 마음과 관심이 없으면 인연이 맺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혼독회의 제목은 죽음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지 않으면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죽음의 경지를 초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타락권을 넘어서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다는 말이지요? 영계에 희망이 있으면 죽는다는 것도 사랑을 가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에서는 장례식을 뭐라고 그래요? 「승화식입니다.」 승화식, 승화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방과제를 대번에 돌파해서 승화해 가는 거예요.

세계 통일을 위해 3대국의 경제권을 쥐어 약소국을 해방해야

선생님이 영계를 몰랐더라면 지금까지 못 살았을 거라구요. 선생님은 죽음 같은 것에 대해서 틀림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려고 있습니다. 지금도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패잔병이 되어서 국가(國歌)를 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만 부르고 있으면 지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를 가르쳐 주어 가지고 끌고 가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 가지고 선생님의 눈으로 일본을 보라구요. 앞으로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고요. 벌써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굴러 내려가는 것 같은데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선생님마저 포기해 버리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세 딸을 세워 주었지요? 대만, 캐나다 그리고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통일교회에 대이동을 명령할지 모릅니다. 다른 딸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와 국가인 일본의 모든 것이 날아갑니다.

한국의 예언자들이 틀림없이 가르쳐 주었어요.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남사고(南師古)의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예언서를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선생님이 그대로 하고 있더라구요. 선생님 자신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천주가 걸려 있다는 것이 신켄(眞劍:심각)…!

일본도(日本刀)를 신켄(神劍;신에게서 받은 신묘한 칼)이라고 합니다. 신켄(神劍)을 가지고 신켄니(眞劍に;심각하게) 잘라 버려야 할 일본이 될 것이냐, 신켄(神劍)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일본이 될 것이냐? 어느 쪽이에요? 「신켄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일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비행기 회사를 만들었다구요. 세계 최고의 기계기술을 점령한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비행기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때문에 다 날아간 거예요. 일본 때문에 한국의 통일중공업 공장도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한 일본을 남겨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과 독일입니다. 그 3개국의 경제를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점령할 계획을 빈틈없이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선생님이 80퍼센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세계의 은행에 있는 돈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기 위해서는 180개국의 총리를 비롯한 지도자들을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약소국의 국민들이라고 해서 열강들로부터 언제나 당하고 있지요? 그것을 보호하는 참부모입니다. 약한 자들이 전부 다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방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서국가 연합을 만들었지요? 반도국가연합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 유엔도 만드는 것입니다. 유엔은 국가의 형태가 아닙니다. 외교단체로서 정치적인 일면밖에 없습니다.

그 유엔에 종교 유엔, 마음편의 유엔이 없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유엔, 여자의 유엔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유엔은 선생님이 장자, 가인의 유엔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관리하지 않으면 깨져 버립니다. 몸과 마음의 통일! 몸과 마음이 갈라져서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카프(CARP; 전국대학원리연구회)를 중심삼고 학생연합과 청년연합을 조직했습니다. 청년연합은 30세부터 55세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이 세계의 기반으로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축복권에 휘말리는데, 그 축복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녀와 더불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수련회는 사위기대 수련회입니다. 완성의 날인을 받아야 돼요, 날인. 지금까지 부모가 자녀와 더불어 교육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가정과 자녀, 2세의 가정이 횡적으로 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이지요? 1998년 9월 8일, 그 숫자를 전부 다 합하면 44수입니다. 9수는 사탄 수입입니다. 8수는 재출발수입니다. 9수를 중심삼고 8수가 양쪽에 있어서 19의 1과 9를 합하면 20이 되지요? 그렇게 그 모든 수를 합하면 44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 가정의

사위기대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딸과 더불어 살 수 있게끔 4:4의 기대가 완성된 것입니다.

일본은 어머니로서 선교지로 나가 아들딸들을 교육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에 돌아가면 보따리를 싸 가지고 선교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어머니로서는 아들딸을 그들의 환경 가운데서 키워 주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그 환경을 배우고 말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딸을 교육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여자가 단대(短大)라도 졸업하지 않으면 시집을 못 가지요? 여자가 시집을 가는데 단대도 졸업을 못 했으면 대학을 졸업한 남자의 상대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단대, 단대, 단대... 4년은 너무 길어서 나이가 들면 올드 미스가 되어 가지고 결혼 적령기를 넘기기 때문에 부모들은 모두 다 단다이(短大), 단다이, 단다이... 단다이가 무엇이나 하면 모가지를 자르는 데를 말합니다. 그것을 단다이(斷臺)라고 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단다이를 졸업하면 모가지를 자르는 것처럼 시집을 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에 흩어져서 아들딸을 재교육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어머니, 선교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0개 국가에 120명씩의 선교사들을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족적 메시아로서 열두 명씩을 보냈는데, 일본은 120명씩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의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일본 나라의 전통이 아니라구요. 아버지의 전통, 왕권의 전통, 천국의 전통을 장녀로서, 어머니로서, 여왕으로서 그 나라에 심어 주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국민으

로서 천국과 통할 수 있는 지상천국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금통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몸을 쪼개 주면서 아들딸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입장이라구요.

그러니까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결혼을 시켜서 훌륭한 천국의 국민이 될 때까지 키워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본의 시메이(使命)라구요. 시메이, 시메이, 시메이! 시메이를 거꾸로 한 메이시(名士)가 아닙니다. 선생님도 메이시라고 하지요? 시메이라구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일본 자체가 없어진다고요. 구주(九州)가 뭐예요? 9수는 사탄 수라구요. 그리고 홋카이도의 '도'라는 이름은 한국의 것입니다. 오슈(奥州;동북지방)가 뭐예요?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안방을 오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자랑할 만한 이름이 아니라구요.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일본(日本), 해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이름과 일장기가 일치합니다.

일본, 해의 근본이 뭐예요? 사랑의 근본이 어머니인 것처럼 태양은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정말 그래요? 아침해가 떠오르면 모든 싹들은 그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섬나라인데 앞으로 살아 나갈 길이 없잖아요? 모든 싹들에 대한 해의 근본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어머니가 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부모 앞에 절대복종하라

일본은 돈을 쓸 줄 모릅니다. 그 돈을 가슴에 품고 누구한테 맡기면 좋을지 몰라서 안달입니다. 돈 쓸 줄을 몰라요. 돈 쓰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챔피언이 문선생입니다. 지상천국을 전부 다 사 버리는 것입니

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그물로 몰아서 만년 이내에 교육하는 거라구요. 불쌍한 여자들의 돈을 가지고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못된 선생님이 아닙니다. 한푼이라도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 빚쟁이 중에서도 왕 빚쟁이로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면 저금통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못된 여자!’ 하면서 참소할 것입니다. 제일 못된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일본말로? 아쿠쵸(惡女)? 화장터까지 돈을 가지고 갈 거예요? 선생님은 오빠라구요. 약혼한 남편입니다. 에텐 동산에서의 아담과 해와와 마찬가지로. 네 색시아? (웃음) 나는 또 첩으로 얻은 줄 알았네! 기분이 좋아서 이러고 있어니까... 알겠어? 「예.」

선생님이 올 때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왔다고요. 참사랑을 가지고 와서 여자를 절대 복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선생님의 책임입니다. 여자들, 선생님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요? 저금통장을 숨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나니아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지고 절반을 숨겼기 때문에 당장에 그 부부가 둘 다 화장터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요? 그 아나니아 부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이름만의 남편이 아니라구요. 천주의 역사 이전부터 희망의 꽃으로 맞이했어야 할 남편이라고요. 남편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입니다. 이 땅 위에는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왕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지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전환해서 전부 다 상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뭘 주저해요? 잇신후란(一心不亂)!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금통장을 숨겨 놓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도망가기 시작한다고요. 그것은 이혼의 준비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아이 엠 에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1조2천억의 저금이 휴지조각이 되는 거라구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지요? 그 이전에 선생님을 통해서 남미에 땅을 사 놓은 거라구요. 그곳의 13개 국가를 사고도 남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 땅 한

평을 팔면 여기서 2백50 평을 살 수 있다구요. 열 평을 팔면 2천5백 평입니다. 백 평이면 2만 5천 평입니다.

미래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책

앞으로 생각해 보라구요. 장래 인류의 식량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바다밖에 없대구요. 여러분이 국가 메시아를 중심삼고 ‘판타날, 판타날, 판타날!’ 하고 판타날을 외치고, 꿈속에서도 ‘판타날, 판타날, 판타날...’ 할 만큼 계속하라구요. 그렇게 미쳐서 돌아가 가지고 전도해서 해마다 데리고 오라구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낚시의 매력이라는 것은 도박보다 무서운 거예요. 도박을 하던 사람이 물고기에 끌리게 되면 그 도박을 그만두고 낚시를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남편이 하는 도박을 그만두게 할 수 없어서 걱정하는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주일 정도 낚시를 갔다 오게 하면 그것에 홀려서 도박장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오쿠상이 있는데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본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도박장에 가도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돌릴 수 없는 거라구요.

물고기는 한 마리가 3백 개 이상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도라도의 알을 보면 잿더미같이 보입니다. 무진장이라구요. 그러니까 4평의 양식장을 만들면 1년에 1톤에서 3톤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40평이면 열 배지요? 한 집에서 물고기 10톤을 먹을 수 있어요? 날마다 밥알은 하나도 안 먹고 회만 해서 먹어도 일본 사람들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밥을 잊어버릴 거라구요. 접시까지 훑아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도 썩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단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가 잘 썩는데, 그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먹을수

록 건강체가 된다구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됩니다.

지금 그렇지요? 비싼 물고기들은 70퍼센트를 일본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것을 값싸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양식하는 것을 교육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본 가정들을 데리고 와서 세계평화 뭐라구요? 이상가정교육본부로서... 뭘 하러 여기에 와요? 여기서 수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과 국가를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은 안 하기 때문

여러분은 가정적인 메시아입니다. 선생님은 세계적인 메시아도 되고 천주적인 메시아도 되는 거라구요. 세계적인 메시아, 국가적인 메시아, 종족적인 메시아, 그리고 가정적인 메시아가 타락하지 않은 본향 땅에서 일렬횡대를 이루어 가지고 그것을 확대하여 전인류가 한 줄로 설 수 있게 되면, 종족 편성과 민족 편성은 아사메시마에(朝飯前; 아주 쉬움), 레이메이메시마에(黎明飯前), 마요나카메시마에(眞夜中飯前)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생기는 거라구요.

남미에서도 선생님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선생님이 가면 서로 '문선생님, 환영합니다!' 해서 말이에요, 동서남북의 모든 문을 다 열어제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는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제와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천국과 통할 수 있는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라구요. 그 가르침은 천하의 어느 누구도 미치지 못하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제1 창조주, 아담은 제2 창조주, 그리고 아담의 아들딸은 제3 창조주입니다. 제3 창조주는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할 아담의 아들딸이 되

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사랑을 받아 본 적이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완료한 것이 44절의 발표입니다. 아담 가정도 사위기대, 아 들딸도 사위기대... 알겠어요?

그 사위기대가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거하게 됨과 더불어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원리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인간이 바라는 희망 중의 희망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 바보로 취급하지만, 일단 알게 된 사람은 그렇게 이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것은 인간이 안 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있지요?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이 여자에게 있고 남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왜 여기에 혼자 앉아 있어요? (웃음) 남편과 함께 앉아 있으면 좋을 것인데. 이러면 서로 마주보면서 좋아할 텐데, 왜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느냐 이 거예요. 알겠어? 「예.」

훌륭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숙명

누구든지 훌륭한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숙명입니다. 숙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죽어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도 이루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것이 부자관계, 그리고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둘밖에 없으니까 갈라질 수 없잖아요? 헤어진다는 것은 제3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3자가 없습니다.

레벨이 다르다구요. 종밖에 없어요, 종. 종과 사랑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숙명적인 것은 부자관계,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변하지 않는 사랑 전통을 천년 만년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 이론적입니다. 그거 인정해요? 인정하느냐고 물어 보잖아? 「예.」

제1 선언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제2 선언은 절대·유일·불변·영원의 부자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가정관계입니다. 제3 선언은 소생 창조주는 하나님, 장성 창조주는 아담과 해와, 완성 창조주는 아담 해와의 아들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대신, 부부의 대신으로 영원한 창조주로서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근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해서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어요? 여러분이 해요?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고 하라고 해도 못 하는 것입니다. 사탄보고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아벨을 망하게 하면 자기도 망하는 거라구요. 아벨을 죽이면 자기도 죽는 거라구요, 하나님에 의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끝날에 세계가 버려지게 되면 사탄도 손들고 ‘재림주님, 잘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밤낮으로 찾아와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라구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붙어 있는 파리는 부산에서 도쿄까지 가고 말이에요, 지구를 몇 바퀴 돌더라도 같이 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에는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으라구요. 선생님의 허리띠를 붙들고 팔이 끊어지더라도 놓겠다는 생각은 꿈속에서도 하지 말라구요. 문선생이 이루어 놓은 실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은 몇 천만 년을 노력해도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 민족도 몇천만 년을 노력해도 닦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닦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동대(東大; 도쿄대)를 졸업한 사람 있어요? 손 들어 봐요! 동대! 뭐 도다이(東大)를 졸업한 사람은 없구만! 도다이(燈臺; 등대)는 밤에 필요한 것이지 이와 같은 낮 시간에는 필요 없어요. (웃음) 그러니까 방해물이에요, 방해물. 알겠어요?

조심하라구요!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잘 보았어요? 잘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씨름을 하지요? 승패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느냐, 네가 이기느냐 하고 말이에요. 지면 모든 것을 넘겨주지요? 선생님한테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참부모는 사랑의 정복자

자, 선생님하고 씨름하게 된다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집니다.» 이 녀석아, 지기는 왜 져? 팔십 노인한테 진다면 말이 돼? ‘힘으로는 이기지만 정신적으로는 집니다.’ 하면 말이 돼. 그러면 절반은 같잖아? 그래, 힘으로만 하면 선생님을 이기겠지? 뭐 그렇지? 산에 올라갈 때 선생님보다 앞서겠어, 뒤떨어지겠어? 「앞서 가겠습니다.» 그걸 이제 알아, 이 녀석아? (웃음)

시험을 치려면 양면을 다 보고 사방을 바라보고 맞게 써야지, 선생님 성격을 봐 가지고 시정인 면이 있으면 시 한 구절을 써넣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 이게 생각나서 썼습니다.’ 하면 30점은 그냥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기분에 따라 산다는 기분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씨름해서 이겨야 돼! 「예, 알겠습니다.» 판타날로 오라구. 고기 잡는 것도 나한테 이겨야 된다 그 말이야. 알겠어? 「알겠습니다.»

내가 낚싯대 열두 개를 놓고 하루종일 찢다 감았다, 찢다 감았다 하는데 이놈의 젊은 녀석들이 뒤에 열 명이나 있고 칠팔 명이 있어도 동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동정하기보다 조는 것이 바빠요. 좋다고 즐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거 고단해서 그래요, 재미있어서 그래요?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눈도 고단하고, 코도 고단하고, 입도 고단하고, 손도 고단하고, 사지가 다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종일 배에서 일하면 그렇게 고단해요. 그렇지요? 「예.» 하루종

일 흔들려 봐요. 정신이 정상이 되겠어요? 선생님은 25년 동안 계속해서 탔어요. 배를 25년 탔어요. 그러니까 뭐 배타는 데는 챔피언이지요. 그렇지요? 고기 잡는 데도 꼭 가 보고 낚시질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처끼리 와서 재미있게 놀지만 낚시질은 형편없어요. 그러면 꼭 가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낚시꾼같이 생겼어요? 낚시꾼같이 생겼어요, 씨름꾼같이 생겼어요? 「챔피언같이 생겼습니다.」 챔피언은 무슨 챔피언이야? 무엇같이 생겼느냐고 묻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빵점이야, 이 쌍 거야! 답변을 해놓고 ‘그러니까 챔피언입니다.’ 해야지, 세계 챔피언이라는 말이 통할 게 뭐야? 낚시꾼인가, 씨름꾼인가 물으면 ‘씨름꾼같이 생겼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세계 낚시꾼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중목적을 가진 챔피언, 나는 죽도록 따라가고도 남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놓고 돌아서 가지고 ‘노멘!’ 하는 거야. 노멘의 노는 케이 엔 오 더블유(know)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노는 노인테 영어로 말하게 되면 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니까 노멘!

이 아저씨는 뭐 이렇게... 알겠어? 「예.」 선생님보다 위인 사람, 손 들어 봐요. 선생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손 들어 봐요. 한 마리도 없네! (웃음) 아, 없으니까 한 마리라고 해도 실례가 아니지요. 없으니까 누가 욕할 사람 있어요? 내 마음대로지요.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욕을 해야 돼요. 있다고 할 때는 닦아세우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 빨리 손을 들어야지, 지금에야 손 들어서 선생님이 창피하게 욕을 하게 했으니 전체 앞에 나쁜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잖아?’ 하는 것입니다.

왜 눈을 흘기노? 남편이 손아래라고 눈을 흘기고 있더라구, 이 쌍거야. 몇 시간을 얘기했어요? 「네 시간 하셨습니다.」 그러니 위법자예요? 위법자의 반대는 뭐예요? 정법자예요? 정법이에요, 정복이에요? 위법

자예요, 정복자예요? 아 위법의 반대니까 정복자 아니예요? 정법이 아니라 정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래, 위법자예요, 정복자예요? 정복당했어요, 정복 안 당했어요? 정복당했으면 고마워요. 말없이 순순히 정복됐으니 선물을 줘야 됩니다. 무슨 선물?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보다도 전쟁에서 이긴 물건, 총을 주는 것입니다. 총은 다 좋아하잖아요? 돈도 주고 다 줄 것입니다. 그걸 다 바꾸게 되면, 고맙다고 인사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은 또 뭐야? 기분이 좋다! 아침부터 때리고 다니니까 기분이 좋구만. 이러니까 국가 메시아들은 한번 때려주면 이거 너저분한 것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요? 각쟁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자, 알겠어요? 「예.」 죽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정이 없게 될 때는 죽음의 고개를 넘어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대답을 하라구요. 있다든가, 없다든가. 그래야 내가 끝을 낼 것 아니예요? 없다, 있다? 나 모르겠다! 「없다!」 그러고 나서는 '나 모르겠다!' 해야 돼요. 그래야 답변이 백 점이 되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윤박사! 「예.」 죽음에 대해서 미련이 있어? 여편네 팔아 가지고 뭘 할거야? 아, 팔라고 하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복종이니까. 여편네 팔아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거야. 복종해야 되니까 그거 통해야 될 것 아니야? 뭘 할 거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집을 보내야 돼. 젊어서 시집 못 가 보지 않았어? 시집을 보내야 된다고요. 영계에 시집보내겠다고 해야 되는 거야. 훌륭한 젊은 남편을 찾아서 시집을 보낸다는 거야. 그것이 소원 아니야? 안 그래요? 육십이 넘어서 결혼했나?

육십이 넘어 결혼하지 않았어? 「예.」 내가 수련소에 있을 때, 데려다가 이렇게 맡겨 주지 않았어? 「예순 다섯에 했습니다.」 아, 글썄 그러니까. 예순 다섯인지, 나 그거 모르겠어.

얼마나 선생님한테 복종했으면 오라고 하니깐 따라와 가지고 이게 난생 처음 본 보기 싫은 이 사람하고 결혼해 준 거야. 미남도 아니라고. 제멋대로 생긴 사나이지만 말이야. 내가 이래 가지고 ‘너 이의 없이 결혼해라.’ 한 거야. 그래, 그러길 잘했어, 못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기숙사 사감 선생이 감사인데 말이야. 거꾸로 하면 사감은 감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 좋은 신랑 얻어 줘야 된다고. 알겠어? 「예.」 좋은 신랑 얻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빼가 있는 말입니다. 윤박사님, 아시겠어요? 아시겠느냐 말ियो. 그거 준비하라구. 선생님은 틀림없어요.

참부모로서 진리를 알아 체험하고 분석해서 틀림없으니 가르친다

자, 죽음에 대한 미련, 관심을... 선생님은 그래요.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어머니한테 요즈음은 영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요. 어머니는 선생님의 비밀을 알아요. 뭘 하느냐 하면 말ियो요, 밤에 잘 때 희의를 많이 하는데 일본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들어 보면 그거 다음날 하는 놀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영계가 이렇다는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영계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치를 가지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통일교회 문선생이 위대한 것이 그거예요. 이런 방대한 세계를 알고 나서 진리를 수습했고, 진리가 그런가 안 그런가 체험을 하고 분석하고 정리해 가지고 틀림없기 때문에, 몸 마음이 안정의 자리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참부모는 그

래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계를 통하는 도인들, 누구 할 것 없이 다 선생님한테 다 배워야 됩니다. 미국의 신령협회 회장 되는 아서 포드라는 사람을 만나서 대번에 말해 보니까 백 배 사례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더라구요. ‘만날 수 없는 스승을 만났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물어 볼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물어 봤어요. ‘당신이 영계에 들어갔을 때, 이러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을 아느냐?’ 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완전히 굴복한 것입니다. 그런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 메시아들도 선생님이 무서울 때가 있지요? 송영석! 선생님 무서워? 「좋습니다.」 좋지만 무서운 게 많아, 좋은 게 많아? 「좋은 것도 많고 무서운 것도 많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50점도 못 돼, 이 녀석아! 무서운 것이 많아, 좋은 것이 많아? 어떻게 답변할 거야? 「좋은 것이 80퍼센트고 무서운 것이 20퍼센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송영석을 모셔야 되겠네. 선생님이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어요, 안 무서워하겠어요? 「좋아하시는 점도 많고…」 아 글썽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야? ‘좋아하겠어, 무서워하겠어?’ 하는 질문에 답을 했으면 송영석이 나를 무서워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하나님을 좋아하겠느냐고 물어 볼 때 ‘같습니다.’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거 못 하게 된다면 선생님의 아들딸이 못 되고, 상속받을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지만 말하는 것을 보면 정확합니다. 선생님의 복잡한 얘기도 글로 써 보라구요. 순서가 틀림없습니다. 결론이 딱 맞춰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구조적으로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질서정연합니다.」 질서만 정연해? 내용도 정연하지. 질서는 외적이고 내용은 내적인 것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영계의 상현씨가 얘기하는 것을 전부 다 가르쳐 줘어

요. 그걸 선생님이 지혜 가지고 했겠어요, 모르고 했겠어요?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아버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지혜만 가지고 되나? 보지 않고 모르는데 지혜 가지고 되나? 지혜가 있어도 아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복귀의 길은 찾아가고 원리의 길은 밟아 가야

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미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승화, 승화,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식 할 때의 승화예요. 성화가 아니라 승화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승화.

자, 그런 것을 선생님이 잘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잘 만드셨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앞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약시대에는 영계의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내가 상헌씨 이상의 것을 다 기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살아서 그런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지, 누가 듣질 않아요.

상헌씨는 통일교 식구들이 누구나 다 존경하고 학계에서도 지성인들의 인정을 받고 세계 학자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하던 분이예요. 학자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못 하던 내용이 다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말씀은 원리 말씀 가지고 다 답변했는데, 영계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상헌씨도 선생님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여러 번 읽지 않았어요.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내용대로 딱 맞아요. 삼대 상목적이니 무슨 사위기대니 대상이니, 수수작용이니 만유원력이니 전부 맞다구요. 그건 원리 말씀에 있는 것들입니다. 천상세계에 가서 알아보니 그것 아니면 풀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풀 도리가 없다는 것

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손뼉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하나님도 원리의 길을 밟아 가야 됩니다. 복귀의 길은 찾아가는 것이요, 원리의 길은 밟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리의 길을 밟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원리를 찾아 가지고 밟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더욱이나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구정물, 장마통에 나온 구정물로 채워져 있어요. 사람 몸의 4분의 3이 물이에요. 그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정수예요, 탁수예요? 그 물을 걸러 보면 깨끗한 물로 몇 퍼센트나 합격되겠어요? 여과기를 통해서 걸러야 됩니다. 또 피도 그렇고, 살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오관을 전부 다 여과시켜야 됩니다.

말씀은 여과장치와 마찬가지로

선생님 말씀은 여과장치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냥 그대로 통과하고 나서 여과장치를 볼 때 기분 나쁘다고 차 버려야 됩니다. ‘내게는 영원히 필요 없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위해서는 말이에요, ‘사탄이 나에게 들어갔더라도 내가 낚을 수 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깨끗한 몸뚱이, 깨끗한 오관을 만들어 가지고 깨끗한 몸과 마음이 통일되어야 해요.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절대 하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해야 할 제일 과제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오관이 전부 다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되어야 할 텐데, 이렇

게 하면 어떻게 돼요?

희망의 내일을 향해 죽음의 고개를 밟고 비약하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절대 부모, 유일 부모, 영원 불변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절대 가정, 유일 가정, 불변 가정, 영원한 가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성에 맞는 모든 내용을 완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더불어 살지어다! 「아멘!」 노멘! 「아멘!」 다 끝났어요.

죽음 길을 기쁨으로 찾아갈 수 있는 대표적 세계의 기록을 갖고 있는 챔피언들이 통일교회의 식구들입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식구입니다. 식구는 핏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예,」 친족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아니라 식구입니다. 거꾸로 하면 구식입니다. 예뎨 동산에 복귀하게 되면 구식이 되는 것입니다. 식구, 구식! 거꾸로 하면 구식이지요? 하나님은 식구라고 하지만 내게는 구식입니다. 그렇잖아요? 반대의 세계예요.

자, 그렇게 알고, 희망의 내일을 향한 죽음의 고개를 밟고 도약할 거예요, 비약할 거예요? 「비약하겠습니다.」 비약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 봐라, 일어서서! 일어서서 발끝만 대고! 그래, 부처끼리 안고 한번 키스해 보라구요. (웃음) 해봐라, 이 쌍것들아! 안 하는 놈들은 벌이야! 키스하는 사람은 복 받을 것입니다. 키스하라구, 이 쌍 것들아! (웃음)

선생님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키스까지 시켰으니 영원히 감사해야지요. 박수로 환영! (박수) (경배) 경배 다 했어? (박수) *

성약시대 축복가정이 가야 할 길

(《지상생활과 영계(下)》 ‘제3장 우리와 영계 입적’ 혼독함) 기분이 어때요? 「 좋습니다.」 여러분이 갈라 가지고 혼독을 하면 다 몰라요. 며칠을 해야 돼요. 몇 주일을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앞쪽에서 한꺼번에 해야 자기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가슴에 남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놀음을 하는 거라구요. 지금 수련이 제3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3회가 귀중한 거예요.

가정수련을 해야 하는 이유

선생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한 발짝 잘못 디디면 일가 일족, 친족을 전부 다 망치고, 한 발짝 잘 디디면 영계의 조상으로부터 현재의 종족, 후대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좌우되는 엄청난 자리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1998년 11월 2일(月),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브라질 자르딘).

* 이 말씀은 세계평화와 이상가정을 위한 제3차 40일 특별 수련회 때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심각한 거라구요. 지금까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적으로 넘어갈 때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실제 대상은 못 돼도 그림자 같은 모양이라도 되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가정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적이예요.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라구요. 여기에서 1차, 2차, 3차까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보다. 해외의 책임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생사지권의 상황에 있어서 이걸 넘겨주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한국까지 해서 부모의 나라가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제부터 내 세계예요. 미국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의 길을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 벌써 1차, 2차, 3차라구요. 그 다음에 4차, 5차, 6차까지 하는데 전부 다 하늘적 부모, 부모의 가정들이 교육받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가정들이 교육받고, 그 다음엔 미국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이예요. 아벨적인 미국이 장자권을 중심삼고 차자권을 교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상으로 볼 때, 부모의 나라 교육, 자녀인 가인 아벨 교육을 해서 완전히 사위기대가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6차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본격적인 자녀시대에 해야 할 일

이게 끝나자마자 이제 본격적인 자녀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인 아벨에게 전통적 교육을 여러분이 보여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땅 끝에서 땅 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기서 시작했지만 돌아가야 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시작한 것이

천국이 될 것인데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져 가지고 이것을 복귀해야 됩니다. 2차대전 이후에 부모님을 모셨으면 7년 이내에 아담 가정을 완전히 탕감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통일교회가 완전히 뒤집었을 거라구요. 그런데 선생님이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상적 파탄, 세계적 파탄, 전체가 파탄된 거예요.

거기에 종족·가정·개인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한국 백성이 전부 다 해방되어 독립할 수 있는 이 기원이 선생님을 중심삼고... 세계로 나갔던 기독교 신자들이 대개 독립운동을 했다구요. 하나되었으면 통일적 전환이 벌어졌을 텐데, 중국 패, 소련 패, 일본 패, 미국 패로 나뉘어서 싸웠어요. 이래 가지고 이것이 연장돼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구요. 그래서 미국 군정이 들어왔지만 갈 길을 몰랐어요. 선생님 말만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의 청년 남녀들이 완전히 일대 교파에 직결되어 정상이 축복받았더라면 세계적 기준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을 쫓아내 가지고 나라의 뿌리까지 뽑혀졌어요. 선생님이 돌아올 때가 되면 뿌리가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전부 다 없다는 거예요. 차 버리면 어디어디에 가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세계적 판도를 닦았기 때문에 전부 돌아와서 여기서 이 갈라진 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재연결해서 개인적, 가정적 기반을 중심삼고 수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종족·민족·국가적 기준도 완성했기 때문에 사탄세계의 가정을 흡수해서 세계의 모든 3억6천만쌍, 30억 인류 이상의 가정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가정적 기준으로 메워 가지고, 하나님이 쫓아내기를 가정으로 쫓아냈으니 가정으로 메워 가지고 고속도로를 닦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선생님이 찾아온 곳이 남미의 이곳이에요. 자르딘하고 판타날이라구요.

이곳은 물과 육지가 연결된 곳이고, 땅 끝이라구요. 땅 끝이 뭐예요?

북극하고 남극이에요. 반대라구요. 한대권 온대권 열대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천주적인 메시아 된 하나님이 임재하고 세계적인 메시아가 되는 재림주가 임재하고, 국가적 메시아, 그 다음에 국가적 메시아 후보,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가 임재하는 거예요. 종족적 메시아 후보가 되는 것이 축복가정이에요. 알겠어요?

축복가정이 종족적 메시아가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은 가정이 전부 다 여기서 수련받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가정적 연합을 중심삼고 패스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수련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에는 제물을 쪼개서 바쳤다고요. 구약시대는 물질시대, 신약시대는 자녀시대, 성약시대는 부모시대예요.

여러분 가정을 중심삼고 보면 물질, 자녀, 부모가 제물이에요. 이것을 전부 다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전부 다 탕감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만물과 자녀와 가정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물시대를 전부 다 탕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세계의 나라나 가정이나 모든 개인이나 마찬가지로요. 나라의 소유도 자기 것이 아니요, 가정의 소유도 자기 것이 아니요, 여러분 자체에 속한 모든 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중심삼고 보게 된다면, 그 나라의 국토가 만물, 그 다음에 백성이 자녀, 왕과 왕후가 부모의 자리예요. 파탄시킨 이것을 쪼개 가지고 바쳐야 됩니다. 선생님의 생애도 비통한 역사가 남아 있다구요.

타락의 혈통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중의 십자가를 져야

아담 가정이 실패한 것, 예수가 국가적 기준에서 실패한 모든 것을

탕감하기 위한 수난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담 가정 이상, 예수 이상 부모가 심정적 십자가를 진 거라구요. 예수는 육적인 십자가를 지면서 피를 흘렸지만, 선생님은 육적 심정세계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 심정적 십자가를 통했는데, 여러분이 모든 혈통문제를 중심삼고 더럽힌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중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혈통복귀가 개인적·가정적·국가적·세계적인 이런 모든 심정적 십자가로 가중되는 데 있어서 왜 통일교회의 문 선생이 복받았느냐 하면, 문선생은 전부 다 여자들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만 들어도 미치고, 어머니가 말씀만 들어도 미치고, 또 자기 아내가 말씀을 들으면 미치고, 또 만딸 작은딸까지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여자라는 패는 문총재를 다 따라간다구요.

여자의 자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왕후까지. 상대이상을 부정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구요. 상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후로부터 할머니, 어머니, 아내, 딸까지 여자라는 여자는 전부 다 선생님 편이에요. 왜? 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상대권이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때를 보게 된다면, 에덴에서 타락할 때에 하나님이 있고, 세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담이 있었어요. 첫번째 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결과를 보면 하나님 앞에 사탄세계가 남고, 아담 완성 대신 타락한 혈통의 거짓 부모가 생겨났어요. 그랬으니 아담 대신 실패한 거짓 부모, 사탄을 어떻게 정비하느냐 이거예요. 천사장의 자리를 다시 내세우기 위해서는 천사장 세계의 상대 조건을 완전히 부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정비해야 돼요. 사탄 자체를 부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 명령에 하나되는 거예요. 남자라는 남자는 세상의 왕이든 왕자든 침 뱉고, 할아버지도 침 뱉

고, 아버지도 침 뱉고, 오빠고 남편이고 다 싫어요. 선생님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자들이 뭐냐 하면 4대 심정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유아시대,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그 날을 중심삼아 가지고 커 가는 거예요. 그래, 4대 심정권인데, 유아의 목적은 결혼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의 소원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가 태어난 것이 불가피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지은 것은 결혼이 목적이예요. 축복이예요. 전체가 걸려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가 일생에 한 번 순간에 행동한 것이 4대 심정권의 모든 것을 유린했다는 거예요. 유아도 하늘나라의 사랑의 자리를 갈 수 없고, 자녀도 갈 수 없고, 남자 여자도 갈 수 없고, 하나님도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섰다는 게 얼마나 비통해요?

이와 같이 남녀문제가 엄청난 일을 일으킨 거예요. 사랑의 본처(本處)인 생식기를 잘못 작동시킨 것이 얼마나 천하를 파탄시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고생시키고, 하나님을 욕정의 자리로 몰아내 가지고 종의 종의 고난, 세상 만사의 예고 없는 고난의 대왕으로 허덕여 나온 것이, 자기 한 날의 사랑의 실수로 파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핏줄을 달리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가정들은 그 이상 무서움을 느껴 가지고 여러분의 핏줄의 전통을 바로 잇는 것이 생사권을, 우주의 모든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 지킬 줄 아는 절대성(性) 시대를 맞이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타락세계를 청산하기 위해 나온 길

그래, 여러분이 통일교회 축복을 받아 가지고 똥 구더기만도 못한 놀음을 해서는 안 되겠다구요. 선생님이 그런 전통을 갖추어 나온 거

예요. 수많은 여자들이 선생님을 유인하려고 했다고요. 학생시대부터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여자들이 죽겠다고 하면서 ‘영계에서 당신이 사랑한다고 해서 이렇게 품어 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반지도 끼워 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그랬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요.

어디 가든지 여자가 문제입니다, 여자가. 거기에서 타락하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이 자는데 이불 안으로 기어 들어온 간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세상으로 말하면 ‘남자가 생사지권을 가지고 죽겠다고 하는 여자의 소원 하나 풀어 주면 되는데, 그런 남자가 어디 있느냐? 5분 이내도 되고, 10분 이내도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어서 ‘당신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그런 세계에서 그 길을 갈 수 없다. 실제로 당신이 해봐라.’ 하고는 몸을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식기가 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단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동하지 않으면 행복하는 거지요. 그런 생활을 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의 여자들은 선생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나쁘려면 얼마나 나빠요! 그렇게 순정의 길을 뒹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체에 그 길을 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몰라요. 오직 선생님만이 아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선생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 뜻을 위하여 봉사한 그 모든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다리를 놓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 아내 되었던 성진이 어머니까지 결혼하라고 통고

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에게 주고 복을 빌어주는 이런 아량을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세계의 상대조건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비참하고도 억울하고 분통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한 번의 실수가 억천만세의 인류의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이런 한의 역사를 거쳐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구요. 뼈가 울어요. 골수가 녹아 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뜻 앞에 있어서 자기를 변명하고 '나 뭐가 어때서 못 가겠어. 무엇 때문에 못 가겠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심정적 사실을 교육받고 느꼈던 것을 결의하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설 거예요? 영계의 밝은 태양 빛 아래에 가야 될 자신이 깜깜한 철혹 같은 지옥 밀창에 가더라도 피할 수 없는 자신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구요.

그래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길을 통고한 거라구요. 하나님의 4대 속성인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그런 부모, 그런 자녀,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가정을 내가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해방할 수 없다는 원통한 역사를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고요. 뭐가 아까워요? 물건과 자식과 자기 부모를 한꺼번에 제물로 바치더라도 풀 수 없는 길이에요.

실증적 사실을 보면서 무슨 미련이 있느냐

이런 뜻 앞에서 뭐 어떻고 어떻고... 선생님이 지금 빗지고 이 놀음을 하고 있는 거라구요. 빗쟁이예요. 그렇지만 뜻길을 연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 판타날 강가에 가지 않으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영원히 살아 있는 거예요. 물은 살아 있어요.

눈물의 바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랑의 골수가 돼 있다는 사실, 그것이 다시 구름이 되어 가지고 이 땅의 만물을 소생시켜서 부활

시키지 않으면 만물이 탄식권 내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고요.

여자들, 알겠어요? 축복받은 가정 여편네가 되어 가지고 그 눈으로 옆을 바라볼 수 없어요. 선생님이 어떠한 일을 해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은 타락한 이 여자들을 찾아갈 길이 없어요. 찾아갈 길이 없다고요. 똥개 중의 똥개 같은 사탄이 사랑하던 품에, 그 흔적도 보고 싶지 않고 그 사랑하던 이불 포대기를 불살라야 할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가요? 어떻게 복귀하는 거예요? 쌍것들! 하나님 대신 오시는 주님의 이름, 신랑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잡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는 본처가 첩을 내세우는 때라고요. 본처는 레아예요. 레아가 라헬의 자리를 도둑질했어요. 성진이 어머니도 레아 입장에 가야 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형제가 하나되어 가지고 동생을 내세울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은 몰라요. 이런 미지의 사실들을 방대한 영계와 방대한 역사의 내용을 중심삼고 이론적으로 한 코에 꿰어 가지고 식자(識者)들, 똑똑한 사람들이 불평할 수 없는 역사적 사상체계를 갖추었다는 사실은 무섭고도 두려운 사실이에요.

이제는 다 실험 필했어요.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중심삼고 전부 다 지배하고 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실증한 사실이라고요. 미국 자체가 선생님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돼먹지도 않은 것들이 전부 구더기 보따리를 싸 가지고 팔아먹고 다니지, 거지 떼거리들같이. 미련이 뭐가 있어요?

아예 축복받은 사람들은 보따리를 싸라는 거예요. 보따리를 싸라는 거예요. 땅이든 무엇이든, 재산이든 전부 다 보따리 싸 가지고 여기 국경 넘어갈 때는 새로이 가니만큼 불살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오기 전

에 여기에 자기 자리를 잡기 위해서 선생님 앞에 부탁해 가지고, 부모님이 복귀해 줘야 돼요. 자기는 못 한다구요. 후대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지금까지 멋대로 살았어요. 뜻을 위해서 살고, 부모님을 위해서 살고, 부모님의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황족이 전부 다 없다구요. 왕이 없고 왕실이 없어요. 왕궁이 없어요. 왕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은 왕족, 직계의 아들딸을 중심삼고 방계적인 왕족들이, 황족들이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 주류를 영원히 만세에 잇기 위해서... 일본 왕실에 대해 말하는 만세일계 팔굉일우(萬世一系 八紘一宇)와 마찬가지로 거예요. 팔굉일우라는 것은 여자 사탄이 그 놀음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여자가 삼각지대를 벌리게 될 때는, 사랑할 때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옛날 해와의 실수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날의 실수로 말미암아 천년 만년의 한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독사의 입보다 무서운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가 독사 대가리와 마찬가지로 천사장의 그 생식기가 독사의 대가리라는 거예요, 독사. 뱀 대가리라는 거예요, 뱀. 꼬였지요? 여자가 그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혈족이. 그것을 복귀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부모님의 묘소 앞에서도 북한 해방을 맹세했다

이번 훈독회가 필요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가들을 통해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영계의 안팎의 모든 것을, 안방까지, 세계의 굴다리까지 전부 다 꿰차 가지고 정정당당한 축복의 코스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길을 안 가겠다고 하면 내가 멸망시킬 거라구요. 거꾸로 꽃아 버릴 거라구요. 선생님이 무서운 사람이라구요.

보라구요. 어머니 아버지, 일족이 선생님이 길을 떠날 때 사지를 껴 안고 목을 안고 통곡하던 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고, 누이동생, 누나들이 붙들고 어디 가려고 하느냐고 제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주할 수 없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 끊고 나서야 됩니다. (녹음이 잠시 중단됨)

홍남 감옥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오려면 통행증을 받아야 돼요. 그 미숫가루를 해 오기 위해서 거지가 돼 가지고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가서 한 숟가락씩 모아 가지고 만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미숫가루를 고통 받는 죄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년이 되어도 면회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옷 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놈의 자식, 너를 위해서 어미가 준비했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망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닮아세우던 일이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어머니가 서글썩으면 통곡하면서 내던 이빨 소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눈물이 소낙비같이 줄줄줄 흐르는 것을 봤다구요.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개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런 어미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어요.

그런 어머니인데, 지난번에 북한에 가 가지고 부모의 묘 앞에 서게 될 때 누이동생이 통곡을 하는 자리에서도... 누이동생이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고대하던 아무개 여기 왔소!’ 하고 통곡한 거예요. 내가 통곡을 하면 창자가 끊어질 수 있는 자리라구요. 정이 많은 선생님께서 그 자리를 극복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았습시다.

‘내가 이번에 찾아온 것은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지, 성묘를 하러 찾아온 것이 아니요. 원수들이 바라보는 눈앞에서 북한 백성들보다 어미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왔다고, 그 공산당 패가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는

이런 말을 나에게 걸고 할 것이 아니요?’ 하면서 그 자리를 찾았던 것을 내가 잊지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자식의 도리를 못 했어요. 남북을 통일해 가지고 역사와 더불어, 선조들과 더불어 후대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 찾아와 가지고 부모님을 뵙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별의별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 놀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권이 알아요, 공산권이.

선생님이 가정을 희생시켰듯이 여러분도 그래야

그런 선생님을 뒤따라가겠다고 하면서 허락하신 축복의 모든 전부를 무가치한 행동 자체로써 타고 올라가는 도적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천년 만년 한의 심정을 회개하고, 뼈가 부러지고 골수가 녹아나는 이런 원한을 다 풀고, 뼈가 울고 골수가 울고 살이 울고 이 가족이 울 수 있는 입장에서, ‘천년 만년 땅 위에 당신 자신이 이것을 이루소서!’ 하며 천년 만년 옴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가서 일으켜 줘야 되고 하나님이 앞에 가서 일으켜 주어야 일어날 수 있는 죄인 된 것을 자각해야 할 통일교회 축복가정이에요. 그 못된 거지 패들, 똥구덩이를 파던 그 몸을 중심삼은 그 아들딸을….

선생님의 아들딸을 포기하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했어요. 선생님의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교육했다구요. 가정을 수습 못 했으니 내가 아들딸을 불러 가지고 훈시할 수 없어요. 이제 자식을 훈시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위 기대를 이렇게 완성했지만, 통일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축복 받은 그 날부터 이루지 못했던 모든 뜻을 전부 다 정리해 놓고 아들딸 앞에 훈시해야 할 때를 바라 가지고 이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자기 중심삼고 입이 살아 가지고 나불거리고, 눈이 살아 가지고 껌 백거리 가지고 보고 듣고 그 일신이 거동했다는 사실은 천년 만년 심판의 불구덩이에 사라져 버려야 된다고 해도 타당하다는 것을 의식해야 할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어요? 「예.」 처넣어야 할 여러분이에요.

다 끊고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 해와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니, 내 자신이 축복한 가정을 내가 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참부모의 책임이라고 해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이거 짓는 데 1년 8개월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언제 한푼이라도 도와줬어요? 선생님이 거지 모양이 되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그래, 혼동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3회 때 확실히 여러분을 대해서 얘기했으니, 여러분이 일족을 모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서 지금까지 3억6천만쌍 축복받은 사람들을 전부 다 지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물건이라든가 자식들이라든가 자기 부부를 희생해야 돼요.

*알겠어요, 일본 멤버들? 심각한 거라고요. 3대가 걸려요. 선조가 걸리고, 일본 자체가 걸리고, 일본의 후손들이 걸린다구요. 무서운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3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혼시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축복가정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혼동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예.」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기도하라고요. *

文鮮明先生말씀選集 <第306卷>

印刷 2003年 12月 20日
發行 2003年 12月 30日
編者 文鮮明先生말씀編纂委員會
發行者 黃 善 祚
發行所 (株) 成 和 出 版 社
住所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72 - 1
電話番號 715-3894 ~ 6, 701-0110(청파서점)
FAX番號 701-1991
登錄番號 제3-98호
登錄日 1961年 5月 20日
